2022
서울디자인
백서

2021-2022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비매품 | 무료

ISSN 2982-7108

서울특별시

Seoul Design Foundation 서울디자인재단

사업 구분

| 서울시
| 서울디자인재단

목차

1. 서울디자인정책

1-1. 비전과 전략
| 1-1-1. 서울시 06
| 1-1-2. 서울디자인재단 09

1-2. 조직과 예산
| 1-2-1. 서울시 11
| 1-2-2. 서울디자인재단 17

1-3. 제도
| 1-3-1. 공공디자인 23
| 1-3-2. 유니버설디자인 25
| 1-3-3.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6
| 1-3-4. 공공미술 28

1-4. 운영 시설
| 1-4-1. DDP 32
| 1-4-2. 서울새활용플라자 36
| 1-4-3. 서울디자인창업센터 38

2. 경제·산업

주요 배경 44

2-1. 디자인산업
| 2-1-1. 서울디자인 48
| 2-1-2. 서울디자인 브랜드 개발 68
| 2-1-3. DDP디자인스토어 73
| 2-1-4. 서울디자인창업센터 76
| 2-1-5. 디지털디자인 80

2-2. 새활용산업
| 2-2-1. 새활용기업 지원 86
| 2-2-2. 새활용산업 지원 93

주요 성과 102

3. 사회

주요 배경 106

3-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 3-1-1. 서울디자인컨설턴트 110
| 3-1-2. S-돌봄 디자인 115
| 3-1-3. 사회이슈 대응형 디자인 118
| 3-1-4.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120
| 3-1-5.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124
| 3-1-6. 인지건강 디자인 126
| 3-1-7.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128
| 3-1-8. 디자인거버넌스 운영 131
| 3-1-9. 서울디자인국제포럼(SDIF) 134

3-2. 유니버설디자인

| 3-2-1.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140
| 3-2-2. 가이드라인 개발 143
| 3-2-3. 초등학교 인성·창의 교육 146
| 3-2-4. 초고령사회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148
| 3-2-5. 유니버설디자인센터 150
| 3-2-6.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158

주요 성과 168

4. 도시·환경

주요 배경 172

4-1. 공공디자인

| 4-1-1.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176
| 4-1-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180
| 4-1-3.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발굴·개발 182
| 4-1-4. 안전디자인 186
| 4-1-5. 펀(FUN) 디자인 프로젝트 194
| 4-1-6. WE UP 프로젝트 196

4-2. 공공미술

| 4-2-1. 공공미술 작품 유지·관리 202
| 4-2-2. 정책 기반 조성 204
| 4-2-3. 시민 참여 프로젝트 207
| 4-2-4. 공공미술 작품 설치 216

주요 성과 228

5. 문화

주요 배경 232

5-1. 전시

| 5-1-1. 기획전시 236
| 5-1-2. 상설전시 240
| 5-1-3. DDP 협력전시 244
| 5-1-4. DDP 오픈 큐레이팅 250
| 5-1-5. D-숲 전시 254

5-2. 행사

| 5-2-1. 서울라이트 260
| 5-2-2. DDP 시즌콘텐츠 268
| 5-2-3. DDP 디자인마켓 276
| 5-2-4. DDP 포럼 278
| 5-2-5. DDP 투어 282
| 5-2-6. 서울디자인어워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284

주요 성과 289

6. 소통

주요 배경 294

6-1. 연구

| 6-1-1. 디자인 연구 298
| 6-1-2. 매거진 라이브러리 302
| 6-1-3. 디자이너 아카이빙 305
| 6-1-4. 서울디자인 자산 306

6-2. 교육

| 6-2-1. 미래세대 디자인교육 308
| 6-2-2. 새활용 교육 313

6-3. 네트워크

| 6-3-1. 글로벌 네트워크 317
| 6-3-2. DDP멤버십 321

주요 성과 324

부록 326

1
서울디자인정책

1-1. 비전과 전략
- 1-1-1. 서울시
- 1-1-2. 서울디자인재단

1-2. 조직과 예산
- 1-2-1. 서울시
- 1-2-2. 서울디자인재단

1-3. 제도
- 1-3-1. 공공디자인
- 1-3-2. 유니버설디자인
- 1-3-3. 사회문제해결디자인
- 1-3-4. 공공미술

1-4. 운영 시설
- 1-4-1. DDP
- 1-4-2. 서울새활용플라자
- 1-4-3.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사업 구분

- 서울시
- 서울디자인재단

1-1. 비전과 전략

1-1-1. 서울시

서울시의 디자인정책에 있어서 2021년과 2022년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동시에 디자인 도시로의 도약을 다시금 준비하는 시기였다. 2017년 수립한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2018-2021)의 종료 시점이 돌아와 새로운 4개년 계획(2022-2025)을 준비했으며, 2021년 4월 8일 제38대 서울시장으로 오세훈 시장이 복귀해 2022년 7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정책의 방향이 수립되었다.

2021년 9월 15일에는 향후 10년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이 발표되었다. 「서울비전 2030」의 비전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로, 2030년까지의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4가지로 설정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라는 4가지 정책 지향 아래 16대 전략 목표, 78개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디자인정책은 '미래감성도시'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문화예술 중심 감성도시'에 포함되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이 민선 4기 재임 시절에 건립을 추진했던 DDP를 본래의 정체성에 맞게 세계적인 디자인 메카로 육성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이 결합된 '디자인 라키비움(Larchiveum)'을 조성하고 디자인 페어, 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강공원 등 주요 공원에는 공공미술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미디어파사드 같은 예술 축제를 열어 서울의 대표 볼거리로 만든다는 계획도 디자인정책 주요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로 오세훈 시장이 연임하면서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의 핵심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39대 서울시장 취임사에서 '디자인서울 2.0' 추진이 언급되면서 조직 개편과 함께 본격적인 디자인 시정 업무 추진의 동력이 확보되었다. '디자인서울 2.0'의 주요 내용은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해 서울을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로 만들고, 우수 디자인 건축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 영역까지 예술적 감성의 디자인을 확대하고,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서울을 '디자인 랜드마크'로 복원한다는 것이다. 민선 8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에 맞춰 모든 세대를 통합하는 '2023년 서울 공공디자인 진흥 추진 계획'도 9월 발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산업현장 노동자를 위한 표준형 안전 디자인 개발과 디지털 약자를 위한 지하철 정보 디자인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기존에 수립된 서울시 디자인정책의 비전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디자인 도시, 서울', 정책 목표는 '기업의 디자인 활용으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UD) 도시',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로 안전·쾌적한 도시', '일상 속 예술로 매력 있는 도시'였다. 추진 전략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산업 육성', '시민생활환경의 안전·편리성 향상 및 UD 확산 기반 조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확대 기반 조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으로 설정하고 디자인정책을 구현해 왔다.

2021 서울시 디자인정책 비전과 전략

비전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디자인도시, 서울

정책 목표

- 기업의 디자인 활용으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로 안전·쾌적한 도시
- 일상 속 예술로 매력있는 도시

추진 전략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산업 육성	시민생활환경의 안전·편리성 향상 및 UD 확산 기반 조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확대 기반 조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추진 계획

· DDP와 디자인 커뮤니티 활동을 연계한 디자인산업 저변 강화 · 디자인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디자인 일자리 창출 · 기업의 상품·서비스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증대 및 마케팅 지원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보급·평가 체계 구축 · 공공공간 및 복지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보행친화도시 고도화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개선 및 확산	· 범죄·폭력 예방 관련 서비스디자인 추진 및 확산 · 인간의 생애주기별 '라이프 디자인' 수요 분석을 통한 체계적 정책 구현 · 시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디자인거버넌스 추진 · 시정의 디자인 적극 활용 체계 구축·운영	· 생활권을 연계한 지역 단위 공공미술 구현 · 도시 공간을 활용한 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젝트 ·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빛·미디어아트 전시로 광화문광장 등의 야간 명소화 추진

*자료 기준: 서울시(2022. 8. 31.) 디자인정책담당관 업무 보고

1-1-2. 서울 디자인 재단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 확산과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 12월 16일 설립되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을 통한 변화와 확산을 꿈꾸며, 서울이 직면한 문제들을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서울디자인재단 개요

설립일	2008. 12. 16.
위치	종로구 율곡로 283
인력	정원 160명
주요 사업	DDP 운영, 디자인 기반 사업, 디자인산업 지원
설립 목적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
설립 근거	「민법」 제32조,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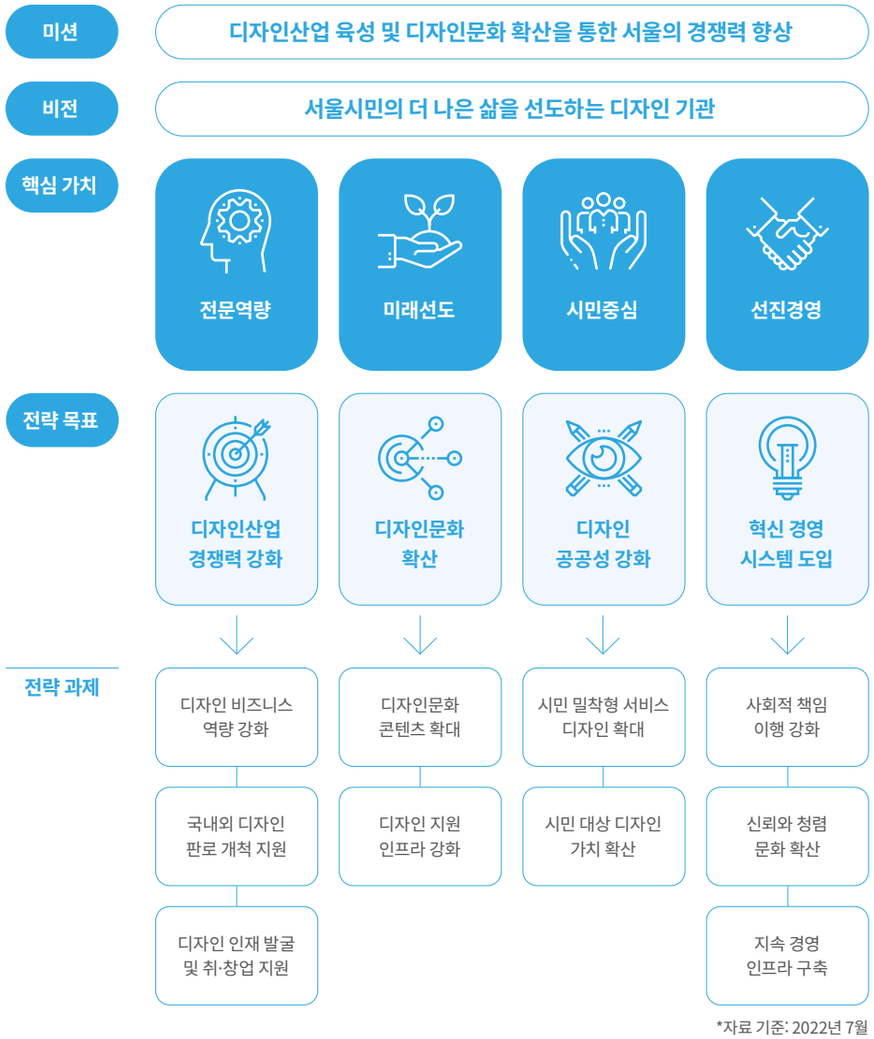
서울디자인재단 연혁

2008.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08. 12.	법인 설립(초대 이사장 권영걸)
2009. 3.	재단 출범(초대 대표이사 심재진)
2009. 1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개장
2012. 1.	제2대 이사회 출범(이사장 안상수)
2012. 3.	제2대 대표이사 취임(대표이사 백종원)
2014. 3.	DDP 개관
2015. 1.	제3대 이사회 출범(이사장 안상수)
2015. 4.	제3대 대표이사 취임(대표이사 이 근)
2017. 9.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2018. 4.	제4대 이사회 출범(이사장 강병길)
2018. 4.	제4대 대표이사 취임(대표이사 최경란)
2020. 7.	서울디자인창업센터 개소
2021. 10.	제5대 이사회 출범(이사장 권영걸)
2021. 10.	제5대 대표이사 취임(대표이사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의 미션은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을 통한 서울의 경쟁력 향상', 비전은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선도하는 디자인 기관'이다. 이에 따라 핵심 가치를 '전문역량, 미래선도, 시민중심, 선진경영'에 두고, 전략 목표는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디자인문화 확산', '디자인 공공성 강화', '혁신 경영 시스템 도입' 4개로 설정했다.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디자인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국내외 디자인 판로개척 지원', '디자인 인재 발굴 및 취·창업 지원'

3개 과제, ‘디자인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디자인문화 콘텐츠 확대’, ‘디자인 지원 인프라 강화’ 2개 과제, ‘디자인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 밀착형 서비스디자인 확대’, ‘시민 대상 디자인 가치 확산’ 2개 과제, ‘혁신 경영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 ‘신뢰와 청렴 문화 확산’, ‘지속 경영 인프라 구축’ 3개를 전략 과제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디자인재단 비전과 전략



*자료 기준: 2022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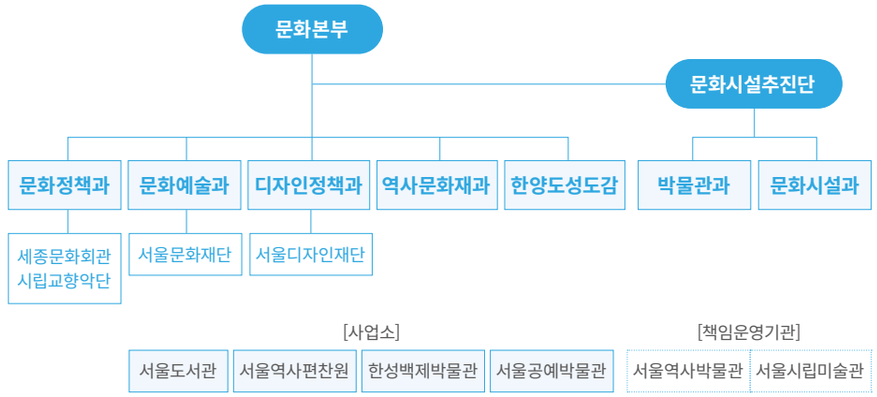
1-2. 조직과 예산

1-2-1. 서울시

조직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 19일 조직 개편 전까지 서울시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디자인정책과는 서울시 문화본부에 속해 있었다. 문화본부는 1본부, 1추진단, 7과, 4사업소, 4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4개의 출연기관 중 하나인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정책과 관할이었다.

서울시 문화본부 조직도



*기간: 2021년 1월~2022년 8월

2021년 기준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디자인정책팀, 공공디자인사업팀, 공공디자인진흥팀, 유니버설디자인팀, 공공미술사업팀, 공공미술진흥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공디자인 업무는 2014년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관되었다가 2018년 8월 30일 자로 디자인정책과로 재편입되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단일 사업이었으나 2020년 7월 10일 유니버설디자인팀으로 분리되었다. 2021년 2월부터 공공디자인관리팀과 공공미술관리팀은 각각 공공디자인진흥팀과 공공미술진흥팀으로 명칭이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

디자인정책과는 2022년 1월부터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진행하던 미디어파사드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기존의 팀 구성에 추가로 빛디자인팀을 신설했다. 전체 7팀이 되면서 정원은 2021년 32명에서 2022년 3명이 증가해 35명이 되었다.

2022년 7월 7일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 핵심 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 8기 서울시정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해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를 구현할 디자인정책관이 행정2부시장 직

속으로 신설되면서 기존 문화본부에 속해 있던 디자인정책과도 디자인정책관으로 이관되었다. 해당 조직 개편 내용이 반영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디자인서울 2.0'을 본격 추진할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도시빛정책에 관한 업무를 맡아 3과(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산업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와 서울디자인재단을 총괄하게 되었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조직도와 주요 업무]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정책팀	· 디자인정책 주요 업무 계획 수립 · 서울디자인재단 지도·감독 · 서울디자인재단 경영 혁신 및 DDP 운영 개선 · DDP 위탁운영 관리	· 서울라이트 행사 및 거버넌스 구축 · 인사, 시의회, 공유 재산, 감사, 교육, 상훈,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빛 디자인팀	· 빛·미디어아트 기본 계획 수립 · 빛·미디어아트 관련 실태 조사 및 분석 · 빛·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기획 및 전시·확산 추진	· 빛·미디어아트 사업(서울 빛축제 2022, 서울 빛섬 축제, DDP 및 광화문광장 등 미디어파사드 축제) · 빛축제 및 미디어아트 통합 브랜딩 전략 구축
공공디자인 사업팀	·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 디자인 행정서비스 ·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사업 · 서울디자인 국제 포럼	· 디자인거버넌스 사업 ·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 인지건강 디자인 사업 · 서울서체 유지·관리 및 확산
공공디자인 진흥팀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표준형 디자인 개발 및 보급 ·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 스타트업 공공디자인 전문 기업 육성	·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 운영 ·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및 경관심의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클리닉 운영
유니버설 디자인팀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 설정 및 종합계획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 및 지도·감독 ·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	· 공공안내체계 유니버설디자인 개선 사업 ·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미술 사업팀	· 지역 단위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및 운영 · 대학 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 시민 아이디어 구현 프로젝트 추진 · 공공미술축제 추진	·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추진 ·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추진
공공미술 진흥팀	· 공공미술 작품 유지·관리 ·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 운영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 시민발굴단 추진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 개최 · 자치구 보조금 사업 추진

*기준: 2022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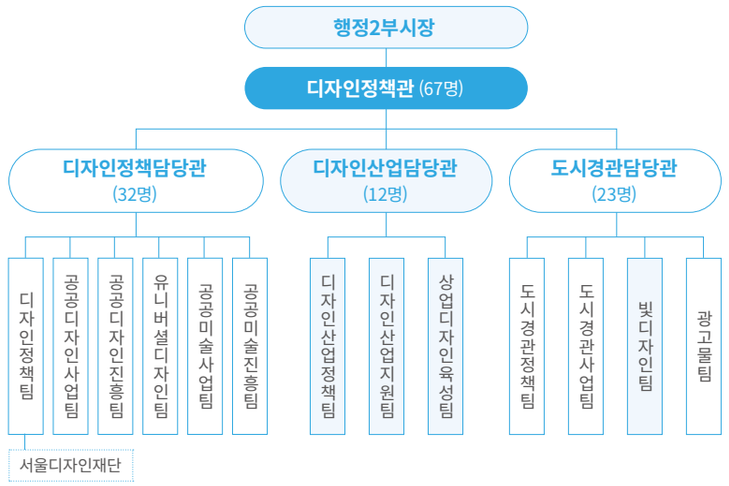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

직위	주요 업무
디자인정책관	· 디자인을 통한 글로벌 Top 5 매력도시 조성 - 디자인서울 2.0 수립 총괄 - 디자인정책, 디자인산업정책, 도시경관정책 총괄 조정 - 디자인서울 2.0 관련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채널 구축
	· 디자인서울 2.0 추진 체계 구축 및 핵심 사업 추진 - 공공디자인 확산 및 디자인거버넌스 확대 추진 - 도시디자인 관점의 공공미술 사업 추진 및 랜드마크 조성 - 디자인서울 2.0 성과 공유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
	· 디자인산업 생태계 지원을 통한 서울의 경제 활성화 - 디자인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 DDP를 활용한 디자인산업 활성화 기반 추진 - 디자인 기업 및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디자인이 주도하는 도시경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도시디자인과 융합된 도시경관 발전전략 수립 - 공공 및 민간부문의 획기적인 도시경관 개선 사업 추진 - 빛 미디어아트 등을 통한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 추진 - 체계적인 옥외 광고물 정비 사업 및 심의제도 운영 등

*출처: 디자인정책관(개방형 3호) 공개모집(2022. 8. 26.), https://www.seoul.go.kr/news/news_employ.do#view/369247?tr_code=snews

디자인정책관은 임기 2년의 국장급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을 통해 최인규 교수(인제대학교 멀티미디어학부)가 선발되었다. 2022년 9월 29일 공식 임용된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2007년부터 3년간 전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디자인지원실장으로 일하며 서울상징과 서울색, 서울서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실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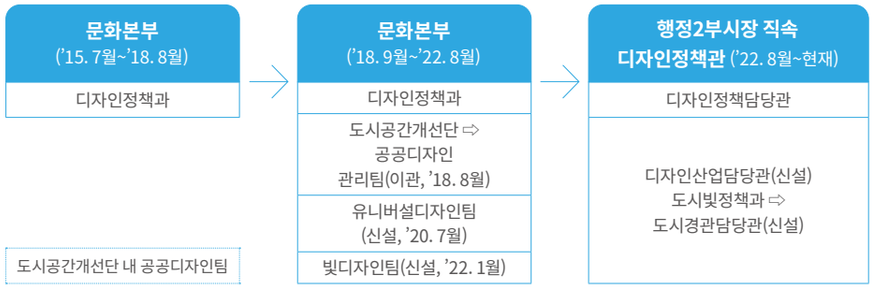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조직도



*출처: 디자인정책관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 안내 자료

2022년 8월 19일 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가 디자인정책관으로 이관되었으며, 기존 디자인정책과의 빛디자인팀이 도시빛정책과로 통합되었다. 또한 디자인산업담당관 아래 디자인산업정책팀, 디자인산업지원팀, 산업디자인육성팀 3개 팀이 신설되었다.

[서울시 디자인정책 담당 조직의 변화]



예산

2021년 서울시 문화본부의 예산은 524,069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디자인정책과에 편성된 예산은 35,528백만 원으로 2020년 결산 대비 44.4%가 감소했다.

[2021년 서울시 문화본부 및 디자인정책과 예산]

직위	2021 예산	2020 결산	증감액	증감률(%)
문화본부	524,069	593,551	△69,481	△11.7
디자인정책과	35,528	63,914	△28,386	△44.4

*출처: 서울시 2021년 예산서-문화본부,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22208 (단위: 백만 원)

2022년 서울시 문화본부 예산은 총 608,011백만 원이 편성되어 2021년 결산 대비 8.9%가 증가했다. 이 중 디자인정책과 예산은 32,207백만 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11.1%가 감소했다. 디자인정책과는 문화본부 소속에서 2022년 8월 19일 행정2부시장 직속 디자인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2022년 서울시 문화본부 및 디자인정책과 예산]

직위	2022 예산	2021 결산	증감액	증감률(%)
문화본부	608,011	558,272	49,739	8.9
디자인정책과	32,207	36,213	△4,006	△11.1

*출처: 서울시 2022년 예산서-문화본부,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35760 (단위: 백만 원)

서울시 디자인정책 사업 예산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의 '디자인 역량 강화' 정책 실현을 위한 단위 사업은 크게 'SOFT서울 기반구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로 구분된다. 단위 사업 'SOFT서울 기반구축'의 세부 사업은 18개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212억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는 코로나19로 활동이 축소된 미술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한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편성된 것이다. 단위 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에 속한 세부 사업은 14개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예산이 9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에 운영된 'SOFT서울 기반구축'의 세부 사업 6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의 세부 사업 3개는 종료되거나 2022년에 타 세부 사업으로 통합·진행되었다.

[2021년 서울시 디자인정책 사업 예산]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21 예산(원)	비고
기본 경비	기본 경비	66,129,000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21,197,305,000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89,200,000	
	시민 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830,000,000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 운영	650,000,000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2,501,000,000	
	공공서비스 디자인산업 저변 확대	306,000,000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40,000,000	
	지역 단위 공공미술 작품 구현	900,000,000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운영	100,000,000	
	공공미술 시민 아이디어 구현	1,148,140,000	
	서울은 미술관 정책 기반 조성	140,000,000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473,929,000	
	마포 공예 활성화	366,500,000	종료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10,115,580,100	종료
	DDP 화상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1,798,000,000	종료
	지역 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	1,678,000,000	종료
	디자인마케팅 지원 활성화 방안 구축	50,000,000	종료
	서울 명소 드로잉 콘텐츠 발굴	150,000,000	종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96,000,000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360,000,000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120,000,000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440,200,000	
	범죄예방 디자인	278,900,000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571,600,000	
	인지건강 디자인 추진	273,000,000	
	디자인거버넌스 운영	474,401,000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추진	271,600,000	
	사회이슈 대응형 디자인 개발 및 적용	150,000,000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	121,600,000	종료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951,086,000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90,000,000	종료
	초고령화사회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298,000,000	종료
	디자인 행정 서비스 지원	90,000,000	

*출처: 서울시 2021년 예산서-문화본부, 서울재정포털

2022년 'SOFT서울 기반구축'의 세부 사업은 15개로 미디어아트와 공공시설물 관련 세부 사업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다.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은 232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20억 원가량 증가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의 세부 사업은 총 13개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 기반 조성' 예산이 추경으로 추가되며 크게 증가했다. '읽기 쉬운 디자인도시 서울 조성'과 '서울디자인국제포럼'사업은 2022년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2년 서울시 디자인정책 사업 예산]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22 예산(원)	비고
기본 경비	기본 경비	65,143,000	
SOFT서울 기반구축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23,287,148,000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139,700,000	
	시민 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694,200,000	
	서울 아트스테이션 전시 운영	500,000,000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1,250,000,000	
	공공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227,800,000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40,000,000	
	지역 단위 공공미술 작품 구현	1,114,130,000	
	공공미술 시민 아이디어 구현	505,500,000	
	서울은 미술관 정책 기반 조성	340,000,000	
	공공미술 작품 유지·관리	473,000,000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운영	350,000,000	추경
	미디어아트 빛예술 정책 기반 조성	50,000,000	추경
	시민 힐링 프로그램 및 시설물 개발	200,000,000	추경
	시민 휴식공간 조성	100,000,000	추경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78,780,000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210,000,000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301,000,000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253,800,000	
	범죄예방 디자인	178,500,000	
	인지건강 디자인 추진	173,000,000	
	디자인거버넌스 운영	79,700,000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추진	172,000,000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1,432,614,000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 기반 조성	1,425,800,000	추경
	읽기 쉬운 디자인도시 서울 조성	80,000,000	신규
	서울디자인국제포럼	180,000,000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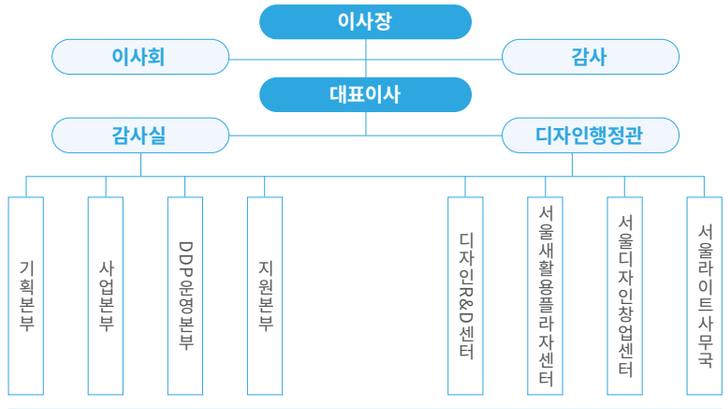
*출처: 2022년 예산서-문화본부, 서울재정포털

1-2-2. 서울 디자인 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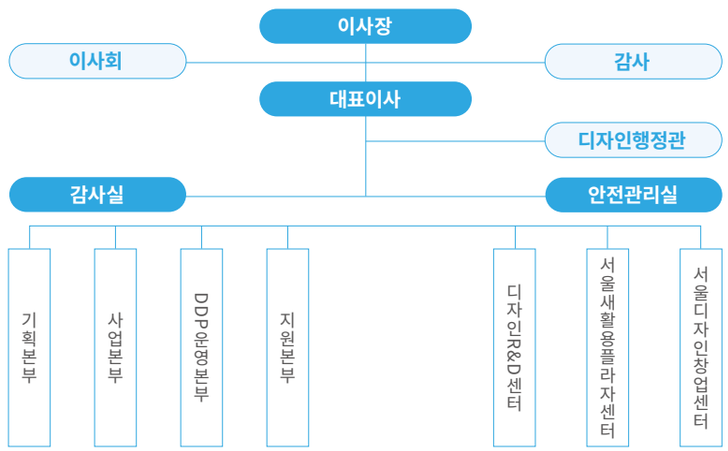
조직

2021년 서울디자인재단 조직은 4본부 1실 1관 3센터 1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2021년 1월에는 디자인 연구와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디자인R&D센터 내 디자인연구팀과 디자인교육팀이 신설되는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 정책에 따라 2021년부터 재단의 패션·봉제 사업이 서울시 경제정책실로 이관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패션사업팀과 패션산업팀은 폐지되었다. 2021년 12월 30일에는 조직이 1관 2실 4본부 3센터로 개편되면서 안전관리실이 신설되고 서울라이트사무국이 폐지되었다. 안전관리실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0조(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에 따라 대표이사 직속 안전보건관리 기구로 설치되었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라이트사무국 관련 업무는 DDP운영본부로 이관되었다.

2021년 서울디자인재단 조직도



2022년 서울디자인재단 조직도



[서울디자인재단 본부별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기획본부	재단 비전에 따른 전략 수립과 이에 기준한 정책·홍보 기획 등
정책기획팀	- 재단 중장기 비전 및 예산·사업 계획 - 시·의회·이사회, 경영 평가, 재단 규정 제·개정 등
홍보팀	- 국내외 홍보 및 언론·매체 협력 - 홈페이지, 뉴미디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사업본부	디자인 공공성 강화 및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디자인산업팀	- '서울디자인 2022' 기획·운영 - 디자인산업 지원 사업 'DDP디자인페어'
디자인브랜드팀	- DDP디자인스토어 브랜드 발굴 및 기획상품 개발 - 우수 디자인 상품 국내외 브랜드 확산
디지털디자인팀	- 메타버스 기획·운영 및 NFT 디자인사업 확산 지원 - 서울디자인컨설턴트 기획·운영
DDP운영본부	시설·공간 관리, 전시 및 교육 등 DDP 전반의 계획과 운영 등
마케팅팀	- DDP 대관 운영, 기획 및 마케팅 - DDP 운영 전략 수립 및 실행 관리
전시1팀	- DDP 기획전시 및 대내외 협력전시 기획·운영 - 청년 창작자 양성 사업 및 포럼 기획·운영
전시2팀	- 시민 참여 문화 행사 및 협력 콘텐츠 유치 - 서울라이트 기획·운영, DDP 투어 기획·운영
시설팀	- DDP 시설 관리 - DDP 임대사업 운영
지원본부	인사시스템, 효율적 업무 인프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경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수행 등
인사팀	- 인사관리(채용, 평가 등) - 임직원 교육 기획·운영, 조직문화 개선 등
총무팀	- 전산 지원 기획·운영, 총무, 행정 정보 공개 - 업무 프로세스 혁신 관리, 직원 복지제도 운영, 사회공헌 활동 등
재무팀	- 계약 및 공공구매 운영 - 예산 집행 관리, 회계 및 세무 관리 등
디자인R&D센터	디자인교육 및 디자인 연구 총괄
디자인전략팀	- 연구·사업 결과 아카이빙, 교육 기획·운영 - DDP <매거진 라이브러리> 기획·운영
대외협력팀	- 디자인어워드 운영, 서울디자인자산 사업 - 유네스코디자인창의도시 등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시민 대상 새활용 디자인 인식 제고 활성화 및 서울새활용플라자 관련 사업 기획, 콘텐츠 운영, 공간 및 시설 운영 등
새활용사업팀	- 서울새활용산업 육성 및 문화 확산 - 서울새활용플라자 공간 콘텐츠 운영
새활용시설팀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안전 관리 - 입주 기업 공간 및 대관 시설 관리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서울디자인창업센터 기반으로 청년 디자이너 육성과 창업 활동을 위한 사업 기획 및 각종 지원 업무 수행 등
안전관리실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업무
감사실	감사, 청렴·윤리경영, 분쟁·소송, 재단 감사(이사회) 업무 지원

*자료: 서울시 업무 보고(2022. 8. 19.), 재단 주요 업무 보고(2022. 9.)

재단 이사회는 이사 11명, 감사 2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10월 1일에는 이경돈 대표이사와 권영걸 이사장이 취임하며 5대 이사회가 출범했다. 신임 대표이사와 이사장은 2021년 8월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통해 서울시장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이 외 선임직 이사 6명과 선임직 감사 1명을 신규로 임명했다. 2022년 8월에는 서울시 조직 개편으로 당연직 임원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2022년 3월 10일에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연임 단위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다.

[서울디자인재단 이사회 구성]

총 인원	이사장	대표이사	선임직		당연직	
			이사	감사	이사	감사
13	1	1	7	1	2	1

*출처: 재단 내부 자료(기준: 2022. 11. 29.)

예산

서울디자인재단의 2021년 세출 결산 총계는 50,659,694천 원으로 2020년 결산 대비 26.3%(18,035,195천 원) 감소했다. 이는 2020년까지 재단에서 진행하던 '패션·봉제' 부문 사업 예산(14,437,600천 원)이 서울시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 거점반으로 이관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2021년 서울디자인재단 결산]

구분	2021 결산	2020 결산	증감액	증감률(%)
서울디자인재단	50,659,694	68,694,889	△18,035,195	△26.3%

*단위: 천 원

2022년 재단의 세출 예산 총계는 47,669,185천 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5.9%(2,990,509천 원)이 감소했다.

[2022년 서울디자인재단 결산]

구분	2022 예산	2021 결산	증감액	증감률(%)
서울디자인재단	47,669,185	50,659,694	Δ2,990,509	Δ5.9%

*단위: 천 원

2021년 디자인사업 부문에는 총 38,833,08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디자인 공공성 강화' 2,500,000천 원, '디자인문화 확산' 16,867,902천 원,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5,125,000천 원, '혁신 경영 시스템' 2,119,400천 원이 집행되었다. 디자인사업에서는 '감염 예방 디자인사업', 'DDP 직영공간 운영사업', 수탁 사업에서는 'DDP 화상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청년 디자이너 양성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2021년 서울디자인재단 세출 예산]

* 단위: 천 원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	2021년(A)	2020년(B)	증감액(A-B)	증감률
총계				50,659,694	68,694,889	△18,035,195	△26.3%
디자인사업				38,833,089	38,833,089	△4,952,784	△11.3%
	디자인 공공성			2,500,000	2,225,000	275,000	12.4%
		시민 밀착형 서비스 디자인		900,000	600,000	300,000	50.0%
			서울디자인 컨설턴트	250,000	250,000	-	0.0%
			서울돌봄 디자인사업	350,000	350,000	-	0.0%
			감염 예방 디자인사업	300,000	-	300,000	신규
		시민 대상 디자인 가치확산		1,600,000	1,625,000	△25,000	△1.5%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700,000	700,000	-	0.0%
			생애주기 디자인교육	700,000	850,000	△150,000	△17.6%
			디자인사업 연구·개발	200,000	75,000	125,000	166.7%
	디자인문화 확산			16,867,902	20,063,876	△3,195,974	△15.9%
		디자인문화 콘텐츠 확대		3,950,000	4,413,718	△653,718	△14.8%
			서울라이트	1,500,000	733,718	66,282	9.0%
			서울디자인위크	1,300,000	380,000	680,000	178.9%
			디자인뮤지엄 기획전시	700,000	2,700,000	△1,200,000	△44.4%
			야외 공간 활성화	450,000	600,000	△200,000	△33.3%
		디자인 지원 인프라 강화		12,917,902	13,732,954	△815,052	△5.9%
			DDP 공간 활성화 서비스	300,000	1,580,500	△1,280,500	△81.0%
			DDP 직영공간 운영사업	500,000	-	500,000	신규
			DDP 시설 운영	2,820,772	3,695,454	△874,682	△23.7%
			DDP 시설 위탁 운영	9,147,130	8,307,000	840,130	10.1%
			DDP 안전관리	150,000	150,000	-	0.0%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5,125,000	6,706,000	△1,581,000	△23.6%
		디자인 인재 발굴 및 취·창업		1,325,000	2,350,000	△1,025,000	△43.6%
			서울디자인창업센터	1,225,000	900,000	325,000	36.1%
			디자인 대학생 취업 페어	-	1,370,000	△1,370,000	△100.0%
			청년 창작자 양성사업	100,000	80,000	20,000	25.0%
		우수 디자인 상품 개발		1,900,000	2,110,000	△210,000	△10.0%
			서울디자인 브랜드 개발	500,000	460,000	40,000	8.7%
			서울디자인 브랜드전	500,000	560,000	△60,000	△10.7%
			시민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개발	900,000	1,090,000	△190,000	△17.4%
		국내외 디자인 판로 개척 지원		1,900,000	2,246,000	△346,000	△15.4%
			DDP디자인스토어 운영	600,000	546,000	54,000	9.9%
			우수 디자인 상품 마케팅 활성화	450,000	440,000	10,000	2.3%
			DDP디자인페어	850,000	880,000	△30,000	△3.4%
			디자인 네트워크 협력 사업	-	380,000	△380,000	△100.0%
	혁신 경영 시스템			2,119,400	2,009,086	110,314	5.5%
		지속경영 인프라 구축		2,119,400	2,009,086	110,314	5.5%
			경영시스템 효율화 사업	300,000	200,000	100,000	50.0%
			정보인프라 운영	878,400	709,086	169,314	23.9%
			통합 홍보 마케팅	941,000	1,100,000	△159,000	△14.5%
	일반 관리비			12,220,787	12,781,911	△561,124	△4.4%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	2021년(A)	2020년(B)	증감액(A-B)	증감률
	디자인사업 일반 관리비			9,712,089	9,525,796	186,293	2.0%
		인건비		5,986,808	5,738,973	247,835	4.3%
		운영 경비		3,007,202	3,122,432	△115,230	△3.7%
		성과급		718,079	664,391	53,688	8.1%
	DDP일반관리비			2,508,698	3,256,115	△747,417	△23.0%
		인건비		1,766,670	2,210,653	△443,983	△20.1%
		운영 경비		529,799	789,508	△259,709	△32.9%
		성과급		212,229	255,954	△43,725	△17.1%
패션·봉제				-	14,437,600	△14,437,600	△100.0%
수탁 사업				9,241,019	7,885,778	1,355,241	17.2%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2,501,000	3,447,000	△946,000	△27.4%
	DDP 화상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1,798,000	-	1,798,000	신규
	서울새활용플라자			4,268,112	4,438,778	△170,666	△3.8%
	청년 디자이너 양성 사업			673,907	-	673,907	신규
예비비				2,585,586	2,369,532	△216,054	△9.1%
기본 재산 편입				-	216,106	△216,106	△100.0%

2022년 디자인사업 부문에서 '디자인 트렌드 발신' 예산으로는 5,900,000천 원, '디자인문화 확산' 예산으로는 14,310,270천 원,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는 5,250,000천 원, '혁신 경영 시스템' 예산으로는 2,386,000천 원이 편성되었다. 세부 사업으로는 '소장품 상설전시 운영', '디자인 상설전시 운영', '디자인 라이브러리 구축', '디자이너 아카이빙 사업', '디자이너 협력 프로그램 운영', '투어 프로그램 개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2년 서울디자인재단 세출 예산]

* 단위: 천 원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총계				47,669,185	50,659,694	Δ2,990,509	Δ5.9%
디자인사업				40,335,258	38,833,089	1,502,169	3.9%
	디자인 트렌드 발신			5,900,000	3,700,000	2,200,000	59.5%
		자체 기획전시		4,200,000	2,300,000	1,900,000	82.6%
			디자인뮤지엄 기획전시	900,000	700,000	200,000	28.6%
			소장품 상설전시 운영	400,000	-	400,000	신규
			디자인 상설전시 운영	300,000	-	300,000	신규
			서울라이트 운영	2,500,000	1,500,000	1,000,000	66.7%
			청년 창작자 양성 사업	100,000	100,000	-	-
		디자인 라키비움 구축		300,000	-	300,000	신규
			디자인 라이브러리 구축	100,000	-	100,000	신규
			디자이너 아카이빙 사업	200,000	-	200,000	신규
		디자인 지식 확산		1,400,000	1,400,000	-	-
			DDP 디자인어워드	700,000	700,000	-	-
			미래세대 디자인교육	500,000	700,000	200,000	Δ28.6%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디자이너 협력 프로그램 운영	200,000	-	200,000	신규
		디자인문화 확산		**14,310,270**	**15,367,902**	**Δ1,057,632**	**Δ6.9%**
			DDP 명소화	1,400,000	1,250,000	150,000	12.0%
			DDP 시민 참여 문화 행사	1,000,000	950,000	50,000	5.3%
			투어 프로그램 개발	100,000	-	100,000	신규
			DDP 공간 활성화 서비스	300,000	300,000	-	-
			디자인 가치 확산	650,000	2,000,000	Δ1,350,000	Δ67.5%
			유니버설디자인플랫폼 운영	200,000	900,000	Δ700,000	Δ77.8%
			디자인컨설턴트	250,000	250,000	-	-
			디자인사업 연구·개발	200,000	200,000	-	-
			서울돌봄 디자인 사업	-	350,000	Δ350,000	Δ100.0%
			감염예방 디자인 사업	-	300,000	Δ300,000	△100.0%
			디자인 지원 인프라 강화	12,260,270	12,117,902	142,368	1.2%
			DDP 시설 운영 경비	2,860,270	2,820,772	39,498	1.4%
			DDP 시설 관리 인력 운영	9,200,000	9,147,130	52,870	0.6%
			DDP 안전관리	200,000	150,000	50,000	33.3%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5,250,000**	**5,425,000**	**Δ175,000**	**Δ3.2%**
			국내외 디자인 판로 개척 지원	3,550,000	3,700,000	Δ150,000	Δ4.1%
			DDP 디자인페어 개최	1,200,000	850,000	350,000	41.2%
			서울디자인위크 개최	1,800,000	1,300,000	500,000	38.5%
			DDP디자인스토어 운영	550,000	600,000	Δ50,000	Δ8.3%
			서울디자인 브랜드전	-	500,000	Δ500,000	△100.0%
			우수 디자인 상품 마케팅 활성화	-	450,000	Δ450,000	Δ100.0%
			청년 디자인 스타트업 지원 강화	1,700,000	1,725,000	Δ25,000	Δ1.4%
			서울디자인창업센터	1,200,000	1,225,000	Δ25,000	Δ2.0%
			서울디자인 브랜드 개발	500,000	500,000	-	-
		혁신 경영 시스템		**2,386,000**	**2,119,400**	**266,600**	**12.6%**
			지속 경영 인프라 구축	2,386,000	2,119,400	266,600	12.6%
			경영 시스템 효율화 사업	355,000	300,000	55,000	18.3%
			정보 인프라운영	1,090,000	878,400	211,600	24.1%
			통합 홍보 마케팅	941,000	941,000	-	-
		일반 관리비		**12,488,988**	**12,220,787**	**268,201**	**2.2%**
			디자인사업 일반 관리비	9,495,961	9,712,089	Δ216,128	Δ2.2%
			인건비	6,733,353	6,704,887	28,466	0.4%
			운영 경비	2,762,608	3,007,202	Δ244,594	Δ8.1%
			DDP 일반 관리비	2,993,027	2,508,698	484,329	19.3%
			운영 경비	2,441,690	1,978,899	462,791	23.4%
			성과급	551,337	529,799	21,538	4.1%
		수탁 사업		**6,776,562**	**9,241,019**	**Δ2,464,457**	**Δ26.7%**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1,250,000	2,501,000	Δ1,251,000	Δ50.0%
			DDP 화상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	1,798,000	Δ1,798,000	Δ100.0%
			서울새활용플라자	4,591,880	4,268,112	323,768	7.6%
			청년 디자이너 양성 사업	395,428	673,907	Δ278,479	Δ41.3%
			2021 수탁 사업 반환금	539,254	-	539,254	신규
		예비비		**557,365**	**2,585,586**	**Δ2,028,221**	**Δ78.4%**

1-3. 제도

1-3-1. 공공 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게 되어 있다.

2021년에는 「공공디자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디자인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시장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를 위한 시책과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기능에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를 위한 자문 내용을 추가해 9월 30일 시행했다.

2022년에는 민선 8기 서울시정 조직 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시정 핵심 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조직 개편으로 '디자인정책관'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문화본부장'을 '디자인정책관'으로 개정해 8월 19일 시행했다.

시행일	2021 (2021. 9. 30.)	2022 (2022. 8. 19.)
개정 내용	· 제3조제1항 중 '진흥과'를 '진흥 및 통합관리와'로 한다. · 제8조제1항제1호 중 '진흥'을 '진흥 및 통합관리'로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7호 중 '문화본부장'을 '디자인정책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시공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기반 시설과 공공 가로 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울의 품격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현황]

합계	당연직	시의원	공간·공공	산업	시각	색채	유니버설	건축	경관
49	1	3	5	3	5	3	6	3	4
	조경	서비스 디자인	범죄학	사회학	정책학	구조	교통	조명	미디어
	3	3	2	1	1	2	1	2	1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조경, 색채, 유니버설, 경관, 환경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공공디자인 관련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연구(연구분과 운영)'이다. 심의 대상은 사회 기반 시설,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이미지, 유니버설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등이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월 2회 개최된다. 2021년에는 20회의 회의가 개최되어 138개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2022년에는 21회의 회의가 진행되어 129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결과]

연도	구분		심의결과				
	개최 횟수	안건 수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	유보	의견 제시 등
2021	20회	138건	5건 (3.6%)	85건 (61.6%)	39건 (28.3%)	3건 (2.2%)	6건 (4.3%)
2022	21회	129건	4건 (3.3%)	64건 (49.6%)	59건 (45.7%)	-	2건 (1.6%)

*기준: 2022년 12월

1-3-2.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는 2016년 5월 10일 제정되었으며, 공공 부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해 2021년 7월 20일 조항이 전면 개정되었다. 2020년 8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 이념, 적용 범위 등 정책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공 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등의 준수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항을 전면 개정하면서 조례상 위계에 따른 조항 순서를 조정하고 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별표 1]에 규정된 심의 대상 사업 4개 분야 중 보도와 교통이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관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별표 2]에 따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정보 매체, 시설물, 공간, 지역,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이념과 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비할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개정 내용]

조항	내용
제2조	'시민'의 정의를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정의를 추가함
제3조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이념을 정비함
제7조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비함
제10조 및 제11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원칙 및 지침 준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3조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 사항 정비 및 도시공원위원회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추가함
제20조 및 제21조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제22조 및 제22조의2	유니버설디자인에 시민의 참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별표 1 및 별표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

[별표 1_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

구분	심의 대상	비고
보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2호의 도로 중 보도가 포함된 도로 또는 그 부속물의 신설, 확장, 개량, 보수 등에 관한 사항(단, '부속물'의 경우 설치 방법 및 배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관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위원회 소관
건축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업무 시설, 문화 시설, 집회 시설, 노유자 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소관
교통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2조제3호가목의 버스터미널·정류소 및 나목부터 마목의 시설(표지판·안내 사인 등 그에 부가된 편의 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관

[별표 2_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분류	정보 매체	시설물	공간	지역	프로그램
세부항목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 매체 디자인	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 행사 등 프로그램

1-3-3.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조례

2018년 1월 4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는 디자인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역량을 활용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2020년 3월 26일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적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자 제3조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정비한 이후 추가 개정 사항은 없었다.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1. 고령화, 저출생, 다문화가족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2. 성별, 인종, 장애 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3.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4.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5. 공중위생, 층간소음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6.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7.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8.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 계획(2021-2023)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 계획은 조례 제7조①항에 따라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2년도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최초 도입 이후 10년을 맞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서울특별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될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기본 계획에서 비전은 '사회적 회복력 있는 시민 중심 디자인 도시 구현', 목표는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정책 확산'으로 수립되었다. 추진 전략은 첫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모든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설계, 둘째,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이슈 대응형 정책-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니즈 충족, 셋째, 역량 강화를 통해 회복력을 높이는 융합 조직형 정책-거버넌스와 교육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세워졌다. 기본 계획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확산을 위해 사회문제 또는 수혜 시민의 특성 등에 따라 '사업 고도화 및 확산형', '이슈 대응형', '인프라/시스템 구축형'으로 사업을 유형화해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기본 계획 (2021-2023)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 계획(2021-2023)

비전

사회적 회복력 있는 시민 중심 디자인 도시

정책 목표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정책 확산

정책 추진 방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수요자 맞춤형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이슈 대응형	역량 강화를 통해 회복력을 높이는 융합조직형
모든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설계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니즈 충족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 서비스 혁신

추진 전략

① 사회문제에 선제적 대응 (문제 발굴)	② 사업 추진 및 기반 구축 (거버넌스)	③ 사업 고도화 및 확산 (수혜 대상 확대)	④ 인식확산과 가치 공유 (교육 및 네트워크)

유형

사업 고도화 및 확산형	이슈 대응형	인프라/시스템 구축형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디자인적 접근으로 심화 및 확산 가능성이 높은 유형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이슈 해결을 위한 디자인적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유형	지속 가능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해 기반이 되는 유형

*출처: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 계획(2021-2023) p.98, p.101.

1-3-4. 공공미술

조례

2017년 5월 18일 제정되어 11월 19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0년 10월 5일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으며 2021년 4월 시행규칙까지 전부 개정 시행되었다.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술 작품 설치계획서 제출 시기를 건축 허가 전에서 착공 신고 시로 변경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작가 또는 작가 대리인에게 발표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을 마련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2022년에는 상위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미술 작품'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 시행(개정 2022. 1. 18., 시행 2022. 7. 19.)되면서, 서울시 조례에서 이미 추진 중이던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8월 18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위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는 조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정비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작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정책, 제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지속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부칙에 2027년 11월 18일까지로 명시되었으며, 개정된 조례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구분		시행	내용
2021	조례	2021. 4. 5.	가. 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함(제8조). 나.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 신고 시 제출하도록 함(제19조). 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일반 시민을 위촉하며,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시행규칙	2021. 4. 6.	가. 공공미술 심의 예외 대상인 '일시적인 설치'에 대한 기준을 '30일 미만'으로 구체화함(제2조). 나. 공공미술위원회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위촉 시 전문가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를 구성하도록 함(제3조). 다. 공공미술위원회의 공공미술 작품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건축물 미술 작품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공공미술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1조). (1) 생애 기간이 만료된 작품 및 무단 설치된 작품에 대해 조치하도록 규정함. (2) 공공미술을 공공미술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
2022	시행규칙	2022. 8. 18.	별지 제9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함
	조례	2022. 11. 19.	가.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 기한(2027. 11. 18.)을 명시함(부칙 제1~2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해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 작품에 대한 예술성, 공공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위원은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며, 2021년에는 16회의 회의가 개최되어 총 282건의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126건을 승인했다. 2022년에는 총 14회의 회의가 열렸으며, 273건의 작품을 심사해 162건을 승인했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주요 변경 내용]

구분	조례 제정 전	조례 제정 후('17. 11. 19.)	현행(조례 일부 개정, '21. 4. 5.)
위원 구성	80명 이내, 매 심의 시 13명 이내 구성 (윤번제)	20명 이내, 매 심의 시 과반으로 구성	30명 이내, 매 심의 시 과반으로 구성
위원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1년, 3회 연임 가능	1년, 1회 연임 가능
위원 모집	공개모집	추천	공개모집, 추천 병행
작가 발표 기회	없음	없음	부여
심의 신청	건축물 준공 전	건축물 허가 시	건축물 착공 신고 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계	위촉직						공무원
	미술(조각, 디자인, 회화, 미디어)	기획·평론	건축·조경	안전·유지관리	시민	시의원	
30	20	2	2	2	2	1	1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직책	성명	소속
위원장	허윤정	국민대학교 교수
위원	박천욱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위원	심승욱	작가
위원	김태곤	국민대학교 교수
위원	이성옥	한국조각가협회 이사
위원	김병진	단국대학교 교수
위원	박형진	작가
위원	서순오	(사)양주미술협회 지부장
위원	이연숙	작가
위원	이원우	작가
위원	정기웅	강원대학교 교수
위원	장성민	경기여류화가회 이사
위원	나형민	경희대학교 교수
위원	이강화	세종대학교 교수

직책	성명	소속 및 경력
위원	사윤택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위원	고은주	작가
위원	최석준	(재)한국디자인연구재단 이사
위원	이소향	오엠아트 대표
위원	민지영	건국대학교 교수
위원	이원주	숙명문화재단 이사
위원	윤의향	대전대학교 교수
위원	박미예	국민대학교 교수
위원	김은희	백간경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위원	윤성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위원	김형나	스타투아보존연구소 대표
위원	김영철	시의원
위원	임만균	시의원
위원	김규리	디자인정책담당관

*출처: https://opengov.seoul.go.kr/proceeding/cmit_view?clsf_id=45

[2021-2022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구분 연도	심의 개최	심의 작품 수	승인 건수	승인율	비고(공모 대행)
2021	16회	282	126	45%	62개, 1작품
2022	14회	273	162	59%	14개, 1작품

*참고: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507465#list/1

건축물미술 작품 공모대행제

서울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 및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와 제30조,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작가의 참여를 유도해 우수한 미술 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미술 작품 공모를 권장하고 있다. 건축주가 자체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할 경우 비용과 행정 절차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허가 기관에서 공모를 대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모 대행은 건축주가 자치구나 서울시에 신청하며, 공모 당선작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021년에는 영등포구 1개, 2022년에는 강남구 1개 작품과 서초구 1개 작품 공모를 대행했다.

[2021-2022 건축물미술 작품 공모 대행제 운영 결과]

연도	구분	대상	선정 작품명	작가명
2021	영등포구	영등포구 총괄우체국 미술 작품	세계로...미래로...	신혜정
2022	강남구	강남구 자곡동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3BL 아파트 미술 작품	스프레드 스페이스 (Spread Space)	손종철
	서초구	신반포3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미술 작품	공모 마감: 2022. 12. 20.	-

*출처: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80126,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category/design-news_c1/urban_art_c1/urban_art_contest-n1

공공미술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미술위원회는 서울시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작품 수준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미술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별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미술, 건축, 디자인 등 외부 전문가 12명, 시의원 2명, 시 공무원 1명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2021년 4월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 정원이 12명에서 15명으로 늘었으며,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2021년에는 4월과 12월에 임기 만료와 개인 사유로 위원 7명을 해촉하고 10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또한 '공공미술 작품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지관리' 분야를 신설해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렸으며, 심의 대상은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 내에서 추진하는 공공미술사업이었다.

[공공미술위원회 구성]

계	미술	기획	미디어	디자인	건축	조경	유지관리	시의원	공무원
15	3	3	1	2	1	1	1	2	1

*출처: https://opengov.seoul.go.kr/proceeding/cmit_view?clsf_id=37548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명단]

직책	성명	소속
위원장	권대훈	서울대학교 조소과 교수
위원	김홍년	한국미술협회 미디어분과 위원장
위원	이호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팀장
위원	신보슬	토탈미술관 책임큐레이터
위원	안병학	홍익대 디자인과 교수
위원	석승민	경기대학교 디자인과 교수
위원	이소정	건축사사무소 오비비에이 대표
위원	오진이	금천문화재단 대표
위원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위원	최재원	독립 큐레이터
위원	현시원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 겸임교수
위원	오한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위원	김소영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위원	백기영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2021년에는 총 34개의 안건을 놓고 총 11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2022년에는 25개의 안건으로 9회 회의를 개최했다.

[2021-2022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결과]

구분	개최	심의 (작품수 및 전시)	자문	보고	논의
2021	11회	21건(87건)	4건	9건	-
2022	9회	19건	1건	5건	-

*출처: https://opengov.seoul.go.kr/proceeding/cmit_view?clsf_id=37548

1-4. 운영 시설

1-4-1. DDP

DDP는 2014년 3월 21일 개관 이래 신제품 발표회, 패션쇼, 포럼, 컨퍼런스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국내외 유명 디자인·문화예술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며, 디자인문화의 중심축이자 서울의 미래 지향적 역동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DDP 개요

위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옛 동대문운동장 부지(65,232㎡)]
규모	연면적 86,574㎡, 지상 4층, 지하 3층
준비 기간	2006년 9월~2014년 2월
개관	2014년 3월 21일
총 사업비	4,840억 원(건립 4,212억 원, 운영 준비 628억 원)
구성	5개 공간, 21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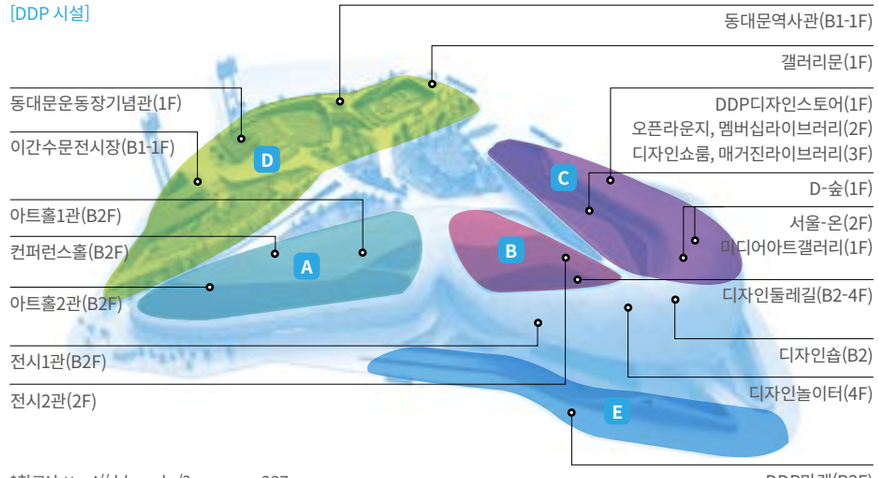
2022년 7월에는 DDP 개관 시점부터 사용해 온 주요 시설과 공간 이름을 일부 변경해서 적용했다. 2021년 공간 네이밍 변경에 대한 전시와 행사 분야 대관 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대관 고객 편의성을 고려한 네이밍 최종안을 확정했다. 그 결과 알림터는 아트홀, 배움터는 뮤지엄, 살림터는 디자인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DDP 시설 구성과 역할]

구분		역할
아트홀	아트홀1관, 아트홀2관, 컨퍼런스홀	· 컨벤션 시설로 창조 산업의 론칭 패드 · 디자인·패션산업 신제품 발표회, 패션쇼, 콘서트, 시사회, 공연 등
뮤지엄	전시2관, 전시1관, 디자인둘레길, 디자인놀이터	· 디자인문화의 전통과 창조성을 세계·미래로 전파·전승 · 디자인·패션 전문 전시, 어린이 디자인체험 등
디자인랩	디자인숍, DDP디자인스토어, D-숲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 오픈라운지, 멤버십라이브러리, 디자인쇼룸, 매거진라이브러리, 잔디사랑방	· 민간 창의 아이디어 교류·공유, 창조 산업 지식·정보 제공 · 디자인 비즈니스 프로모션 및 플랫폼, 시민 디자인·브랜드 체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간수문전시장, 갤러리문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 소규모 디자인·문화 전시·이벤트, 동대문 기반 패션디자인 소개 · DDP 부지의 역사적 기억 전승을 위한 전시
DDP마켓		· 방문객의 만남과 휴식, 편의 지원
어울림광장		· DDP 방문객의 편의 제공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24시간 개방)

*출처: 서울시(2022. 8. 31.)

[DDP 시설]



*참고: https://ddp.or.kr/?menuno=237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2017년 3월 DDP 행정재산 관리 위수탁 협약을 5년으로 체결한 바 있다.(2017. 3. 10.~2022. 3. 9.) 이를 통해 기존 DDP 시설의 통합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사무 민간 위탁' 방식에서 재단의 고유 사무인 DDP 운영을 제외한 DDP 행정재산 관리만을 위탁하는 '재산 관리 위탁' 방식으로 변경했다. 2022년 3월에는 행정재산 관리 위탁 계약을 2027년 3월 9일까지로 갱신했다.

[DDP 주요 시설 및 공간 명칭 변경(안)]

국문		영문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알림터	아트홀	Art Hall	현행 유지
알림1관	아트홀1관	Art Hall 1	현행 유지
알림2관	아트홀2관	Art Hall 2	현행 유지
국제회의장	컨퍼런스홀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Conference Hall
비즈니스라운지	현행 유지	Business Lounge	현행 유지
고객지원실1, 2	현행 유지	Service Center 1, 2	현행 유지
VIP대기실	현행 유지	VIP Waiting Room	현행 유지
배움터	뮤지엄	Museum	현행 유지
디자인전시관	전시1관	Design Exhibition Hall	Exhibition Hall 1
디자인박물관	전시2관	Design Museum	Exhibition Hall 2
DDP기록관	둘레길갤러리	DDP Archives	Dullegil Gallery
아너스라운지	둘레길라운지	Honor's Lounge	Dullegil Lounge
디자인둘레길	현행 유지	Design Pathway	Design Dullegil
디자인놀이터	현행 유지	Design Experience Zone	Design Playground
살림터	디자인랩	Design Lab	현행 유지
D-숲	현행 유지	D-Soop	현행 유지
DDP디자인스토어	현행 유지	DDP Design Store	현행 유지

국문		영문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라이트스페이스	미디어아트 갤러리	Light Space	Media Art Gallery
D-8	디자인갤러리	D-8	Design Gallery
크레아	통합 명칭 삭제	CREA	-
오픈라운지	현행 유지	Open Lounge	현행 유지
세미나홀	북세미나실	Seminar Hall	Book Seminar Room
아이디어박스	일련번호 부여 (회의실1~7)	Idea Box	Room No.1~7
이노베이션룸		Innovation Room	
데크라운지	현행 유지	Deck Lounge	현행 유지
팹워크	멤버십라이브러리	FAB-Work	Membership Library
서울-온 화상 스튜디오	현행 유지	Seoul-On Studio	현행 유지
서울-온 화상 회의실	현행 유지	Seoul-On Conference Room	현행 유지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통합 명칭 삭제	UD Lifestyle Platform (UDP)	-
UD홈	디자인쇼룸	UD HOME	Design Showroom
UD시티	디자인홀	UD CITY	Design Hall
UD라운지	명칭 삭제	UD Lounge	-
UD라이브러리	매거진라이브러리	UD Library	Magazine Library
잔디사랑방	현행 유지	Designers Lounge	Jandisarangbang
디자인장터	DDP마켓	Design Market	DDP Market

운영 지표

DDP 운영 지표(2014-2022)

	재정 자립도(%)	연간 방문객(명)	일평균 방문객(명)	콘텐츠 운영		
				계	대관·유치 (건, %)	자체 기획 (건, %)
2014년	67.8	6,883,456	24,068	93(100.0)	74(79.5)	19(20.5)
2015년	95.7	7,389,537	20,245	152(100.0)	120(78.9)	32(21.1)
2016년	89.5	8,007,681	21,879	132(100.0)	102(77.2)	30(22.8)
2017년	93.5	9,237,337	25,308	164(100.0)	117(71.3)	47(28.7)
2018년	104.8	10,604,794	29,054	75(100.0)	71(94.6)	4(5.4)
2019년	105.3	11,714,754	32,095	90(100.0)	85(94.4)	5(5.6)
2020년	36.0	6,718,701	18,357	31(100.0)	15(48.4)	16(51.6)
2021년	65.1	7,392,372	20,253	44(100.0)	34(77.3)	10(22.7)
2022년	78.5	10,510,991	28,797	80(100.0)	48(70.1)	31(38.7)

* 2014: 3. 21. 개관 이후. **2020-202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일정 기간 휴관 조치**

또한 재단은 2022년부터 DDP 정체성 확립을 위해 그동안 재정 자립의 기조로 인해 비중이 컸던 임대나 대관 사업이 아닌 자체 기획 콘텐츠 생산에 집중하는 DDP 활성화 플랜 'DDP 2.0'을 추진했다. 그간 DDP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 없이 자체 수입(매년 154억 원 내외)으로 시설 유지·관리 경비와 DDP 인력 인건비를 충당해 왔다. 'DDP 2.0' 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수입 외의 시 출연금을 고유 콘텐츠 개발에 집중 투자해 세계적 명성의 건축물에 걸맞은 콘텐츠를 육성하고 디자인산업 진흥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DDP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서울시청 본관 지하2층 시민청 태평홀에 2020년 9월부터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을 임시로 설치해 운영해 왔다. 시 차원에서 상설 비대면 행사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시 운영 종료 이전에 DDP 디자인랩 2층에 신규 화상 스튜디오를 조성할 준비를 시작했다. DDP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은 사전 준비로 발주와 구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021년 1월 말 설계를 완료하고 4월 10일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초대형 디스플레이 등 최신 방송 장비를 구축하고 VIP 및 보좌진 대기실, 통역실 등 부대공간도 충분히 확보해 규모와 기능 면에서 국제 규모의 화상 회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팬데믹 이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사 성격에 따라 이동 가능한 가변형의 디스플레이·가구 등을 설치해 대면·비대면 토크쇼, 회의, 포럼,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했다. DDP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은 2021년 4월 22일 개관하며 첫 행사로 신임 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운영 현황]

위치	DDP 디자인랩(옛 살림터) 2층 라운드홀, 미디어홀, 복도 등
규모	전용 면적 726㎡ (220평, 화상 스튜디오 378.22㎡, 소회의실 114.18㎡)
사업비	2,653백만 원 (시설·장비·시스템 구축 2,553백만 원, 연간 인력 운영 100백만 원)
조성·운영	서울디자인재단 대행 사업으로 조성 후 재단이 운영

[DDP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 장비와 부속 시설]

디스플레이	- 2.6mm 피치 LED - 총길이 35m: 폭 2.5m × 길이 21m × 1기(고정) / 폭 2.5m × 길이 7m × 2기(가변)
주요 장비	- 천장 설치 몰입형 실감 음향, 4K 카메라 5기, 뉴스룸 타입 방송 스튜디오 전용 조명
부속 시설	- VIP대기실, 일반대기실 및 분장실, 통역실, 라운지, 조정실 등





서울-온 스튜디오 내부 사진

1-4-2. 서울 새활용 플라자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활용 복합 문화공간이다. 서울시의 '자원순환도시 서울시 비전 2030'의 실천을 위해 재생 특구인 성동구 용답동에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23,265m²의 규모로 조성되어 2017년 9월 5일 문을 열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버려지는 자원을 더 새롭게 활용하는 소재와 디자인, 제조, 유통을 한곳에 모아 산업적으로 키우는 한편, 다양한 새활용 문화 확산 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주무 부서는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이며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22년 5월 1일 자로 휴관일이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다.

[운영 현황]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준공일	2017. 5. 19.
개관일	2017. 9. 5.
주용도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및 근린 생활 시설
면 적	건물 연면적 16,679㎡, 대지 면적 6,943㎡, 건축 면적 2,954㎡ 지상 5층, 지하 2층
운영시간	월-토 오전 10:00~오후 6:00(토요일은 탐방 예약 입장만 가능) *매주 일요일, 설날·추석 당일 휴관

층별 정보

5F
운영사무실, 교육실, 레스토랑, 회의실(3개소)

4F
입주 기업 스튜디오, 교육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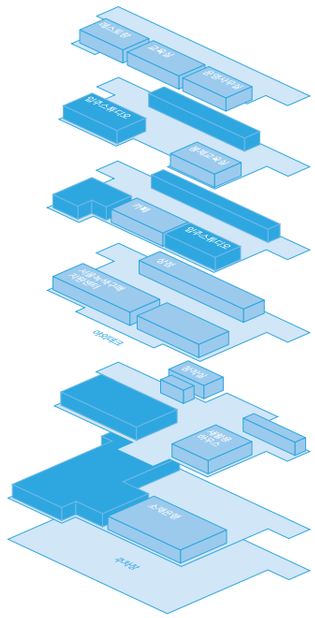
3F
입주 기업 스튜디오, 카페

2F
새활용배움터, 신한카드아름인도서관,
친환경체험학습센터,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1F
새활용하우스, 꿈꾸는공장, 미디어룸, 야외창작실

B1
소재은행, 재사용작업장(입주 기업)

B2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창고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지표(2017-2022)

운영 지표	예산	직접 방문 시민 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대면 교육 참여자 수	비대면 교육 참여자 수	새활용 교육 키트 보급 건수
2017년	37.4억 원	40,783명	7,115명	7,115명	-	-
2018년	49.9억 원	106,337명	19,816명	19,816명	-	-
2019년	48.4억 원	133,185명	32,177명	32,177명	-	-
2020년	44.4억 원	37,033명	7,726명	4,777명	2,949명	8,503건
2021년	42.6억 원	71,922명	13,362명	4,048명	9,314명	16,801건
2022년	45.9억 원	87,510명	15,689명	14,969명	720명	-

*2017: 9월 5일 개관 이후. **2020-202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일정 기간 휴관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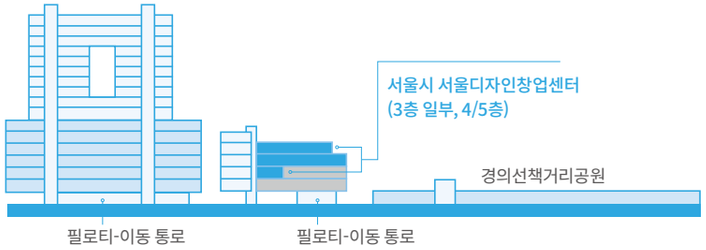


1-4-3. 서울 디자인 창업센터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마포구 홍대입구역 복합역사·공공업무시설인 코스테이션 3층 일부와 4~5층에 위치해 있으며, 2020년 7월 1일 개소했다. 2층과 3층 나머지 공간에는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가 입주해 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서울시가 조성한 후 서울디자인재단의 고유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와 마포구가 무상 사용 협약을 맺은 공공업무시설[1]의 사용 공간을 협의하고 공동 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8년 8월 31일 문을 닫은 재단 'DMC창업센터'의 업무가 서울디자인창업센터로 이관되면서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위치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2길 19 코스테이션 3~5층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
규모	연면적 2,987.32㎡, 공공업무시설(5층)의 3층 일부, 4·5층 디자인 창업 기업
역할	공간 제공 및 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
조성비	2,780백만 원
전용 면적	2,332.84㎡

위치 정보





창업센터 전경

1) ㈜마포애경타운이 철도청 부지인 경의선 홍대입구역에 복합역사를 건축하고 공공 기여로 공공업무시설 건립 후 시와 마포구에 30년간 무상 사용권을 제공함.



1-4-3.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멤버십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과 입주 기업 전용 공간은 협업과 교류가 가능한 '개방형'이자 상황과 용도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변형'으로 조성했다. 이 외에도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을 구비한 '공용작업실', 촬영·조명 장비 등을 구비한 '포토스튜디오', 입주 기업 시제품을 전시하는 쇼케이스 '디자인갤러리' 등 입주 기업을 위한 전용 공간을 갖추고 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 공간 구성]

구분	면적	공간 콘셉트	용도
5층	846.10㎡	만남과 교류의 공간 (지역사회 × 디자인 창업 분야)	멤버십 라운지 및 시제품 전시 공간: 공유 오피스, 갤러리, 회의실, 오픈키친 등
4층	1,102.76㎡	디자인 특화 창업 공간 (입주 기업 × 입주 기업)	입주 기업 전용 공간: 업무 공간, 회의실, 포토스튜디오, 공용 장비 및 작업실 등
3층	383.98㎡	디자인 창업 역량 강화 공간 (창업자 × 전문가)	지원 공간: 컨퍼런스홀, 운영사무실, 라커 등



4층 라커룸



3층 컨퍼런스홀



4층 포토스튜디오

1-4-3. 서울디자인창업센터





2
경제·산업

사업 구분

| 서울시
| 서울디자인재단

주요 배경

2-1. 디자인산업

| 2-1-1. 서울디자인
| 2-1-2. 서울디자인 브랜드 개발
| 2-1-3. DDP디자인스토어
| 2-1-4. 서울디자인창업센터
| 2-1-5. 디지털디자인

2-2. 새활용산업

| 2-2-1. 새활용기업 지원
| 2-2-2. 새활용산업 지원

주요 성과

주요 배경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산업 육성이라는 재단의 미션에 따라 디자인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고 디자이너의 취·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디자인산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고, 국내외 디자인 기관·기업과의 네트워킹, 유통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디자인 판로 개척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제 디자인 행사를 기획·운영하여 서울 디자인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디자인산업 관계자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그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재단은 또한 새활용기업과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자원순환 전진기지'로서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운영하며 새활용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며 새활용 문화를 선도하던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22년부터 새활용산업 활성화와 정책적 위상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디자인산업

서울디자인재단은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서울의 대표 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위크'를 'DDP디자인페어', '포럼' 등 DDP 대표 행사와 다양한 내외부 협력 행사와 연계하여 '서울디자인 2022'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선보였다. 2021년 재단은 '서울디자인위크'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디자인위크를 '서울디자인 리부트'로 대체·운영하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시험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획된 '서울디자인 2022'는 행사의 전문성과 질, 규모에 있어 국내 최대 디자인산업 트렌드 MICE 행사로서 그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2019년 최초의 디자인 론칭쇼로 등장한 'DDP디자인페어'는 '소상공인+디자이너 콜라보 제품 개발 후 론칭'이라는 독특한 운영 방식을 유지해 오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을 거치며 디자인 전문가를 총감독, 큐레이터로 영입하여 제품 개발 품질을 향상하고 콜라보 우수팀에게 전시와 홍보,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행사의 전문성을 향상해 가고 있다. 재단은 또한 우수 브랜드 및 아티스트와 협력하여 DDP 브랜드 확산에 힘쓰고 있다. 'DDP 브랜드 상품 디자인 청년 디자이너 모집 공모전'을 통해 청년 디자이너가 DDP 브랜드 상품을 기획·론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진 디자이너, 제조 기업과 협력하여 현 트렌드에 맞는 DDP 디자인 상품을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된 디자인 상품은 DDP디자인스토어에 입점하여 대중에게 선보인다. 2021년 온라인 디자인스토어를 개발·운영하여 유통 시장의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고, 디자이너 인터뷰, 메이킹 스토리 등 디자인 콘텐츠를 아카이빙하는 온라인 DB 구축의 기반을 조성했다. 재단은 또한 디자인 창업 인큐베이팅 기관인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운영을 통해 유망 디자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서울 디자인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디자인창업센터를 통해 배출된 디자인 스타트업은 DDP와 재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브랜드를 선보이고 유통망을 확보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을 대표하는 디자인산업 지원 플랫폼으로서 청년 디자이너 발굴, 인큐베이팅, 등장 및 성장에 이르는 디자인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가고 있다.

새활용산업

서울새활용플라자는 국내 유일의 자원순환 산업 & 문화의 거점으로 2017년 개관하여 현재까지 새활용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유통판로 개척, 역량 강화 교육, 마케팅·홍보 지원을 통해 새활용기업을 육성하고, 새활용 소재를 발굴·유통함으로써 새활용산업의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새활용 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새활용 제품 개발에 관심 있는 시민과 디자이너, 메이커에게 제품 제작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시설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을 가졌다. '새활용산업 지원'과 '새활용문화 확산'의 두 축으로 운영되던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22년부터 새활용산업 육성 기반 조성, 새활용 생태계 육성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하고 산업 지원의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 새활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새활용 소재 및 유통 관련 법규와 실태 분석 연구를 통해 소재 개발 및 수급, 기관·기업과 연계한 소재 유통 기능을 강화했다. 기업의 ESG 경영 확대에 따른 협업 수요가 증가에 대응하여 대외 협력의 비중을 높이고 외부 기업과 새활용기업 연계를 확대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시설도 산업 지원 기능과 시민 서비스 기능을 분리하여 사업 운영과 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DESIGN MARKET
2021 DDP DESIGN FAIR
TREND
2021 DDP DESIGN FAIR
LAUNCHING
2021 DDP DESIGN FAIR
COLLABORATION
2021 DDP DESIGN FAIR

2-1. 디자인산업

2-1-1. 서울디자인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페어팀·디자인위크팀·디자인산업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DDP디자인페어개최 | 서울디자인위크개최 | 서울디자인브랜드전
분류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전시·DDP포럼·시민 참여 행사, 네트워크 | 기관·기업 디자인산업 진흥 | 산업 지원 | 개발, 서울디자인 I 서울디자인위크· DDP디자인페어 디자인 공공성 강화 | 정보 | 포럼
키워드	#서울디자인2022 #디자인축제 #서울디자인위크 #DDP디자인페어 #DDP #론칭쇼 #청년 디자이너 #소상공인 #잡페어 #전시 #거버넌스 #문화 행사 #포럼 #메타버스 #게더타운 #제페토

DDP디자인페어

DDP디자인페어는 제품 개발부터 활로 개척까지 원스톱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존 디자인박람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별성을 지닌 '국내 대표 디자인 비즈니스 론칭쇼'다.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로 소상공인의 '제품 개발 노하우'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만나 디자인 상품이 탄생하고 결과물은 디자인페어를 통해 최초로 소개된다. 소상공인에게는 제품 양산 및 프로모션의 기회를 신진 디자이너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과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과 신진 디자이너가 상생의 활로를 개척해 가도록 지원한다.

제조 소상공인, 국내외 디자이너 및 디자인 스튜디오를 상반기에 모집하여 소상공인과 디자이너를 매칭, 코디네이팅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분야별 전문가를 큐레이터로 선임하여 제품 기획과 품질 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제품 개발 완료 후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베스트디자인어워드, 우수팀을 선정한다. 베스트디자인어워드에 선정된 팀에게는 제품 양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디자이너의 경우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입주 심사 시 가산점이 주어진다. 베스트디자인어워드, 우수팀 수상팀은 DDP디자인페어 전시 참여 기회와 함께 제품 촬영 지원 및 프로모션, DDP디자인스토어 연계 판로 확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선정된 디자인 소상공인과 디자이너 인터뷰, 메이킹 스토리 등 페어를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콘텐츠는 온라인 DB로 구축되고 「디자인 트렌드북」으로 발행되어 지속적인 판로 개척 및 홍보 확대를 위해 활용된다.

2022
트렌드북

[2021-2022 DDP디자인페어 행사 개요]

	2021년	2022년
행사명	2021 DDP디자인페어	2022 DDP디자인페어
개최 기간	2021. 10. 19.(화)~25.(월) 온라인 연중 상시 운영	2022. 10. 19.(수)~28.(금)
개최 장소	DDP 알림1관 & 온라인 동시 개최	DDP 알림2관 & 온라인 동시 개최
주제	원더풀 라이프(Wonderful Life)	뷰티풀 라이프(Beautiful Life)
규모	콜라보 106팀	콜라보 120팀, 론칭 21개사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공식 큐레이터와 협력하여 기획·운영되는 DDP디자인페어는 2021년 조명, 가구, 생활 리빙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와 마케팅 전문가를 큐레이터로 초청했다. 큐레이터에 총감독제를 도입하고, 디자인 분야 외에 마케팅, 취·창업 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하여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2021년 169팀(소상공인 118명, 디자이너 142명)이 매칭에 성공하였다. 매칭에 성공한 콜라보팀은 '분야별 제품 개발 검토, 디자인 방향 설정, 상품군 구성'을 내용으로 하여 멘토링을 받고, 8월 말 프로토타입 제작을 완성했다. 디자인 멘토링에 더하여 법률, 창업, 자금 등에 대한 변리사의 자문을 통해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디자인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프라이싱(Pricing: 가격 책정), 디지털 마케팅,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교육과 지식재산권, 계약서 작성 등 법률 교육이 공통 교육으로 이루어졌고, 콜라보레이션 제품 디자인 개발 협의, 양산과 판매 계약서 작성 등 팀별 법률 자문도 진행되었다. 169개의 콜라보팀 중 1차 큐레이터 심사(35%), 2차 시민투표(30%), 3차 전문가 심사(35%)를 통해 106팀을 선정하여 DDP디자인페어 행사 기간 동안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품 양산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제품 실물 심사로 이루어진 큐레이터 심사와 온라인 시민투표의 결과를 합산하여 상위 50팀을 선정한 이후, 3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상위 7팀을 최종 선정하여 'DDP베스트디자인어워드'를 수여했다.



DDP베스트디자인어워드 수상작

[2021년 DDP디자인페어 큐레이터 구성]

이름	분야	소속	역할
이길형	총감독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 전시 및 행사 총괄/국내외 중대기업 섭외 및 홍보 전반
김나영	취창업	종근당 실장	· 페어 연계 청년 디자이너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박정호	마케팅	명지대 교수	· 국내외 바이어 섭외 및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홍보 기획 운영
한경하	생활	우퍼디자인 대표	· 분야별 제품 기획·섭외·매칭·개발 진행 · 온라인 매칭 제품 개발 멘토링 역할 수행 및 · 신진 우수 디자이너 발굴
손동훈	리빙	아뜰리에손 대표	
정미	조명	이온에스엘이디 대표	
하지훈	가구	계원예술대 교수	
이강현	공간	홍익대 교수	· 행사 방향 및 주제에 따른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 기획 연출

2021년 3회를 맞는 DDP디자인페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었다.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진행된 행사에 코로나로 인한 현장 방문객 제한 최대 인원인 약 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국내외 디자인업계 관계자와 시민을 위한 온라인 전시관에는 4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 온라인 전시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원더풀 라이프(Wonderful Life)'를 주제로 휴식, 힐링, 1인 가구, 홈오피스 등의 키워드로 상징되는 변화한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전시에서 총 170개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론칭관과 트렌드관을 새롭게 도입하여 신진 디자인 스튜디오의 론칭 제품을 소개하고 디자인 중대기업이 디자인 트렌드를 제안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 64개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한 신제품을 론칭하고, 9개의 디자인 중대기업이 새로운 디자인의 가치를 제안하며 '디자인 비즈니스 론칭쇼'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확장된 볼륨의 행사를 선보였다. 2021년 처음으로 '바이어데이'도 진행했다. 유통사, 소셜커머스, 편집숍 등 151개 사의 바이어가 참석해 디자이너, 소상공인과 대면하여 수주 상담을 진행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순환 자원, 업사이클링'이라는 화두를 내걸었던 2021년 행사의 취지에 걸맞게 콜라보레이션 전시관 벽면에 사용한 메시 패브릭과 바닥 부직포는 전량 서울시새활용플라자 소재은행에 기부되어 소재를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를 통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2021년 DDP디자인페어 트렌드관 참여 기업]

기업명	전시 내용
코웨이	프리미엄 생활가전 제안
헬리녹스	캠핑용품을 이용한 휴식 공간
새턴바스	1인 가구 중심 놀이터 욕실
포워크	인간공학, 인체공학을 반영한 맞춤 체어
누하스	자연에서의 쉼과 같은 리빙 가전
삼화페인트	디자인 제품 콜라보를 통한 컬러 트렌드 제안
엘칸토	디자이너 콜라보/나만의 슈즈
수퍼빈	쓰레기도 돈이 되는 AI 자원순환 로봇 네프로 체험
나아바 코리아	Forest air shower 힐링 미래의 자생식물 공기 청정 공간



2021년 DDP디자인페어 전시장

2022년 DDP디자인페어는 '디자인서울 2022'로 통합·운영되었다. 페어 전시는 '서울디자인 2022' 행사 기간 내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열흘간 DDP 알림2관에서 진행되었고, 온라인으로도 동시 개최되었다. 이번 디자인페어를 위해 콜라보 큐레이터(5명)와 론칭 큐레이터(7명)를 구별하여 총 12명의 큐레이터를 위촉했다. 콜라보 큐레이터는 콜라보팀의 제품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전시 공간 구성 연출을 지원했다. 론칭 큐레이터는 론칭쇼 참여 기업 섭외 및 론칭 전시 기획을 지원했다. 콜라보팀은 소상공인과 디자이너 392명이 지원하여 총 196팀이 매칭에 성공했다. 팀별 3회 이상 제품 개발 검토, 디자인 및 양산, 전시연출 멘토링이 진행되었고, 최종 166팀이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이 중 큐레이터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상위 120팀과 베스트어워드 6팀을 선정하고,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베스트어워드 1팀을 선정했다. 론칭패드 참여 디자인 스튜디오는 공개모집을 통해 11개 사, 론칭큐레이터 추천 8개 사, 서울디자인재단 육성팀 2개 사 등 총 21개 사가 선정되었다. 2022 디자인페어 기간 동안 콜라보 상위 120팀의 신제품과 21개 디자인 스튜디오의 론칭 제품이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들 제품은 '바이어데이'를 통해 국내외 66개 유통사 222명의 바이어에게 소개되어 현장 수주 금액 50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 DDP디자인페어 전시장

[2022년 DDP디자인페어 콜라보 및 론칭 큐레이터 구성]

역할	분야	이름	소속 및 직위
콜라보	제품 개발, 전시 공간 기획	정미	이온에스엘디 대표
		하지훈	계원예대 리빙디자인과 교수
		안강은	inne 대표
		조은환	MAEZM 공동대표
		신태호	
론칭	디자인 스튜디오 섭외	백종환	WGNB 대표
		양태오	태오양 스튜디오 대표
		박근하	루밍 대표
		이달우	마음스튜디오 대표
		이지연	코웨이 디자인 실장
		마재철	㈜이노메싸 대표
		유화성	아고라이팅 대표



2022년 DDP디자인페어 전문가 심사



2022년 DDP디자인페어 바이어데이



2022년 DDP디자인페어 콜라보팀 작품

[DDP디자인페어 수상작]

	개발 제품		콜라보레이션 팀
2021년 최우수팀 (서울시장상)		1인 가구 라운지체어 ‘The Butterfly’	스튜디오플라스틱(디자이너) × Jh스튜디오(소상공인)
		가변형 홈오피스 조명 ‘Light now No.1’	makemake(디자이너) × 황덕기술단(소상공인)
		디자인 인센스 홀더 ‘빈센스’	DSLSM(디자이너) × 라익디스(소상공인)
2022년 최우수팀 (서울시장상)		생활 리빙 캔들 ‘사각양초(Square Candle)’	전민우(디자이너) × 드로잉 캔들(소상공인)
		사이드 테이블 ‘The leaf series’	전형호(디자이너) × 어고 스튜디오(소상공인)
		안전 조명 케이지	모멘텀 스튜디오(디자이너) × 라이트팹(소상공인)
		캠핑 및 주방용품으로 100%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의 ‘커트러리 세트’	로앤김(디자이너) × 레토릭(소상공인)
		황학동 주방거리의 중고 스테인레스를 활용한 업사이클 ‘펜던트, 테이블 램프’	아몬드 스튜디오(디자이너) × 원써드(소상공인)
		규조토 소재의 욕실 용품 발매트로 자연의 선을 모티브로 제작한 ‘Erosion Project(침식 프로젝트)’	COCS(디자이너) × 유싸 스튜디오(소상공인)

[DDP디자인페어 콜라보 소상공인+디자이너 모집 현황]

	2021		2022	
	디자이너	소상공인	디자이너	소상공인
합계	203명	129명	219명	126명
생활 리빙	128	83	171	70
가구	52	33	25	32
조명	23	13	18	8
뷰티 등	-	-	5	16

[DDP디자인페어 론칭 디자인스튜디오 모집 현황]

2021		2022	
합계	64개사	합계	79개사
생활 리빙	13	생활소품	45
가구	6	가구·조명	14
업사이클	7	패션·잡화	18
펫/키즈	6	기타(식음)	2
서울디자인재단	32	-	-







2022년 DDP디자인페어 콜라보 전시

서울디자인재단은 DDP디자인페어 행사 기간 동안 '영디자이너 잡페어'를 운영하여 청년 디자이너들이 실질적으로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 디자이너는 취업 희망 기업의 선배 디자이너와 함께 멘토, 멘티로 매칭되고, 매칭된 멘토는 청년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멘토링을 제공한다. 기업 대표와 인사팀이 참여한 모의 면접도 진행된다. 온라인 참여자를 위한 별도의 멘토링을 제공하고, DDP디자인페어 행사 기간 동안 1:1 현장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1년 영디자이너 잡페어 멘토링 프로그램은 6월 26일 1차 멘토링을 시작으로 하여 8월 29일까지 포트폴리오 검토 등 그룹 멘토링, 모의 면접, 온라인 전시 멘토링 등으로 진행되었다. DDP디자인페어 기간 중 10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진행된 취업 컨설팅 행사에 디자이너 70명이 참여하여 28명이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 영디자이너 잡페어는 7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90여 명의 영디자이너가 5회에 걸쳐 자기소개서 코칭, 포트폴리오, 모의 면접 등의 멘토링을 받았다. DDP디자인페어 기간 중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취업 컨설팅을 통해 참여자 64명 중 1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영디자이너 잡페어 홈페이지

영디자이너 잡페어는 2021년부터 현업에서 활동 중인 선배 디자이너를 멘토로 영입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22년에는 특히 청년 디자이너들의 취업 희망 기업 선호도 조사를 통해 삼성, LG, 토스, 라인프렌즈, GS리테일 등에 근무하는 현직 디자이너를 멘토로 영입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영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는 '영디자이너 잡페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지속적인 취·창업 활동을 위해 활용된다.



2022년 DDP디자인페어 영디자이너 워크숍





2022년 DDP디자인페어 영디자이너 취업 컨설팅

디자인위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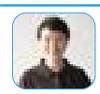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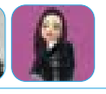
서울디자인위크는 서울형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디자인 축제로, 2014년부터 개최된 DDP의 주요 행사다. 디자이너와 시민, 기업과 기관, 대학, 지역사회가 협업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디자이너와 전문 기업의 협업 전시, 인테리어 특별 전시, 서울의 라이프디자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디자인 제품 프로모션, 트렌드 포럼 및 디자이너 PT쇼, 디자인 대학생 취업페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2021년 디자인재단은 디자인위크를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디자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자인비엔날레로 확대 개최를 검토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 등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행사 추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학술 연구를 진행했다. 2021서울디자인위크 행사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로 대체하여 개최되었다. 서울디자인위크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공유 세미나는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참여자가 다각도로 소통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만들었다.

2021서울디자인위크는 가상공간 메타버스로 무대를 옮겨 개최되었다. '디자인 리부트'를 주제로 디자인, 브랜딩, 가상현실 전문가 연사를 초청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 구현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10월 26일(화)부터 28일(목) 3일간 진행되었다. 화상 회의에 특화된 '게더타운'의 장점을 살려 단순히 관객이 듣는 행사가 아니라 DDP의 주요 공간과 똑같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전문가 연사와 시민, 학생 등 일반 참가자가 아바타로 만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소통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세미나 1일 차에는 'Reframed Design 변화하는 환경 속, 리-프레임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이 열렸다. 모더레이터로 최소현 퍼셉션 대표가 참여하고, 디자인과 브랜딩 분야 전문가가 4명이 연사로 나섰다. 첫 번째 세션에 박영하 스타벅스코리아 디자인 총괄(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현시대의 이슈와 그에 따른 디자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 김봉찬 전 현대카드 디자인팀장이 '디자인 in 브랜드'라는 주제로 전략적인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 안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에는 김충재 디자이너와 성립 작가가 'Now & Next 디자이너'라는 주제로 동시대 디자이너들을 대표해 '디자이너들의 현실 이야기'를 풀어갔다. 2일 차는 'Beyond the Border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최근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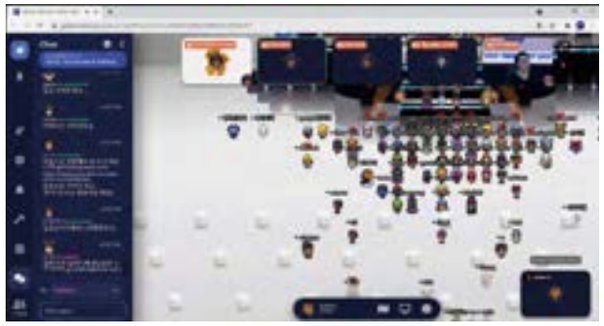
[2021 디자인 리부트 프로그램]

1일 차 10. 26.	모더레이터	 	'Reframed Design 변화하는 환경 속, 리-프레임드 디자인' (최소현 퍼셉션 대표)
	연사 세션 1	 	'지속 가능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박영하 스타벅스코리아 디자인 총괄)
	연사 세션 2	 	'디자인 in 브랜드' (김봉찬 전 현대카드 디자인팀장)
	연사 세션 3	   	'Now & Next 디자이너' (김충재 디자이너와 성립 작가)
2일 차 10. 27.	모더레이터	 	'Beyond the Border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디자인' (최소현 퍼셉션 대표)
	연사 세션 1	 	'캐주얼 아트 시대의 실감 미디어' (최은석 디스트릭스 부사장)
	연사 세션 2	 	'물리 공간과 미디털 미디어의 결합' (고주원 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교수)
3일 차 10. 28.	모더레이터	 	'Design for the Better Future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디자인' (진행 : 김상규 서울시립대 교수)
	연사 세션 1	 	'디자인 의미의 확장' (이경미 사이픽스 대표)
	연사 세션 2	 	'역사를 만들어가는 디자인' (윤여경 국민대학교 교수)
	연사 세션 3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디자인' (이나미 스튜디오 바프 대표)

1일 차와 동일하게 최소현 퍼셉션 대표가 모더레이터를 맡고, 연사로는 최은석 디스트릭스 부사장, 고주원 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교수가 참여하여 NFT 서비스 환경 동향과 실감 콘텐츠 현황을 발표하며 '물리 공간과 디지털 미디어의 결합'이라는 주제로 실감 콘텐츠의 미래가치와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3일 차 주제는 'Design for the Better Future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디자인'이었다. 모더레이터는 김상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맡고 3명의 연사가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는 '디자인 의미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이경미 사이픽스 대표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디자인과 미래를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 윤여경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교수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공예 디자인에서 디자인산업으로, 미래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 재정의했다. 세 번째 세션에는 이나미 스튜디오 바프 대표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디자인'라는 주제로 기업, 공공기관, 시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방법론을 모색했다.



DDP타운(게더타운) 알림터


DDP타운(게더타운) 세미나 현장




DDP 루프톱 피드 이미지

디자인위크는 세미나 외에도 참가자들이 실제 DDP의 주요 공간이 구현된 게더타운에서 DDP 곳곳을 탐험하며 전시를 관람하고,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는 등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베스트 포즈 아바타 콘테스트, 보물찾기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편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루프톱 공원을 콘셉트로 한 DDP 옥상 가상 공원을 조성하여 2021서울디자인위크 사전 홍보 기간에 맞춰 오픈했다. 안전문제로 출입이 제한됐던 장소를 가상공간에 조성하여 시민들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는 취지였다. 이곳에서 아바타 시민들은 야외 갤러리, 공원, 캠핑존에서 휴식을 취하며 DDP를 즐길 수 있었다.

디자인재단은 2021서울디자인위크를 통해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하여 시공간에 제약 없이 참여자 간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미래형 가상공간 행사를 시도해 볼 수 있었다. '리부트 디자인 세미나' 사전 등록 인원은 2,083명이고 실시간 참가자는 DDP타운(게더타운)과 유튜브 실시간 시청 인원을 포함하여 총 1,436명이었다. DDP 공간 참가자는 오픈 당일 1만 명을 초과하여 메타버스를 활용한 미래형 가상공간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 DDP 구축 및 활용]

플랫폼	타이틀	내용		오픈일
게더타운	DDP타운	구축	- DDP 시설 및 실내 공간 재현 : 알림터(컨퍼런스 공간), 배움터(전시 공간), 살림터(이벤트 공간) 및 야외 공간	2021. 10. 26.
		운영	- 서울디자인위크 리부트 세미나 운영 - 서울디자인위크 아카이빙 전시	
제페토	DDP루프톱	구축	- 현실에선 접근 불가한 DDP 옥상을 루프톱 공원 콘셉트로 조성 : 갤러리존, 휴식·캠핑존, 포토존으로 구성	2021. 10. 20.
		운영	- 서울디자인위크 리부트 세미나 사전 홍보 진행 - DDP 가구 컬렉션 사진 전시	

서울디자인 2022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국내 대표 디자인산업 트렌드 MICE 행사를 지향하며 '서울디자인 2022'를 론칭했다. 재단이 지난 2014년부터 8년간 진행해 오던 시민 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위크'와 2019년부터 3년간 진행해 오던 아시아 대표 디자인 론칭페어 'DDP디자인페어'를 포괄하는 것은 물론 디자인 관련 학회 및 협회와의 협력을 확장하여 기획된 '서울디자인 2022'는 행사 기간을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행사 공간을 DDP를 비롯한 서울시 일대로 넓혀 전문 디자인행사로서 그 규모와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울디자인 2022'의 주제인 '뷰티풀 라이프(Beautiful Life) :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반영한 다양한 K-디자인 콘텐츠를 소개한 이번 행사에서 전시/컨벤션, 컨퍼런스, 디자인마켓, 프로젝트, 부대행사 등 5개 분야 2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10월 20일(목) DDP 아트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하여, DDP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 일대와 메타버스에서 10월 19일(수)부터 11월 2일(수)까지 2주간 진행되었다.

서울디자인 2022 홈페이지

DDP 아트홀에서 선보인 '주제전시: Beautiful Life'는 '국제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아트디렉터를 역임한 조홍래(빔인터랙티브 대표)가 기획했다. '뷰티풀 라이프(Beautiful Life)'는 다층 다양한 뉴앙스(Newance)를 디지털 디자인으로 표현한 초대형 설치 작품으로, 빛과 그림자의 상반되지만 서로를 반영한 콘트라스트에서 추출한 미감과 조화로운 뉘앙스(nuance)를 디지털로 새롭게 구현한 뉴앙스(Newance)를 작품화했다.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디자인으로 풀어낸 '디자인 트렌드 컨벤션: 기업 브랜드관' 전시에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15개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였다. 누하스, 록시땅, 삼화페인트, 신세계까사(까사미아, 굿닷컴), 우리시드, 이수연플라워, 코오롱 FnC(코오롱스포츠, 에피그램, 래코드), 클리오, 투힐미, 프

릳츠커피컴퍼니, 하이퍼스포츠클럽, 제임스다이슨재단, 아꼬제, 한솔홈데코 라솔라, 헬리녹스 등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부터 리빙, 뷰티, 조경, 패션, F&B, NFT 분야까지 다양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브랜드관

'DDP디자인페어: 콜라보 & 론칭패드'에서는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협력해 개발한 신제품 120종과 유망한 디자인 스튜디오 21개 사의 론칭 제품을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었다.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196여 개 팀으로 매칭되어 약 5개월간 제품을 개발하였고, 개발이 완료된 166팀 중 큐레이터와 디자인 전문가 심사, 시민투표를 통해 우수 제품 120팀과 베스트어워드 7팀을 선정했다. 콜라보관은 2022 트렌드 컬러 4개를 선정하여 4개의 섹션으로 구분한 쇼룸 형태의 전시로 연출되었다. 론칭패드관에는 유망한 디자인스튜디오 21개가 참여하여 론칭 제품을 선보였다. 전시장은 각 브랜드별 독립된 부스로 구성되었고 독창적이고 트렌디한 분위기로 연출되었다. 론칭패드 참여 기업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소재를 연구하고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는 '랩엠제로'의 브랜드 '언롤 서피스(Unroll Surface)', 위트 있고 개성 넘치는 제품을 제작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모스그래픽(mohsgraphic)', 간결한 조형적 아름다움은 물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바치 포 드웰링(BFD/Bacci For Dwelling)'이 있었고 그 밖에도 세라믹을 소재로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플라트오브제(fl.art_object)', 일상 속의 생기 있는 주방용품을 디자인하는 '레토릭'이 있었다.



베스트어워드 수상작



콜라보 전시

청년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영디자이너 주제 워크숍 & 전시'와 '영디자이너 잡페어'가 개최되었다. '영디자이너 주제 워크숍'은 70명의 영디자이너와 디자인계 선배 15명의 멘토가 참여하여 행사 주제인 '뷰티풀 라이프'를 상상하고 인문학적으로 해석하여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였다. 5월부터 4개월간 6회에 걸쳐 공통 워크숍과 멘토와의 팀별 워크숍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을 오픈 스튜디오 형태로 아트홀1관에서 선보였다. '영디자이너 잡페어'는 2022년 3회를 맞는 영디자이너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5월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완료한 90여 명의 영디자이너는 8월 말까지 포토폴리오와 자기소개서 코칭, 모의면접 등 총 5회에 걸친 멘토링을 완료하고 잡페어를 통해 구직 활동에 나섰다. 영디자이너 잡페어 참여자 64명 중 1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하반기 9월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서울디자인 2022' 기간에 현장 취업 컨설팅 기회도 주어졌다. 현장 취업 컨설팅에서는 현장 모의 면접, 직무 테스트 등의 전문가 취업 컨설팅과 취업 트렌드를 반영한 취업 코칭 등이 진행되었다.

해외 기관 협력전시도 진행되었다. 아트홀 복도에 베를린 디자인위크, 비엔나 디자인위크, 싱가포르 디자인위크가 참여하여 콘텐츠를 교류하고 디지털 전시 홍보를 진행했다. DDP 디자인랩에서는 국내 디자인 단체와 대학이 주최하는 디자인 전시와 포럼이 열렸다. 경희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전시 'DADA',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시 '패션 크레오', 성신여자대학교 섬유디자인과 전시 'Flow that, Flow at?',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오픈소스랩 워크숍 '끌력: 서로가 서로를 이끄는 힘' 등의 전시를 통해 국내 디자인학과 대학생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또 한국색채학회 포럼,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2022 가을 세미나, 한국실내건축가협회 골든스케일디자인어워드 전시, 한국현대디자인협회의 국제 포스터디자인전, 그래픽디자이너스미팅의 '인류애: 그래픽디자이너와 함께 그리다' 전시, 프롬나드디자인연구원의 오픈 세미나와 전시 등 디자인 학회와 협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전시 행사가 펼쳐졌다.



영디자이너 주제 워크숍 & 전시



경희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DADA

국내외 대표 디자인 전문가와 최신의 디자인 트렌드를 논하는 '국제 디자인 트렌드 포럼'이 10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3일간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었다. '트렌드, 변화와 기회 What's Now & Next?'를 주제로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하여 현재 디자인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디자인 트렌드 흐름을 전망하는 자리가 되었다. 1일 차 세션에서는 국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분석. 전망하고 미래 트렌드를 만들어갈 디자이너들이 참여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와 2023년 컬러 트렌드를 제시했다. DDP디자인페어 참가 디자이너와 소상공인도 연사로 함께 참여했다. 2일차 세션은 미래 산업 트렌드의 주축인 디지털 분야에 대해 다루었다. 3일 차는 해외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세계 각국에서 분석하는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디자인 트렌드를 전망했다.

[국제 디자인 트렌드 포럼]

1일 차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트렌드' - 10. 21.(금), 14:00~16:00 @ DDP 컨퍼런스홀	
모더레이터: 나 건 홍익대학교 교수/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이정민/트랜드랩506 대표이사	'포스트 팬데믹 시대와 디자인산업 트렌드'
이영혜/㈜디자인하우스 대표	'디자인은 국부의 원천'
이상희/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장	'SHIFT: 2023-24 Color Trend'
신태호/㈜랩엠제로 대표, MAEZM 공동대표 2022 DDP디자인페어 베스트어워드 시장상	'사용자 중심에서, 제조의 관점으로'
임성묵/DSLSM 디렉터 2021 DDP디자인페어 베스트어워드 시장상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정승문/라이트팹 대표 2022 DDP디자인페어 베스트어워드 시장상	'공공부분 조명디자인 트렌드'
2일 차 '디지털 디자인' - 10. 22.(토), 14:00~16:00 @ DDP 컨퍼런스홀	
모더레이터: 박정호 명지대학교 산업디자인대학 특임교수/전.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조홍래/빔 인터렉티브, 아티카 대표이사 겸 CEO 서울디자인 2022 주제전시 기획	'디지털 컨버전스가 주도하는 아트 앤 디자인 (부제: 뉴앙스, 빛과 그림자)'
김상윤/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새로운 세상이 온다- 메타버스, NFT 가 만드는 가상경제'
요니P/키키히어로즈 CHIEF PRODUCER, 에스팀엔터테인먼트	'패션산업에서 바라본 디지털 패션 NFT의 성장 가능성'
안치성/어반코퍼레이션 대표	'AI시대의 메타버스 dx 전략'
이지윤/Oasys Studio 대표	'VFX기술, 그리고 가상인간의 오늘과 내일'
3일 차 '글로벌 디자인트렌드' 온라인 영상 세션	
장 치위(Zhang Jiyi)/ Taiwan Design Research Institute 원장	'How TDRI leads design and innovation Taiwan'
안드레아 칸첼라토(Andrea Cancellato)/ ADI Design Museum 관장	'Exhibit the design. The experience of ADI Design Museum - Compasso d'Oro, Milan'
마크 위(Mark Wee)/DesignSingapore Council 고문	'Singapore, & the Future of Design'
알렉산드라 클라트(Alexandra Klatt)/ Berlin Design Week 디렉터	'BERLIN DESIGNWEEK topic 2023: RESILIENCE'

DDP 어울림광장에 조성된 '디자인마켓: 디자인빌리지'는 '기업 팝업마켓'과 '소상공인 디자인마켓'으로 꾸며졌다. '기업 팝업마켓'에는 ㈜신세계까사, 코오롱스포츠, ㈜이마트24, 한국마즈 유한회사 등 4개 기업이 참여하여 프리미엄 가구·소품 브랜드 '까사미아',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코오롱스포츠와 편의점 브랜드 이마트24의 협업 브랜드 '포근솟솟', 한국마즈 유한회사에서 초콜릿 브랜드 'm&m's' 등 브랜드 홍보를 위한 이벤트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디자인마켓'은 SNS와 입소문을 통해 잘 알려진 셀러 중 40곳을 엄선하여 한자리에 모았다. 가성비 좋은 디자인 트렌드 제품,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 반려동물을 위한 펫 제품 등 흥미로운 상품들이 소개되었고,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 부스와 F&B 부스도 운영되었다. 제주도에 가야만 만날 수 있었던 '스누피 가든'이 최초로 서울에 입성하여 스누피 가든 굿즈를 선보이고 스누피 캐릭터를 활용한 모스 액자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자원순환 제품을 만드는 '그린라운드기프트'는 PET 재활용 섬유로 만든 장바구니 자판기를 설치하여 마켓 소비자들이 비닐류의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공방 꽃피는삼월에/지피프로젝트'는 리필 용기를 가져오면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를 구입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했고, 반려견 입욕 제품 브랜드 '머디스트'는 유기견 임시 보호자 및 입양 후 1년 경과 보호자에게 현장에서 무료 제품을 증정하는 유기견 입양 장려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밀크티 맛집으로 유명한 '카페진정성', 성수 인생샷 핫 플레이스로 유명한 '피죤그램' 등을 만나볼 수 있었다.



디자인마켓: 디자인빌리지

‘서울디자인 2022’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추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인 ‘펫 빌리지’와 ‘펫 데이’를 운영했다. 10월 19일(수)부터 28일(금)까지 DDP 어울림광장에 조성된 ‘펫 빌리지’는 반려동물을 위한 휴식과 놀이 공간으로 반려동물 가구와 인테리어 자재, 펫푸드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반려동물 펫푸드 시장에 본격 진출한 유한양행에서는 윌로펫 사료 샘플을 방문객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반려동물과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스팟도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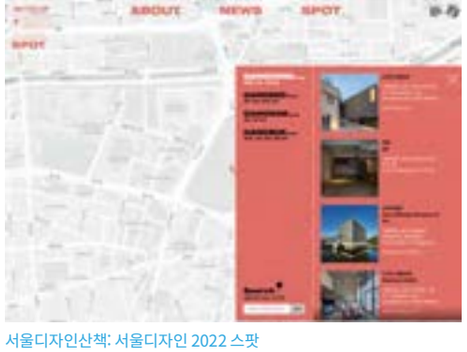
10월 21일(금)부터 22일(토)를 ‘펫 데이’로 지정해 반려동물을 동반한 입장객은 아트홀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다. DDP 외부에서도 행사가 진행되었다. ‘서울디자인산책: 서울디자인 2022 스팟’은 미술관, 박물관 등 서울의 공공 명소,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알려진 디자인숍과 디자인 스튜디오, MZ세대 사이에서 유명한 맛집, 멋집 등 118곳을 엄선하여 소개했다. 해당 스팟에 도어사인과 플래그가 설치되어 방문객은 ‘서울디자인산책: 서울디자인 2022 스팟’ 지도를 보며 서울을 산책하고 서울의 디자인 트렌드와 맛집, 멋집을 경험할 수 있었다. 행사 기간 중 어울림광장에는 버스킹 공연을 위한 소무대가 설치되었고, 방문객은 야외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축제를 즐기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디자인마켓



포토스팟



서울디자인산책: 서울디자인 2022 스팟





DDP디자인페어
홈페이지

‘서울디자인 2022’는 다양한 디자인계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재단은 운영위원 4인과 콜라보 큐레이터 4인, 론칭 큐레이터 7인을 2022년 4월에 선정했다. 운영위원은 ‘서울디자인 2022’의 전반적인 자문과 운영을 지원하고, 콜라보 큐레이터는 ‘DDP디자인페어’의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콜라보 매칭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론칭 큐레이터는 우수 디자인 스튜디오의 선정과 론칭 전시를 지원했다. 운영위원으로는 2021년 ‘DDP디자인페어’ 총감독을 역임한 이길형(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김현선(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유이화(아이티엠 건축연구소 대표), 김종완(종킴디자인스튜디오 소장)이 선정되었으며, 콜라보 큐레이터로는 조명과 가구, 생활 리빙, 공간 분야의 전문가인 정미(이온에스엘디 대표), 하지훈(계원예술대 교수), 안강은(Inne 대표), 조은환·신태호(MAEZM 공동대표)가 선정되었다. 론칭 큐레이터로는 디자인과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마재철(이노메싸 대표), 박근하(루밍 대표), 백종환(WGNB 대표), 양태오(태오양스튜디오 대표), 유화성(아고라이팅디렉터), 이달우(마음스튜디오 대표), 이지현(코웨이 디자인실장)이 선정되어 활동했다.

서울디자인 2022는 온오프라인 통합 약 110만 명이 참여하여 재단 설립 이래 단일 행사 기준 첫 100만 관람객 시대를 연 행사로 기록되었다. 또한 재단에서 자체 기획한 MICE행사로는 처음으로 수익사업 전환을 시도하여 전시 티켓 판매 및 마켓 매출로 약 3억 3,0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SEOUL
DESIGN
DDP
2022

2-1-2. 서울디자인 브랜드 개발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브랜드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서울디자인브랜드 개발
분류 체계	디자인산업 진흥 | 산업지원 | 컨설팅·개발·마케팅
키워드	#디자인상품 #디자인브랜드 #유통 #홍보 #마케팅 #공모전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판매와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서울디자인 브랜드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생과 공정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기회와 일자리를 얻는 서울 조성'이라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DDP 특성이 있는 디자인 상품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 공예가, 기성 디자이너 중심의 디자인 개발에서 청년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꾀했다. 또한 시장의 동향과 트렌드에 발맞춰 DDP 독자 상품을 개발하여 실용성과 대중성이 높은 상품을 제작하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청년 디자이너의 성장을 지원하고 서울을 상징하는 DDP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2021년 '제1회 DDP 브랜드 상품 디자인 청년 디자이너 모집 공모전'을 개최하고 2022년 2회까지 이어오고 있다. 청년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상품화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본 공모전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력으로 DDP만의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 19세~만 39세 청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디자이너에게는 상품 개발비, 전문가 멘토링, 전시 참여, DDP 스토어 유통·판로를 지원한다. 2021년 공모전 주제는 '다가올 미래의 서울 라이프'였다. 청년 디자이너는 DDP 역사, 건축 소재, 패턴 등 DDP 아이덴티티를 디자인 소재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지니고 실현이 가능한 디자인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글과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해 제출했다. 총 63개 팀(101명), 81개 지원작이 접수되었고, 주제 해석, 지속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1차 심사에서 20팀 37명의 청년 디자이너를 선정했다. 선정된 팀은 전문가 멘토링 워크숍을 통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고, 유통·마케팅 특강을 통해 창업 비즈니스를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청년 디자이너 20팀이 개발한 시제품은 DDP디자인페어(2021. 10. 19.~25.)를 통해 공개되었다. 전문가의 시제품 실물 심사와 서울시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통해 5개 팀이 최종 선발되었고, 선발된 청년 디자이너 5개 우수 상품과 청년 디자이너의 멘토 역할을 한 기성 디자이너 10개 상품은 DDP디자인스토어에 입점·판매되고 있다.

2022년에는 '삶의 첫 순간에 필요한 디자인'을 주제로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6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공고를 통해 접수된 청년 디자이너 중 1차 심사를 거쳐 20개 팀 29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청년 디자이너는 7월부터 8월까지 멘토링, 상품화 디자인교육을 거쳐 프로토타입 제작을 진행했고, 9월 2차 심사를 통해 우수 상품 10개 팀이 선정되었다. 2022년 청년 디자이너 우수 디자인 상품은 서울디자인 2022를 통해 개최된 '일상의 시작과 함께 하는 DDP' 전시에서 공개되었다.

청년 디자이너 우수 상품에 대해서는 디자인 출원을 통해 권리 보호를 지원하고, 디자이너 인터뷰와 제작 스토리는 영상과 도록으로 제작·배포된다.

2021 청년 디자이너 DDP 브랜드 상품

기성 디자이너


'B-side DDP', 조기상


'Beyond DDP', 성정기


'Radii 컵', 이성용


'Material Seoul', 이장섭


'Object of Seoul', 송봉규

청년 디자이너


'Tyvek Stitching Basket', 김예진/이기용


'Anu Plant Bowl', 안용우/김정엽/나원호


'RE·fabric 트레이', 조민열


'달걀 망치', 김찬우/전지애



'Notie*', 윤태준/박현우

[2022 DDP 브랜드 상품 디자인 청년 디자이너 모집 공고문]



[DDP 브랜드 상품 디자인 청년 디자이너 공모전 선정 작품]


‘변화의 컵’, 박영두


‘Ready, Set, Timer’, 김승철


‘Stack-김슬기’, 유지혜


‘일출-김경민’, 김산하


‘DDP Platter series’, 박진경


‘Arch.’, 이범석


‘디디.피움’, 정영준


‘블랙홀’, 김종건/김현석


‘DDPC & DDPH’, 유현준/정수진


퍼스트백, 복이안

서울디자인재단은 DDP에서의 경험을 추억할 수 있도록 일상 속 디자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기념품을 위주로 하는 DDP 굿즈로 엽서, 노트, 마그넷, 페이퍼 클립, 메모 패드, 담요 등의 아이템을 직접 디자인하거나 디자이너와 협력하여 개발하였고, 유튜버, 기업 등 기성 브랜드와 협력하여 볼펜, 입체 카드, 가방, 향초, 디자인 문구류 등을 개발했다. 2022년 하반기에는 GS25 ‘갓생기획’(MZ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기 위해 2030 세대 팀을 구성, 아이디어를 모아 직접 상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과 함께 디자인 상품을 개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DDP디자인스토어에 입점한 5개 청년 기업이 참여하여 향초, 고무 망치, 디자인 문구, 도자기 상품, 매모 패드 등 디자이너 각자의 개성이 담긴 상품을 디자인했다. DDP × GS25 ‘갓생기획’ 디자인 상품은 10월 14일(금)부터 11월 13일(일)까지 DDP 디자인랩 1층에서 열린 팝업 스토어를 통해 공개되었다.




DDP × 갓생기획(GS리테일) 콜라보레이션 상품

[2022년 일상 디자인 DDP 브랜드 상품 개발 목록]

구분		디자이너 및 양산품			
		상품명	종	디자이너	상품 종류
외부 협업	1	DDP 일러스트 엽서	3	싸비노	엽서
	2	DDP 일러스트 노트	3	싸비노	노트
	3	DDP 일러스트 마그넷	3	싸비노	마그넷
	4	DDP 153 펄	1	모나미, 김경은(직원)	볼펜
	5	DDP 153 네오펜	1	모나미, 김경은(직원)	프리미엄 볼펜
	6	DDP 입체 카드	1	이음드림, 리모	팝업 카드
	7	DDP 하모니즈 가방	1	카아민	에코백 가방
	8	DDP 하모니즈 엽서	1	카아민	엽서
	9	DDP 하모니즈 포스터	1	카아민	포스터
	10	갓생기획 향초 세트	2	청년 기업, GS리테일	캔들
	11	갓생기획 디자인 문구류	16	청년 기업, GS리테일	문구류
	12	갓생기획 고무망치	2	청년 기업, GS리테일	문구류
	13	갓생기획 메모 패드	3	청년 기업, GS리테일	문구류
	14	갓생기획 도자기 상품	6	청년 기업, GS리테일	그릇, 컵
	15	DDP 수채화 엽서	3	리모	엽서
	16	DDP 아이소메트릭 미니어처	5	이영우	오브제 5종
직접 개발	17	DDP 감성 엽서	10	김경은(직원)	엽서
	18	DDP 북마크	1	김경은(직원)	페이퍼클립
	19	DDP 디오라마 트레이	1	김경은(직원)	다용도 오브제
	20	DDP 디오라마 오브제	1	김경은(직원)	다용도 오브제
	21	DDP 담요	1	김경은(직원)	담요
	22	DDP 메모 블록	2	정종희(직원)	떡메모지





DDP × 카아민 콜라보레이션 상품

2-1-3. DDP 디자인 스토어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브랜드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DDP디자인스토어 운영 | 우수 디자인 마케팅 활성화
분류체계 디자인산업 진흥 | 마케팅
키워드 #디자인스토어 #디자인상품 #유통 #마케팅 #디자인산업 #온라인쇼핑몰 #DDP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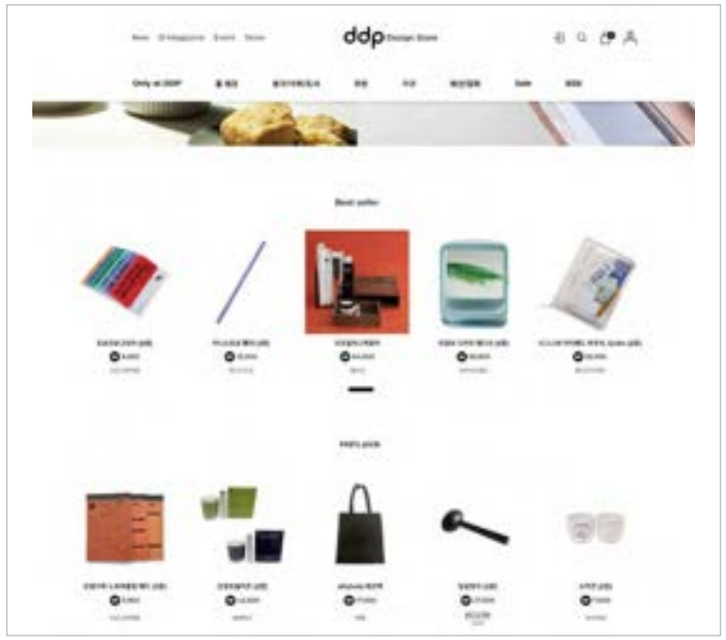
DDP디자인스토어는 서울의 우수 디자인 상품이 집결되는 디자인 공공유통 플랫폼으로 신진 디자이너 및 디자인 기업의 상품을 발굴하고 론칭·판매·유통을 지원하여 서울의 디자인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매년 DDP 브랜드 상품 개발 사업을 통해 DDP에서만 유일하게 판매하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분기별 입점 심사 공모를 통해 신진 디자이너 및 디자인 기업에게 스토어 입점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라인부터 개성이 넘치는 신진 디자이너의 상품으로 구성된 브랜드 라인까지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판매한다. DDP디자인스토어 오프라인 매장(면적 547㎡)은 디자인랩 1층에 위치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DDP디자인스토어

DDP디자인스토어는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자 급감과 그로 인한 매출 감소, 신진 디자이너 및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상품군을 다양화하는 등 운영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판매 서비스 개발에 착수하였고, 2021년 9월 13일 온라인 매장(www.ddpdesignstore.org)을 오픈했다. 입점 상품의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프리미엄 라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 상품을 추가 구성하고, 청년 디자이너와 DDP 브랜드 상품 개발을 통해 DDP디자인스토어 상품의 다양화를 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채워주고 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입점 심사 공모에서 새로운 디자인,

신진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상품을 선정하고 새로운 트렌드와 시대적 요구에 맞는 디자인 상품을 발굴했다. 2021년 입점 공개모집을 통해 59개 기업, 197개 상품이, 2022년 1~4차 공개모집을 통해 94개 기업, 388개 신상품이 입점되었다. 2022년부터 입점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수시 입점심사위원회를 도입했다. 또 MD제를 적용하여 최신 트렌드의 디자인 상품을 직접 선별하고 수시 입점심사위원회의 평가 후 입점을 확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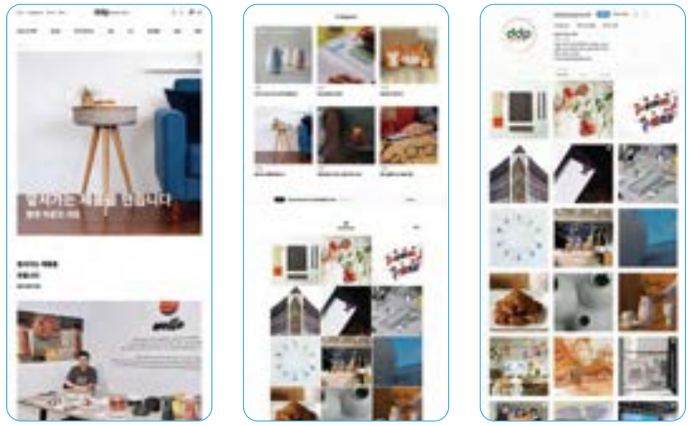
DDP디자인스토어
온라인쇼핑몰

DDP디자인스토어

매장 연출에도 변화를 시도했다. 한국비주얼머천다이징협회(KVMD)와 협업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의 환경과 디스플레이를 개선하여 매장을 체험형 공간으로 전환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힙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주기별 공간 개선을 시도하고, 매장의 공간 아이덴티티, 그래픽,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여 반영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 DDP디자인페어, 서울디자인브랜드 개발 사업 등 서울디자인재단이 펼친 주요 사업의 성과물을 상품으로 등록하고, 기획·판매전 개최를 통해 다양한 공간 연출을 시도하여 판매뿐 아니라 전시를 통해 재미있는 문화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대내외 협력을 통해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판매를 활성화했다. 신세계 여주아울렛 협력판매전(2021. 4. 23.~5. 9.), DDP디자인페어 팝업 스토어(2021. 10. 19.~25.)를 진행하였고, 2022년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굿디자인 상품 74개가 입점했다.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해 B2B 사업도 시행했다. B2B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하여 기관 대상 대량 판매를 추진하여 2022년 서울역사박물관 단체 상품 제작 등 B2B 상품 판매 성과를 거두었다. 다양한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30명을 선정하여 MZ세대의 동참도 유도하고 있다. 서포터즈는 입점 심사에 참여하여 상품을 직접 선정하고 SNS를 통해 디자이너 및 상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온라인숍 콘텐츠 구성]



① D-Magazine	② 콘텐츠 아카이빙	③ SNS
<기획전/디자이너전/브랜드전> · DDP디자인스토어 입점 브랜드(디자이너, 기업) 홍보 · DDP디자인스토어가 소개하는 디자이너 추천 · 상품 기획전/상품별 테마 기획전 등	<온라인 콘텐츠 아카이빙> ·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로 고객 재방문 효과 제고 · 아카이빙을 통해 전시/홍보 콘텐츠로 활용 · 시즈널 이벤트 및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인스타그램 운영> · DDP디자인스토어 상품 홍보 및 확산 효과 제고 · 각종 이벤트 진행으로 회원 유입 · 직접적이고 친근한 고객과의 소통 채널



DDP디자인스토어

2-1-4. 서울 디자인 창업센터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분류 체계	디자인산업 진흥 | 산업 지원 | 개발·창업·마케팅
키워드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창업 #스타트업 #창업인큐베이팅 #창업지원 #청년디자이너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역량 있는 차세대 청년 디자이너들이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청년 디자인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이다. 디자인 창업에 특화된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젊은 디자이너들이 스타트업으로서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디자인산업의 지속적인 동력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디자인 창업 기업이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디자인 특화 창업 프로그램 운영, 디자인 창업 인프라 조성 및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의 일환으로 디자인 상품화가 가능한 분야의 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본 1년, 매년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4년간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입주사는 센터 건물 4층에 위치한 입주 기업 전용 공간에 공유 오피스형 라운지 좌석을 배정 받고, 입주 기업별 라커 2개, 우편함을 제공받는다.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 입주 비용은 없으며*, 포토스튜디오, 메이커스페이스, OA룸, 회의실, 오픈키친바 음료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신규 입주 기업 3기 12개 사가 선발되어 입주하였고. 하반기에는 4기 8개 사가 입주했다. 입주 신청 기업은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멘토링과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2022년 상반기 1기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3년 차 입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6개 기업이 계약 연장을 했다. 하반기(11~12월) 2기 입주 기업 대상 연장 평가에서는 4개 기업이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2023년부터 관리비 부가 예정



4층 휴게공간



4층 회의실

입주 기업은 재단 사업과 연계하여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 2021년에는 입주 기업 3개사가 DDP디자인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었다. 2022년에는 그 규모가 확장되어 상반기에는 입주 기업 6개 사의 16개 제품, 하반기에는 4개 사의 5개 제품이 DDP디자인스토어 입점했다. 디자인창업센터 입주 기업에게는 DDP디자인페어 참여하여 대표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2021년에는 입주 기업 4개 사가 페어에 참여했고, 2022년에는 창업센터 단체 기획전으로 입주 기업 30개 사가 참여했다. 기업의 대표 상품과 신규 론칭에 대한 기사는 「월간디자인」 등 지면 기사와 온라인 채널, SNS를 통해 홍보된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는 3개의 사업 협업으로 2022년 5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DDP살림터에서 개최된 'DDP × 서울디자인창업센터 × 서울새활용플라자 패밀리 팝업' 전시에 8개 입주 기업이 25개 제품으로 참가하여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디자인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 '디자인스타트업 패키지'를 운영한다. '디자인스타트업 패키지'는 디자인 창업 기업이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를 예측하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해결형 워크숍과 세미나, 디자인 선배로부터 직접 경험담을 들어볼 수 있는 토크콘서트, 국내외 최정상 디자인 창업가의 성공 사례를 접할 수 있는 디자인창업포럼, 1:1 멘토링 등으로 구성된다. 1:1 멘토링은 디자인 창업, 홍보 마케팅, 유통, HR·노무, 비즈니스 모델·투자 유치 5개의 분야별 전문가가 멘토가 되어 예비 또는 초기단계 디자인 창업가가 창업 초기 겪을 수 있는 시장 분석, 투자 유치,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법무, 조직 관리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프로그램이다. '디자인스타트업 패키지'는 2021년 12회, 2022년 20회 각각 운영되었다.





세미나



토크콘서트



워크숍

센터는 또한 창업 이후 성장 동력이 필요한 설립 5년 이내의 디자인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업 기업은 기업 진단에 따른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초기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IR 프로그램 자료 및 기업 소개 자료를 완성할 수 있다. 데모데이를 통해 AC/VC, 디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IR 발표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받는다.



엑셀러레이팅

서울디자인창업센터 5층에는 멤버십라운지가 있다. 다양한 좌석 형태로 구성된 개방형 업무 공간으로 88석의 좌석과 소규모 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3개를 보유하고 있고, 복합기와 제본기 등 간단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OA 스페이스, 국내외 디자인 전문 서적 및 매거진이 전시된 오픈키친, 전망 좋은 휴게 공간이 구비되어 있다. 월 단위 멤버십으로 운영되며 매월 15~25일 회원 신청을 받는다. 멤버십라운지 회원은 센터 내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고, 센터 입주 기업과 교류·협업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주관하는 디자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멤버십라운지는 기존 모든 시민 대상으로 하던 회원 자격을 2022년 8월부터 디자인 관련 종사자, 전공자로 전환하여 디자인 창업가 육성과 지원 역할을 강화했다. 현재 창업에 관심 있는 디자인 전공자, 예비 창업자, 기창업자 및 관련 종사자 등 2,370명(2022년 12월 기준)이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구분	내용	2021년(온라인)	2022년(오프라인)
디자인 창업 프로그램 개최 횟수	1:1 멘토링	4회	5회
	토크콘서트	4회	5회
	워크숍	4회	5회
	세미나	-	5회
	디자인창업포럼	1회	1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1회	1회
	데모데이	1회	1회
디자인 창업 프로그램 운영 성과	디자인 창업 프로그램 참가자	1,181명	1,065명
	디자인 창업 프로그램 만족도	92%	92%
홍보·마케팅 지원 성과	센터 및 입주 기업 홍보건	288건	195건
	DDP페어 연계	3개 기업	30개 기업
	DDP스토어 연계	4개 기업	9개 기업

서울디자인창업센터 홈페이지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입주 기업]

1기	디자인스튜디오 임성묵, 주식회사 밴플, 웬(WHEN), 위켄드랩(WKND LAB), 주식회사 문워크 디자인, 팔방디자인
2기	주식회사 세현, 주식회사 두들, 주식회사 푸들, 소마르(Somar), 주식회사 게릴라즈, 주식회사 오드오피스, PUSH THE LEVER(푸시더레버)
3기	주식회사 나이비, 스튜디오 윤소현, 바이슨 기어스 코리아, 주식회사 아이돈케어, 주식회사 스페이스블록, 컬택, 키키킷, 원인어헌드레드, 플랜테일러, 주식회사 보이지, 라이프앤콜렉트, 주식회사 매거진앤디
4기	나이스투잇츄, 스파클링 모먼트, 주식회사 민들레마을, 퐁도(FONTHO), 핀어웨이큰, 마운틴듀오, 라윤(LAYOON), 포지티브미(Positive Me)
졸업 기업	알리올라, Studio XSXL, 위넥티드, 해턴, 민디, 모아컴퍼니, 리닥(하트세이프티), 스프링워터, ㈜핵심 가치[전_CLOBO(드림빅)], HCLAB, 주식회사 세현, 소마르(Somar), 주식회사 게릴라즈


5층 멤버십라운지 워크스페이스


5층 맴버십라운지


5층 오픈키친

2-1-5. 디지털 디자인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지털디자인팀
사업 연도	2022
예산명	서울디자인위크 개최·유니버설디자인 플랫폼 운영
분류체계	디자인산업 진흥 | 산업 지원 | 개발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전시
키워드	#디지털디자인 #디지털디자인산업 #NFT #DDP-NFT갤러리 #DDP콜렉팅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지털디자인으로 변화하는 디자인 패러다임에 발맞춰 2022년 디지털디자인 사업 부문을 신설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DDP-NFT 갤러리를 개설하여 디지털디자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진 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공모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디자이너들이 보다 쉽게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었다. 5월 14일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중장기 DDP-NFT 플랫폼 구축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DDP 디자인랩 3층 UD CITY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 메타버스, NFT(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상품) 등 디지털 분야 디자인 지원 사업 방향 및 디지털디자인산업 동향을 소개했다. 디자인과 스포츠 산업을 연계한 대중성 있는 NFT IP 확보를 위해 대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마켓 운영을 위해 델리오와, 자율주행 스마트 로봇 체어 시범 운영 및 이동 약자 문화 콘텐츠 서비스 지원을 위해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디지털디자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기존의 UDP 공간을 리뉴얼하여 DDP-NFT 갤러리를 오픈했다. DDP-NFT 갤러리는 4차 산업 시대의 디지털디자인의 역할을 시각화한 공간으로 10월 11일부터 DDP-NFT 기획전으로 꾸며져 운영되고 있다. '모두를 위한 기회_디자인 플랫폼이 선사하는 미래'를 주제로 한 기획전은 DDP-NFT 도입부, DDP-NFT 특별전, DDP 공모전의 세 파트로 구성된다. 디자이너가 새로운 분야이자 기회로서 디지털디자인산업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NFT를 필두로 한 디지털디자인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디자이너와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DDP-NFT 도입부'는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의 개념과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그림이나 디자인 등이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예술 영역인 '제너레이티브 아트(generative art) 체험존'이 있어 관람자가 작품 생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DDP-NFT 기획전


제너레이티브 아트



기성 디자이너 특별전

[DDP-NFT 기획전 개요]

전시명	DDP-NFT 기획전
전시 주제	모두를 위한 기회_디자인 플랫폼이 선사하는 미래
전시 기간	2022년 10월 11일(화)~상시
전시 공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3층 디자인 쇼룸, 디자인 홀
전시 내용	▶ DDP-NFT 도입부: NFT 작품의 현황과 트렌드 소개 ▶ DDP-NFT 특별전: 기성 디자이너의 작품 전시 ▶ DDP 공모전: 공모전 'DDP-NFT 콜렉팅 Vol.1' 출품작 전시

'DDP-NFT 특별전'에는 국내 최연소 NFT 예술가 아트띠쁘(Arthief, 박하름), 국내 NFT 1세대 디자이너 레이레이(LAYLAY), 2017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비주얼커뮤니케이션 부문 대상 및 국제 비엔날레와 디자인 어워드에서 120여 회 수상한 비디비(BDB) 심대기, 동양화 전공을 바탕으로 매체(미디어)·영화·행위예술 등 분야별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창작에 도전하는 라이징 선(Rising Sun, 김일동), 일러스트레이터, NFT 디자이너, 메타버스 스토리텔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디자이너 케이트 킴(Kate kim, 김효정), 가수 겸 DJ에서 NFT 디자이너까지 다재다능한 재능을 선보이는 예술가 쿠(KOO, 구준엽) 등이 참여한다. DDP-NFT 기획전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젭(ZEP)에 구현된 가상현실로도 만나볼 수 있는데, 현실의 DDP 건물 외관을 실제와 같이 구현해 보다 생동감 넘치는 전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메타버스 전시관에서 기성 디자이너의 NFT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구매도 할 수 있으며 공모전 관련 정보 확인과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참여 디자이너 프로모션 프로그램으로 '레이레이 × 태국 NFT 작품 팝업 전시'(10. 27.), '김동은 NFT 갤러리 협업 디자이너 강연 토크'(11. 19.)가 진행되었고, 국내 최초로 이동약자 관람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 체어 시범 운영이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있었다. 도슨트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디지털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디자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10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DDP-NFT 특별전 전시 작품



08AM(박세진)
Yellow In the Art, 2022



Arthief(박하름)
waiting, 2022



비디비BDB(심대기)
BDB Meta: DDP, 2022



Kate kim(김효정) | Faces from my daydreaming, 2022



KOO(구준엽)
Dance with Tiger, 2022



LAYLAY(레이레이)
SCAMWAR, 2022



Rising Sun(김일동) 시공상상도 시리즈 – 행복한 부엉이(Happy Owl), 2013



SUPERNORMAL(이선복)
'Uh Huh' OFFICIAL MV, 2022



Wobistdu(박윤주, 정준우)
Flot_plan_Rundmahal, 2022



하얀용(김동은)
FEWK 0099, 2021

서울디자인재단이 2022년 처음으로 개최한 NFT 디자이너 공모전 'DDP-NFT 콜렉팅 Vol.1'은 'DDP의 점·선·면'를 주제로 하여 디지털디자인에 관심 있는 시민,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DDP의 건축적 가치를 홍보하고 NFT 발행이 가능한 디지털디자인 콘텐츠 작품이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2차에 걸쳐 접수되었고, 1차 접수 작품 126점(10. 11.~12 .4.)과 2차 접수 작품 230점(12. 13.~31.)은 모두 DDP-NFT 갤러리에 전시되었다. 접수된 NFT 작품은 디지털디자인 분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0개 작품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디자이너에게 총 3,5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공모전은 재단과 디지털 자산 핀테크 전문 기업 델리오가 공동 주최해 접수한 모든 작품은 NFT 발행(민팅)과 판매(리스팅)가 가능하도록 하여 디자이너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돕고, NFT 제작 경험이 전무한 초보 디자이너를 위해 NFT 발행과 플랫폼 이용 방법 등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공모전 참여의 장벽을 낮출 수 있었다.





'DDP-NFT 콜렉팅' 사전교육

[DDP 콜렉팅 공모개요]

공모전명	DDP 콜렉팅 Vol.1
주제	DDP 점·선·면
공모 접수	1차) 2022. 9. 1.(목)~9. 29.(목) 오후 12시까지, 홈페이지 접수 2차) 2022. 10. 6.(목)~11. 3.(목) 오후 12시까지, 홈페이지 접수
참가 자격	시민 누구나
공모 분야	디지털 방식으로 창작된 회화, 일러스트, 사진, 3D 등 전 분야
심사 기준	적합성(30%), 작품성(30%), 창의성(30%), 공공성(10%)
심사 방식	심사위원단 70%(NFT 디자이너 및 콜렉터) + 온라인 투표 30%

[DDP-NFT 콜렉팅 Vol.1: NFT 디자이너 공모전 수상작]

상격	작품명	디자이너명
DDP FAVORITE	DDP.NET_3	곽○원
	D-Lamp	박○준
	The present : Pile	김○혜
	숙취(Hangover) _ Side view	이○서
	First sight of the	김○건
	SDP-21	민○준
	P-L-P	심○하
	DDP Spot #3	김○훈, 오○경
SDF CHOICE	Infinite bridge	전○영
DELIO CHOICE	404Error in M○C△-DDP	4○○○R

2-2. 새활용산업

2-2-1. 새활용 기업 지원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새활용사업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서울새활용플라자
분류체계 디자인산업 진흥 | 산업 지원 | 개발·창업·마케팅
키워드 #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산업 #새활용기업 #자원순환 #친환경 #입주기업 #입주공간 #프로모션 #행사

서울시는 2017년 9월 서울새활용플라자를 개관하고 새활용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형성을 지원해 오고 있다. 폐기물을 재자원화하여 새롭게 디자인과 가치를 입히는 새활용기업을 발굴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소재 공급과 제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제공,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쇼핑몰 운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새활용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새활용플라자 3~4층에 새활용기업 입주 공간을 설치하고 입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입주한 기업은 새활용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기업과 재사용 물품을 선별·처리하는 기업, 전자제품 등을 수리하는 기업, 새활용 시민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2022년 12월 현재 총 24개의 새활용기업이 입주해 있다. 입주 기업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통해 유통 판로 개척, 마케팅, 사업화 및 외부 자원 연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고 서울새활용플라자와 함께 다양한 새활용 교육과 워크숍을 열어 새활용의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입주 기업은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하여 2017년 개관 이후 4년 만에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고 2022년에는 248억 원에 이르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 컨설팅, 판로 개척 등의 직접 지원에 더하여 공간·설비·장비 지원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 공공기관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외부 수요 연계, 공동 프로젝트 및 홍보 추진 등 입주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시너지 등의 잠재적인 효과가 성과로 드러난 결과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컨설팅

[연도별 입주 기업 총 매출액(2022. 12. 기준)]

구분	2017년(9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매출액	36억 원	75억 원	93억 원	102억 원	136억 원	248억 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 기업 현황(2022.12 기준)]

연번	기업명	주요 제품	세부 설명
1	㈜아나키아	신발, 교육	폐가죽(재조합 가죽)을 활용한 신발 제작과 폐자원(목재, PET)을 활용한 환경 교육
2	㈜카네이테이	가방 등 패션잡화	폐군용텐트, 폐오일펜스를 활용한 잡화, 의류, 액세서리, 캠핑용품 제작
3	윤앤코	가구, 공간 전시	업사이클 공간 전시, 문화를 통한 커뮤니티 & 교육 랩으로 폐자동차, 폐자원, 플라스틱을 활용한 새활용 가구 제작
4	월간마움	패션잡화, 액세서리	친환경, 재사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패션 제품을 제작하는 브랜드 쏘왓 운영
5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 캠페인	녹색 제품의 발굴, 녹색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및 녹색 소비 교육을 통한 녹색 제품의 보급 촉진
6	유일자수	패션잡화	버려지는 원단에 자수와 디자인적 요소를 접목한 패션잡화 제작
7	아르크마인드	공예품(장식품)	페아크릴를 활용한 공예품 제작
8	이오랩(김태연)	미술 작품(오브제)	폐비닐을 활용한 예술품 제작
9	위드드론협동조합	드론 수리 서비스	버려지는 드론 수리, 교육, 소모품 제조
10	㈜스플	인테리어, 전시 기획	업사이클 재료를 활용한 공간 연출
11	버즈더퍼즈	소품, 교육	폐유리병과 알루미늄 캔을 활용한 제품과 키트 제작 및 교육
12	국제평화상사	예술품	업사이클링 예술작업, 설치, 디자인
13	㈜그래딧	온라인 플랫폼 운영	가치소비 온라인 플랫폼 '마켓그래딧' 운영
14	㈜리플렉션	소프트웨어 개발	폐자원 추적 및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15	보네까	인형	헌옷을 활용한 인형 등 제작
16	내내로	가구, 교육	폐목재를 활용한 제품 제작 및 판매
17	오픈어스	DIY 키트	과자봉지를 활용한 DIY 키트 제작
18	플레이백	DIY 키트	업사이클링 패브릭 굿즈 DIY 키트 제작
19	엘씨앤디	잡화	버려진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제품 제작
20	특별한사람들	소품	천연이끼와 업사이클링 소재를 활용한 액자 제작
21	리코세	잡화	폐지와 우유팩을 활용한 잡화 제작
22	솔티스튜디오	잡화	폐현수막을 활용한 잡화 제작
23	㈜에쉬	의류, 잡화	업사이클링 원단을 활용한 의류 및 생활한복 제작
24	밀알복지재단	의류	재사용품 수거 및 판매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 기업은 공실이 생겼을 때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새활용 산업과 문화를 이끌어 갈 새활용기업과 재사용 작업장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새활용, 재활용, 재사용 관련 제품 제작, 소재 연구, 교육, 디자인, 홍보 판매 & 마케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 기업은 임대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기업의 사무공간을 제공받는다. 공용 작업실(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세척실, 포토스튜디오 등 제품 개발과 관련된 시설과 회의실, 교육실, 휴게 공간, 우편함 등 업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입주 기업에게는 친환경분야 전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상점 입점 기회가 제공되고, 외부 전문유통몰과 유통망 협업의 기회 및 해외 유통채널 입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 기업은 기업 경영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과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자협의회를 통한 입주 기업 간 네트워킹, 졸업 기업과의 네트워킹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서울디자인재단 내 지원 프로그램 및 DDP스토어 입점 등 재단 자원을 활용하여 유통망을 확대해 갈 수 있다.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입주자종합평가를 통해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021년에는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비전에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6개의 새활용기업(월간마음, 카네이테이, 아나키아, 윤앤코, 버즈더퍼즈, 유일자수)이 신규로 입주했다. 2022년에는 6월13일 공고를 시작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신규 입주 기업 13개 사를 선발하였고, 9월 입주 절차를 마무리했다.



오픈어스



보네카



특별한사람들

2022 서울새활용플라자 신규 입주 기업



보네까



리코셰



솔티스튜디오



엘씨앤디



오픈어스



특별한사람들



플레이백



국제평화상사



㈜에쉬



㈜리플렉션



㈜그래딧



내내로



밀알복지재단

입주 기업은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직접 운영하는 행사와 타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외부 행사에 참여하여 대중에게 새활용 제품을 소개한다. 2021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열린 'LOVE EARTH NOW전' 팝업 스토어(2021. 5. 30.~6. 6.)에 입주 기업 세컨드비, 오운유, 쉐어라이트, 새봄커뮤니티, 렉또베르쏘 등이 참여하여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새활용 제품을 소개했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2021)(2021. 8. 25.~27.)에는 입주 기업 렉또베르쏘, 유일자수, 에코스톤코리아가 참여했다. 2021년 9월 한 달 동안 서울새활용플라자 2층 전시 공간에는 '새활용 전시회: 숲(SUP)을, 보다'가 열렸다. 버려지는 소재로 만든 결과물을 비포 앤 애프터(Before & After)로 만날 수 있어 새활용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였다. 전시에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 기업과 더불어 다양한 친환경 기업이 함께했다.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온라인 전시도 함께 진행되었다.

2022년 하반기(7. 15.~12. 16.)에는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 새활용하우스에서 입주·졸업 기업 연계 전시 '넥스트전([NEXT]展)'이 개최되었다. 24개의 브랜드가 참여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소재와 이를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진정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행사로 진행되어 더 의미가 있었다. 전시 구성품은 이전 행사에 사용된 집기와 폐소재를 새활용하였고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형 전시대를 제작하여 설치했다. 참여 기업으로 김태연, 렉또베르쏘, 밀키프로젝트, 버즈더퍼즈, 비페이블,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세컨드비, 쉐어라이트, 스플, 아나키아, 아르크마인드, 에코파티메아리, 오운유, 우드어스, 월간마움, 유일자수, 윤앤코, 젠니클로젯(지와이아이엔씨), 카네이테이, 큐클리프, 테라사이클, 프라포프루(이유리 작가), 플레이31, 하이사이클이 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LOVE EARTH NOW전' 팝업 스토어 행사




'새활용 전시회: 숲(SUP)을, 보다'



입주 기업 연계 전시 'NEXT展'






새활용이 산업과 문화의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DDP와의 협력 구조도 강화해 가고 있다. '2021 DDP디자인페어'에는 큐클리프, 아르크마인드, 렉또베르쏘 3개의 입주 기업이 참여했다. DDP 살림터에서 진행한 'DDP 친환경 어린이 디자인 체험교실'(2021. 6. 12.~7.4.)에 입주 기업이 강사로 참여하여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2년에는 서울디자인창업센터와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 기업의 디자인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가 5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살림터 1층 D-8에서 열렸다. 'DDP × 서울디자인창업센터 × 서울새활용플라자 패밀리 팝업전'으로 서울디자인창업센터 8개, 서울새활용플라자 9개의 입주 기업이 참여하여 디자인 제품을 선보였다.





DDP × 서울디자인창업센터 × 서울새활용플라자 패밀리 팝업전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21년 기업의 ESG 경영 활동에 입주 기업을 연계하는 ESG/CSR 사회공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공헌 협업 프로젝트 19건을 성사시켰다. 자원순환 캠페인, 임직원 봉사활동, 소재은행 소재 수급, 취약계층 지원, 전시·홍보·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협업 프로젝트에 입주 기업이 매칭되어 새활용 제품 제작, 교육 키트 개발, 워크숍 및 캠페인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상품 개발을 위한 새활용 소재 수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ESG/CSR 사회공헌 네트워크 사업 주요 성과]

포스코	지역 어르신 가정상비약, 마스크 지원 및 보관함 제작 지원(2~5월)
오뚜기	비닐 식품포장재를 활용한 입주 기업 교육 키트 개발 지원(3월~)
나이키 코리아	스포츠산업의 지속 가능 활동'트래시 인 워크숍' 프로그램 협력(4월)
한살림	두부갑 등 수거 캠페인을 통한 입주 기업 상품 개발 소재 지원(6월~)
롯데 캐미칼	기능성 폐원단을 새활용한 쿨링베개 제작, 지역 취약계층 기부(7~8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Volunteer Up' 자원봉사 프로젝트 연계, 폐우산 소재 분리 및 입주 기업 소재 기부(9~11월)
한국폐기물협회	환경부 '자원순환의 날' 자원순환 실천 서약 캠페인 협력(9월)
성동구청	'새활용스쿨' 교육 프로그램(3월), '생활밀착의 날' 행사 협력(11월)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21년부터 입주 기업 소개를 담은 전용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 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7회의 제품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유통 판로 개발 3개소 추진, 16회의 온라인상점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진행하는 맞춤 컨설팅에는 총 55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2022년에는 마케팅 지원 5회, 유통 판로 지원을 3회 진행하였고, 역량 강화 컨설팅에는 74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 지원(서울새활용스토어, 홍보 영상, 2021 SDF)

2-2-2. 새활용 산업 지원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새활용사업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서울새활용플라자
분류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시민 참여 행사, 네트워크 | 기관·기업 디자인산업 진흥 | 산업 지원 | 컨설팅·개발·창업·마케팅
키워드	#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산업 #자원순환 #친환경 #새활용소재 #새활용제품 #제품개발 #소재은행 #꿈꾸는공장 #창업 #제품제작 #서울새활용주간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산업 지원을 위해 새활용 핵심 소재를 발굴하고, 새활용 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 컨설팅, 새활용 창업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새활용 소재 수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법을 연구하고, 자원순환 기여도를 수치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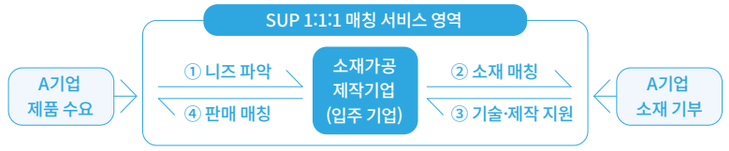
새활용 소재 발굴

2022년 새활용 제품 개발 단·중·장기 단계별 운영 계획을 세우고 1단계-B2G(새활용 민·관 협력)를 진행했다. 상반기 산업 육성 분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총 3회)를 개최하여 새활용 소재의 지속적인 수급·중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민산학연 R&BD를 통해 산업용 새활용 소재를 활용한 대표 공공 제품을 개발하고 시범 확산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 폐기되는 선거 폐현수막 약 5,000장(3,558kg)을 10개 자치구로부터 수거하여 소재화를 위한 부속물 분리 및 운반, 소재 정돈 작업을 진행 한 후 가방, 앞치마, 파우치 등으로 제작했다. 제품 제작에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졸업기업인 젠니클로젯이 참여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

[새활용 제품 개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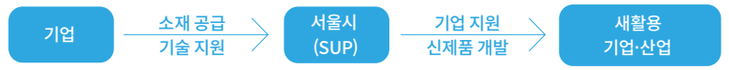
양질의 소재 수급을 통한 매칭 단계별 운영(1:1:1) - 소재 수급 : 전달 : 판매 중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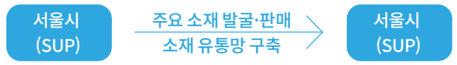
1단계 B2G(새활용 민·관 협력): 대표 공공 제품 개발을 통한 시범 확산



2단계 B2B(새활용기업 협력): 기업-입주 기업 간 소재 매칭을 통한 공급망 구축



3단계 B2C(새활용 소재 발굴·판매): 시민·창업 대상 제품화 소재 유통망 구축



양질의 소재 수급 및 전달, 판매를 위한 매칭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소재를 공급하는 기관과 소재 수요 기업을 매칭하는 1:1:1 중개도 확대해 가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의 산업용 마스크, 세종문화회관 및 지자체의 현수막, 50+재단에서 털실 원단 등을 수급할 수 있었고, 오뚜기, 현대그린푸드, 한살림, 남양유업, 롯데호텔 등의 기업으로부터 각각 카레 비닐, 병뚜껑, 두부갑, 테트라팩, 병뚜껑, 빨대, 폐리넨 등을 수급하여 소재를 필요로 하는 각 새활용기업에 매칭했다. 새활용 소재 수급 효율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재활용, 폐기물 규제 분석을 통한 소재 수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활용 소재를 제품화하기 위한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활용을 검토했다.

소재은행/꿈꾸는공장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소재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소재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새활용 소재를 판매하고 필요한 소재를 중개하거나 매칭하며, 새활용 소재를 기부받은 후 세척과 가공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화 작업을 한다. 2021년 소재은행은 판매 공간을 정비하고 소재 구매 프로세스를 표준화했다. 판매 공간을 '중개소재존'과 '보유소재존'으로 나누어 소재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소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소재 구매 단계에 따른 공간 조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샘플존'에서 총 10가지로 분류된 새활용 소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전시존'에서 필요한 재료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판매존'에서 편리하게 소재를 구매할 수 있다.



소재 라이브러리





소재은행

'꿈꾸는공장'은 자체적으로 수급한 새활용 소재를 이용해 다양한 새활용 시제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창작 공간이다. 업사이클 시제품 제작은 물론 장비 사용,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메이커들을 위한 복합 공간이다. 새활용 디자이너는 물론 시민들도 멤버십 가입과 대관 신청을 통해 꿈꾸는공장을 이용할 수 있다. 꿈꾸는공장은 목공실, 3D프린터존, 2D프린터존, CNC존, 레이저존, 포토존, 회의공간, 안내데스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3D프린터, 3D스캐너, 진공성형기, 플로터, 평판프린터, CNC라우터, 레이저커터, 파쇄기, 사출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2021년 꿈꾸는공장은 더 다양한 장비를 구비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에 맞춰 공간을 재정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관 이후 멤버십 프로그램과 장비 사용 교육을 재개하였고, 꿈꾸는공장 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과 시제품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축소되었지만, 자원순환과 새활용의 가치를 알리고 새활용 소재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꿈꾸는공장의 '시제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소재은행에서 판매된 재료들이 버려질 경우의 탄소배출량을 보여주는 '소재나무'를 매월 SNS를 통해 공개했다.







꿈꾸는공장

제품 개발 및 창업 지원

‘꿈꾸는공장’에서 진행하는 ‘시제품 제작지원 프로그램-왓썹! 메이커!(What’sup! Maker!)’는 새활용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을 지원하여 새활용산업 육성과 자원순환·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자원순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와 업체, 시민 60개 팀을 지원했다. 2020년 5개 업체의 지원한 데에 비해 지원 대상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새활용 제품의 설계부터 디자인, 시제품 제작까지 시제품 제작 전 과정을 포함한다.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CAD(컴퓨터를 이용한 제품 디자인)를 통한 제품 설계와 전문 장비를 활용한 3D(3차원 입체 영상) 모델링, 제품 형상 스캔을 통한 맞춤 설계를 지원한다. 아이디어에 대한 설계 지원뿐 아니라 제품 특성에 맞춰 제품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지원도 하고 있다. 구현된 아이디어는 목업(mock up) 제작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CAM(컴퓨터를 이용한 제품 제작)과 3D프린터를 활용한 제작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21년 소재은행과 꿈꾸는공장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프로그램 ‘소중한 꿈을 디자인하다(소꿈디)’를 진행했다. 소꿈디는 새활용 시제품 아이디어와 제품 개선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통해 새활용 관련 창업가와 디자이너를 모집하여 전문가 멘토 컨설팅과 제품 디자인, 목업·샘플 제작을 지원한다. 2021년 소꿈디 프로그램은 각 5개팀을 선정하여 1차(10월 5~31일), 2차(10월 12일~11월 7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선정된 팀은 멘토인 디오리진(d-ORIGIN) 정수 대표의 컨설팅을 받으며 꿈꾸는공장의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시제품을 개선하였고, 시제품 제작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이후 간담회를 통해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제품 제작지원 프로그램 포스터



소중한 꿈을 디자인하다 포스터

2021년 서울새활용축제 기간 동안 ‘새활용 창업 역량 강화 특강-Start Up Cycling’(9. 4.~5.)을 진행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2층 배움터에서 진행된 특강은 새활용,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창업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새활용 창업 준비 과정, 마케팅, 운영 노하우 등을 공개하였고, 강사로 새활용 창업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홍성재 공공공간 대표가 새활용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강연하고, 누깍 김경준 대표, 밀키프로젝트 김수민 대표가 새활용 제품 디자인·생산 관련 창업 스토리를 전하고, 1.5도씨 이정연 대표는 제로 웨이스트 숍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워크베터컴퍼니 강혁진 대표가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속성장G 전상준 총괄이 창업을 위한 사회적 경제 지원 제도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2022년에는 새활용산업 종사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새활용 전문가 양성 교육’(9. 3.~4.)을 진행했다.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 새활용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업사이클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여 새활용 소재 활용, 디자인 및 제품 개발의 지식과 경험,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 지원 강좌 프로그램]

	2021 새활용 창업 역량 강화 특강	2022 새활용 전문가 양성 교육
1일 차	확장하는 새활용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 홍성재(공공공간 대표) 새활용 성공 기업 창업 노하우 1 누깍 - 김경준(누깍 대표) 새활용 성공 기업 창업 노하우 2 밀키프로젝트 - 김수민(밀키프로젝트 대표)	새활용 지원 사업 -한국환경산업협회 [사례 1] 해양환경공간(공공기관) [사례 2] 젠니클로젝(청바지, 가죽) [사례 3] 나누(펄프 용기)
2일 차	고객을 사로잡는 마케팅 차별화의 법칙 - 김혁진(워크베터컴퍼니 대표) 제로 웨이스트 숍 창업 꿀팁 - 이정연(1.5도씨 대표) 창업을 위한 지원제도 알아보기 - 전상준(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속성장G 전상준 총괄)	[사례 4] 세진플러스(섬유, 건축자재) [사례 5] 아트임팩트(유통, 판매) [사례 6] 리페이퍼(친환경 제지) 창업 지원 컨설팅(KMAC)

서울새활용주간

‘서울새활용주간’은 기업과 시민들이 새활용을 주제로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서울새활용축제, 새활용페스티벌을 명칭으로 하여 2017년부터 6년간 진행되고 있다. 2021 서울새활용축제는 9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3일간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개관 4주년 행사를 겸하는 서울새활용축제에는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새활용컨퍼런스, 팝업 숲(SUP)스토어, 새활용 창업 역량 강화 특강, 새활용 전시회 ‘숲(SUP)을 보다’를 비롯하여 의·식·주 주제별 워크숍, 체험 프로그램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새활용 전시에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 기업 등 2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였고 기업의 사회공헌 협업으로 19건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었다.

2022 서울새활용주간은 ‘아름다운 제로 웨이스트’를 주제로 9월 1일(목)부터 6일(화)까지 5일간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개최되었다. 제로 웨이스트를 주제로 한 전시와 포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및 체험 프로그램, 입주 기업 및 민

간제로마켓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총 3,106명(현장 방문 인원 기준)이 행사에 참여했다. 2022년에는 특히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의 활동과 새활용기업을 연계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산업 지원 측면을 강화했다. 기업 ESG 네트워킹에 총 50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2022 서울새활용주간은 '서울뷰티먼스' 연계 행사로 확장,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서울뷰티먼스'는 10월 한 달간 뷰티·패션·디자인 등 서울을 대표하는 산업을 주제로 한 도시 축제로 2022년 처음 개최된 행사다.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1층에서는 '아름다운 제로 웨이스트' 새활용 디자인 전시회가 열렸다. 새활용 디자인 전시회에는 폐가죽과 폐잠수복으로 새활용 구두를 만드는 '아나키아', 버려진 청바지로 원단을 만들어 새활용 의류와 잡화를 만드는 '유일자수'와 '젠니클로젯', 폐커피자루로 가방과 주머니(파우치)를 만드는 '하이사이클' 등의 업체가 참가하여 다양한 소재를 새활용해 만든 옷, 신발, 모자, 가방 등을 선보였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이 협력하여 '이스토어 36.5'(www.sepp.or.kr)에 입점한 새활용 상품들을 함께 선보여 새활용 상품 유통 경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뷰티·패션 분야의 제로 웨이스트 인식 확산을 위한 이번 전시에 21개의 새활용기업이 참여하였고 시민 4,500명이 방문했다. 전시와 연계한 부대행사로 10월 15일 ESG 시민마당 행사가 개최되었다. 시민 참여 워크숍, 제로 웨이스트 체험·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내 최대 화장품 제조업체인 ㈜코스맥스와 협력하여 폐화장품공병을 소재로 한 ESG 상징 조형물을 제작했다.



새활용주간 포스터



새활용 포럼




새활용주간 행사


새활용주간 행사

숲(SUP)퍼마켓

서울새활용플라자는 국내외 다양한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새활용 제품 전문 판매 공간 '숲(SUP)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제품 판매와 더불어 제로 웨이스트 체험 공간도 갖추고 있어 다채로운 새활용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체험존, 판매존, 기부존, 전시존, 셀프포장존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열리는 오프라인 워크숍을 비롯하여 업사이클링 전시, 소재 기부 리워드 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숲퍼마켓에는 총 14개 브랜드, 90종의 상품이 입점해 있다.

2021
서울새활용플라자
연간 백서


숲(SUP)퍼마켓


아름다운ZERO
웨이스트
새활용 디자인
전시회

주요 성과

디자인산업

서울디자인재단은 2021년에서 2022년을 거치며 코로나19, 디지털 기술 사회로의 전환,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서울디자인 2022를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 서울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디자인 2022는 재단의 대표 사업인 서울디자인위크, DDP디자인페어와 더불어 전시, 포럼, 마켓, 시민 참여 이벤트 등 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모으고 디자인 관련 학회, 협회 및 국내외 유수 브랜드와의 협력을 확장하여 행사 기간과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디자인 행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서울디자인 2022 성과

참여

- **737명** 디자이너 (영디자이너 164명)
- **359개** 기업과 기관
- **52명** 전문가

프로그램

- **18개** 대기업 등 기업 협력 전시
- **43개** 소상공인 마켓 및 팝업 참여
- **139개** 소상공인+디자이너 콜라보 전시
- **36개** 디자인 협회·단체 및 대학 온오프라인 협력 행사
- **37개** 디자인대학 167명 청년 디자이너 취·창업 지원
- **118개** 서울시내 명소, 전시, 맛집, 멋집 등

방문

- **110만 명** 방문객
- **63,784명** 서울디자인 2022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
- **362개 / 9,733명** 인스타 / 게시물 팔로워
- **65개 / 117,045조회** 유튜브 영상 / 조회

디자인재단은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사 운영을 도입하고, 디자인산업 지원 영역을 디지털디자인 분야로 확대했다. 메타버스 공간에 DDP 가상공간을 구현하여 2021디자인위크, 서울디자인 2022 사전 세미나. DDP-NFT 특별전을 진행하는 등 디자인과 미디어 기술이 결합된 미래 지향적인 행사 운영을 기획하고, 디지털디자인 플랫폼 DDP-NFT 갤러리 오픈, 디지털디자인 작가 발굴을 위한 DDP-NFT 콜렉팅 Vol.1 공모전 개최 등 디지털디자인산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디자인 상품 개발·유통·홍보의 기능도 강화했다. 단순 상품 개발이 아닌 우수 브랜드, 아티스트와 협력하여 DDP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DDP디자인스토어의 상품 구성을 기성 작가 중심에서 신진 디자이너 중심으로 확대하여 보다 대중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서는 방향으로 판매 전략을 다각화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DDP디자인스토어 온라인 매장을 개설하여 유통채널을 확대했다. 재단은 앞으로 DDP디자인스토어에 구비되지 않은 상품을 분석하여 신규 디자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새활용산업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21년과 2022년의 기간 동안 기존의 복합 문화공간에서 산업지원공간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새활용산업 육성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산업 지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 소재 수급 및 재가공 공간을 확장·개선하고 제로 웨이스트 테마 휴게 및 비즈니스 라운지를 신규 조성하는 등 공간 기능을 재조정했다. 보다 효율적인 소재 수급과 소재의 활용·유통 확산을 위해 새활용 소재 수급 중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 연구 및 제품 개발 3단계(B2G, B2B, B2C) 전략 수립 등 기반 조성을 통해 소재 중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의 ESG 경영 시류에 발맞추어 ESG 기업과 새활용기업의 공급·수요 가교 역할을 공고히 하고 기업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2021년 사회공헌 협업 프로젝트 19건 추진, 2022년 서울새활용주간에 50개 기업 ESG 네트워킹 참여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국내외 다양한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판매 공간 '숲(SUP)퍼마켓'을 운영하는 등 새활용 상품 유통망을 자체 확보하여 새활용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자원을 재사용하는 새활용 관점에 더하여 제품의 생산과 사용 후 처리에 있어 폐기물을 남기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분야까지 지원의 영역을 확대하여 제로 웨이스트를 콘텐츠로 한 교육·행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시 소재의 제로마켓 95개소를 신규 발굴하여 포장재 없는 매대 운영, 제로 웨이스트 상품 판매 등 매장 운영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1-2022 새활용산업 육성 실적

	분야	2021년	2022년
소재은행	소재 판매(건)	602	260
	소재 중개(건)	59	189
	소재 발굴(건)	153	99
	소재 가공 지원(건)	280	707
입주기업 지원	입주 기업 수(건)	35	24
	입주 기업 매출액(백만 원)	13,657	14,865
	주요 외부 행사 참가 지원 기업 수(중복)(개)	17	28
	내·외부 산업 육성 행사 횟수(회)	2	3
	마케팅 관련 예산액(백만 원)	162	160

3
사회

사업 구분

| 서울시
| 서울디자인재단

주요 배경

3-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 3-1-1. 서울디자인컨설턴트
| 3-1-2. S-돌봄 디자인
| 3-1-3. 사회이슈 대응형 디자인
| 3-1-4.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 3-1-5.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 3-1-6. 인지건강 디자인
| 3-1-7.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 3-1-8. 디자인거버넌스 운영
| 3-1-9. 서울디자인국제포럼(SDIF)

3-2. 유니버설디자인

| 3-2-1.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 3-2-2. 가이드라인 개발
| 3-2-3. 초등학교 인성·창의 교육
| 3-2-4. 초고령사회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 3-2-5. 유니버설디자인센터
| 3-2-6.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주요 성과

주요 배경

디자인은 도시를 편리하고 아름답게 바꾸는 역할을 넘어 교육, 건강과 웰빙,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 수단으로 확장해 가는 추세에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풍요롭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게 하는 데에 이러한 디자인의 역할에 주목하고 범죄, 학교폭력, 치매, 고령화,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디자인으로 해결하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나이, 신체의 크기, 국적, 장애,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발생 이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의 기능적인 작동을 넘어서 시민의 일상을 케어하고 배려하는 디자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사회문제해결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을 주제로 '서울 디자인 포럼'을 개최하여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을 설정하고 시의 디자인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가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디자인

서울시는 복잡해져 가는 도시환경과 예측하기 힘든 사회적 현상, 개인의 생애 주기에 기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해결해 가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삶에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고 미래의 변화를 대비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여,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출생, 성장, 노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생애 전반을 돌보는 디자인,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 심신의 일시적 장애 등 예상치 못하고 발생하는 상황에 적합한 맞춤 디자인을 범용화하고,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효과가 검증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확산해 가고 있다.

서울시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디자인을 개발하고 대상지에 적용하는 있는 디자인 분야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 조건과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발생 유형과 빈도가 상이한 범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학교폭력, 디지털 과의존, 비만 등 다양한 청소년문제를 또래 애착, 자아 존중 및 정체감, 공동체 의식을 높여줌으로써 해결하는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급속한 고령화 및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문제에 효율적 대응하는 '인지건강 디자인', 생애 주기와 처한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를 관리를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이 있다. 2022년에는 '사회이슈 대응형 디자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모든 생활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는 디자인을 개발했다.

서울시 사회문제 해결디자인 백서

또한 서울시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공감하는 디자인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회문제를 시민, 전문가, 디자이너,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디자인으로 해결함으로써 시민과 협력하는 디자인정책을 실현하고 디자인의 과정과 활동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가고 있다.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백서」를 발간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서울시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과정과 성과 그리고 영향력을 대표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물리적 환경 개선이라는 단순한 사업 시행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전반에 디자인적 관점을 적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기획, 프로세스 설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해결해 가는 과정을 종합·정리하여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노하우를 비롯하여 시행착오까지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유니버설 디자인

서울시는 약자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고령화, 외국인 거주 인구의 증가 추세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연령, 성별, 장애, 국적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0년간 유니버설디자인(UD)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0년~2024년)」에 따라 그동안 개별 사업별로 적용해 왔던 유니버설디자인을 서울시 행정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시기였다. 특히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신축·개보수하는 모든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그에 따른 절차 및 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시기이기도 했다. 지난 2017년부터 공공디자인 지침서로 운영 중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권고 수준을 넘어 모든 공공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었고,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나 건축위원회 심의 시 가이드라인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제도화되었다. 가이드라인 적용의 일관성·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디자인정책 총괄부서, 공공건축 및 건축위원회 심의부서,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가 협업하는 '통합 건축 TF'를 운영하고,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조성 시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UD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 고도화 작업도 병행했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현행화하여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으로 새롭게 발간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4종을 고도화했다. 복지시설 유형별 세부 가이드라인에 더해 공중화장실, 육아편의공간 등 시민편의공간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실행 연구,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지표 개발, 시민 대상 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운영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전담 기관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2021. 6. 설치, 2022. 12. 22. 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또 DDP 살림터 3층에 시민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인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2020.9 개소)을 조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2021년부터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SUDA)'을 제정, 운영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의 우수한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3-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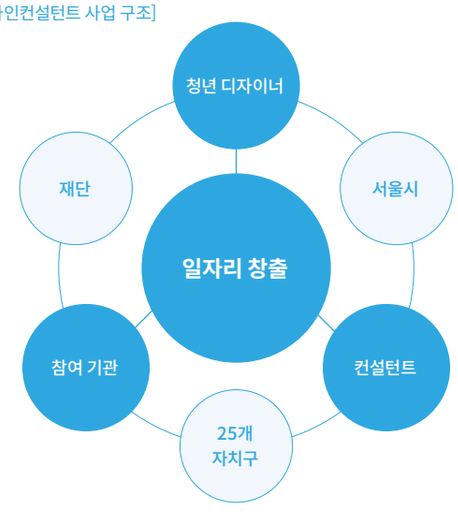
3-1-1. 서울 디자인 컨설턴트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공공디자인팀, 디지털디자인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서울)디자인컨설턴트 | 청년 디자이너양성사업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전시, 네트워크 | 기관 디자인산업 진흥 | 산업 지원 | 컨설팅 디자인 공공성 강화 | 교육 | 청년
키워드	#디자인컨설턴트 #청년디자이너 #지역사회문제 #컨설팅 #일자리

'서울디자인컨설턴트'는 디자인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밀착형 공공디자인 사업인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디자이너의 역량을 강화해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을 콘셉트로 2013년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6년부터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디자인 컨설턴트와 청년 디자이너를 지역의 과제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자치구·공공기관, 디자인 전문가, 청년 디자이너 간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왔으며, 2021년에는 DDP의 UDP 공간 인프라를 활용해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자 했다.

2021년에는 'Design for New Lifestyle: 더 나은 삶의 디자인'을 주제로 4월 2일부터 22일까지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과제(서울시 2개, 자치구 9개, 유

[2021년 서울디자인컨설턴트 사업 구조]



관 기관 1개)를 선정했다. 이후 과제를 함께 수행할 청년 디자이너를 공개모집한 결과 17명이 지원해 7명을 선발했다. 이로써 2020년 활동 기간이 연장된 디자이너 10명을 포함해 2021년 활동할 청년 디자이너는 총 17명으로 확정되었다. 분야별 디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컨설턴트 모집에는 43명이 신청해 심사를 거쳐 최종 12명을 선발했다. 이후 선정 과제의 분야와 청년 디자이너의 전공을 고려해 과제와 컨설턴트를 매칭한 다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디자이너들의 팀워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서비스디자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12회 운영했다. 이와 함께 서울디자인컨설턴트 로고 타입과 슬로건, 키워드를 개발하고 2013년에서 2021년까지 진행된 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아카이빙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2021년에 최종 선정된 12개 과제 중 9개는 실제 실행까지 연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재단은 우수 사례로 석관동 돌곶이 안심마을 경관 디자인, 송파둘레길 탄천길 공간 조성 디자인,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공간 및 콘텐츠 디자인 사업, 동대문 마을문화 플랫폼 사업 4건을 선정해 홍보했으며, 사업의 결과물은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DDP 살림터 3층(현 디자인랩) UDP에서 전시했다. 우수 사례로 뽑힌 송파구청 국제관광과와 진행한 '송파둘레길 탄천길 공간 조성 디자인' 과제에서는 보행길 그래픽, 데크 공간 조형물 설치, 사이니지(안내 사인)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해 시공까지 완료했고 지역과 상생하는 탄천길 홍보 마케팅을 제안했다.

[2021 서울디자인컨설턴트 실행 과제 목록]

연도	과제 내용	컨설턴트/청년 디자이너	기관	실행
2021	주민과 마을을 잇는 소통 콘텐츠 - 동대문 마을문화 플랫폼	정상희(아도크리에이션 대표)/정선경, 정미정	(사)서울문화네트워크	○
	72시간 프로젝트 왕중왕전 디자인컨설팅 - 서울 꽃으로 피다 시즌2	심준우(써니아일랜드 대표)/안현근	서울시 조경과	○
	천현충현동 지역성과 역사성을 담은 도시재생 브랜딩	최원혁(크레카 대표)/김보영	서대문구 도시재생과	○
	홍보 영상 및 상권 살리기 지도 - 온라인으로 만드는 공예로드맵	홍주희(스튜디오주의집중 디렉터)/김세연, 이재영	용산구 용산공예관	
	동작직업특구 - 일자리 플랫폼 人큐베이터 브랜드 홍보 및 고도화	이정연(서울미디어 대학원대학교 교수)/김희인	동작구 일자리정책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만들기	한혜영(HH아키텍츠 대표)/최연승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
	중랑구 청소년 시설에 트렌디한 디자인을 선사하다 - 청소년을 위한 중랑구 만들기	김재성(건국대학교 교수)/윤정섭	중랑구 체육청소년과	○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심 속 환경 놀이터 -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공간 및 콘텐츠 디자인 사업	이선정(국민대학교 교수)/조상현	중랑구 맑은환경과	○
	열린 담장 프로젝트 - 석관동 돌곶이 안심마을 경관 디자인	지강일(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해인	성북구 도시재생과	○
	도심 속에서 즐기는 감성적 자연 생태길 - 송파둘레길 탄천길 공간 조성 디자인	손소영(한국옐로우페이지 이사)/장유빈	송파구 국제관광과	○
	통학로에 피어난 참여디자인 아트펜스 - 우리동네 미술관 23호	이준석(글루 대표)/이혜원	중랑구 도시경관과	○
	쉼이 있는 종로 만들기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벤치 프로젝트	이주영(지오아키텍쳐 대표)/박수빈, 홍지선	종로구 도로과	

‘서울디자인컨설턴트’는 10년 가까이 동일한 사업을 지속한 결과 공공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청년 디자이너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시민들은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2021-2022 서울디자인컨설턴트 과제]

● 2021년 9개 자치구, 12개 과제 ● 2022년 8개 자치구, 15개 과제

종로구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원이 있는 벤치 프로젝트
- 성균관로 5길 골목길 재생 사업
- 디지털디자인산업 활성화 지원
- 박물관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문화 상품 개발 (서울시 서울역사박물관)

성북구
- 석관동 돌곶이 안심마을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
- 성북구 가설 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재구축 사업

중랑구
- 목2동 도시재생사업 가로포켓공원 및 장미꽃빛거리 조성
-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미관 개선 사업

동작구
- 동작직업교육특구 온라인 플랫폼 ‘인큐베이터’ 콘텐츠 발굴 및 제작 관리

중구
- 서울 꽃으로 피다 시즌2
- DDP패션몰 S/S시즌 가상 패션쇼 개최
- 2022 서울정원박람회(서울시 조경과)
- 2022년도 서울안전한마당(서울시 소방재난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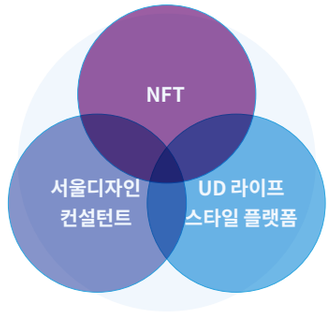
관악구
- 은천동 희망마을 우리동네 살리기
- 건축물식노외공영주차장 배려주차면 공사

송파구
- 송파둘레길 탄천길 공간 조성 디자인
- 송파구 관광기념품 디자인 제작
-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10주년 및 백제 건국 2040주년 홍보 디자인 컨설팅(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

서초구
- 치유농업센터 구축(서울시 서울농업기술센터)

2022년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울 디지털디자인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메타버스, NFT 등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디지털디자인 분야를 신설해 운영했다.

[2022년 서울디자인컨설턴트 사업 구조]



재단은 2022년 3월 기존 공공디자인 분야에 디지털디자인 분야를 추가해 ‘서울 다시 그리다’를 주제로 공공 기관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해 15개의 과제(서울시 3개, 자치구 7개, 유관 기관 5개)를 선정했다.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청년 디자이너 모집에는 총 36명이 신청해 15명이 선발되었으며, 디자인 컨설턴트 모집에는 49명이 신청해 최종 15명이 선정되었다. 청년 디자이너와 디자인 컨설턴트를 1:1로 매칭해 15개의 팀이 탄생했으며, 청년 디자이너와 디자인 컨설턴트가 처음 만나는 오리엔테이션은 5월 13일 열렸다.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은 화상 회의 플랫폼 게더타운을 통해 1차 중간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15인의 디자이너와 컨설턴트가 참여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업의 진행 사항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수행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청년 디자이너들은 사업에 참여하면서 4회의 디자이너 특강,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등 디자인 이슈 학습 소모임 활동, 역량 강화 워크숍과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서울 다시 그리다

최종 결과 전시회는 메타버스(게더타운) DDP타운에서 11월 28일에서 12월 31일까지 개최되었다. 과제 결과물 최종 발표와 함께 우수 청년 디자이너 3명(류하영, 심지은, 정미정)과 우수 사례 4건에 대한 심사와 시상이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지역의 역사를 알리는 문화 상품부터 미래 기술인 NFT를 이용한 홍보물까지 다양했다. 전문 디자이너의 주도하에 진행된 디지털디자인 분야는 청년 디자이너 3인(류하영, 윤혜미, 장은형)이 임무를 맡아, 자신들의 컨설팅 과제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장인 메타버스의 공간 기획부터 전시 콘텐츠 제작까지의 임무를 완수했다.

DDP타운
(메타버스
게더타운)

2023년에는 변경되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운영 방향과 본 사업의 추진 목적을 고려해, 기존의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디자인 공공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2 서울정원박람회



DDP 가상 패션쇼

[2022 서울디자인컨설턴트 실행 과제 목록]

연도	과제 내용	청년 디자이너	기관	실행
2022	은천동 희망마을 우리동네 살리기	권승연	관악구청 도시재생과	○
	2022 서울정원박람회	박정은	서울시 조경과	○
	건축물식노외공영주차장 배려주차면 공사	심지은	서울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
	묵2동 가로포켓공원 및 장미꽃빛거리 조성	김윤하	중랑구청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서울역사박물관 홍보 디자인	김지연	서울역사박물관	○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미관 개선 사업	정미정	중랑구청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
	송파구 관광 기념품 디자인 제작	김승후	송파구청 국제관광과	○
	성북구 가설 올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	김산하	성북구청 도시재생과	
	치유농업센터 구축	임아형	서울시농업기술센터	○
	성균관로 5길 골목길 재생 사업	김연수	종로구청 도로과	○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10주년 홍보 디자인	변수빈	한성백제박물관	○
	2022년도 서울안전한마당	장은형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DDP 패션몰 S/S시즌 가상 패션쇼 개최	류하영	서울시설공단	○
	온라인 플랫폼 '인큐베이터' 콘텐츠 제작	윤혜미	동작구청 일자리정책과	○
	디지털디자인산업 활성화 지원	황현주, 정애주	서울디자인재단	○

3-1-2. S-돌봄 디자인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공공디자인팀
사업 연도	2021
예산명	서울돌봄디자인사업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네트워크 | 기관 디자인산업 진흥 | 산업 지원 | 컨설팅, 개발 디자인 공공성 강화 | 연구 | 정책
키워드	#코로나19 #위드코로나 #돌봄디자인

'S-돌봄 디자인' 사업은 2021년 서울시 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민생경제, 포스트코로나, S-방역'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시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하면서 새로 생길 어린이집에 2020년 개발한 '서울시 안전돌봄 어린이집 맞춤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미 2020년에 SH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강동 구립 든든어린이집의 학부모 대기 공간과 유모차 보관 장소 캐노피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재단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확산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디자인 사례를 선도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 자치구, 민간 기업 및 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S-돌봄디자인 플랫폼 추진단이 출범한 바 있으며, 2021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 협업 체계를 지속해 나갔다.

[S-돌봄 디자인 플랫폼 추진단]

구분	성명	직책	소속	전문 분야
서울시	송다영	실장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총괄
	김수덕	과장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업무 총괄
	강지현	과장	아이돌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업무 총괄
	김미정	과장	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업무 총괄
	유재명	과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업무 총괄
실행 기관	최경란	대표이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총괄
	김세용	사장	SH서울주택도시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총괄
	주진우	대표이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총괄
전문가	오세헌	교수	홍익대학교	제품 디자인
	이태일	교수	고려대학교	인터렉션 디자인 창의성 기법 연구
	정경숙	교수	대구대학교	아동 친화적 디자인 연구
	정재희	교수	홍익대학교	라이프스타일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획
디자인 전문 회사	최원중	대표	포웍스	가구, 교사 UD오피셜 의자 개발
	양영억	대표	웰즈	가구, 어린이 UD침대 개발
	정인환	대표	새턴바스	세라믹, 어린이 UD세면대 개발

2021년 진행한 사업의 분야는 크게 ‘S-돌봄 어린이집 디자인 아이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적용’과 ‘개발 디자인 아이템 전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재단은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해 서울시 어린이집 학부모 400명과 교사 34명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협력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사업을 홍보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돌봄 디자인 적용 신청을 받았다. 자치구와도 협력해 금천구와는 5년, 마포구와는 2년간의 MOU를 체결했다. 그 결과 ‘서울시 안전돌봄 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금천구, 마포구, 중랑구 3개 자치구에서 신규로 구축한 어린이집 4개소에 활용할 수 있었다. 금천구 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에는 출입구 소독 키트, 유희실 놀이 쿠션, 감성 배변 칸막이, 킨더바이오팜 등 그동안 개발한 돌봄 디자인 아이템 4종을 적용했다. 또한 마포구 산들어린이집에는 유모차와 킥보드 주차용 출입구 캐노피, 마포구 해들어린이집에는 에어컨 바람막이, 손끼임 방지 미닫이문 손잡이, 비상대피구 안전펜스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설치했다. 한편 중랑구 금강펜트리움어린이집에는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 컨설팅을 진행해 비상대피로 등의 설계를 수정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사업을 통해 개발한 서울시 안전돌봄 어린이집 디자인 아이템 5종(신발 소독 모듈형 신발장, 킨더바이오팜, 출입구 소독 키트, 유희실 놀이 쿠션, 감성 배변 칸막이)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재단은 2019년 개발한 3종(교사용 의자, 어린이 세면대, 아기 침대)의 디자인 아이템을 더해 총 8종을 DDP 살림터(현 디자인랩) 3층 UDP 내 UD리빙랩에 11월부터 상설전시 했다. 2021년 DDP디자인페어 기간에도 돌봄디자인 사업 전시관을 운영해 사업의 결과물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맞는 S-돌봄디자인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개선과 해결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디자인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2021 S-돌봄 디자인

디자인 아이템 5종 개발	- 김명 디자이너: 출입구 소독 키트, 감성 배변 칸막이 - 김상훈 디자이너: 유희실 놀이 쿠션 - 조재원 디자이너: 킨더바이오팜, 모듈형 신발장
3개 자치구, 4개 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적용	- 금천구: 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 - 마포구: 산들어린이집, 해들어린이집 - 중랑구: 금강펜트리움어린이집
UDP UD리빙랩 상설전(11. 10.~)	
DDP디자인페어 전시관(10. 19.~25.)	









금천구 구립독산롯데캐슬_소독 키트, 감성 배변 칸막이, 유희실 놀이 쿠션, 킨더바이오팜







마포구 산들어린이집_캐노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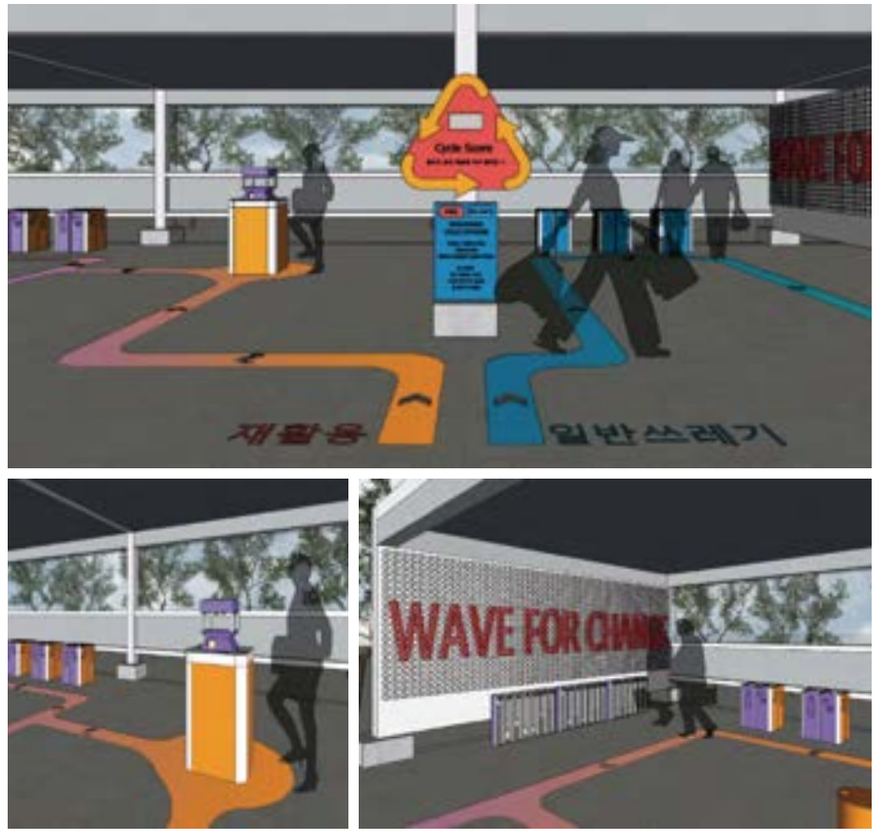
3-1-3. 사회이슈 대응형 디자인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사업팀
사업 연도	2022
예산명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 기반 조성
키워드	#사회이슈대응형디자인 #서울숲 #공원 #쓰레기문제 #분리배출 #사이클스테이션 #자원순환 #분리배출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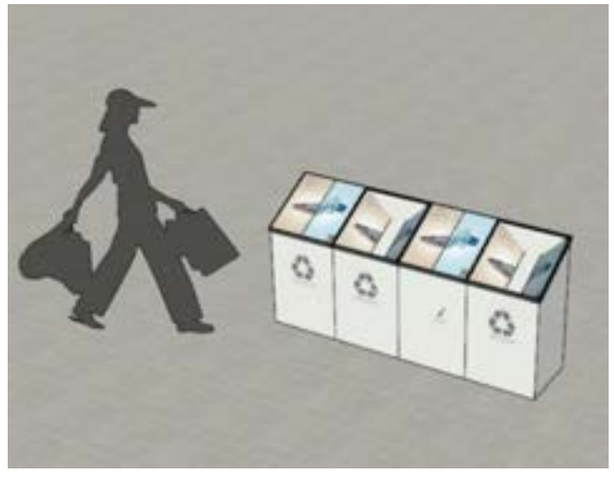
사회이슈 대응형 디자인 사업은 사회 현안과 미래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이다. 2022년 사회이슈 대응형 디자인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공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심각해진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여 '서울숲 공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도출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쉽고 편리하게 분리배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흥미로운 디자인을 개발했다.

올바른 분리배출 행동 유도 장치인 '사이클 스테이션'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배출 동선을 시각화하고 참여 스코어와 대시보드를 통해 분리배출 참여자 수를 기록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촉진한다. 한 손으로 쉽게 일회용컵 뚜껑을 분리하고 남은 음료를 배출한 후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번거로운 분리배출 과정을 간소화하고, 변화를 위한 물결 메시지를 벽면에 설치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환경 메시지를 전달한다. '메시지 쓰레기통'은 쓰레기통 윗면 커버에 설치하여 분리배출 참여에 따른 임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각 디자인으로 기존 쓰레기통에도 설치가 가능한 모듈로 디자인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분리배출 스테이션의 위치를 안내하는 길찾기 안내 사인 '웨이파인딩' 디자인은 공원의 동선과 산책로의 구조를 반영했다.

서울시는 디자인 솔루션 도출과 더불어 서울숲 공원 인근 지역 소상인과 서울숲의 협약 체결을 제안하여, 리유저블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쿠폰 지급 등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 상권 협력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노플라스틱선데이를 리사이클 업체로 연계하고, 수거된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서울숲 피크닉 매트를 기획하여 분리배출 효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사이클 스테이션





메시지 쓰레기통

3-1-4. 생활안심 (범죄예방) 디자인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사업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범죄예방 디자인
키워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생활안심 #범죄예방 #주거환경 #1인가구 #주거취약성 #CPTED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은 디자인을 통해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 밀집지역,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부정형 골목 및 비탈진 골목 지역, 고시원 밀집지역 등 생활 안전에 취약한 지역에 적용하여 범죄에 대한 불안감, 주거 취약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마포구 염리동 재개발 예정 지역에 첫 시범 사업을 시행한 이후 2022년까지 총 73개소에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고, 20개 유형별 디자인을 개발했다.



수리부엉이 안전시설물



태양광 조명 우편함

2021년에는 강남구 논현1동, 광진구 자양2동, 중랑구 면목동 세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야간통행이 많은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인 강남구 논현1동은 경사 지형의 특성상 담장·필로티·출입구의 구조로 인한 범죄 사각지대가 많고,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침입 등 계획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출입구로 유도하는 바닥 표시를 통해 택시로 귀가하는 경우 최대한 출입구 근처에 하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죄 발생 환경에 놓이지 않게 했다. 측면 출입구의 캐노피 구조를 활용하여 조명과 IP카메라 등의 기능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경사지에 있어 침입이 용이한 담장에 원형 파이프 구조의 회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침입 범죄를 예방했다. 경사 지형으로 인해 생긴 단차와 화단 등의 이격공간에 출입통제 시설물을 두어 범죄자가 은신하거나 담장을 오르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기존 주차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던 게시판을 업그레이드하여 블랙박스 제공 여부를 표기함으로써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광진구 자양2동은 유동인구가 적고 학교 옹벽길을 따라 조명 사각지대가 많은 지역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옹벽길에 걷기 코스를 개발하여 자연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코스 정보, 코스 지도, 현재 위치, 걷기 운동 정보, 조명 기능이 들어간 안내 사인을 설치하고, 옹벽길 옆 아파트에서도 보이도록 숫자를 크게 설치하여 비상시 신고가 용이하도록 했다. 옹벽길 펜스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비상벨 및 횡단보도 안내 사인을 설치하여 안전시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랑구 면목동은 보호시설이 위치해 있어 심리적 불안감에 따른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보호시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다년간 진행된 안전 관련 사업으로 인해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로 난립한 시설물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여성안심귀갓길을 중심으로 주요 안전시설과 경찰 중점 순찰 구역을 안내하는 안심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경찰이 상시 순찰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불안감을 완화했다. 또한 중랑구 CCTV종합관제센터에서 야간 시간대에 집중 관찰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 사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사각지대와 조도가 약한 외벽 구간, 영업시간 이후 어두워지는 공업사 골목 등에 태양광 투광기를 설치해 야간의 보행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했다.

2022년 사업은 강북구 수유3동, 관악구 신림동, 구로구 구로3동 등 3개소를 대상지로 하여 시행되었다. 공모를 통해 진행된 사업지 선정에 총 11개의 자치구가 응모하였고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판단하고 현장 심사 등을 거쳐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 현황·범죄 유형 등의 자료 조사, 주민·경찰서·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인터뷰,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역 맞춤형 디자인 솔루션을 적용하여 현재 디자인 기본 설계를 마쳤고 실시 설계 및 시공을 앞두고 있다.



용산구 용산2가동



마포구 염리동

서울시는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치안, 행정, 디자인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범죄예방 사업과 활동에 대해 최초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 디자인TF'를 구성했다. TF는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시공 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으로 협력해 솔루션을 고도화하는 역할을 했다. 범죄예방 디자인TF에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디자인정책과, 서울경찰청, 해당 자치구·경찰서가 참여했다. 범죄예방 디자인TF와 더불어 범죄심리,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디자인 및 건축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생활안심디자인자문단'을 구성하여 디자인 전문성을 강화했다. 생활안심디자인자문단은 디자인 사업 대상지 분석, 분야별 검토 등의 역할을 했다.

지난 10년간의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은 다수의 특허출원 및 디자인상을 수상했고, 사업의 성과를 종합해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솔루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



모둠지기





생활안심디자인 종합 가이드라인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3-1-4.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3-1-5.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사업팀
사업 연도	2022
예산명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키워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청소년 #디지털과의존 #마음풀 #식물 #감각발달 #관계회복 #시립청소년센터

서울시는 청소년 문화 및 생활 행태 분석을 통해 비행, 학교폭력, 디지털 과의존, 비만 및 신체 활동 부족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정서 발달이 중요한 청소년기에 긍정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또래 애착,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감, 공동체 의식을 높여 관계를 회복하고 다양한 감각 경험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문래시립청소년센터, 보라매시립청소년센터 2개소에 식물을 활용한 다감각 경험 공간 '마음풀'을 조성했다. 흙을 만지고, 냄새를 맡고, 푸른 숲을 바라보고, 식물을 키우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오감을 되살리고 잃었던 감성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디지털 과의존으로 시각·청각 자극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뇌 발달 환경을 제공한다.

시립문래청소년센터는 'Play Ground_식물과 함께 놀며 새롭게 만들다'를 주제로 하여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여 식물을 키우고, 작품을 만들고 공유하며 다감각 경험을 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는 'Plant Lab_식물을 키우고 실험하며 나누고 기록하다'를 주제로 하여 보라매청소년센터가 위치한 보라매공원 숲속에서 식물을 직접 키우고 실험하며, 마음을 공유, 기록하는 과정에서 감각을 발달시키고 관계를 회복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마음풀'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칠판'과 마음풀에서의 추억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추억포켓'을 결합한 코너 '칠판벽 & 추억포켓', 재배 활동과 제작 활동을 위한 싱크대와 모종을 키울 수 있는 플랜터, 필요한 도구와 작업물을 배치할 수 있는 선반이 결합된 작업대 '마음싱크', 공방 활동에 사용되는 책상을 활용한 가변형 플랜터 공간 '책상 정원', 공간이 확장되어 보이게 연출하여 정원에 물을 주며 낙서를 하거나 사진을 찍으며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 '마음 낙서벽', 식물 공간을 컨트롤하는 디제잉 시스템을 설치하여 소리, 빛, 빗물 등을 플레이하며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감각 수풀 & 수풀 플레이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 및 프로그램 담당자,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환경예술가가 참여하여 마음풀 TFT를 구성하였고, 공간 운영을 위한 청소년 의견 수렴 및 공간 조성 후 평가.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했다. 센터 내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 및 관내 학교, 환경 거버넌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제로 웨이스트 숍, 환경예술 전문가가 참여하여 마음풀 프로그램의 친환경·예술 부문에 대한 자문 역할을 했다.



3-1-6. 인지건강 디자인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사업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인지건강 디자인 추진
키워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인지건강 #고령화 #치매 #AIC #근린환경 #복지관 #100세마당

인지건강 디자인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주거시설, 공공공간, 노인전용시설 등 공간 유형별로 노인의 신체적 특징과 행태를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인지건강 디자인을 적용한 AIC(Aging in Community)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AIC(Aging in Community)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를 늦추고 기존에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근린환경을 조성하는 고령 친화 디자인 개념이다. 2021년에는 LH 임대단지 3개소(번동 3단지, 대방 1단지, 등촌 9단지)에 3,930세대를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번동 1단지 고령자 복지주택[1]에 손잡이 색을 공간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공간 인지가 용이하도록 하고, 출입구 현관에 빌트인 벤치를 적용해 어르신들이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한 환경을 만들었다. 단지 내 복지관에 화장실 내부 문과 문틀 색을 달 리 적용하고 방풍실을 넓혀 휠체어 이동과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시범지구 3개 단지에는 실외 공간을 대상으로 인지건강 디자인을 개발했다. 번동 3단지는 신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3G(Generation) 놀이터를 개발하고, 단지 산책로에 준비운동, 상체·하체·두뇌 운동, 휠체어를 이용하여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등 코스와 난이도에 따른 운동 공간을 개발했다. 대방 1단지는 사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체조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고, 온실정원을 설치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등촌 9단지는 정서 교류 강화를 콘셉트로 하여 광장 주변에 5개 감각을 자극하는 식재를 한 오감정원을 개발하고 다중 감각 자극을 위해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한 갤러리를 개발했다. 주거동 주출입구에 인지 강화 사인을 적용하여 동호수 식별이 용이하도록 했다. 2022년부터 LH에서 주민 의견 수렴 후 실시 설계 및 시공을 진행 중이다.

2022년 사업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노인복지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신체·정서·사회적 건강을 고루 배려하는 시설을 배치하고 어르신의 신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인지건강 리더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디자인 개발 과정에는 공간디자이너, 의사, 특수체육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1)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어르신이 매일 방문하는 복지관 실외 공간에 조성된 '100세 마당'은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운동 방법, 적정 운동 시간 및 횟수, 운동 효과를 안내하는 운동기구 4종을 설치하고 복지관 내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3개의 인지건강 코스를 조성하여 신체 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 원예 프로그램을 위한 화단, 어르신 작품 전시를 위한 갤러리, 24절기 기억 안내 사인, 인지시계 등을 설치하여 정서 힐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어르신들의 사회교류를 위해 어르신 공연을 위한 무대(2개), 소통 벤치를 설치했다. 공간 이용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인지건강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르신 리더가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운동효과를 높이고 상호 공감을 통해 우울감을 개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인지건강 리더 수료자는 2022년 13명이었고 매년 15명 내외 인지건강 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인지건강 디자인(2020년 사업 결과물)은 2022년 6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어워드' 본상을 수상했다.





조성 후 전경



신체 활동 운동존



인지건강 리더 수료식

3-1-7.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사업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추진
키워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스트레스 #노년층 #해소당 #노인종합복지관 #사회적관계 #상담공간 #심리상담 #마음정원

서울시는 높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생애 주기와 상황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유형별로 디자인을 개발, 적용하는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년층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년층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적 관계 강화를 위한 '해소당(偕笑堂)' 디자인을 개발했다. 시립도봉노인복지관(2층 로비 및 강사실, 52㎡, 약 15.7평)과 구립우리마포복지관(1층 로비, 77㎡, 약 23.3평)에 적용되어 첫 문을 연 '해소당'은 환영과 존중을 베푸는 '웰컴데스크', 서로 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디자인하여 사회적 교감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간',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어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음껏 테이블',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담공간 '마음튼튼 상담실', 주변의 방해 없이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나눔 대화부스'로 구성되어 있다.

어르신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간의 기능과 동선, 이용자 행태를 분석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동시에 개인화가 보장되는 공간도 마련하여, 기존의 비좁고 삭막했던 노인복지관의 유휴 공간이 어르신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되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디지털 마음보기 진단' 서비스도 개발했다.





해소당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여 간단하지만 효과가 즉각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을 안내한다. 정기적인 진단으로 스트레스 상태가 '중등도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에는 복지관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디지털 마음보기 진단' 서비스는 어르신의 성격 유형에 따라 복지관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2022년에는 심리 방역과 스트레스 해소의 접점인 상담 공간과 상담 서비스를 위한 디자인을 개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환 심리 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조명, 색상, 소재, 향기, 음향, 소품 등 환경 심리 기반 스트레스 완화 요소를 적용하고 '마음정원' 공간 브랜딩을 통해 단순 환경 정비 차원을 넘어 통합적 관점의 디자인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상담공간편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은 서울청년센터 강서오랑 2개소, 구로구 가족센터,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 등 총 5개소에 적용되었다.

다락방, 작은 집을 연상시키는 박공지붕 형태의 상담공간은 외부에 작은 정원을 조성하여 친근하고 따듯한 느낌을 선사하고, 밝은 우드톤 필름과 미색 벽지로 마감한 내부 공간에 쾌청한 청록색 톤의 소파와 쿠션을 비치하여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차음 시트, 흡음 패널 천정 마감, 외부 정원 스피커 설치로 상담에 집중하기 위한 방음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사와 내담자 위치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했다. 상담 진행 시 내담자 취향에 따라 조도 조정이 가능한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을 주는 아늑한 분위기의 빛 환경을 조성하고, 테이블 위 화병, 자존감을 높여주는 심리 서적, 미니 테이블과 다구, 아트북 등 힐링 소품과 긴장을 완화하거나 활력을 높여주는 향테라피 디퓨저를 비치하여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창문이 환기창 역할 외 풍경창으로는 역할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현실형 '미디어 창문'을 설치하고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인 '자연테마의 미디어 명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영상, 음향, 조도가 결합된 힐링 공간을 조성했다.



디지털 마음보기 진단 서비스



마음정원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아지트 조성사업과 연계한 컨설팅도 진행되었다. 송파, 구로 청소년 아지트 사업 대상지 2개소에 대해 디자인 사전 검토, 전문가 자문을 통한 디자인 고도화 등 '청소년편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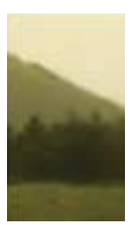




마음정원 내부











자연테마의 미디어 명상



미디어 창문

3-1-8.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사업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디자인거버넌스 운영
키워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거버넌스 #시민참여 #서비스디자인

디자인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공공의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주제를 제안하고 전문가 심사와 시민 투표를 거쳐 사업 실행 주제를 선정하며, 시민제안형, 기업협력형, 대학연계형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시민제안형은 시민, 이해관계자, 디자이너 등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주제별 리서치, 현장 조사, 아이디어 회의, 디자인 개발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도출한다. 기업협력형은 사회 공헌 활동 의지가 높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디자인 구현, 캠페인 추진 등 기업의 재능기부를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학연계형은 공모를 통해 참여 대학을 선정한 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하는 한 학기 수업과 연계하여 디자인학과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디자인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1년에는 총 5개의 서비스디자인을 개발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3개의 디자인 확산 사업을 진행했다. 노년층의 우울증 해소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신체적인 이동에 제약을 받아 우울감을 느끼는 어르신을 위로하기 위해, 어르신 인생 속 행복했던 순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꿈에 그리던 장소를 신청 받아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기술로 경험을 디자인한 '디지털 경험디자인 소원여행편–돌이켜봄'을 개발했다. 노원종합복지관과 협업하여 VR 영상 시청 후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참여 활동'을 프로그램화하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결과물은 노인종합복지관의 맞춤돌봄 서비스와 50+지역참여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었다. 올바른 펫 문화를 정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할

서울디자인
거버넌스 홈페이지



함께하개



디지털 경험디자인 소원여행편–돌이켜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알아주개', '함께하개'는 반려견의 몸짓언어를 이해하여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비반려인의 배려를 독려하는 서비스디자인이다. 월드컵공원에 있는 반려견놀이터에 '함께하개' 음수대를 설치하고, 놀이시설과 사이니지 디자인을 개발했다. 소심한 성향의 반려견을 위한 버퍼 공간 등 공간디자인을 담은 디자인가이드,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펫티켓 교육을 제공하는 컬러링북 개발을 진행했다.

학대 피해 아동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서비스디자인도 진행되었다. 2018년 사업으로 개발된 '호야토토[2]' 디자인을 활용하여 호야토토 인형 및 그림(헝겊)책을 제작했다. 아모레퍼시픽, 코레일네트웍스, CJ CGV, 숙명여대 등 11개 회원사로 구성된 용산구 소재 지역사회 문제 해결 민·관·학 연합봉사단 용산드래곤즈와 협력하여 호야토토 키트를 완성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전국 79개 피해아동쉼터에 전달했다. 서울시와 용산드래곤즈는 3년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의 체계적 확산에 기여하기로 했다. 재난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 매뉴얼, 방염 패드, 대피 지도를 엮은 재난안전 서비스디자인 '안전쓰매씽'을 청년청 1인 가구 청년 서울살이 '월컴박스'로 배포하고, 세계 음식을 모티브로 한 보드게임 '쿡쿡콕콕'은 상호 문화(다문화) 교육 교구를 어린이집에 지원했다. 또한 시각장애 아동이 자기주도적으로 공간을 학습할 수 있는 다감각 지도 '서울어린이대공원 촉각지도' 홍보 영상을 개발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했다.

2022년 디자인거버넌스에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 디자인 전공 학생, 기업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총 6개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개발했다. 올바른 공원 이용을 유도하는 서비스디자인 '더 똑똑해진 공원 길찾기'는 시민들이 미처 알지 못해 지키지 못한 공원 에티켓을 알리고 공원에 대한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공원 이용자 행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공원 정보를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해 전달하고, 환경을 상징하는 캐릭터 이미지와 소리로 공원에서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2023년 1월부터 서울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똑똑해진 공원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애 말기 존엄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디자인 '소중한 선택 그리고 기억'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도와주는 안내꾸러미 '소중한 선택'과 존엄한 죽음과 삶의 의미를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억' 대화 카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 노트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인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보건소, 사단법인 희망도레미를 통해 선도 운영될 예정이며,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거버넌스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소스로 공개된다.



더 똑똑해진 공원 길찾기



'소중한 기억' 대화 카드

2) 호야토토 : 학대 피해 아동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마음을 위로해 주는 애착 인형 등 심리 안정 키트

2021년에 이어 12개의 민관학 연합 봉사단체와 함께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마음 치유 디자인 '호야토토 키트'로 호야토토 인형과 헝겊책, 말랑이 키트 500개를 제작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11곳, 쉼터 5곳에 전달했다. '호야토토 키트'를 활용한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은 2024년까지 지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흉물로 방치되었던 유휴 공간인 북촌 중간집은 아모레퍼시픽 크리에이티브센터 디자이너들의 재능기부로 리모델링되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공간으로 재탄생했고, 대학연계형 사업으로 '청년 세대의 건강한 성문화 형성을 위한 소통디자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서비스디자인'이 개발되었다.

서울디자인거버넌스 사업은 디자인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주제 선정부터 디자인의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므로 시민들은 이곳을 통해 의견을 제안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거버넌스 사업 성과는 '디자인 톡톡쇼'를 통해 공유된다. 2021 디자인 톡톡쇼는 2022년 3월 3일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었고, 2022년에는 12월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진행되었다. 행사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결과 발표 결과물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 백서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디자인거버넌스의 성과를 기록하고 그간 진행된 총 26개의 사업을 담은 「서울디자인거버넌스 백서」를 발행했다.



디자인톡톡쇼

3-1-9. 서울 디자인 국제포럼 (SDIF)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사업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범죄예방 디자인 | 서울디자인 국제포럼
키워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사회혁신디자인 #국제포럼

서울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디자인 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서울디자인의 가치를 탐색하는 서울디자인국제포럼(SDIF, Seoul Design International Forum)을 개최하고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와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국제포럼'으로 개별 진행되던 행사를 '서울디자인국제포럼'으로 통합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포럼을 통해 사회문제해결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지금까지의 노력과 가치, 성과를 소개하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혁신 디자인 사례를 공유하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해 오고 있다.

서울디자인 국제포럼 홈페이지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10월 5일 DDP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에서 개최되었다. '리-커넥트: 가치 창조자로서의 디자인(Re-connect: Design as A Value Creator)'을 주제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산업과 공공 영역, 시 정부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 영역들이 디자인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문제의 해결', '포용과 회복성', '도시의 매력', '새로운 차원의 경험' 등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디자인의 가치 창조적 측면을 논의하였다. 기조 세션을 포함하여 3개의 세션과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은 총 10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 창조에 대해서 발표했다. 김현석 홍익대학교 교수가 총괄기획 MP로 선임되어 국제포럼의 전반적 기획 및 운영을 시와 함께 추진하였고, 유니버설디자인 분야의 연세대학교 윤혜경 교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분야의 홍익대학교 구유리 교수가 분과별 MP로 포럼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연세대학교 백준상 교수, 국제정책대학원 주유민 교수는 국제포럼의 싱크탱크 격인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를 개발하고 포럼 내 패널 토론자로 참여했다.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 행사 개요]

행사명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
일시	2021년 10월 5일(화) 13:00~18:00
장소	DDP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
주제	리-커넥트: 가치창조자로서의 디자인 (Re-connect: Design as A Value Creator)
진행 방법	온라인 실시간 중계(서울시 유튜브 연계 온라인 플랫폼 생중계)
참석자	시장, 문화본부장, 총괄기획 MP 및 워킹그룹, 연사, 시민 등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 프로그램]

기조 세션: 비전과 전략	
Richard Van der Laken (Co-Founder & Creative Director, What Design Can DO)	낙관론에 대한 외침
Mariano Alesandro (Head of Future Thinking and Special Project, The Index PROJECT)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통한 더 나은 도시
Dale Sinclair (Director of Innovation, AECOM)	흐름: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움직이는 데이터
오세훈(서울특별시장)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도시디자인
세션 1: 이슈와 쟁점	
윤혜경(연세대학교 교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 그 성과
구유리(홍익대학교 교수)	시민 중심의 문제해결,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가치와 성과
이혜영(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	도시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디자인 전략
세션 2: 실천적 방안	
황성걸(LG전자 전무)	경쟁 구도를 초월한 디자인과 혁신의 절대적 가치
이시완(LBS Tech 소셜 벤처 대표)	사회문제해결 방법론의 진화
김상균(메타버스 저자 및 강원대학교 교수)	메타버스는 공유, 연결, 확장된 도시를 꿈꾼다
패널 토론	
워킹그룹(좌장: 김현석 홍익대학교 교수 및 총괄기획 MP)	

서울시 유튜브: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

2022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디자인 × 서울: 디자인이 어떻게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가?(DESIGN × Seoul: How does design enrich our future?)'를 주제로 2022년 10월 5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되었다. 3개의 세션에 총 7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하여 '미래 사회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 창조'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디자인이 어떻게 다양한 도시에서 가치를 높이고 엔진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도시의 시민들이 어떻게 이 가치를 누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자리가 되었다. 김현석 홍익대학교 교수가 총괄기획 MP로서 전반적 기획 및 운영을 시와 함께 추진하였고, 연세대학교 백준상 교수, 연세대학교 윤혜경 교수는 국제포럼의 싱크탱크 격인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포럼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시는 2022년 처음으로 3회에 걸친 사전 포럼을 개최하여 포럼의 내용을 심화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디자인 동향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1차 사전 포럼과 '미래를 이끄는 디자이너들'을 주제로 진행된 2차 사전 포럼에 이어 9월 28일에 '실증적 사례 심층 분석'으로 3차 사전 포럼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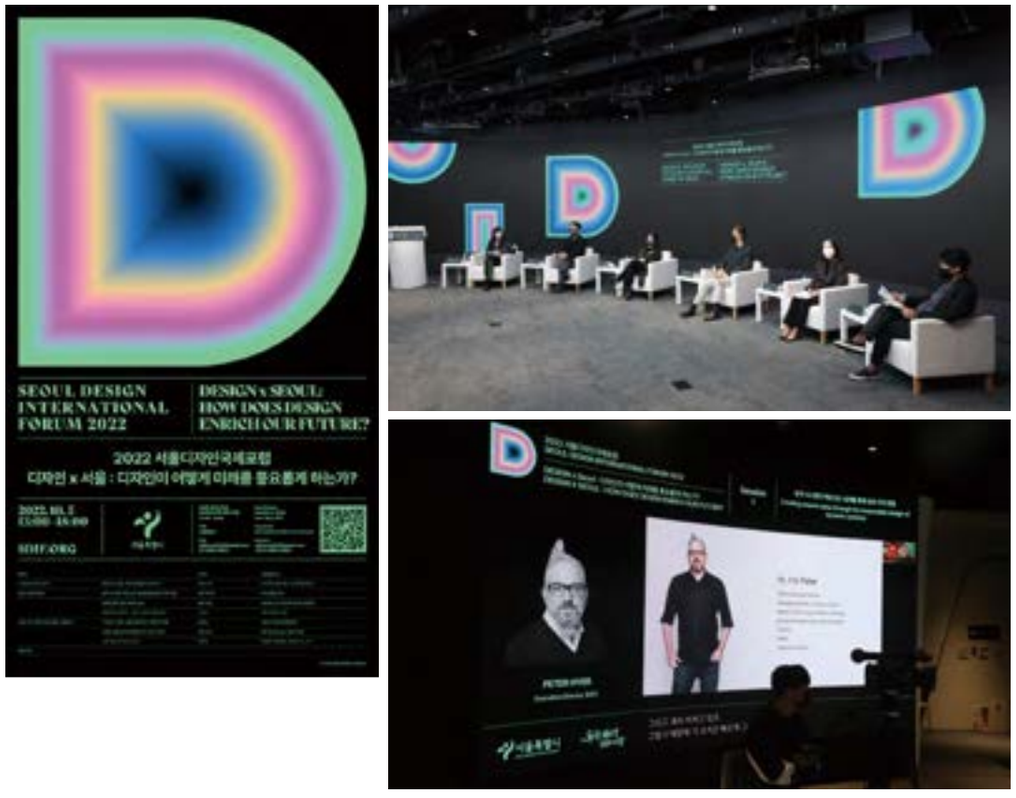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2021년 포럼 개최를 계기로 하여 지속적인 서울디자인 담론 형성의 장으로서 역할하는 온라인 플랫폼(www.sdif.org)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포럼 내용, 참여 연사 발표 자료 및 기고글, 인터뷰 내용을 비롯하여 안전/안심, 인권/교육, 건강/웰빙, 교통/운송, 생활환경, 사회복지, 재난대응, 서비스/혁신 등 8개 분야별 디자인 사업과 다양한 사례로 구성된 120여 개의 콘텐츠가 소개되어 있다.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서울시민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도록 서울디자인국제포럼 공식 사이트와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포럼 행사 영상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언제라도 재시청이 가능하다.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총 1,435명이 사전 등록하였고, 2022년에는 1,874명이 사전 등록을 통해 행사에 참여했다.

[2022 서울디자인국제포럼 행사 개요]

행사명	2022 서울디자인국제포럼
일시	2022년 10월 5일(수), 13:00~18:00
장소	비대면 온라인 진행
주제	디자인 × 서울: 디자인이 어떻게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가?
진행 방법	온라인 실시간 중계(서울시 유튜브 연계 온라인 플랫폼 생중계)
참석자	시장, 문화본부장, 총괄기획 MP 및 워킹그룹, 연사, 시민 등

[2022 서울디자인국제포럼 프로그램]

기조 세션: 비전과 전략	
Jeremy Yeo (Former Vice President & Head, User Experience of Jewel Changi Airport)	쥬얼 창이 공항, 공간 경험의 정수를 디자인하다
세션 1: 실천적 방안	
Peter Hyer (Executive Director, IDEO)	동적 시스템의 책임 있는 설계를 통한 공유 가치 창출
Jeff Risom (Partner, Chief Innovation Officer of Gehl)	건축을 통한 공유 생태계 설계
이나미(스튜디오바프 대표)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삶 디자인
세션 2: 도시정책(서울, 일본, 네덜란드)	
김규리(서울시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 × 서울', 서울시정에서의 디자인의 역할
Kato Kanji (Vice President, GK Sekkei Incorporated)	사람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공공디자인
Lee Kyo Suk(Associate Director, MVRDV)	사회 혁신가로서의 건축가
패널 토론	
좌장: 김현석(SDIF 총괄기획MP 및 홍익대학교 교수) 이현성(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백준상(연세대학교 교수), 윤혜경(연세대학교 연구교수), 김규리(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 이나미(스튜디오바프 대표)	



2022 서울디자인국제포럼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 (사진 출처_텍스쳐 온 텍스쳐)

3-2. 유니버설디자인

3-2-1. 공공공간 유니버설 디자인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키워드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보행환경 #공원 #광장

서울시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UD) 적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공간 7개소, 공공건축물 3개소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유형별 UD 우수 모델 개발을 위해 2021년에는 '보행 공간'을 중심으로, 2022년에는 '공원·광장'으로 개발 유형을 확대해 가고 있다. 2021년 사업 대상지인 잠실역 2·8호선 지상철 주변 보행로는 좁고 폐쇄적인 보행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보행 장애물이 있고, 폐쇄적인 공간 구조로 다수의 흡연 행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공공시설은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인지가 어려웠다. UD사업을 통해 이 공간은 현재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가 되었다. 보행로 진출입구에 정보 안내 사인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보행로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륜차 주차장과 이륜차 진입 금지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로에 이륜차 진입을 방지했다. 야간 보행을 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흡연 방지 시설 설치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식재 조성을 했다. 아파트 단지와의 교차로에는 보행자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방음벽의 일부를 투명 소재로 교체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바닥 포장, 조도 개선 등 전체 보행가로의 통일감을 부여하는 연속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UD 공공공간 적용 사례 확산을 위해 결과물은 「보행 친화형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을 통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전달되었다.

[2015년~2021년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현황]

구분	2015년 (1개)	2016년 (2개)	2017년 (1개)	2018년 (1개)	2019년 (2개)	2020년 (1개)	2021년 (1개)	2022년 (1개)
공간 유형	공공 공간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공공 건축물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공공공간	공공공간	공공공간
세부 공간	공원	커뮤니티공간/ 보행로	복지 공간	노후 산업단지 (공개공지)	커뮤니티공간/ 노후 주거지역 (구릉지)	노후 상업시설 밀집지역	노후 보행로	공원·광장
대상지 (9개소)	종로구 낙원동 (탑골 공원)	금천구 독산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종로구 행촌동 (안전한 보행길)	성동구 홍익동 (성동구 보건소)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 단지역)	동대문구 전농동 (화목경로당) 종로구 충신동 (충신윗성곽 마을)	강서구 화곡동 (화곡중앙시장)	송파구 잠실동 (2·8호선 지상철 주변 보행로)	올림픽공원 (몽촌역사관)

2022년에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서울시 부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했다. 한성백제박물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협조를 바탕으로 공원 내 쉽고 안전한 길찾기가 가능하도록 정보 안내 체계와 편의시설 디자인을 개발했다. 시민의 관점에서 공원 이용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내기 위해 시민 참여단을 운영하고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민 참여단은 공원을 직접 경험하며 안내 사인의 미흡한 시인성, 안내 지도의 정보 전달력 부족으로 길찾기가 어렵고 경로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구릉지형으로 이루어진 공원의 물리적 환경에 대비해 고령자, 유아차 동반자의 경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보행 장애물(경사로, 계단 등)의 사전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발견했다. 공원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읽기 쉬운 정보 전달 체계의 필요성과 휴게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디자인은 세 가지 측면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UD 적용 정보 안내 콘텐츠와 안내 체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안내 정보의 표기 내용과 방법의 체계화하고 세부 기준을 세웠다. 이를 통해 방향 정보, 시설 정보 등 핵심 정보 위주로 표기하여 직관적으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단이나 경사 등 경로의 난이도를 표기하여 보행자가 신체적 특성에 따라 경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출발지, 결절부 등 경로별 필요 정보를 구분하여 역할에 따라 안내 사인을 구분하여 개발하고, 보행자가 명확하게 정보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기준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이용자 행태를 반영한 보행 안전·편의시설을 개발했다.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배려한 보행 편의시설을 개발하고,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에 대응하여 반려견 관련 사인 및 편의시설을 개발했다. 마지막으로 대상지 내 정보 인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올림픽공원 정보 안내 체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선도 사업 구간 외 지역에 확산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올림픽공원 종합 안내 사인

이번 사업으로 개발·적용된 디자인 사례는 「보행정보 안내환경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으로 정리·제작되어 UD 정보 안내 체계 적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에는 공간 정보 분류 체계, 설치 방법 및 위치 등 UD 정보 안내 체계 적용 세부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보행자 안내 지도도 개발하여 방문객들의 공원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 지도에는 공간 정보, 편의·교통시설 정보, 보행난이도 등이 명시되어 있고, 촉지형으로 개발되어 시각장애인의 공원 접근성을 향상했다. 안내 지도는 제작 후 주요 거점 공간 내에 비치하여 배포하고 있다.



보행자 편의시설







출구 및 방향 정보

3-2-2. 가이드라인 개발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키워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고도화 #유니버설디자인적용지침 #복지시설 #시민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서울시는 2021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UD 적용 의무화에 발맞춰 2017년 개발 보급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구.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을 현행화하고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하여 웹서비스로 제공한다. 기존 전자책(pdf)으로 제공된 적용지침 문헌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1개의 파일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고 활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도, 공원, 공공건축물' 등 분야별 세부 정보의 분류 체계를 도식화하여 PC뿐만 아니라 휴대형 모바일 기기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최적화하였다. UI·UX 설계를 적용하여 건축, 도시디자인 등 관련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해설서, 법적 근거 등을 연계할 수 있었다. 해설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 공간과 전체 시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시적 관점과 시설, 설비와 수치, 마감 등을 보여주는 미시적 관점을 삽화로 구성하고 건축적 투시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가, 공무원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표현했다. 텍스트 기반으로 제작되어 인터넷 환경에서 전 세계 언어로 자동 번역이 가능하며, 해당 언어로 읽어주기(음성 안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외국인과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활용성도 확보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의 창의성, 실효성 등을 인정받아 2022년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사업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유니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전자책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웹서비스

버설디자인 적용지침' 전문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홈페이지(www.sudc.or.kr)를 통해 웹페이지로 열람할 수 있고 전자책(pdf)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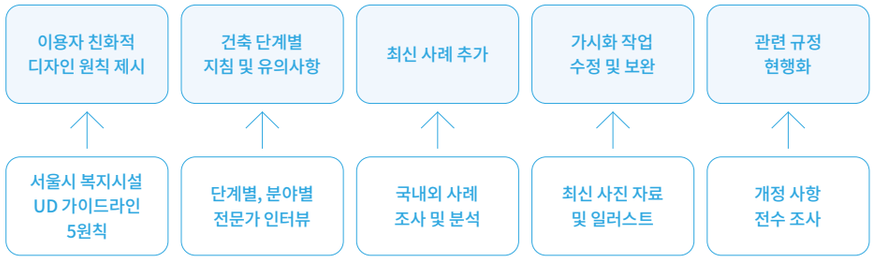
서울시는 이용자 친화적인 관점의 복지시설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4종을 개발하고 다양한 복지시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매년 6종씩 복지시설과 건축 법규와 규정을 현행화하고 복지시설 이용자와 담당자의 요구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고도화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총 18종의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으며, 2023년에 6종의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신체, 행동, 상황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내용을 공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구성했다. 복지시설 관련 법령, 지침, 매뉴얼 등 최신 시설 기준을 반영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UD 적용 사례를 추가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64개소에서 시행한 공공건축물 컨설팅 사례를 들어 현장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건축 단계별(기획, 설계, 시공 등)로 상세하게 풀어내어 복지시설 담당자뿐 아니라, 시설의 건축·시공 관련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등 고도화 대상 복지시설 담당부서의 의견 청취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완하고, 디자인, 건축,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작성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 가이드라인 내용 검토와 조정의 과정을 거쳤다.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4개종]

	연도	시설명
가이드라인 고도화	2019년	노인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경로당
	2021년	어린이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노숙인시설, 노인복지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2023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영유아거주시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여성보호시설, 정서행동발달장애 아동시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생활시설 및 사회복귀이용시설

[가이드라인 고도화 방향]



시민 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수요가 증가하는 데에 반해 현재까지 폭넓은 UD 적용이 미흡한 시민 편의공간의 공간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2020년 공중화장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이후, 2021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신규로 육아쉼터를 조성하는 곳 3개소를 대상으로 육아 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을 개발하고 설계와 시공을 진행했다. 대상지별 현황과 이용자 수요를 조사하고 이용자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계획 방향에 따라 마을 건축가와 협력하여 디자인 개발을 추진했다. 시민 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원칙과 지침을 종합하여 「시민 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서」로 제작·배포하고 있다.



시민 편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서-공중화장실편/육아 편의공간(수유실)편

3-2-3. 초등학교 인성·창의 교육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팀
사업 연도	2021
예산명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키워드	#유니버설디자인 #청소년 #인성 #창의성 #장애 #노화 #체험 #교육 #교구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 교육은 생활 속의 다양한 장애를 직접 체험해 보고, 노화 또는 장애 등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며,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쌓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2017년 9월부터 초등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정규 교육 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21년에는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6월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33명(29개교)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 교육' 특수직무연수를 진행했다. 9월에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실(UD 교실) 운영을 신청한 교사 32명(26개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 10월에서 11월까지 서울 소재 초등학교 19개교가 참여하여 2,301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UD 교실을 운영했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유니버설디자인 교재'와 '교사용 교육 지침서'를 개발했고, 2021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수업 교구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발된 체험 키트는 생애주기에 따른 신체 변화와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체험 도구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 중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제품과 함께 UD 교실 수업 교구로 제공되었다. 유니 가족의 일상을 관찰하는 온라인 콘텐츠 '유니 가족 영화 보러 가요!'는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유디 우산과 유디봇이 캐릭터로 등장하여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시설 체험, 체험 후 설명 자료





체험 공유





최종 토의, 개선 활동







수업 교재

3-2-4. 초고령 사회 대비 유니버설 디자인 개발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유니버설디자인팀
사업 연도	2021
예산명	초고령사회 대비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키워드	#유니버설디자인 #초고령사회 #주거환경 #노인지원주택 #안심하우스 #가구

서울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의 신체·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UD 가구를 개발했다. 강동구·동대문구 노인지원주택[3] 8가구, 노원구·송파구 안심하우스[4] 2개소를 대상지로 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가구 2종(침대, 소파)을 디자인하여 적용했다. 침대 디자인은 눕고 일어설 때 무리한 동작을 줄일 수 있는 높이, 침대에서 이동하거나 취침할 때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넓이, 안정적인 기립을 도와주는 침대 하부 공간 적용 등 어르신의 신체 움직임에 적합한 치수를 적용하고, 어르신의 행태를 고려하여 일어나기, 앉기, 휴식 등 다양한 자세에서 잡고, 당기고, 누르며 지지할 수 있는 다목적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경도의 매트리스를 적용하고, 소품, 전열기구 등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수납선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박스와 야간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해 주는 침대하부 보조등을 설치했다.





막대형 하부 야간 보조등



헤드보드 콘센트

3) '노인지원주택'은 어르신들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임대주택과 더불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4) '안심하우스'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모델하우스로 환자의 인지 훈련을 돕고 각종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 요소를 소개하는 체험 공간이다.

소파는 앉았다 일어설 때 낙상을 줄일 수 있는 높이, 앉아 있을 때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깊이, 기립에 도움을 주는 등받이 각도 등을 고려한 치수가 적용되었다. 팔걸이를 설치하여 어르신이 앉거나 일어설 때 쉽게 잡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앉아 있어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허리받침, 머리받침, 발받침을 설치했다. 자주 쓰는 물품을 쉽게 보관·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접이식 선반을 부착하여 물건을 찾아 움직일 필요를 줄여주고, 가구에 모듈 시스템을 적용하여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유니버설디자인 어르신 가구 가이드북

어르신을 위한 UD 가구 디자인 사례는 '유니버설디자인 어르신 가구 가이드북'으로 제작되어 공개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UD 가구 디자인의 기본 원칙과 가구 사용자의 특징에 대한 소개, 침대, 소파의 세부 디자인과 어르신 가구 디자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았다. 또 우리 집 가구가 어르신에게 적합한지 확인해 보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소파 디자인



신체에 적합한 소파 높이



접이식 선반

3-2-5.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키워드	#유니버설디자인 #전담기구 #정책연구 #인증제 #컨설팅 #모니터링 #시민교육 #홍보 #이동약자접근성 #정보지도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유니버설디자인대상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UD) 확산 및 실행을 위한 전담 기구로 2020년 6월 설치되었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단체, 기관, 학계, 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대외 협력, UD 정책 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 공공부문 UD 적용을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UD 산업 진흥을 위한 인증제 추진,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센터장을 포함하여 8명의 상근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정책연구실, 운영지원팀, 문화확산팀 등 1실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0명의 거버넌스 조직 전문가 자문단과 30명의 시민 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직도



유니버설디자인 제도화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상위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했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디자인 용어의 출현 배경, 발전 과정 및 특성을 분석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전국 단위의 유니버설디자인 표준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을 분석했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토론회를 2021년 5월 개최하여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제도 현황, 지자체별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법제화 필요성을 도출했다.

센터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0년 문화시설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UD 기본 지침에 따른 평가 항목을 개발하여 가로, 공원 등 공공공간 및 건축물에 분야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지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서울유니버설디자인대상(SUDA) 평가 기준에 적용하여 평가 항목의 적절성을 검토했다. 국내외 관련 인증 제도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상충되는 부분과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향후 평가 지표 시범 운영을 통해 인증 제도 운영 방안과 제품 인증 방안 등 실용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브랜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누구나 내일 누리는 일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SEOUL UNIVERSAL DESIGN CERTIFIED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에 대해 주 이용자인 어린이, 육아보호자,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의 행태를 바탕으로 사업의 계획단계별,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가로, 공원 조성 사업에 적용되는 공공시설물 20개소에 대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전 UD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2020년 컨설팅을 완료한 문화인프라 시설에 대해 컨설팅 결과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이어지는 공정 단계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는 복지시설 4개소와 서울시 공공한옥 2개소에 대해 디자인 개선안을 제공하는 등 총 17개소의 시설에 대해 신축, 증·개축, 개보수 등 사업 유형에 맞춰 집중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 요청에 따라 시민 공유공간 북촌 한옥청 등 5개소와 지구단위계획(G밸리) 사업 대상지 2개소에 대해 수시 컨설팅을 진행했다. 2021년 조례 개정으로 공공건축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컨설팅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총 64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 데 반해, 2020

년 이후부터는 총 126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다.(2022년 10월 기준) 2020년부터 추진된 UD 컨설팅사업의 내용과 결과는 아카이빙을 통해 이력 관리를 하고 컨설팅 절차와 방법, 내용, 사례를 담은 사무 편람을 제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공공한옥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확산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을 발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2020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SH공사 외 3개 기관에 추가하여 2021년 목재문화진흥회, 서울시50플러스재단, 하트하트재단 등 6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연계 사업을 진행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망을 구축하여 국회의원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법 제정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하여 포럼 등 협업 사업을 진행했다.

센터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시민의 UD 인식 확산을 위해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2021년 서울50플러스 시민 참여단 교육 수료생 및 서울관광재단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UD 접근성 정보지도 및 서울유니버설디자인대상 수상작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센터는 또한 시민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직접 생산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카드뉴스, 블로그, 디자인 홍보물 등 다양한 콘텐츠 유형을 개발하여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튜브 및 SNS 계정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한 '모두를 위한 버스'(2021. 10. 30.~11. 7.)에 참여하여 VR 체험 부스 운영, 체험 키트 전시, 센터 제작 콘텐츠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서울시50플러스센터, 중구치매안심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천안시 공무원, 강동구 도서관 UD시민체험단 과정 등 지자체,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등 학계를 대상으로 25건의 교육을 지원하였고, SK 대학생 봉사단의 '청소년용 UD 교육' 교재 및 교육자용 지침서 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했다.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정보지도 구축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보행약자의 독립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소유한 시설 및 공간의 UD 정보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시 소유의 시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현장조사원을 모집하고 교육 과정을 거쳐 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시설 인근 대중교통 입구에서 대상 시설물 출입구까지 구간별 보행로의 유효폭, 기울기, 재질 등 보행 정보와 시설 내 장애인용 화장실, 유아휴게실 유무 등 건축 내부 정보를 수집했다. 2021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정보 구축 2단계 사업으로 서울시가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중 시설의 접근 가능성, 규모, 용도를 고려하여 총 174개소를 선정하여 시설 정보에 대한 이미지 구축 작업을 진행했다. 시각 정보는 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하고 내부 건축 표현 방식을 통일하여 간소한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휠체어 이동 경로 표기, 안내데스크 위치 표시, 시설 출입구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서울맵(S-map) 색채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색채를 통해 공간 유형을 구분하여 표현했다.

서울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으로 분석된 시설 현황 데이터는 '스마트서울맵'에 디지털 지도로 제작되어, 2021년 9월 30일부터 시민들이 웹과 모바일을 통해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는 2021년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비공모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센터는 '유니버설디자인 통합정보 구축사업 결과보고서'를 발간해 '서울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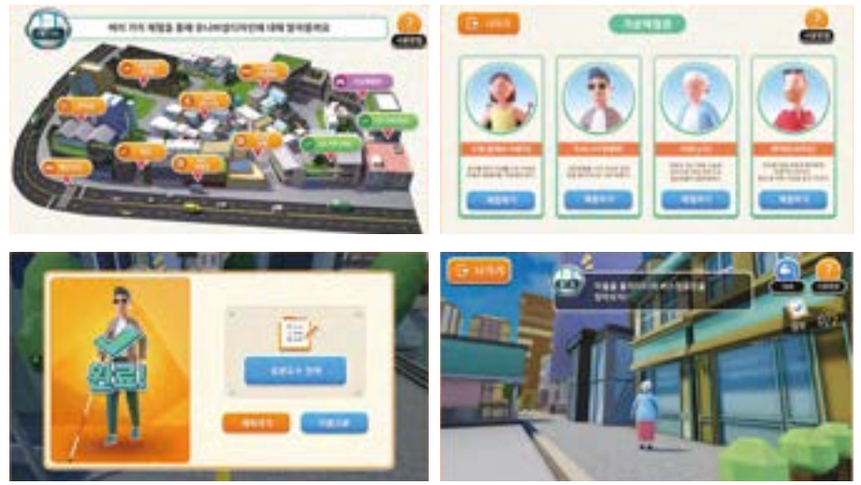
유니버설디자인 통합정보 구축사업 결과보고서

유니버설디자인 가상 체험관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UD 인식 확산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UD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UD 주요 정책을 반영한 실감형 교육·문화 콘텐츠로서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가상 체험관'을 2022년 구축했다. 가상 체험관은 온라인 공간에 가상의 환경을 구축하고 3D모델, 동영상,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공간, 제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접속하여 UD 개념을 이해하고 UD 디자인 적용 공간 및 제품을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다. UD 가상 체험관은 '영상관, UD 주택 VR, UD 가상 체험관, UD 사례 VR'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관에서는 UD가 적용된 실외 환경을 경험할 수 있고, UD 주택 VR에서는 UD가 적용된 주택 내부 7종의 공간을 관람할 수 있다. UD 가상 체험관은 실재하는 장소인 돈의문박물관마을을 대상지로 한 가상 체험관 마을로 캐릭터 조작을 통해 마을을 탐험하며 다양한 상황별 UD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다. UD 사례 VR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대상(SUDA) 수상작 중 실제 촬영한 3곳을 360도 관람할 수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UD 가상 체험관은 3D모델, 영상 콘텐츠, 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체험 효과를 강화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누구나 접속하여 체험 가능한 '무설치형(웹사이트)' 형태로 개발하여 정보 접근성을 확대했다. 교육(학교, 기업/단체, 지자체, 복지시설 등), 학술 행사 운영 등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UD 가상 체험관은 2022년 11월 베타 버전을 오픈하고 12월 공식 버전을 UD센터 홈페이지에 오픈했으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서울유니버설디자인대상(SUDA)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산업 진흥과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서울유니버설디자인대상(SUDA : Seoul Universal Design Awards)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UD 환경 조성(공원, 광장, 건축물, 공간), 사용자 서비스(사용자 서비스, 개선사례)가 있으며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팀, 기업·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참가 대상으로 한다. 시상은 UD 환경조성 부문에서는 공공과 민간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하고, 사용자 서비스 부분에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다. 총 8점의 수상작에 대해 서울시장상, 서울시의회상, UDC센터장상 및 총 상금 26백만 원을 수여한다. 심사 항목은 서울 유니버설디자인의 5대 공유 가치 '제약 없는 공유, 혁신적인 변화, 안정적인 균형, 존중받는 다양성, 안전한 공간'을 기반으로 공모 분야별 배점 기준을 적용한다.

2021년 제1회 '서울유니버설디자인대상'에는 전국 단위로 총 40점의 공모작이 접수(2021. 5.~8.)되었고, 분야별 심사위원단을 구성, 심사(2021. 9.~11.)하는 과정을 거쳐 12월 수상작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영상으로 제작되어 공개되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사례집 제작 후 온라인으로 공개되었다. 2021년 UD 환경 조성 공공부문 대상으로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이 수상했다. 건축물 내부에 지하철역을 통해 지역을 연결하는 동선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길이자 거점 역할을 한다. 여성가족복합시설이라는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과 다양한 공간으로 구현한 편의시설이 선정의 사유로 꼽혔다. UD 환경 조성 민간부문에서는 '포스코

휴먼스 사무동 증축 유니버설디자인(㈜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이 선정되었다. 시설 면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을 다양하게 구현하였고 운영 및 종사자의 인식 측면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지향점에 도달해 있는 사례로 꼽혔다. 사용자 서비스 개선 사례는 서울관광재단의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 사업’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고, 미래 정책 제안 부문에 ‘종을 넘어선 도시디자인’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2021 서울유니버설디자인대상 수상작]

구분		상명	프로젝트명	수상자
UD 환경 조성	공공부문	대상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	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
		최우수상	장애물 없는 해상국립공원, 무장애 탐방 인프라 구축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 국립공원동부사무소
		우수상	신기한 놀이터 조성사업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민간부문	대상	포스코 휴먼스 사무동 증축 유니버설디자인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최우수상	서초그랑자이 Elysian Yard	㈜조경설계 디원 / GS건설 (공동 수상)
		우수상	유니버설디자인하우스 수유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소솔건축사사무소 (공동 수상)
사용자 서비스	사용자 서비스 개선 사례	최우수상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사업	서울관광재단
	미래 정책 제안	우수상	종을 넘어선 도시디자인	Interspecies Design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사진 출처_텍스쳐 온 텍스쳐)



포스코 휴먼스 사무동 증축

2022년 ‘서울유니버설디자인대상’은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공모 접수를 통해 총 25건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1차 심사, 현장 실사, 최종 심사 등 3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고, 최종 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UD 환경 조성 분야 공공부문 대상으로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한국농어촌공사, 진안군청), 민간 부문 대상으로는 ‘과천자이_Grand ‘O’ park’(GS건설㈜, 삼성물산㈜에버랜드리조트)가 각각 선정되었다.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진행된 사업으로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 운영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도농의 문화 격차 해소 실현 등 유니버설디자인 모범 사례를 구현했다. ‘과천자이_Grand ‘O’ park’는 공동주택 단지의 경관축을 보행자를 위한 동선으로 계획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단지 공간을 개방하여 공공성을 확보한 사례다. 단지 내 중앙공원은 물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공간, 특색 있는 시설물과 연계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사용자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에는 ‘부산도시철도, 모두의 일상을 위한 공간’(부산교통공사)이 선정되었고, 심사위원 특별상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안양시청 도시재생과)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1월 10일 DDP 살림터 2층 서울-온에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었다.

[2022 서울유니버설디자인대상 수상작]

구분		상명	프로젝트명	수상자
UD 환경 조성	공공부문	대상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진안군청
		최우수상	문정도시개발사업	서울주택도시공사
		우수상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지금은 ‘모두·함께’ 캠핑 시대!	강릉관광개발공사
	민간부문	대상	과천자이_Grand ‘O’ park	GS건설㈜, 삼성물산㈜ 에버랜드리조트
		최우수상	현대위아 초록학교	현대위아
		우수상	디에이치 자이 개포 조경	현대건설주식회사
사용자 서비스		최우수상	부산도시철도, 모두의 일상을 위한 공간	부산교통공사
		우수상	청소년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 ‘더블유’, ‘더블업’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심사위원 특별상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안양시청 도시재생과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과천자이_Grand ‘O’ park

3-2-6.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공공디자인팀, 디지털디자인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시민 라이프스타일디자인개발 | 유니버설디자인 플랫폼 운영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전시·시민 참여 행사, 네트워크 | 기관·기업 디자인산업 진흥 | 산업 지원 | 개발
키워드	#유니버설디자인 #전시 #체험 #시민참여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산업

서울디자인재단은 유니버설디자인(UD) 산업 확산을 위해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하 UDP) 조성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여 2020년 9월 오픈했다. UDP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는 가치 아래 디자인 연구와 개발, 확산이 이루어지는 디자인 플랫폼으로 실생활 속 다양한 UD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여 UD 인식을 확산과 UD 디자인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UD 제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체험할 수 있는 상설전시 공간과 세미나, 북토크, 디자인 워크숍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유니버설디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UDP는 DDP 살림터(현 디자인랩) 3층에 1,550㎡ 규모로 조성되었다. 개인의 주거생활(UD HOME), 모두가 공유하는 도시생활(UD CITY), UD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디자인적 가치와 영감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UD LIBRARY) 등 세 가지 테마의 전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공간은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시생활과 주거환경에 기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국내외 기업들이 추구하는 UD의 가치와 기술적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물을 돌아보며 관람객을 미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UDP 전시에는 12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UD 홈'에는 삼성물산 패션부문 하티스트, 다이슨코리아, 디올연구소, 새턴바스, 퍼시스, 복순도가 등의 기업이 참여해 유니버셜디자인이 반영된 패션, 가전제품, 가구를 선보였다. 'UD 시티'에는 SK텔레콤, 코액터스, 닷, 엠틱스코리아, 서울시설공단, 이케아코리아가 참여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UD 라이브러리'는 시민, 전문가, 관계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디자인 트렌드를 선보이는 공간으로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패션, 건축, 인테리어, 지속 가능성, 유니버설디자인 등을 주제로 한 단행본 3,418권, 간행본 82종을 갖추었다.

UDP는 전시와 연계하여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다. 전시를 개관하며 진행한 첫 번째 세미나는 2021년 7월 16일(금)에 진행되었다. 세미나 주제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IKEA Democratic Design'으로 IKEA 인테리어 총괄 디자이너 안톤 호크비스트(Anton Högkvist)가 강연을 맡았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DDP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UDP는 IKEA와 공동 주관하여 '지속 가능한 푸드 워크숍',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가구 리폼 디자인 워크숍', '크리스마스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삼성물산 패션부문 하티스트와 공동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12월에는 김진섭 작가를 통해 독립출판의 노하우를 배우는 DDP북토크를 안그래픽스와 함께 진행했다. 시민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UDP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방식과 주제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세미나_서울디자인재단 × 삼성물산 하티스트

2022년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은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치에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 더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에서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다양한 디자인적 관점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모두를 위한 기회’를 주제로 하여 개인의 주거생활 속 유니버설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 쇼룸_UD 홈’과 모두가 공유하는 도시생활 속 유니버설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디자인 쇼룸_UD 시티’로 구성됐다.

2022년 UDP 전시에는 13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디자인쇼룸_UD 홈’에는 삼성물산 패션부문 하티스트, 이케아코리아, 다이슨코리아, 서울디자인재단, 복순도가, 투비위어드, 모노무브가 참여해 유니버설디자인이 반영된 패션, 가전제품, 가구, 뷰티 제품 등을 선보인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브랜드 ‘하티스트’는 장애인, 노인 구분 없이 누구나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어댑티브 클로딩(Adaptive Clothing)을 선보인다. ‘이케아’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데모크래틱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 제품을 전시한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디자인 철학 아래 새로운 제품보다는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다이슨’은 먼지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킨 유니버설디자인을 소개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미래세대를 위한 UD 라이프스타일 안전돌봄 어린이집 가구를 전시한다. 또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는 ‘복순도가’,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친환경과 비건을 실천하는 ‘투비위어드’, 식물성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프리 바디케어 제품을 선보이는 ‘모노무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뷰티산업을 소개한다.



디자인쇼룸



디자인쇼룸

‘디자인쇼룸_UD 시티’에는 SK텔레콤 & 코액터스, 서울시설공단, 디올연구소, 와이즈텍, 닷, 디스에이블드가 참여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SK텔레콤’과 소셜벤처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고요한M’을 선보인다.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 기사들의 택시 운행을 지원하는 ‘고요한M’ 서비스를 운영하고, SK텔레콤은 청각장애인 기사를 위한 택시 앱과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요한M' 차량에 적용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여성, 노약자 등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구축 과정과 시스템 이용 안내 자료, 실물 자전거를 전시한다. ‘디올연구소’는 글자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했다. 시력약자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유니버설디자인 폰트는 가장 작은 크기에서도 잘 보이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서체다. ‘와이즈텍’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이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 플랫폼 ‘불편함 APP’을 선보인다. ‘닷’은 시각장애인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의 내용을 점자로 전달하는 점자 스마트워치 ‘닷워치’, 이미지와 그림을 점자로 표현하는 촉각 디스플레이 ‘닷패드’를 전시한다. 발달장애 예술가가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디스에이블드’도 전시에 참여한다.

구분	기업	내용	
UD HOME	다이슨코리아	삶의 변화를 해결하는 디자인 혁신	
	복순도가	자연과 사람의 공생을 실현하고 함께의 삶을 만드는 발효 코스메틱	
	㈜투비위어드	연지YEONJI : 가장 한국적인 방식의 환경/ 제로 웨이스트 뷰티(예정)	
	모노무브	나와 지구를 위한 플라스틱 프리 & 비건 바디케어	
	삼성물산 하티스트	모든 가능성을 위한 패션, 누구라도 패션을 양보하지 않도록	
	이케아코리아	더 편한 생활을 만드는 디자인	
	서울디자인재단	미래세대를 위한 UD 라이프스타일 돌봄어린이집 가구	

구분	기업	내용	
UD CITY	서울시설공단	UD 도시를 향해 달리는 친구 따릉이	
	SK텔레콤 & 코액터스	따뜻한 도시 이동환경 커뮤니케이션	
	디올연구소	모두가 아름답고 편리하게 누리는 글자	
	와이즈텍	불편함에 대해 서로 소통하며 나누는 새로운 경험	
	닷	세상과 소통하는 공평한 편리함	
	디스에이블드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지속 가능한 예술문화	

UD 라이프스타일 공모전

서울디자인재단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Universal Design)'을 주제로 2021년 UD 라이프스타일 공모전을 개최했다. 기존의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확대해 디자인을 통해 일상의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포스터, 일러스트, CG, 웹툰, 사진, 그림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모집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은 일반부, 청소년부, 어린이부 등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3,630만 원의 상금과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했다. 2021년은 수상작 선정 규모를 전년도에 비해 2배(2020년도 50개→2021년도 113개)로 늘려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공모전은 9월 6일 공고를 시작으로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았고 11월 하순 심사를 거쳐 12월 초 결과 발표를 했다. 공모 분야는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상디자인이다. 수상 작품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세 달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3층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UDP)에서 전시되었다. 일반부 대상 수상작은 조성래·최용한의 작품 '리퓨어'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시의성 있는 제품을 선보였다. '리퓨어'는 기존 복합이용시설 회전문에 설치하여 장착된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이용객의 체온을 측정하여 회전문에 표출하고, 공기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건물 내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금상에는 큰 재활용 쓰레기와 작은 먼지 쓰레기를 분리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돕는 쓰레받기인 김민수의 '필터 더스트맨'이 수상했다. 역대 수상작은 UD 라이프스타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UD 라이프스타일 공모전 홈페이지





2021년 UD 라이프스타일 공모전 포스터



김민수의 '필터 더스트맨'



조성래·최용한의 작품 '리퓨어'


Ideation

주요 성과

사회문제 해결디자인

서울시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체감하게 하기 위해 디자인을 도시를 변화, 발전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채택하여 범죄, 고령화, 치매, 학교폭력, 스트레스 등 해결이 절실한 사회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

2012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73개 지역에 20개 유형별 디자인을 개발한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은 2022년 '1인 가구 안전'과 관련한 생활안심 디자인 확산을 위해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및 체계를 정비하고 서울시(디자인정책관,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관할 경찰서(CPO), 자치구 등으로 구성된 TFT를 구성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했다. 관계 회복, 정서 힐링, 감각 경험을 키워드로 하여 어르신과 청소년, 심리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었다.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은 어르신 스트레스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회복하고자 '해소당' 디자인을 노인종합복지관에 적용했고, 환경 심리 요소를 적용한 상담 공간 '마음정원' 디자인을 서울청년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어르신상담센터 등에 적용했다.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은 2018년부터 식물을 활용한 쉼공간 '마음풀' 디자인 개발을 지속하여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의 감각 개발과 정서 순화를 돕고 있다. 2022년 서울시는 급변하는 도시 환경의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이슈 대응형 디자인' 사업을 신설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여, 늘어나는 외부 활동과 그에 따라 증가하는 공공공간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숲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도출했다.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국내외 유수의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2022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서비스 디자인 부문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2018), 감염예방 디자인(2021), 인테리어부문 인지건강 디자인(2020) 등 2개 분야 3개의 사업이 본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해 축적된 사업의 성과를 백서로 기록하고 있다. 2020년 '인지건강 디자인 종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데에 이어 2021년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디자인거버넌스'의 성과를 기록하고 그간 진행된 총 26개의 사업 내용을 담은 '서울디자인서버넌스 백서'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총 67개소의 사례를 담은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행했다. 개별 사업단위 백서 발행과 더불어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백서'를 발행했다. 범죄, 치매, 스트레스, 청소년 문제, 디자인거버넌스 등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된 백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의 대표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서울시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에 공간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공간 7개소, 공공건축물 3개소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였고 사업 결과물을 UD 가이드북으로 발행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고도화 작업도 진행되었다. 2021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공공시설 UD 적용 의무화에 발맞춰 2017년 개발 보급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여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으로 새롭게 발행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4종을 현행화·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복지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에 더하여 2021년부터 시민편의공간 유형별 사례 및 가이드라인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도시공간, 공공건축물에 적용해 왔던 유니버설디자인을 2021년 어르신 가구에도 적용해 침대, 소파 UD 디자인을 개발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전담 기관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치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확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도가 전국적·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추진을 위한 인증 대상 및 지표 연구 개발을 진행했다. 공공부문의 UD 의무화에 따른 컨설팅·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시민 대상 홍보와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2021년부터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SUDA)'을 제정·운영하여 2021년 8개, 2022년 9개의 유니버설디자인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다.

시는 더불어 유니버설디자인 접근성 향상 및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선도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기존의 전자책 형식을 탈피하여 2022년 웹서비스로 제공하여 전문가, 실무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 서비스'를 '스마트서울맵'으로 제공하여 이동약자의 공공시설 접근성을 향상했다. 이렇게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디지털과 결합한 결과물들은 그 실효성을 인정받아 국내외 유수의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 공간, 제품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우수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등 시민 일상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4
도시·환경

사업 구분

| 서울시
| 서울디자인재단

주요 배경

4-1. 공공디자인

| 4-1-1.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 4-1-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4-1-3.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발굴·개발
| 4-1-4. 안전디자인
| 4-1-5. 펀(FUN) 디자인 프로젝트
| 4-1-6. WE UP 프로젝트

4-2. 공공미술

| 4-2-1. 공공미술 작품 유지·관리
| 4-2-2. 정책 기반 조성
| 4-2-3. 시민 참여 프로젝트
| 4-2-4. 공공미술 작품 설치

주요 성과

주요 배경

공공디자인

서울시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이미지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두어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받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 협력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서울시 공공디자인 전문가는 제품·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조명, 건축 등 6개 분야에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2016년 수립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3.0'을 개정하여 2020년 '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을 발간하였고, 2021년 '서울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2021'을 개발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가이드라인의 효용을 높이고 서울시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표준디자인을 개발·보급하여 통일감 있는 경관 조성과 시각이미지에 의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 정착과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디자인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산하고 디자인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품을 인증하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을 통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인증제 탈락업체를 대상으로 '서울디자인클리닉'을 운영하여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참여업체의 디자인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는 WE UP 프로젝트(디자인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공공디자인 스타트업이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펀(FUN)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재미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유쾌하고 활기찬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공공미술

서울시는 예술적 상상력으로 서울을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가꾸어가기 위해 2016년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서울의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된다'는 취지로 도시공간에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작품을 구성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했다. 「서울은 미술관」은 공공미술 작품 설치에 한정하지 않고 작품과 함께 어우러진 장소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고 시민이 머물고 교감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해 왔다.

서울시는 '지역 단위 공공미술 작품 구현' 사업을 통해 서울의 일상 장소를 공공미술 명소로 만들어왔다. 보름달을 형상화한 원형 구조의 공공미술 작품 <달빛노들>(2021)은 한강 노들섬에 방치되어 있던 선착장을 문화공간으로 변모시켰고, 20년간 숨겨졌던 서울역사 내 폐쇄 램프는 공공미술 명소 <도킹서울(Docking Seoul)>(2022)로 탈바꿈했다. 시민들이 서울 곳곳의 장소에서 경험하고 느낀 삶의 이야기는 '공공미술 시민 아이디어 구현' 사업으로 작품이 되어 장소의 의미를 되살리고 있다. 문화비축기지에 조성된 <모래-시간>(2021)은 아이와 함께 성장한 시간을 담아내고, 서울대공원에 설치된 <솜사탕 코끼리>(2021)는 어린 시절 서울대공원에서 경험했던 동물원과 솜사탕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축제인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축제'는 옛 시민 휴양지였던 노들섬을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누리는 축제의 장으로 되살려 시민들에게 선사했다.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현장형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대학 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2021년에는 '보행로'를 주제로, 2022년에는 노들섬을 대상지로 하여 각각의 장소별 특징을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서울의 첫 번째 경전철 우이신설선을 예술공간으로 변모시킨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 사업은 2021년 상반기 진행된 전시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서울아트스테이션'이 사업을 이어받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정에 기억할 만한 특별한 순간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의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은 미술관 2.0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공공미술의 중장기전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은 미술관 기록화 사업'을 통해 2차 성과 자료집(2020-22)을 발간하고 '서울은 미술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그동안 펼쳐온 「서울은 미술관」 사업의 전체 과정과 결과를 아카이빙했다. 해마다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공공미술의 담론을 논하는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는 제6회 '확장하는 공공-디지털 시대, 동시대 공공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7회 '접속하는 미술, 공공의 미디어'를 주제로 변화하는 시대에 공공성의 의미와 공공미술의 정의를 되짚었다.

4-1. 공공디자인

4-1-1. 서울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진흥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키워드	#공공디자인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 #인증제 #공공시설물 #서울디자인클리닉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서울시는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 디자인 제품을 선정하여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 대상은 '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공공시설물 20종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출시 예정인 시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 신청 공고에 따라 신청자는 인증제 홈페이지에 디자인 설명, 도면, 사진 등 출품서를 제출하고, 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물 심사를 통해 우수 디자인 제품을 선정한다. 심사위원회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소위원회로 구성되며, 신청 제품 유형별로 2개의 분과로 나뉘어 심사를 진행한다. 1분과 위원회는 환경·공간·유니버설·산업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2분과 위원회는 건축·조명·토목·조경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사 항목으로 '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인증제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기능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창의성 등이 있다.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제품 중 서울시 내 설치 실적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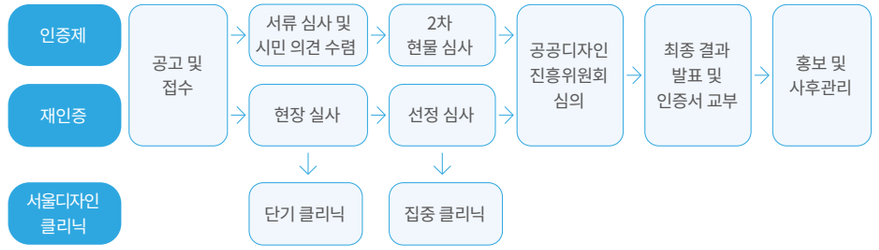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대상 20종]

휴게시설물	벤치, 파고라(그늘막)
위생시설물	휴지통(재활용수거함 포함), 공중화장실(부스형), 음수대
서비스시설물	자전거 보관대
녹지시설물	가로 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보호시설물	볼라드, 보행자용 펜스, 자전거도로용 펜스, 교량용 펜스
관리시설물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 뚜껑, CCTV
조명시설물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기타	횡단보도 쉘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마크]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절차]



2021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은 상·하반기(2, 7월) 연 2회 진행되었다. 상반기에 진행된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은 2월 1일 공고를 시작하고 3월 7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여 총 128점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접수했다. 3월 중 진행된 1차 서류 심사는 1단계 온라인 심사, 2단계 오프라인 심사로 진행되었고, 4월 6일 서울산업진흥원(SETEC) 제3전시관에서 진행된 2차 현물 심사에서 조건부 12점을 포함하여 총 37점이 선정되었다. 조건부 의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후 5월 13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재인증의 경우 수시 접수를 통해 총 18점을 접수받았다.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현장 실사를 통해 인증 당시 디자인과 비교하여 설치 제품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유지 상태를 체크리스트로 작성했다. 이후 인증제 현물심사 일정에 맞춰 재인증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은 7월 8일 공고를 시작하여 8월 8일 총 28점이 접수되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물 심사를 거쳐 총 21점을 선정했다. 재인증 심사에는 총 26점이 접수되어 총 19점이 통과되었다.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작]

구분	벤치	볼라드	자전거 보관대	휴지통	음수대	보행자용펜스	자전거도로용펜스	교량용펜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파고라	가로 화분대	지상기기
인증(37)	6	3	1	-	-	9	5	2	5	-	2	1	3	-
재인증(17)	2	1	1	1	1	4	-	2	-	1	1	1	-	2
합계(54)	8	4	2	1	1	13	5	4	5	1	3	2	3	2

서울우수 공공디자인인증제 홈페이지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작]

구분	벤치	보행자용 펜스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도로용 펜스	교량용 펜스	맨홀	가로수 보호덮개
인증(21)	4	13	-	2	2	-	-
재인증(19)	7	8	1	1	-	1	1
합계(40)	11	21	1	3	2	1	1

서울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인증에 대한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인증제 확대 운영을 추진하여 2022년 인증제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인증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출시 예정인 제품의 실제 생산과 조달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 또 상·하반기로 분산 운영되던 인증제를 연 1회 통합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 조례 시행 규칙」 제3조 2항을 개정하여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 진행된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은 3월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총 112점의 제품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물심사,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공시설물 47점을 최종 선정했다. 인증 제품은 향후 인증 기간 3년 동안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서울시의 홍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월 19일부터 선정 업체에게 인증서와 인증패가 교부되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5년간 총 1,423개 제품이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받고 서울시 공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인증 제품은 매년 발행되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책자를 통해 자치구, 관련 기관 등에 홍보되고 있다.

[2022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일정]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작]

구분	벤치	볼라드	보행자용 펜스	자전거 도로용 펜스	교량용 펜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파고라	횡단보도 쉘터	지상기기
인증(18)	2	2	3	1	6	-	-	-	1	-	3
재인증(29)	-	4	13	1	7	1	1	1	-	1	-
합계(47)	2	6	16	2	13	1	1	1	1	1	3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매뉴얼 책자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 매뉴얼 책자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서울디자인클리닉

서울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탈락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디자인클리닉'을 시행하고 있다. 인증제 미선정 제품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처방을 통해 영세 제조업체의 디자인 개발 능력을 향상하고 우수 공공시설물 개발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단기 클리닉, 집중 클리닉 두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기 클리닉은 인증제 서류 심사 탈락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집중 클리닉은 인증제 현물 심사 탈락 업체와 단기 클리닉 수료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기 클리닉에서 신청 업체는 공공디자이너의 자문을 통해 인증제 서류 심사의 탈락 원인을 분석하고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디자인 방향을 잡는다. 집중 클리닉은 신청 업체와 공공디자이너를 1:1 매칭하여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한다. 컨설팅은 인증제 현물 심사 탈락 원인 분석, 디자인 도출, 제품 제작·구현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컨설팅 이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점검 회의에서 도출한 디자인을 최종 검토한다. 2021년 서울디자인클리닉은 인증제 추진 절차에 맞춰 2회(제26회: 4~9월, 제27회: 6~12월) 진행되었고, 2022년 제28회 디자인클리닉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4-1-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진흥팀
사업 연도	2021
예산명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키워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일러스트가이드라인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디자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2021'을 개발했다. '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제정·수립되는 법정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세부 내용을 규정해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기존 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항목별로 방대한 내용의 규정과 지침이 텍스트로만 안내되어 있어 경험이 적은 실무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는 등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처음으로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공공디자인사업 총 4개의 분야에 대해 도로, 공원, 버스정류장, 시설안내표지판 등 총 97개의 항목을 소개하고 있다. 각각에 대한 설치 지침은 한 장의 그림으로 도식화해 텍스트만으로는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보여준다.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 방향과 내용, 정량적 수치를 도식화해 시각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시설물이 위치한 도시 구조도 함께 그려 공공시설물의 위치, 용도, 기능 등 도시 맥락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서울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적용 분야 및 항목]

분야	항목
공공공간	도로공간, 광장, 친수공간, 소공원, 공공건축물 관련 사항
공공시설물	도로시설(도로, 교통, 보행안전, 관리, 도시철도 시설물), 하천시설물, 지원시설(이동형 부스, 도로점용 허가 시설, 휴게, 조명·보안, 위생 시설물), 녹지·수경시설 관련 사항
공공시각매체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교통, 보행, 안전, 영상),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실내 사인, 실외 사인) 관련 사항
공공디자인사업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항

시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만들었다. 체크리스트는 항목별로 디자인의 기본 방향, 지형, 배치(설치), 형태, 재료, 색채, 그래픽 요소 등 감리·검토에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항목별로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을 때에는 법령, 법규, 매뉴얼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참고 자료 목록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서울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의 활용을 돕기 위해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는 관계 기관과 자치구 등에 책자로 배포되었고,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자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서울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2021



서울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2021

4-1-3.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발굴·개발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진흥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키워드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 #사설안내표지 #신조전동차표준디자인매뉴얼 #지하철캐노피 #표준디자인 #서울공공디자인공모전 #시민 참여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기준을 정립하고 서울의 도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 공공시설물에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형디자인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존의 사설 안내표지[1] 디자인을 설치와 관리 지침, 법령 개정에 맞추어 재정비하였고, 기본형을 보완하여 관광특구형 디자인을 신규 개발했다. 또한 기존의 신조 전동차 환경·시각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여 현 전동차 환경에 부합하는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했다. '신조 전동차 표준디자인 매뉴얼'은 전동차 내부의 교통약자석(임산부 배려석, 휠체어석 등), 일반석과 같은 좌석 디자인, 픽토그램, 비상통화장치와 소화기, CCTV 카메라, 출입문 비상핸들을 포함한 방재시설물을 대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신조 전동차 제작 시 또는 운용 중인 전동차의 부착물 정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사설 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개발

신조 전동차
표준디자인 매뉴얼





신조 전동차 표준디자인 매뉴얼

1) 사설 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 주체가 해당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2022년에는 2010년에 개발된 지하철 외부 출입구 캐노피 디자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비했다. 기존 캐노피 디자인은 복잡한 공정으로 인한 경제성 저하, 유지관리의 어려움, 좁은 보도에 설치 시 디자인 비대칭 발생, 간판 차폐로 인한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각적 차폐를 최소화할 수 있는 투명한 유리 소재를 사용하고 지하철 출입구의 다양한 폭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로 폭 축소와 확장이 용이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구조를 간소화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박스형이 아닌 사선형태를 적용하여 주변 건물 대비 인지성을 강화하고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파워글라스를 활용하여 정보 제공과 감성적인 공간 연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다.







2022년 지하철 외부 출입구 캐노피 표준디자인 개발

서울 공공디자인 공모전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서울의 도시공간을 보다 활기차고 유쾌하게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서울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공모전은 '서울의 밤, 서울의 빛'을 주제로 하여 서울의 야간 관광 콘텐츠, 이웃의 밤을 위한 공공디자인 두 개의 공모 부문으로 진행되었다. 시민

들은 DDP에서 열리는 서울라이트(SEOUL LIGHT)와 연계하여 야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빛을 활용한 재미있는 디자인, 이웃들이 지내는 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제안하였고 총 23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품을 접수하고, 8월 1차 서면 심사, 2차 온라인 면접 심사를 거쳐 '기능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갖추어 제작·활용이 가능하고, 설치할 장소와 주변 공간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적인 디자인 작품'으로 일반부 19점, 학생부 4점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25백만 원 상당의 시상금이 수여되었고, 수상작은 e-book 작품집과 영상 콘텐츠로 제작되어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수상작 중 1점에 대해서는 실물 제작과 전시도 이루어졌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주승 작 <플라스틱 백신(Plastic vaccine)>은 실시 설계와 제작 과정을 거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 외부 계단에 설치되었다. '서울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2021년 사업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공모전 선정 결과 구성]

구분	작품명	성명	소속
일반부			
금상	Shining terrace of DDP	최명하	TL lab
은상	bright bloom	조현목	Gerber architects
동상	동상운몽(同牀雲夢)	유혜진	덕성여자대학교
	오방색정(五方色亭)	이준수	개인
	Touching Light	이지민	한국예술종합학교
장려상	사회적 거리두기 봉	김태진	개인
	Plastic vaccine	이주승	studio girabaldi
	STEP-ON-LIGHT	강재석	연세대학교
	sugarball	유연준	국민대학교
	MARK-CUBE	양태령	개인
	TIME LAPSE IN SEOUL	마정서	중앙대학교
입선	토포그래피컬 라이팅 (Topographical Lighting)	박주현	개인
	3F SEOUL	심유빈	호서대학교
	Light Through Me	김정민	선문대학교
	루[RU] _Bright of seoul, korea	임용구	아트테리언
	Play with (U+S)eoul	박태희	㈜투스텝코리아
	서울iN, Symphony of people	정수아	개인
	빛날리다	박민경	서일대학교
	Light Spinner	안바다	단국대학교

2021 서울
공공디자인 공모전
e-book

2021 서울
공공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영상

구분	작품명	성명	소속
학생부			
장려상	서울밤, 빛으로 말하다 –DYNAMIC IT KOREA, 숲이라는 해석	전규식	원미고등학교
입선	광장에서 느끼는 자연	이다은	아현산업정보학교
	shadow ball	김예은	숭덕여자고등학교
	롬브레(l'ombre)	김민서	양산제일고등학교





<Plastic vaccine>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설치

4-1-4. 안전디자인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진흥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감염예방 디자인사업 | 공공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키워드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 #안전디자인 #감염예방디자인 #코로나19 #위드코로나 #감염예방대표색 #감염예방픽토그램 #산업현장안전디자인 #안전색 #안전픽토그램 #안전표지적용지침 #비상대처방안

감염예방 디자인

'감염예방 디자인' 사업은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각심을 높여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개인 방역과 감염예방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일상적인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시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코로나19 관련 시각정보물이 체계 없이 임시로 설치되어 정보 전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었다. 이후 감염병과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지만 관련한 디자인 매뉴얼은 계속 부재한 상황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부터 지속된 '금지' 위주의 안내는 감염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키우고 방역에 대한 피로감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서울시는 혼재되어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통합해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표준 감염예방 디자인을 개발하고 적용했다. 시민들이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와 주의사항, 행동지침을 눈에 띄는 컬러와 간결한 그림문자만으로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먼저 녹색(GY, Green Yellow) 계열의 'PANTONE 389C'를 '서울 감염예방 대표색'으로 지정했다. 감염병은 많은 사람들의 예방 활동 동참이 중요한 만큼 일상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감염예방을 연상할 수 있는 '대표색' 지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 감염예방 디자인 매뉴얼

[감염예방 디자인 자문단]

분야	소속/직책	
의료	방상혁	전)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디자인	장광집	경희대 산업디자인 교수
	백진경	한국디자인학회 회장
	이경돈	신구대 실내건축 교수
미술치료	신지현	건국대 예술치료학과 교수



감염예방 대표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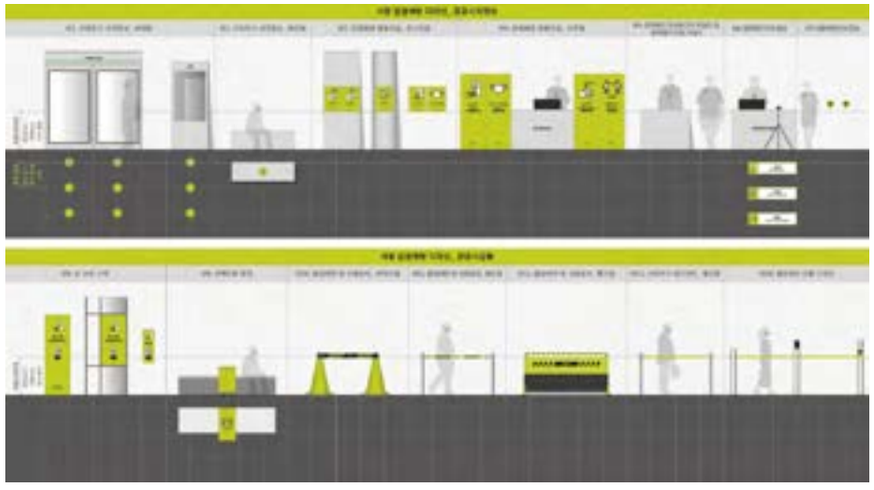
감염예방 픽토그램 15종

또한 시민들이 생활 방역을 위한 필수 정보를 디자인만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QR 체크, 기침 예절, 손소독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감염예방 픽토그램' 15종도 개발했다. 그간 제각각으로 사용했던 감염병 관련 이미지를 통합해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디자인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이렇게 시에서 지정하고 개발한 감염예방 대표색과 픽토그램을 적용해 손 소독 구역, 언택트형 벤치 등 공공장소에 설치할 '공공시각정보' 디자인 6종을 개발했다. 출입구, 개찰구 등 각 지점별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정보 설치 정보를 제시한 '서울 감염예방 디자인 매뉴얼'도 제작했다.

이렇게 개발된 디자인은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와 시청역을 시작으로 서울시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서울문화재단 운영 문화공간, DDP, 서울도서관, 노들섬, 지하철 1~8호선, 시청역, 을지로4가역, 잠실역, 합정역, 자치구·주민센터 등 763개소에 적용되었다. 한편 책자로 인쇄된 '서울 감염예방 디자인 매뉴얼'은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부처, 전국 시·도, 경찰청 등에 총 704부가 배포되었다. 서울 감염예방 디자인은 서울시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타 시도, 기업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적용되었다.



감염예방 행동 지침 포스터



서울시는 감염병 상황의 약속 체계 정착과 국제사회 내 공공디자인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예방 픽토그램 15종의 국가(KS)·국제(ISO) 표준화 등록을 추진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등록은 국내외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통상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감염병 관련 픽토그램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과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서울 감염예방 픽토그램'이 국제표준으로 등록될 경우 서울의 디자인이 전 세계의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감염예방 디자인은 2021년 11월 제19회 한국색채대상 GREEN상, 2022년 5월 독일 iF디자인어워드 서비스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감염예방 디자인은 시민들에게 감염병 관련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약속으로 자리매김하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감염예방 행동 지침 포스터



사용 금지 및 비대면 벤치



거리두기 시각 표시



손 소독



출입 제한 펜스



감염예방 디자인 홍보

산업현장 안전디자인

2022년 서울시는 색각이상자도 구별 가능한 색을 반영하여 '산업현장 안전디자인'을 개발했다. 공사장 등 산업현장은 여러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근로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표지는 현장별로 제각각 적용되고 있어 참고할 만한 표준화된 디자인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 정보를 즉각적으로 인지해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서울 표준형 안전디자인'을 개발했다.

'서울 표준형 안전디자인'은 색각이상자도 구별이 가능한 '안전색', 산업현장 환경을 고려한 '안전 픽토그램', 안전표지 적용 지침, 현장 작업자 안전을 위한 비상시 대처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자문, 색약자 테스트를 거쳐 색맹·색약자도 구별 가능한 '안전색'을 선정하여 안전디자인에 적용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안전 픽토그램' 9종을 개발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같이 기존에 없었지만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신규 개발하고, 고압가스, 계단 주의, 불규칙 노면주의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존 픽토그램을 개선해 쉽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표준화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개발한 안전 픽토그램은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등록을 추진 중이다.

산업현장의 안전표지 오용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표지 적용 지침도 마련했다. 안전표지의 안전색과 픽토그램, 다국어 표기, 설치 높이 등 적용 기준 등을 제시하여 다양한 환경의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사현장 내 작업자 안전을 위한 비상시 대처 방안도 마련했다.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버튼형 사이렌과 점멸등을 안전모에 부착하여 작업 중 비상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응급처지와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 안전디자인 자문단]

분야	소속/직책	
색채	박연서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회장
	유은미	한국색채학회 회장
디자인	신지현	건국대 예술치료학과 교수
법률	박민성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서울
안전디자인
매뉴얼

했다. 지하 공사 현장 등 암전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대피 동선에 축광형을 적용했다. 축광형 비상 대피 동선은 현재 국회대로 지하차도 1단계 건설현장에서 시범 적용하여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 표준형 안전디자인'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공공·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산업현장 안전디자인은 '2022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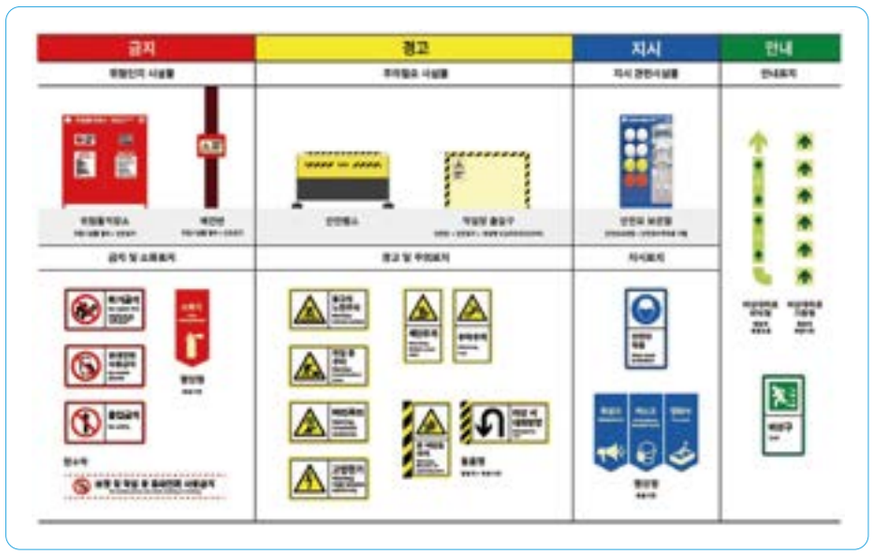
안전색



안전 픽토그램



안전표지 적용 지침



안전디자인 적용 항목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1단계 현장 적용



낮은 높이의 구조물에 충격 흡수 소재 내장 및 안전색을 적용한 머리주의 안전표지(좌: 개선 전/ 우: 개선 후)



빨간색 바탕과 흰색 정보 표시로 시인성을 높인 위험물 저장소(좌: 개선 전/ 우: 개선 후)



암전 시에도 확인이 가능한 긴급 대피 설비(확성기, 마스크, 방화사) 위치 안내 사인 (좌: 개선 후/ 우: 암전 시)


머리주의
Warning:
Overhead
obstacles

4-1-5. 펀(FUN) 디자인 프로젝트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디자인진흥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 | 시민 힐링 프로그램 및 시설물 개발 시민 휴식공간 조성
키워드	#공공디자인 #재미있는서울공공공간조성사업 #펀디자인프로젝트 #구름막 #감염예방디자인 #코로나19 #시민휴식공간 #힐링시설물 #수변감성도시 #수변복합 문화공간 #SoulDrop벤치 #물방울벤치

서울시는 공공공간에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들의 일상에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는 '펀(FUN)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여 '자연스런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개발했다. 하얀 뭉게구름 밑에 누워 있는 느낌을 주는 그늘막, 일명 '구름막'을 3m 간격으로 설치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의 일상에 활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름막' 디자인은 2021년 11월 제22회 한국FM대상 도시디자인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고, 2022년 4월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건축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2022년에는 물방울의 가변적이고 유연한 형태를 공간적으로 재해석한 Soul Drops 벤치를 개발했다. 분리와 결합이 가능한 모듈 방식을 적용하여 코로나 이후 변화한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자유롭게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또한 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 일대를 수변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진행했다. 지천 수변공간에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시민들의 야외 활동 증가에 대응하고,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현재 어둡고 폐쇄적인 복개구조물은 2023년 시민들이 문화생활과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펀(FUN) 디자인 프로젝트 대상지 현황]

사업 대상지	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
위치	제기동역 인근 정릉천 좌안(동대문구 제기동 271-50)
건립	1990년 미도파 백화점 건립 후 주차난 해결을 위해 복개구조물 건립
규모	8,320 ㎡(폭 25m, 연장 320m)
이용	공영주차장 및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구분 이용되고 있음



2021 구름막 설치



2022 Soul Drops 벤치 설치



정릉천 복개공영주차장 실시 설계(이미지)

4-1-6. WE UP 프로젝트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산업디자인육성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공공서비스 디자인산업 저변 확대 |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키워드	#디자인 #공공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스타트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WE_UP_프로젝트

서울시 'WE UP 프로젝트(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사업)'는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디자인 개발과 구현 과정 등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이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디자인 개발 과정을 함께하며 민관 협력형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실현한다. 또한 시가 위촉한 전문가의 1:1 컨설팅과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고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는 스타트업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세무, 회계, 빅데이터, 브랜딩, 마케팅, 지식재산권 등 디자인 개발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강 등을 지원한다.

[사업 추진 과정]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
- 서울시 소재,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디자인 전문 인력 2인 이상 보유 기업
-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스타트업 선정

↓

사업 추진
- 스타트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디자인 개발(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관(부서) 및 이해관계자 협의
- 최종 디자인 도출 및 실시 설계

↓

대상 기업 공모·선정
- 프로토타입(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기능 및 안전성 검증)
- 사업별 특성에 맞는 구현 방식 적용, 제작 및 설치
- 결과 공유 및 홍보

[참여 주체의 역할]

구분	내용		
서울시	사업 기획 및 운영		
	예산 지원	사업비 (디자인 및 설계)	기업별 2,000만 원
		제작·구현비	예산범위 내 디자인 결과물에 따른 차등 지원
스타트업 (선정 기업)	아이디어 제안, 디자인 개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관계 부서 협의, 규정 검토 등		
디자인 전문가	1개 기업 전담하여 1:1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 및 멘토링		
전문 회사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디자인 및 설계, 제작 지원		

2021년에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5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디자인 개발비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컨설팅 등을 제공했다. 2021년 육성 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 오버랩(OVER Lab.)은 레저스포츠 업계 호황으로 인한 스포츠 장비의 폐기와 처리 문제의 심각성에 착안하여 버려진 요트 돛을 리사이클링한 매트 겸 가방 <한: 리버스 매트백(HAN: REBIRTH matbag)>을 개발했다. 피크닉용품으로 활용 가능한 이 제품은 한강공원 내 미니스톱에 입점하여 판매되었다. 스타트업 '필라멘트앤코'는 박람회, 플리마켓 등 행사에 설치되는 전시 가구의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위츠(SWIT.X)> 디자인을 개발했다. 유닛 가구로 디자인되어 조립과 보관이 용이하며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디자인의 선택이 가능하다. 스타트업 '프로젝트데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국내외 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떠오르고 있는 비대면 랜선 투어 시장에 주목하여 서울의 매력적인 지역을 소개하고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라이브 랜선여행 플랫폼(www.loginrtour.kr) <로그인 투어(LOGIN TOUR)>를 개발했다. 스타트업 '건축사사무소19341'은 노후한 옹벽에 설치되는 무미건조한 안전시설이 도시 경관의 삭막함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성 디자인 낙석방지망>을 개발했다. 모듈화된 링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낙석방지망은 반사판으로 된 방향표시 등 정보안내 기능을 가지며 유지 보수와 재활용이 용이하다. 스타트업 '작정'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이슈에 주목하여 설치와 철거가 용이한 모듈형 수납함 겸 가구인 <업박싱(UPBOXING)> 디자인을 개발했다.



건축사사무소19341 <낙석방지망>



필라멘트앤코 <유닛 가구>

2022년에는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3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스타트업 '딕션비'는 건설현장 사망재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호구의 미사용 또는 잘못된 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주목하여 안전성, 편의성, 기능성을 고려한 안전모 디자인을 개발했다. 실제 건설 현장의 근로자 인터뷰, 시범 테스트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원인과 불편 사항을 분석하고, 사용자 중심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스타트업 '다이브'는 시민들에게 도

심 속 휴식처가 되어줄 평상형 공공 벤치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일률적 형태를 탈피해 도시의 옛 정서를 반영한 평상형 디자인은 코로나 이후 휴식을 위한 공간은 물론 함께 앉고, 모이고, 대화하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공간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결합 또는 분리하여 자유롭게 형상을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를 적용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스타트업 '키뮤 스튜디오'는 특별한 디자이너(발달장애인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만든 작품(아트워크)을 활용해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과 다양한 제품 디자인을 개발했다. 시민의 일상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주는 디자인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시민들이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을 일상 안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과 구급 키트(유아용, 캠핑용, 반려동물용), 에코백 등 디자인 제품을 개발했다.





딕션비 <안전모 디자인>



키뮤 스튜디오 <공사장 가림막>

[서울시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사업 참여 기업 현황]

연도	연번	선정업체	사업 내용	디자인 결과물
2021	1	오버랩	버려진 요트 돛을 재활용하여 한강의 피크닉용품으로 활용 가능한 매트 겸 가방 개발	
	2	프로젝트 데이	서울의 매력적인 지역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라이브 랜선 여행 콘텐츠 및 온라인(PC, 모바일) 플랫폼 개발	
	3	필라멘트 앤코	조립 및 보관이 용이하며,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컬러나 규격 등 디자인 선택이 가능한 유닛 가구 개발	
	4	작정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한 편의시설물 디자인 개발	
	5	건축사 사무소 19341	링 모듈화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 유지·보수와 재활용이 가능한 낙석방지망 개발	
2022	1	키뮤 스튜디오	발달장애 디자이너의 그래픽을 활용한 구급 키트, 에코백 등 제품 디자인 개발	
	2	딕션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모 디자인 개발	
	3	다이브	평상형 공공 벤치 디자인 개발	


돈암
온화한교회
JCDecaux
에스토리안경

4-2. 공공미술

4-2-1. 공공미술 작품 유지·관리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미술진흥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공공미술 작품 유지·관리
키워드	#공공미술 #공공미술작품유지관리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미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미술 작품 및 건축물미술 작품의 상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시의 공공미술 작품 관리 대상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 공공미술 작품'으로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 내 미술 작품과 「문화예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면적 1만m^2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미술 작품'이다. '서울시 공공미술 작품'은 시가 직접 설치한 경우 서울시가 관리 주체가 되고 공공용지 내에 설치된 경우 공공용지 관리 기관이 미술품을 관리한다. 작품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연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보수 및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한다. '건축물미술 작품'은 건축물 소유자가 미술품 관리주체이며 관할 자치구가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공공미술 작품 및 건축물미술 작품에 대해 시와 산하 기관 및 자치구가 연 1회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022년 11월 30일 기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미술 작품은 총 4,541개이고, 이 중 서울시 공공미술 작품은 298개, 건축물미술 작품은 4,243개이다. 서울시 공공미술 작품은 동상, 기념비, 기타 조형물로 구성되며 이 중 청계천 조형물 '스프링'을 포함한 집중 관리 조형물 51개는 서울시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공미술 작품 유지·관리 대상 및 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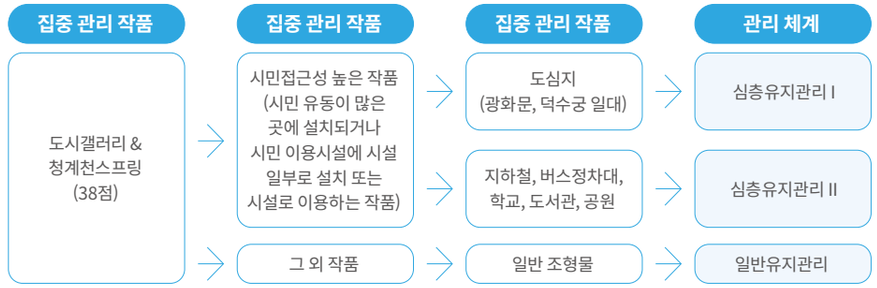
구분	서울시 공공미술 작품	건축물미술 작품
설치 근거	조례에 따라 설치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리 대상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 내 미술 작품 및 시가 직접 설치하는 미술 작품	건축물 신축·증축 시 의무 설치하는 미술 작품(설치 대상 연면적 1만㎡ 이상 의무)
관리 주체	설치주체 또는 공공용지 관리기관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소관부서)	건축물 소유자(건축주)
점검 주체	설치 주체 또는 공공용지 관리 기관 (시 및 산하 기관, 자치구 소관 부서)	건축물 점검 관할 기관(자치구)
관리 방법	- 관리 주체: 작품 상태 및 주변 환경 상시관리(보수) - 점검 주체: 연 1회 관리 상태 정기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및 관리조치 시행	- 관리 주체: 작품 상태 및 주변 환경 상시 관리(보수) - 점검 기관: 연 1회 관리 상태 정기 점검 및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관리 주체 행정지도
기타 사항	점검 주체는 공공미술 작품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작품 현황 정비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서울시 공공미술 작품 및 건축물미술 작품 현황(2022.11.30. 기준)]

합계	공공미술 작품 수(시 및 산하 기관, 자치구 관리 작품)					건축물미술 작품 (건축주 관리 작품)
	소계	동상	기념비	조형물		
				집중 관리	기타	
4,541	298	49	69	51	129	4,243

집중 관리 대상 조형물(서울은 미술관 제외)에 대해서는 시민의 접근성과 기능에 따라 심층유지관리 I, 심층유지관리 II, 일반유지관리로 관리 체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관리 체계에 따라 광택, 코팅 등 클리닝 횟수를 달리 적용하고 일상적인 소규모 보수 등 상시적인 유지·관리를 한다. 또한 노후 및 사고 발생 우려 시 진행되는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위험 공공미술 작품을 관리한다. 선정한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의 균열, 누수, 박리 등 재료 상태의 변화 및 강도 시험, 강재 접합부 검사 등을 시행한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유지·보수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이전·철거, 대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집중 관리 작품 관리 체계]



*서울은 미술관(13점) 별도 관리

서울시는 시 소유 미술 작품에 대해 영조물 배상공제를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공공미술 관리를 위해 '공공미술 작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4-2-2. 정책 기반 조성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미술사업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서울은 미술관 정책 기반 조성
키워드 #공공미술 #서울은미술관 #정책 기반조성 #공공미술컨퍼런스 #기록화사업 #아카이브플랫폼 #성과자료집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

서울시는 공공미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담론을 바탕으로 서울시 공공미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공공미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해마다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는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는 2021년 6회째를 맞이하여 '확장하는 공공-디지털 시대, 동시대 공공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10월 14일에 진행되었다. 총 5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하에 변화하는 '공공'의 의미를 되짚고 공공미술과 그 실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논했다. 발제 이후 박성태 서울시 공공미술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청중과의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제6회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는 DDP 서울-온화상 스튜디오에서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6회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 프로그램]

내용	연사
개회식	
기조연설	
동시대 예술, 그리고 확장하는 공공의 가치	Eyal Weizman(에얄 와이즈만) 영국 골드스미스대 교수, 포렌식아키텍처 창립자
세션 1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공공성의 제언	
도심 속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을 고려한 콘텐츠 패러다임의 변화	이성호/디스트릭트홀딩스 대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성의 기술-생태적 조건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세션 2 포스트공공미술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미술관의 공공성	기혜경/부산시립미술관장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른 공공미술 제도	김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종합토론	
누가, 무엇을, 왜, 공공미술	좌장: 박성태/정림건축문화재단 전 상임이사, 서울시 공공미술위원장

제6회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 영상

2022년 제7회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는 10월 2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접속하는 미술, 공공의 미디어'를 주제로 하여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사회로 빠르게 재편되고 예술의 제작과 향유 방식도 바뀌어감에 따라 공공미술이 물리적 장소를 넘어 가상공간에서 시민의 접근성, 소통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장해 갈 수 있는지, 서울시 공공미술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오프라인 컨퍼런스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 권대훈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장이 진행을 맡고 5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강연과 토론을 펼쳤다.

[제7회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컨퍼런스 프로그램]

내용	연사
개회식	
기조연설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 성과와 한계	안규철/작가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세션 1 비대면/초연결 시대 공공미술이 시민과 접속하는 방법들	
낮과 밤의 공공미술: 도시와 미디어아트 하기	김성은/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메타버스에서도 공공미술이 가능할까?	신보슬/토탈미술관 책임큐레이터
세션 2 시민과 공공미술의 지속 가능한 동행을 위한 조건들	
공공미술은 수용자 중심의 미디어가 될 수 있을까?: 가능성과 한계점, 극복 과제에 대한 솔직 제안	유현재/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인류세의 새로운 자연 개념과 도시 공공미술의 재정의	김준수/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연구원
종합 토론	
-	진행: 권대훈/공공미술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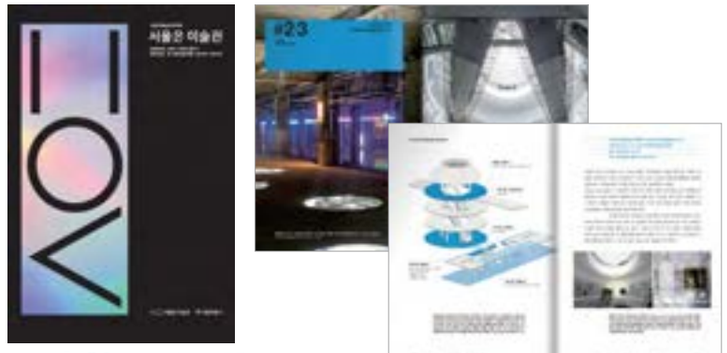
제7회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 영상

그동안 진행된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버런스 영상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youtube.com/seoulliv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은 미술관」 기록화 사업

서울시는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은 미술관」 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보존·공유하고 향후 서울시 공공미술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서울은 미술관」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영상, 사진, 문서, 비평 등 기초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2020년 「서울은 미술관」 성과 자료집(2016~2019)을 발간하였고, 서울시 공식 디지털 아카이브 채널 '서울기록원'에 「서울은 미술관」 컬렉션 페이지를 오픈했다. 일반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은 미술관」 네

서울기록원 「서울은 미술관」 컬렉션



2020년 「서울은 미술관」 성과 자료집

이버 블로그를 개설하였고, 2021년 공공미술에 적합한 자료 분류 체계와 데이터 검색, 이벤트 기능을 갖춘 「서울은 미술관」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을 오픈했다.



「서울은 미술관」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2022년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서울은 미술관」 사업을 정리한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다. '지역 단위 공공미술 작품 구현', '공공미술 시민 아이디어 구현', '대학 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공미술 축제',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공공미술 컨퍼런스' 등 총 6개 사업의 내용을 담았고, 서울시와 문체부가 코로나19 작가 지원을 위해 공동 진행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 25부작;'은 별도 섹션으로 정리했다. 성과 자료집은 전자책(e-book)과 간행물로 발간하여 배포되었다.



2022년 「서울은 미술관」 성과 자료집

4-2-3. 시민 참여 프로젝트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미술사업팀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진흥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시민 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운영
키워드	#공공미술 #서울은미술관 #공공미술축제 #노들섬 #노들바람보다 #노들토피아 #대학협력공공미술프로젝트 #대학협력 #공공미술시민발굴단 #시민참여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축제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축제는 2017년부터 매년 색다른 주제로 도심의 열린 공간에서 열리는 작가와 시민이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 현장 참여형 공공미술 축제다. 공공미술 전문 기획자와 협력하여 매년 시대적 이슈를 발굴하거나 서울시의 정책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 축제를 통해 신진 작가들에게는 작품 구현의 기회가 주어지고 시민들은 공공미술 향유와 참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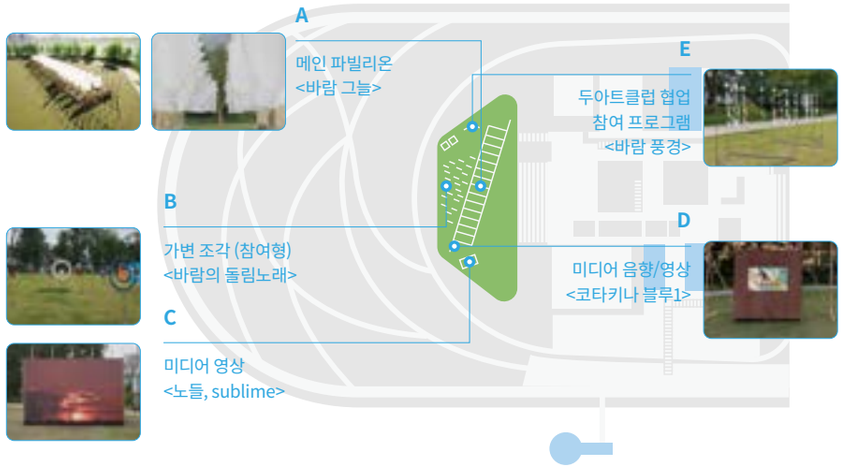
2021년에는 '노들, 바람보다'를 타이틀로 한 비대면 공공미술 축제가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되었다. '노들섬의 바람, 자연과 함께하는 공공미술'을 주제로 총 9개의 작품과 프로그램이 모바일 AR 플랫폼 내에 구현되었고, 노들섬 잔디마당에서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현장 전시가 함께 진행되었다. 바람결에 따라 움직이는 축제의 메인 파빌리온 <바람그늘>[HAPSA(박천강,권경민)], 노들섬 주변 자연과 풍경을 담은 미디어 영상 작품 <노들,sublime>(박형근), 실제 자연의 소리보다 더 진짜 같은 인공적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는 <코타키나 블루 1>(박보나), 바람에 의해 회전하고 움직이는 모빌형 조각 작품 <바람의 돌림노래>(이수진), 노들섬 입주 작가 3인(김유정·문경·김지원)이 함께한 시민 참여 작품 <바람풍경> 등 총 5점의 작품이 현장에 전시되었다. 작품 전시 현장을 배경으로 촬영한 하지혜의 <결, 바람> 퍼포먼스는 AR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었고,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3개의 참여형 프로그램 <바람댄스>, <바람조각>, <바람대화>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2021년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축제-'노들, 바람보다' 전시 작품]

유형	작품명/프로그램명	작가	비고
건축	바람그늘	HAPSA 권경민·박천강	AR 제공 및 현장 전시 병행
미디어아트	노들, sublime	박형근	
미디어아트	코타키나 블루1	박보나	
조형	바람의 돌림노래	이수진	
시민 참여 설치	바람풍경	김유정·김지원·문경 (노들섬 두아트클럽 소속)	
공연	결, 바람	하지혜 안무가	전시 작품 배경으로 촬영 후 제공
AR 활용 체험·참여 프로그램	바람댄스/바람조각/바람대화	-	

2021년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축제-
'노들, 바람보다'
: 공연 '결, 바람'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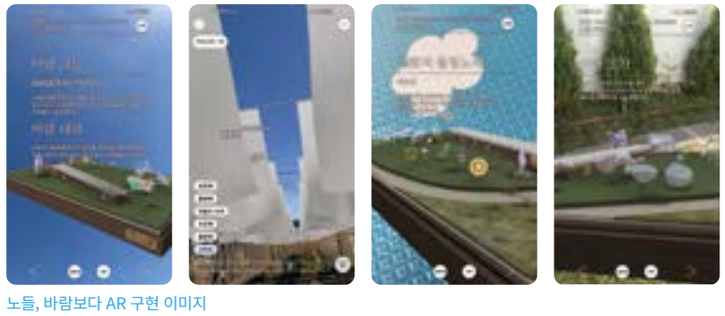
[전시공간 배치도]







'노들, 바람보다'
공식 인스타그램



노들, 바람보다 AR 구현 이미지

2022년 공공미술 축제는 시민 휴양지였던 노들섬의 역사를 바탕으로 휴식과 캠핑, 예술을 동시에 즐기는 축제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노들섬에서 개최되었다. 노들(Nodeul)과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인 '노들토피아'를 축제 명칭으로 하여 자연과 인간, 예술이 공존하는 노들섬에서 다채로운 공공미술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야외 전시 공간에 설치한 캐노피 구조물 내부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하혜리 작가의 <자연 감각하기(Sensing Island)>는 자연적인 요소를 담아낸 사진을 통해 노들섬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를 재구성하였고, 텐트형 설치 작품인 김한샘 작가의 <생명력의 시작 마주하기(Utopia)>는 각기 다른 테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도상(圖像)을 활용하여 생명의 근원 유토피아 구현했다. 조미형 작가의 <자연에 귀기울이기(Green Forest)>는 노들섬에서 스스로 생겨난 신비로운 자연을 재구성하여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설치 작품으로 구현했다. <자연의 미래 상상하기(Green Window)>는 이용철, 김희용, 신달호, 염석인, 오동훈 작가의 5개의 조각 작품에 AR 기술을 접목해 작품에 생명력을 더하고 전시장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2022년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축제-'노들토피아' 전시 작품]

유형	작품명·프로그램명/작가명	비고
설치	Sensing Island(자연 감각하기)/하혜리	현장 전시
설치	Utopia(생명력의 시작 마주하기)/김한샘	현장 전시
설치	Green Forest(자연에 귀기울이기)/조미형	현장 전시
AR 프로그램	Green Window(자연의 미래를 상상하기) -Dog/이용철 -DREAM/김희용 -Restoration/신달호 -꽃을 들고/염석인 -바라보다/오동훈	현장 전시에 AR 접목

'노들토피아'
공식 인스타그램



노들토피아 전시장





「서울은 미술관」 대학 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대학 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서울시 공공미술 정책을 교육 현장과 연결하여 대학생들이 공공미술을 직접 기획하고 현장에 구현하는 프로젝트다.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도시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예술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며 학생들이 내일의 공공미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2017년 대학 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참여 대상을 서울 소재 4년제 미술대학에서 2~5년제 미술·디자인·건축 관련 대학(원)으로 확대했고,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성과 발표회와 아카이브 전시를 개최해 더 많은 지역 주민과 시민이 학생들의 공공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에는 3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공모하여 5개 대학의 6개 팀, 74명의 학생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5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3회의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전시기획, 건축,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를 멘토로 위촉하여 멘토 4인이 각 팀별 1회의 멘토링을 진행하여 프로젝트 실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함께 해결하고 성과물의 완성도를 높였다. 프로젝트 성과물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만리동광장과 정동길에서 전시하였고 비대면으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성과 공유 전시를 진행했다.

건국대학교 건축학과의 프로젝트 <FoRest>는 바람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는 천을 활용한 구조물로 만리동광장의 주변 수목과 어우러지게 설치되어 바쁜 일상 속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했다. 국민대학교 건축학부에서 제작한 <서울림>은 12,000여 개의 재활용 플라스틱 화분을 무성한 나무의 잎처럼 표현하여 도심 속 새로운 숲 '서울림'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었다.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과에서 디자인한 <서울의 속도>는 철제 프로파일을 이용해 세운 구조물에 '무아레아트'를 전시하여 우리가 사는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의 <좌표이탈>은 바쁜 현대인이 비자발적으로 멈춰 서게 되는 공간 '신호등 앞'에 패널을 설치하여 제한된 공간 속 사람들의 움직임의 궤적이 패널에 투과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섬유예술전공 학생들의 프로젝트 <나이스 투 미(米) 추(秋)>는 전통적 소재인 노방, 모시로 제작된 벼 잎을 현대적 소재인 스테인리스 바닥재와 결합하여 벼가 무르익은 가을 논밭을 서울 한복판에 구현했다. 홍익대학교 금속조형디자인학과의 <Connection of Seoul>은 정동길의 돌담을 닮았지만 형태와 기능이 다른 돌담을 제작하여 과거와 현재, 공간과 사람, 도시와 역사를 연결하는 설치물로 시민들이 작품을 통해 정동길의 공간과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21 「서울은 미술관」 대학 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결과물]

학교명	학과	프로젝트명	전시 장소
건국대	건축학과	FoRest	만리동광장 남측
국민대	건축학부	서울림	만리동광장 북측
	공업디자인과	서울의 속도	만리동광장 북측
연세대	건축공학과	좌표이탈	만리동광장 남측
이화여대	섬유예술전공	나이스 투 미(米) 추(秋)	정동길(중구 서소문동)
홍익대	금속조형디자인과	Connection of Seoul	정동길(중구 서소문동)

2021 「서울은 미술관」 대학 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온라인 전시 영상



건국대 건축학과 <FoRest>, 2021



국민대 건축학부 <서울림>, 2021



국민대 공업디자인과 <서울의 속도>, 2021



이화여대 섬유예술전공, <나이스 투 미(米) 추(秋)>, 2021



연세대 건축공학과 <좌표이탈>, 2021

2022년 대학 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노들섬을 대상지로 하여 노들섬에 대한 환경적·역사적 해석을 반영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했다.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 공모에 15개 대학의 26개 학과, 33개 팀이 응모하였고, 1차 서면 심사,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4개 대학, 5개 팀을 선정했다. 5월부터 9월까지 간담회 및 전문가 멘토링를 거쳐 작품을 제작하였고,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현장 전시를 진행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의 <잠깐, 섬>은 노들섬이 도심 속 쉼의 장소인 점에 착안하여 야외 광고판과 3개의 평상형 오브제로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돛단섬, 바람을 담은 노들>은 과거 노들나루의 돛단배에서 착안한 돛의 구조를 풍향계로 형상화하여 노들섬의 바람이 흐르는 과거와 현재의 길을 표현했다. 서울대학교 디자인학과의 <노들에서 맹서방 찾기>는 노들섬 개발로 인한 맹꽁이 이주 사건을 AR 체험, 로드무비, 노래자랑, 게임 등 4개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도슨트 투어를 진행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작품 <틈>은 2mm 틈 너머로 노들섬의 풍경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한 조각형 파빌리온이다. 성균관대학교 미술학과의 <사사오>는 한강 백사장을 재현한 무대를 설치하고 노들섬의 역사를 무용팀의 공연으로 표현한 다원 예술 작품이다. 2022년 대학 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성과 자료집이 제작되어 배포되었고, 11월 21부터 「서울은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성과 동영상이 공개되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2022 「서울은 미술관」 대학 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성과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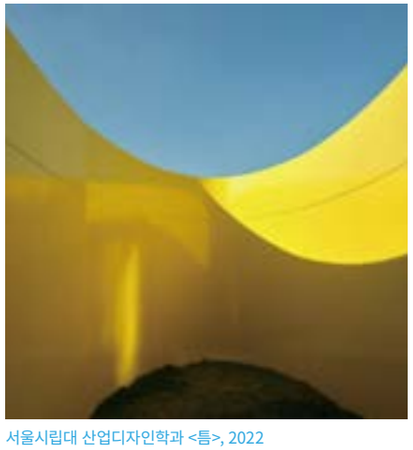
2022 「서울은 미술관」 대학 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온라인 전시 영상

[2022 「서울은 미술관」 대학 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결과물]

학교명	학과	작품명	인원수	전시 장소
서울과학기술대	디자인학과	잠깐, 섬	4	테라스, 마켓뜰
서울대	건축학과	돛단섬, 바람을 담은 노들	8	노들스퀘어
서울대	디자인학과	노들에서 맹서방 찾기	7	노들스퀘어, 옥상 등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학과	틈	19	한강변
성균관대	미술학과	사사오	10	스페이스445



서울과학기술대 디자인학과 <잠깐, 섬>, 2022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학과 <틈>, 2022





(위)서울대 건축학과 <돛단섬, 바람을 담은 노들>, 2022 / (아래)서울대 디자인학과 <노들에서 맹서방 찾기>, 2022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서울시는 공공미술을 시민과 함께 발굴하여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발굴단은 서울 내 공공미술 작품을 찾아서 감상하고 공공미술 소개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한다. 2021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은 '공공미술 공유와 소통'을 주제로 하여 홍제천, 녹사평역, 노들섬과 여의도, 도림천과 관천로 등 4개 권역에서 조별 활동을 통해 30여 개 작품을 발굴했다.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미술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최종 44명을 시민발굴단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발굴단은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을 진행했다. 시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물결조(~)는 최근작부터 근현대. 전

근대 작품이 두루 분포하는 홍제천 일대의 공공미술을 발굴했다. 이 지역은 병자호란 및 남북 대치의 역사가 서려 있는 장소인 동시에 동서양 미술품이 전시된 '산책로 미술관'이 있고 3D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로 구현된 공공미술 <홍제유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물결조는 장소의 이질적 특성을 표현하는 '주름'을 키워드로 역사의 주름과 빛의 주름을 섬유 예술로 작품화하여 이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발굴단원의 개별 감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제작하기도 했다. 쉼을 뜻하는 쉼표조(,)는 서울시가 2019년 빛·숲·땅을 형상화하여 조성한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을 방문했다. 바쁘게 지나치던 지하철역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휴식의 의미를 떠올리고 사회 초년생 등의 인물이 녹사평역에서 의문의 상자를 받으면서 시작되는 짧은 드라마를 제작했다. 발굴단원들은 녹사평역 일대 독립서점 풍경 드로잉, 지하예술정원 작품 <시간의 담> 탁본 시계 등 각자의 감상을 표현하는 작품을 창작했다. 해시조(#)는 '소통의 매개'를 주제로 노들섬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의 작품을 발굴했다. 남해호 어선을 작품화한 <바다바람> 앞에서 함께 간 사람과 추억을 회상하며 자연스럽게 작품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해시조는 노들섬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컬러링북, 디자인 콘텐츠 등의 창작물을 내놓기도 했다. 줄임말조(...)는 '지역의 이야기'를 주제로 도림천 및 관천로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된 <도림전심>을 비롯해 근처 신원시장 등을 둘러보고 영상을 제작했다. <도림전심>을 소개한 카드뉴스와 관악구 21개 동을 구현한 보드게임도 함께 선보였다.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네이버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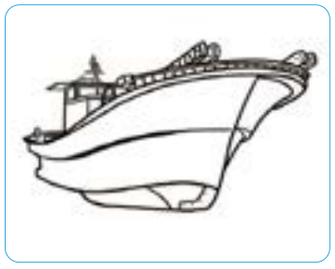
11월 7일 성과 공유회를 통해 발굴단원에게 활동증서를 수여했고, 시민발굴단 활동을 통해 제작된 창작물은 메타버스를 통해 전시했다. 메타버스 전시 부스는 11월 29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시민발굴단의 활동 내용 및 창작물은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사업은 2021년까지 진행되고 사업이 종료되었다.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발굴 작품 및 협업 콘텐츠]

조이름(큐레이터)	활동 장소/주제	발굴 작품(32)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
~물결조(김리아)	홍제천 일대/ 시간의 연결	홍제유연 프로젝트 (10작품)	홍제천 일대의 이질적 특성을 '주름'으로 표현하는 섬유 예술 작품 및 소개 영상 제작
,쉼표조(김지현)	녹사평 일대/ 일상의 쉼표	지하예술정원 프로젝트 (7작품)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의 '휴식'을 키워드로 하여 시민이 의문의 상자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짧은 드라마 제작
#해시조(김양경)	노들섬 & 여의도 일대/ 소통의 매개	바닷바람, 은밀한 위장술, 그물망쉼터, 서클, 둥지, 뉴스트럭처, 북극곰, 에어가든, 달빛노들	남해호 어선을 작품화한 '바닷바람' 앞에서 추억을 회상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제작
...줄임말조(정호상)	도림천 일대/ 지역의 이야기	나이스 도림전심 프로젝트 (6개 세부 프로그램)(米) 추(秋)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도림전심', 신원시장을 소개하는 영상 제작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인스타그램

[조별 창작물]

조	작품	총 작품 수
물결	 홍제천의 다양한 모습을 필름카메라에 담아 사진들이 물결을 이루듯 패브릭 위에 프린팅  종이 모형을 배치하여 그림자를 만들고 홍제천에서 휴식을 취하는 나를 상상함	11
쉼표	 이태원 앤티크거리와 섬유거리에서 역사와 문화를 함축하고 있는 모멘트를 찾아보고 마술적 순간들을 회화로 표현  지하예술정원 <담의 시간들>에서 과거의 담 위에 새로운 담이 쌓은 모습을 보고 공존하는 시간을 표현하고자 시계로 작품화	11
해시	 한강 어선 이야기 공공미술 작품을 컬러링북으로 제작하여, 색칠하면서 숨은 이야기를 상상하도록 함  안팎이 나누어진 듯하지만 넘나들 수 있는 형태의 에어가든을 추상으로 표현	14
줄임말	 공공미술 관련 단어를 퍼즐로 만들어 흥미롭게 접근하도록 구성  게임판의 각 칸을 관악구 21개 동으로 표현한 보드게임	11

4-2-4. 공공미술 작품 설치

구분 서울시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팀, 공공미술사업팀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진흥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 운영 | 서울 아트스테이션 전시 운영 | 지역 단위 공공미술 작품 구현 공공미술 | 시민 아이디어 구현

키워드 #공공미술 #공공미술작품설치 #우이신설문화예술철도 #서울아트스테이션 #전시 #행사 #지역 단위공공미술작품구현 #도킹서울 #공공미술시민아이디어구현 #시민참여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

우이신설선은 2017년 9월에 개통한 서울의 첫 번째 경전철 노선으로 신설동역에서 북한산우이역까지 총 13개 역을 운행하고 있다.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는 우이신설선 13개 역사에 상업 광고 대신 문화예술 콘텐츠를 전시하는 사업으로 우이신설선 개통과 함께 시작되어 2021년 <같이, 우리 Happy Together> 전시를 마지막으로 운영이 종료되었다. 매일매일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철도가 문화공간으로 변모하여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즐거운 문화예술 여행 시간으로 변화시켜 왔던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전시 플랫폼이었다. 기관, 작가, 개인이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 문화예술공간으로 큐레이터가 주제와 콘셉트를 가지고 기획하는 주제전시,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으로 신진 작가를 지원하고 예술계와의 지속적인 상생을 도모하는 협력전시, 일반 시민·작가·기획자 등 누구나 심사를 거쳐 본인의 콘텐츠를 전시할 수 있는 오픈전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같이, 우리 Happy Together> 전시는 6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신설동역에서 북한산우이역까지 11개 역사에서 진행되었다. 지하철역 대합실, 개찰구 앞, 디지털 스크린, 에스컬레이터까지 역내 다양한 공간을 전시장으로 꾸민 이 전시에 영국, 독일의 세계적인 작가를 비롯해 26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설치, 그래픽, 사진, 회화 등 총 237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주제전시'는 여미영 책임 큐레이터의 기획 아래 6개 역사에서 진행되었다. 우이신설선의 첫 번째 역인 신설동역부터 보문역, 성신여대입구역에서는 '연결, 청춘, 세계' 3부작 전시를 차례로 선보였다. 신설동역에 전시된 '연결(Colorful Connection)'은 영국의 유명 작가 올리 파더스(Olly Fathers)가 우드블록 설치물과 파스텔톤 페인트로 지하철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보문역에 전시된 '청춘(Forever Young)'은 대만의 인플루언서이자 조부모와 손자로 구성된 3인조 아티스트인 '원트쇼애즈영(WANTSHOWASYOUNG)'이 오래된 세탁소를 운영하는 노부부(조부모)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이다. 성신여대입구역에 전시된 '세계(Colorful World)'에서는 독일의 사진 콜라주 작가 울리 베스트팔(Uli Westphal)이 버려진 채소들을 아카이빙한 독특한 작품을 선보였다. 솔밭공원역에서는 MZ세대 회화작가 김한샘이 전통과 건강을 상징하는 십장생을 주제로 한 설치 작품 '롱 리브'를 전시했다. 북한산우이역에서는 영화평론가이자 작가인 김도훈이 인생의 혜안을 담은 영화 이야기를 '영화는 계속되고 삶도 계속된다'라는 타이틀로 선보였다. 북한산보문국역에서는 강병섭 작가의 '공감 같은 곳, 또 다른 공간'의 작품 전시가 진행되었다. 화계역에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또 다른 풍경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상미 작가의 풍경 작품이 전시되었다.

'협력전시'는 젊은 창작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네이버그라폴리오', 전 세계 예술인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버즈아트'와 협력하여 일상에서 관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일러스트, 회화 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소개했다. 정릉역에서 마련된 '오픈전시'에는 국민대학교 조형대와 예술대 학생회가 '함께 내딛는 발걸음'을 주제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 블로그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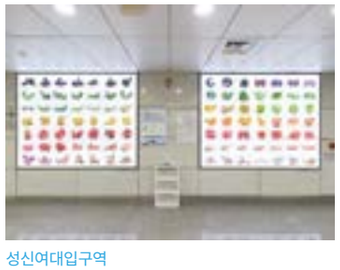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 인스타그램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 2021년 전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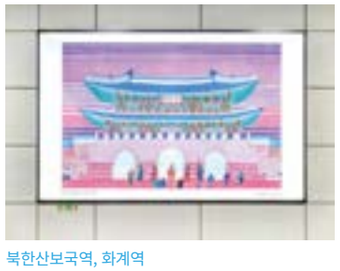
전시명	<같이, 우리 Happy Together, 부제: '함께 만드는 행복'>
전시 기간	2021. 6. 7.(월)~8. 22.(일)
전시 장소	우이신설선 신설동역~북한산우이역 11개 역사 및 열차
전시 부문	설치, 그래픽, 사진, 회화 등 총 237점
전시 작가	올리 파더스(Olly Fathers), 이지연, 울리 베스트팔(Uli Westphal) 등 총 26명
전시 구분	· 주제전: <신설동역: 연결_Colorful Connection>, <보문역: 청춘_Forever Young> <성신여대역: 세계_Colorful World>, <북한산보국문역: 공감 같은 곳 또 다른 공간> <화계역: 또 다른 풍경 치유와 위로>, <솔밭공원역: 롱 리브_Long live> <북한산우이역: 영화는 계속되고 삶도 계속된다> · 협력전: <솔샘역/삼양사거리역: 네이버그라폴리오>, <신설동역: 버즈아트> · 오픈전: <정릉역: 국민대학교> · 특별 전시 : <가오리역: 너울_Swell>



신설동역



성신여대입구역





북한산보국역, 화계역

서울 아트스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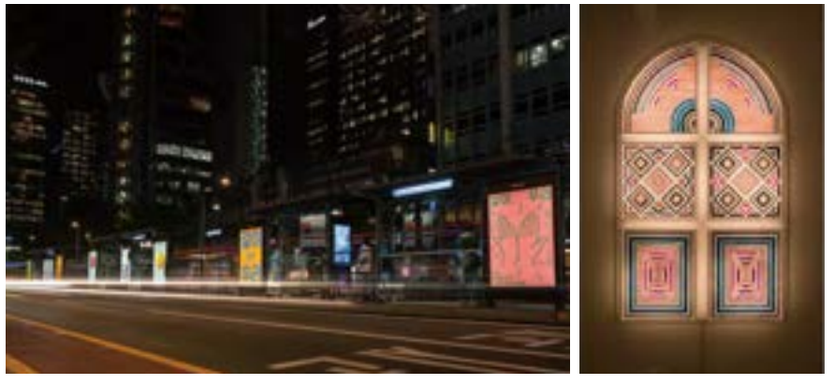
서울 아트스테이션은 서울시내 교통시설의 광고게시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콘텐츠를 전시하는 사업으로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택시 승차대 광고게시판 78면을 활용하여 서울 소재 미술관이 추천한 국내 작가의 작품 전시를 시작으로 하여 2017년 국제타이포비엔날레 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 개통과 연계한 우이신설선 일대 버스 정류장을 무대로 한 전시를 진행해 왔다. 2018년부터는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해 오다 2021년 8월 문화예술철도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서울 아트스테이션'으로 다시 전환하여 버스 정류장을 매개로 한 열린 전시 플랫폼으로 서울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소통의 장을 확장해 가고 있다.

2021 서울 아트스테이션 <같이, 우리>展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웃들과 함께 이겨내고 행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44개 정류장에 그래픽, 디자인, 사진, 일러스트, 회화 등 총 155점을 전시했다. <같이, 우리: 안녕>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전시에서는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했다. 도봉미아로에서 종로대로로 이어지는 28개 정류장에서 23명 작가들의 작품 100점을 선보였다. 통일의주로 일대의 버스정류장에서 진행된 협력전 <같이, 우리: 아슬한 지구>에는 네이버 그라폴리오 협력 작가와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대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강수정, 누주(nujoo), 세상에서(reinforced), 소나(sona) 등 네이버 그라폴리오 협력 작가와 대학생 작가 11명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19개의 작품을 선보였다. 망우왕산로(중랑구), 통일의주로(은평·서대문구) 일대에서 펼쳐진 오픈전 <같이, 우리: 신박한 일상관찰법>에서는 시민 공모전에서 선발된 36점의 사진을 소개했다. 도시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시민들이 출근길, 익숙한 풍경과 사물을 신선한 시각으로 새롭게 재발견한 사진들을 선보였다.

[2021 서울 아트스테이션 전시 개요]

전시명	<같이, 우리>
전시 기간	2021. 10. 1.(금)~11. 30.(화)
전시 장소	도봉미아로, 망우왕산로, 통일의주로, 종로 일대 44개 정류장
전시 부문	그래픽, 디자인, 사진, 일러스트, 회화 등 총 155점
전시 작가	주제전: 강병섭, 권오철, 노세환 등 총 23명 협력전: 네이버 그라폴리오 협력 작가 4명, 대학생 11명 오픈전: 공모 당선 시민 36명
전시 구분	주제전 <같이, 우리: 안녕> 협력전 <같이, 우리: 아슬한 지구> 오픈전 <같이, 우리: 신박한 일상관찰법>





2022 서울 아트스테이션은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여행하며 기억할 만한 순간(Moment)을 수집하여 펼쳐 보였다. 버스는 서울을 이동할 때 이용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은 버스를 타고 나가는 여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2022 서울 아트스테이션은 버스를 타고 떠나는 여정을 <마이 서울 모멘트(My Seoul Moment)>라 칭하고 예술가와 시민이 표현한 과거·현재·미래의 서울의 모습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버스 정류장 73곳에서 전시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만나는 두근거리는 여행의 경험을 '미팅포인트'와 서울 속 나만의 '힐링 스폿'으로, 버스에 앉아 추억을 회상하는 순간을 '플래시백'으로, 미술관으로 떠나는 설렘의 순간은 '뮤지엄 모멘트'로 구성한 전시에 14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버스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순간의 경험을 선사했다.



전시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주제전시', 신진 작가를 육성하는 주요 예술 기관과의 협력으로 진행된 '협력전시',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오픈전시'로 구성되었다. 주제전시 '미팅포인트-미래'는 The Institute of Queer Ecology, 김세진, 권하윤, 김을지로, 룸톤, 안가영, 박형근, 민완기, YALOO, 강재원, 입자필드, 장진승 작가가 참여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앞으로 마주할 미래의 서울을 보여주었다. 이 전시는 홍대, 건대, 강서 일대의 버스 정류장에서 진행되었다. '미팅포인트-현재'에서는 디자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각자

의 시선으로 구성한 16가지의 '미팅포인트'를 선보였다. 일상의 실천, 슬기와 민, 추미림, 김영나, BOWYER, 이푸로니, DDBBMM, 최태윤, 마카다미아 오!, 팡팡팡 그래픽 실험실, 황나키, 손아용, 햇빛스튜디오, 스튜디오 플락플락, 파이카 스튜디오, 오늘의 풍경이 참여하여 종로, 교대, 독립문 일대의 버스 정류장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협력전시의 테마는 '온 뮤지엄 모멘트'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민미술관, 현대모터스 아트랩, 서울기록원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여 전시를 구성하였고 각각의 전시는 숭례문과 홍대, 서초, 논현 일대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시민들이 참여한 오픈전시는 '플래시백 서울'과 '서울 속 나만의 힐링 장소(스폿)'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 작가는 서울의 과거 모습을 담은 사진, 시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서울 도심 속 휴식 공간 사진 52점을 구파발, 반포, 방배 일대의 정류장에서 선보였다. 2022 서울 아트스테이션 전시 작품은 서울 아트스테이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아트스테이션
홈페이지

2022 서울
아트스테이션 :
시민 작가 모집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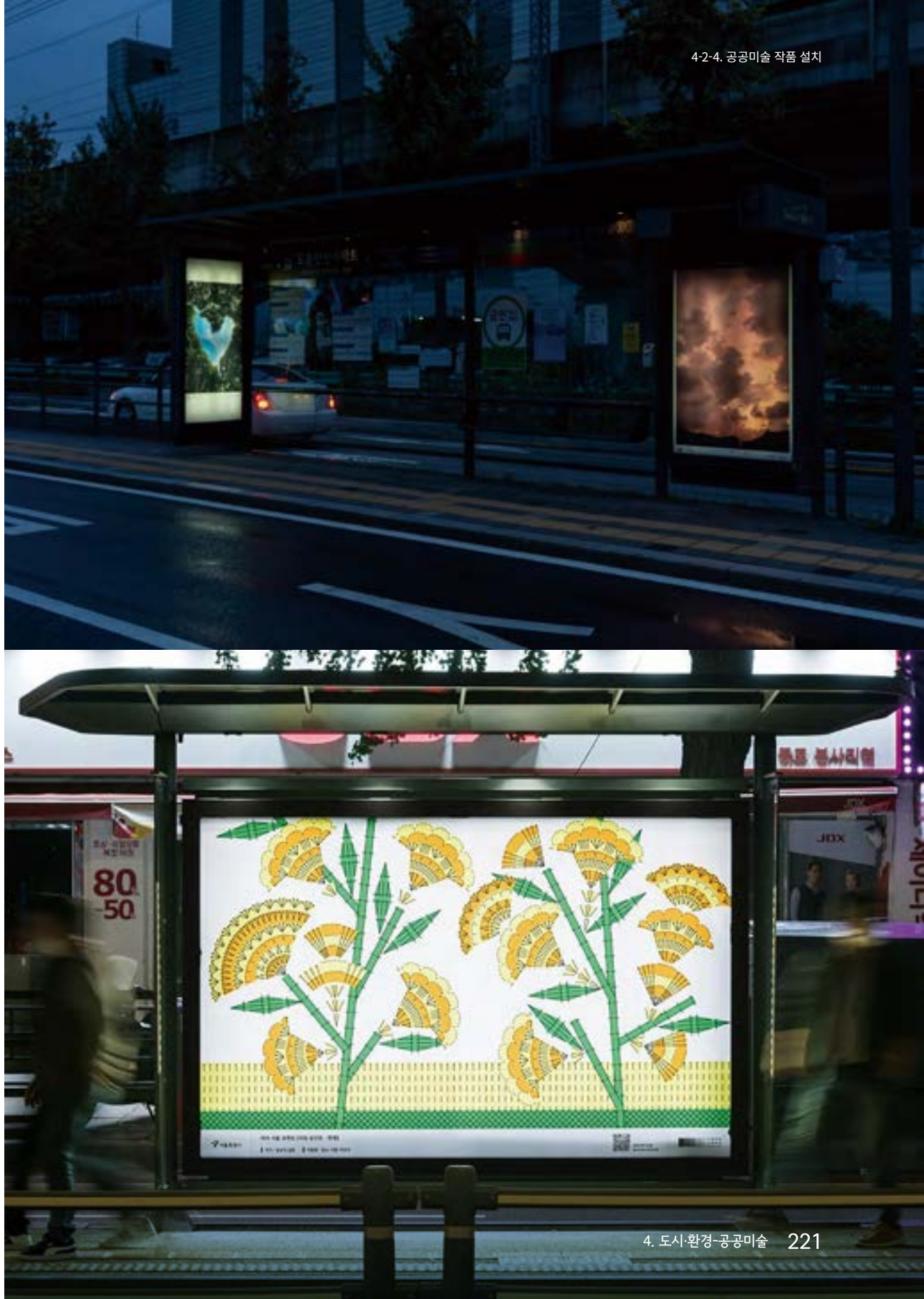






[2022 서울 아트스테이션 전시 프로그램]

	미래	현재	과거
주제전	Meeting Point - 미래	Meeting Point - 미래	-
협력전	On Museum Moment - 미래 (현대모터스 아트랩) On Museum Moment - 미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On Museum Moment - 현재(일민미술관)	플래쉬 백 서울 (서울기록원 협력)
오픈전	-	서울 속 나만의 힐링 장소(스폿) (시민 참여)	플래쉬 백 서울 (시민 참여)



4-2-4. 공공미술 작품 설치

지역 단위 공공미술 작품 구현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발굴한 장소를 공공미술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지역 단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2022년 10월 공공미술 플랫폼 <도킹서울(Docking Seoul)>을 개장했다. 20년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옛 서울역사 폐쇄 램프가 시민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도킹서울>은 만리동과 서울로7017, 옛 서울역사를 연결하는 서울역 일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조성되었다. <도킹서울>은 사람과 도시가 만나는 관문인 서울역의 성격에서 착안한 작품명이다. 2004년부터 폐쇄되어 사용하지 않았던 주차램프가 공공미술 작품을 통해 다시 시민과 만나 새로운 우주로 연결(Docking)되는 공간, 사람과 예술, 현실과 가상,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접점이 되는 특별한 예술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다.



전시장은 주차램프가 가진 구조적 기능과 미학을 살려 차가 다니던 길을 사람이 걸으며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전시장의 타원형 중정을 둘러싼 200여 미터의 나선형 공간을 따라 시민들은 '이동하는 일상', '푸른 태양 무대', '생명하는 우주'라는 세 가지 주제의 전시를 설치 미술 4작품, 라이트아트 1작품, 미디어아트 및 메타버스 2작품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작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도킹서울>은 기획 단계부터 김상욱 물리학자와 이태형 천문학자의 자문을 받아 우주와 생명의 원리를 작품과 공간에 담아냈다. 양정욱 작가의 <그는 둥글게 집을 돌아갔다>는 천장 위에 마치 배를 젓는 '노'같이 보이는 작품으로 주차램프를 따라 걷는 사람의 모습을 섬세하게 관찰해 움직이는 조각으로 표현한 키네틱 아트다. 디폴트(차동훈) 작가의 <관측지점>은 관람객의 위치에 따라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들며 달라지는 영상을 보여준다. 반응형 미디어 작품으로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공간들을 화면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정소영 작가의 설치작품 <깊은 표면>은 중정에 위치한 높이 5.2m의 푸른색 소용돌이 형상의 작품이다. 별과 생명의 탄생 과정에서 생겨난 회전의 움직임이 주차램프의 나선과 반대 방향으로 휘감겨 인상적인 울림을 준다. 팀코워크가 조명과 소리를 이용해 만든 작품 <푸른 별>은 태양 빛으로 전달하는 소리의 주파수를 대역별로 추출해 3개의 소리를 낸다. 또한 중정을 비추는 조명을 통해 별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순환의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시민 참여 설치 작품 <나의 우주색>은 50m 길이에 설치된 기둥에는 SNS를 통해 시민들이 바라보고 느낀 하늘의 사진에서 추출한 72개의 색상에 이름이 붙어 있다. 옆에서 쏘는 빛에 따라 반사된 기둥은 빛을 머금은 우주색 팔레트로 제작했다. 김주헌 작가의 설치 작품 <생명의 그물-아치>는 여러 막대가 수평으로 쌓여 전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옆으로는 수평의 연속이며, 위에서 보면 점들을 연결하는 선으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관성을 표현하고 있다. 김세진 작가와 서울예고 학생 20명이 함께 한 <메타버스-서울 램프 시간 박물관>은 메타버스 가상 전시 공간에 3개의 갤러리를 구성했다. 첫 번째 갤러리는 감염병을 겪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미디어아트, 두 번째 갤러리는 서울예고 학생들이 상상한 2286년 서울의 미래 풍경과 작품 해설, 세 번째 갤러리는 <도킹서울> 관람객들의 모습을 10초 단위로 편집해 구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도킹서울(Docking Seoul), 2021
프레스킷 e-book

2022 지역 단위 공공미술 작품 구현 사업은 서울숲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의 상징적인 생태 공원인 서울숲의 장소적 상징성을 담아내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탄소중립을 표현한 공공미술 작품을 국제 지명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지난 7월 조남호 작가의 <생명의 그물(Ecological Matrix)>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공공미술 시민 아이디어 구현

서울시는 시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공공미술 시민 아이디어 구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과 미술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장소를 새롭게 조명하고 작품을 기획·설치하는 과정 중심형 공공미술 사업이다. 서울 소재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대상지를 공모하여 선정한 후 시민 백일장을 통해 장소적 가치와 지역의 맥락을 반영한 스토리를 발굴한다. 이후 다양한 미술 분야의 작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시민 백일장의 스토리를 구현할 작품 후보를 선정하고, 컨설팅을 통해 구체화한 작품 기획안을 최종 평가하여 대상지별 1개 작품을 선정한다.

[공공미술 시민 아이디어 구현 진행 절차]

대상지 공모 → 시민 아이디어 발굴 (시민백일장) → 작가 작품 공모 (일반공모) → 컨설팅/작품 구체화 → 작품 심사 (시민·전문가) → 작품 설치

2021 공공미술 시민 아이디어 구현 <솜사탕 코끼리> 뮤직비디오

2021년 11월 17일 공공미술 시민 아이디어 구현 사업을 통해 서울대공원 진입로에는 보라리 작가의 <솜사탕 코끼리>가 개장했다. 스틸 프레임에 컬러 접합 유리로 코끼리를 형상화한 22m × 16m 크기의 작품으로 다양한 색상의 빛 그림자를 경험할 수 있는 설치물이다. 서울대공원에서 솜사탕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던 순수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을 담은 시민 김가연 님의 글 '솜사탕'의 내용을 기반으로 창작되었다. 동물 친구들을 만나는 설렘을 떠올리게 하는 솜사탕을 다양한 색상의 조각으로 구현하여 서울대공원의 특별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다.



보라리, <솜사탕 코끼리>, 2021

2021년 11월 24일 문화비축기지에 개장한 서세희 작가의 <모래-시간>은 콘크리트, 자갈, 모래와 흙으로 된 바닥에 도장스틸과 메시로 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휴식과 놀이 공간의 기능을 하는 작품이다. 시민 박계현 님의 4년간의 육아 이야기를 담은 '육아b축기지: b축이가 다 키웠어'를 기반으로 기획된 작품으로 지붕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아래 머무르며 바닥에 있는 재료를 만지고, 밟고, 듣고, 냄새 맡는 감각 놀이를 통해 시간과 자연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공미술 작품이다.

2022년 공공미술 시민 아이디어 구현 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숲 야외무대다. '서울숲'을 주제로 개최한 시민 백일장에 시민 150명이 참가하였고 당선작 3편을 선정했다. 이후 시민의 스토리를 구현할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하여 총 38명(팀)이 지원하였고, 최종 당선작과 예비 당선작 각 1팀을 선정했다. 최종 당선작은 키지그룹(이지홍, 박소현)의 <감각장치>로 다양한 감각으로 서울숲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품이다.

2021 공공미술 시민 아이디어 구현 <모래-시간> 뮤직비디오



서세희, <모래-시간>, 2021





키지그룹(이지홍, 박소현), <감각장치>, 2022



주요 성과

공공디자인

서울시는 공공디자인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현재까지 총 1,423개 제품을 인증하였고, 인증 제품을 서울시 공공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2021년에서 2022년에는 인증 기간(2년 → 3년)과 운영 횟수(연 2회 → 1회) 등 사업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사업의 효용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공공디자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WE UP 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개 기업의 참여를 통해 29개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그동안 이 사업에 참여한 디자인 스타트업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특허출원, 우수디자인(GD) 출품 등을 도전하며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서울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통해 공공디자인 부문을 선도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설치 지침을 한 장의 그림으로 도식화해 보여주는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서울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2021'에 적용했다. 2022년 서울 표준형디자인은 색각이상자도 구별 가능한 '안전색'을 적용하여 '표준형 산업현장 안전디자인'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였고 국제 표준화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은 국내외 디자인 상을 수상함으로써 디자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자연스러운 거리두기를 유도한 '구름막' 디자인은 2021년 11월 제22회 한국FM대상 도시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2022년 4월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건축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공공미술

서울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 제도적·행정적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서울은 미술관」 성과를 기록하고,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를 통해 공공미술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2021년에는 공공미술 데이터 검색 기능을 갖춘 「서울은 미술관」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2016-19년에 이어 2020-22년 「서울은 미술관」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다. 2021-2022년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는 디지털 기술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의 재편에 주목하여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과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미디어아트, 메타버스 등 물리적 장소를 넘어선 가상공간에서의 시민의 접근성과 소통의 가능성에 대해 논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담론 형성에만 그치지 않고 공공미술 행사 및 전시 현장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 노들섬을 무대로 펼쳐진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축제는 오프라인 행사와 더불어 전시 작품과 프로그램을 AR 플랫폼 내에 구현하여 가상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했다.

대학생, 시민이 작품을 통해 소통하는 공공미술 전시는 2021-22년에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대학 협력 공공 미술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7개 대학(중복 제외) 34개 팀이 참여하였고, 2021년 만리동광장과 정동길, 2022년에는 노들섬을 대상지로 하여 미술 작품을 전시했다. 공공미술 설치를 통해 서울의 도시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단위 공공미술 작품 구현'을 통해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2018), <홍제유연>(2019), <달빛노들>(2020)에 이어 <도킹서울(Docking Seoul)>(2022)을 조성하여 쓰임을 잃은 구 서울역 폐쇄램프를 되살려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선사했다. '공공미술 시민 아이디어 구현'을 통해 <타원본부>(2018-19), <모래-시간>(2020-2021)에 이어 <솜사탕코끼리>(2021)까지 중랑 용마폭포공원, 문화비축기지, 서울대공원을 시민의 기억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2017년 우이신설선 개통과 함께 시작된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는 2021년 <같이, 우리 Happy Together> 전시를 마지막으로 운영이 종료되었다. 이를 이어받은 서울 아트스테이션이 2022년 재개되어 교통시설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서울시 전역을 전시장으로 탈바꿈했다.

5
문화

사업 구분

| 서울시
| 서울디자인재단

주요 배경

5-1. 전시

| 5-1-1. 기획전시
| 5-1-2. 상설전시
| 5-1-3. DDP 협력전시
| 5-1-4. DDP 오픈 큐레이팅
| 5-1-5. D-숲 전시

5-2. 행사

| 5-2-1. 서울라이트
| 5-2-2. DDP 시즌콘텐츠
| 5-2-3. DDP 디자인마켓
| 5-2-4. DDP 포럼
| 5-2-5. DDP 투어
| 5-2-6. 서울디자인어워드(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주요 성과

주요 배경

전시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 2020년 2월 17일 디자인 분야 최초로 DDP디자인뮤지엄을 서울특별시 1종 공립미술관(제2020-01호)으로 등록한 이후,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시 주제를 선정하고 자체 기획전시를 열어 동시대 디자인을 소개하는 뮤지엄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함께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잠재 가치가 있는 DDP의 소장품을 활용하기 위해 소장품을 선별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상설전시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속 사업인 DDP 오픈 큐레이팅, 국내외 유수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전시도 더욱 체계화하고 확대해 공립 미술관의 전문성과 DDP의 해외 인지도에 부합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 전시도 병행해서 운영했다.

2022년에는 '서울비전 2030'과 'DDP 2.0' 추진 전략에 따라 DDP 공간별로 전시 운영 전략을 수립했다. 미래 지향적인 예술과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콘텐츠를 확대해 DDP의 공공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내 대표 디자인 기업과 디자이너, 디자인 트렌드를 소개하는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디자인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디자인에 대한 접근 문턱을 낮추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잡았다.

[DDP 2.0에 따른 DDP 전시 공간별 운영 전략]

DDP 2.0 운영 전략 및 차별화 방안

구분	운영 방향, 전략	협력
디자인뮤지엄(현 전시2관)	자체 기획전시 플랫폼	국내외 유수 콘텐츠 기관
디자인둘레길	협력전시 플랫폼	학회/협회/디자인 기업
갤러리문	협력전시 플랫폼	신진 기획자
D-8(현 디자인갤러리)	자체 기획전시 플랫폼	디자이너/디자인 기업

한편 재단은 과거 다양한 디자인스토어들이 입점해 있던 살림터(현 디자인랩) 1층 공간을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디자인 콘텐츠를 경험하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D-숲(D-SOOP)으로 리모델링해 2019년 12월 20일 개방했다. D-숲은 DDP 건물 내부로 '광장'의 기능과 공공성을 들여온 곳으로, 숲 콘셉트의 라운지형 공간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휴식형 콘텐츠, 디자인을 중심으로 여러 문화를 경험하고 교류하는 복합 문화 콘텐츠로 채워졌다. 조성 직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1년간 단축 운영과 휴관을 반복하다 2021년 1월 19일 재개관을 계기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해 본격적으로 시민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관·산·학의 참여형 콘텐츠를 유치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D-숲과 디자인랩의 공간을 운영했다.

행사

2014년 3월 21일 개관 이후 디자인 트렌드를 발신하는 플랫폼이자 양질의 디자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DDP는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위축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DDP만의 대표 문화 행사를 개최해 디지털 감성 문화도시 서울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DDP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다. 2021년에는 시범적으로 DDP D-숲과 같은 실내 공간과 어울림광장, 잔디언덕, 미래로 등 특색 있는 야외 공간, 비대면 온라인 채널까지 활용해 계절별로 체험 프로그램, 투어, 포럼, 야외 전시, 영화 상영, 공연, 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였다. 2022년에는 'DDP시민 참여문화 행사'로 묶어서 봄과 가을 시즌별 콘텐츠와 DDP마켓을 중심으로 융복합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한편 2019년 시작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는 복잡한 도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디자이너를 발굴한다는 취지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과 응원에 힘입어 제3회 어워드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이후, '서울디자인어워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5-1. 전시

5-1-1. 기획전시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뮤지엄팀 | 전시1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디자인뮤지엄기획전시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전시, 시민 참여 행사 네트워크 | 기관, 기업
키워드	#공립1종디자인미술관 #우먼인디자인 #자하하디드아키텍츠 #레픽아나돌 #시작된미래 #팬데믹×디자인+미래

서울디자인재단은 DDP디자인뮤지엄이 공립 1종 디자인 미술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자인사적으로 의미 있는 디자인 콘텐츠를 발신하고 양질의 디자인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 전시를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했다.

2021년에는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디자인계와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 전시를 기획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디자인 전시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상반기에는 내부적으로 사회 다방면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내외 미술관 전시 사례 조사를 통해 DDP 및 디자인과 연관성 높은 키워드를 선정하고 DDP의 비전과 연계해 전시 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전시 추진 방향과 콘텐츠 수급, 전시 기획안 관련 자문을 받았다.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 인력 확보, 조사 및 연구, 소장품 수집 등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DDP디자인뮤지엄 전시 운영 방향 및 전략 수립 연구'를 진행해 DDP의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 방향을 '미래 지향 디자인 융합 콘텐츠'로 도출했다. 2021년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준비한 '미래'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는 2022년 5월 오픈했다.

DDP 디자인뮤지엄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기획전 <우먼 인 디자인(Women in Design): 더 나은 일상을 위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3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전시는 '디자인이 여성의 일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리고 '여성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혁신하였는지'에 관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디자인을 통해 풍요로워진 여성의 삶을 보여주었다. 국내외 70여 명의 디자인계 여성 리더들의 생각을 모아 '가사', '여가', '소통', '이동' 네 가지 측면에서 여성의 삶을 바꾼 디자인을 선정했다. 이 전시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물건부터 미처 알지 못했던 발명의 계기와 디자인 아이템이 가져온 삶의 패턴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뤘으며, 한국의 생활상이 담긴 제품과 세계 각국에서 만든 아이템도 만날 수 있었다.

[2021년 전시운영자문위원회]

전문 분야	성명	소속
평론, 디자인컨설팅	최소현	퍼셉션 대표
공간, 전시 기획	김영석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용주	국립현대미술관 기획관(전시 디자이너)
	배형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시 기획	심혜화	대림미술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랩실 실장
디자인계	이석우	SWNA 대표
디자인평론	전은경	전 「월간 디자인」 편집장

우먼 인 디자인 (Women in Design) 전시 도록



2021_우먼 인 디자인

'일상', '여성'에 이어 '미래'를 키워드로 한 글로벌 디자인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 해외 기관과 협업을 추진한 결과 영국의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Zaha Hadid Architects)와 미국의 레픽 아나돌 스튜디오(Refik Anadol Studio)와 공동 기획전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자하 하디드의 혁신적 작업 방식과 자하를 기억하는 전시(Memory of Zaha)를 2021년 서울라이트 총감독 레픽 아나돌과 협력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데얀 수직 전 런던디자인뮤지엄 관장과도 전시 기획 협업을 논의하고, 이스라엘의 홀론디자인뮤지엄과 전시 '극단적 상황에 대응하는 디자인(State of Extremes)'의 DDP 전시 가능성도 논의했다.

우먼 인 디자인 (Women in Design) 온라인 전시

[2021-2022 DDP 기획전시]

연도	전시명	전시 기간	전시 개요	관람객
2021	<우먼 인 디자인>	2021. 3. 31.~ 2021. 5. 20.	국내외 여성 디자인 리더 70여 명의 생각을 담은 온라인 모바일 전시	온라인 https:// womenindesign. ddp.or.kr/
2022	<시작된 미래 Meta-Horizons The Future Now>	2022. 5. 26.~ 2022. 9. 18.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디자인의 혁신을 조명한 전시	19,401명
2022	<팬데믹× 디자인+미래>	2022. 11. 15.~ 2023. 2. 12.	팬데믹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디자이너의 노력과 디자인의 역할을 재조명한 전시	26,523명

2022년 첫 번째 기획전시 <시작된 미래 Meta-Horizons The Future Now>는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디자인의 혁신을 조명한 전시로 재단이 자하 하디드 아키텍처(이하 ZHA), 레픽 아나돌 스튜디오(이하 RAS)와의 공동 기획으로 5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DDP디자인뮤지엄(현 전시2관)에서 진행되었다. '혁신, 상상, 융합'을 주제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추구한 DDP의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과거와 현재, 가상과 실존,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탐구해 이뤄낸 디자인의 결과와 과정을 보여주었다. 전시는 '혁신적인 프로세스와 연구 Innovation–Process & Research', '상상하는 디자인과 가상 세계 Imagination–Design & Virtual', '실감형 기술과 융합 Interaction–Technologies' 3개 섹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구성되었다. '실감형 기술과 융합' 섹션에서는 RAS와 ZHA가 협업한 작품, 'ARCHITECTING THE METAVERSE(아키텍팅 메타버스)_RAS×ZHA(2022)'를 선보였다. 협업 프로젝트는 재단이 2019년과 2020년 서울라이트에 참여한 미디어 아티스트 레픽 아나돌에게 ZHA와의 협업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RAS는 ZHA의 대표 건축물 관련 데이터를 AI가 해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상 작품을 만들었다.




2022_시작된 미래

두 번째 기획전시,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디자인 <팬데믹×디자인+미래>전은 11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2일까지 DDP 전시2관에서 열렸다. 재단은 기획전시를 준비하면서 서울시와 각 도시의 디자인적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전시 콘텐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을 내부적으로 진행했다. 팬데믹 상황에 나타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의미를 파악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디자이너의 도전과 노력, 디자인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미래에 디자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전시이다. 미래 디자이너(어린이, 초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프롤로그', '1부: 위기', '2부: 대응', '3부: 새로운 시작', '에필로그' 5개의 섹션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시를 구성했다. 지속 가능한 전시를 위해 다목적 이동형 전시대와 가변형 전시 부스 등을 이용했다.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디자인 <팬데믹×디자인+미래>전 구성]

대주제	소주제	전시 내용
프롤로그	- 위기의 시대: 디자이너의 역할과 영향력	- 집단행동 유발(디자인의 파급력)
1부: 위기 (팬데믹의 확산과 사회적 혼란)	1-1. 팬데믹의 발생과 사회적 혼란	- 코로나의 발생, 배경 - 사회적 혼란과 위기
	1-2. 일상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 (라이프스타일)	- 소비 행태, 언택트, 문화 향유 등 코로나가 바꾼 일상과 사회적 변화
2부: 대응 (일상회복을 위한 디자이너의 노력)	2-1. 위기의 시대 디자인의 역할	- 사회문제 해결 도구로서의 디자인 - 디자인의 영향력과 역할
	2-2. 여러 분야의 도전과 극복	- 서울시의 대응과 노력 - 공간별 어젠다와 디자인 아이디어 - 혁신적인 디자인 / 캠페인
3부: 새로운 시작 (뉴노멀의 시작과 새로운 미래)	3-1. 뉴노멀의 시작	- 새로운 시작, 미래에 대한 준비
	3-2. 디자인의 재정의와 변화	- 디자인의 재정의와 역할 변화
에필로그	나가며 : 새로운 도시 서울의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 미래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가능성

DDP는 자체 기획전시를 통해 디자인뮤지엄으로서의 전시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건축·예술 등 타 분야와 융합한 컨템퍼러리 디자인 트렌드의 발신지로서의 DDP 역할을 확립해 나갈 수 있었다.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속적인 전시 콘텐츠 협력과 개발도 가능해졌다. 2022년에는 전시 공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관람객과의 소통을 통해 위기의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융합 콘텐츠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디자인을 발신하고 교류하는 DDP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었다.





2022_팬데믹×디자인+미래

5-1-2. 상설전시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뮤지엄팀 | 전시1팀
사업 연도	2022
예산명	소장품 상설전시 | 디자이너 협력 프로그램 운영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전시, DDP 포럼 디자인 공공성 강화 | 정보 | 인물, 컬렉션
키워드	#DDP소장품 #TELEVISION #집합이론 #SpectrumofSeating #DDP,FashionandYou #진달래&박우혁:코스모스 #DDP포럼

DDP 소장품 활용 상설전시

서울디자인재단은 2021년에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소장품 6,922점을 등록하고 수장고 시설을 개선했다. 또한 선별된 DDP 소장품을 고화질로 촬영해 고품질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디지털 자료를 시민 대상으로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전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DDP의 여러 공간에서 DDP 소장품을 활용한 상설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DDP가 보유한 디자인 가구 중 동양 가구, 서양 가구를 선별해 디자인랩 1층 2개의 전시장에 배치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10월 17일부터는 소장품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뮤지엄 4층 로비에 전시했다.

2022년 DDP 소장품전 시리즈는 20세기 현대 디자인 제품으로 구성된 DDP 소장품과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선보이는 전시로 진행되었다. 먼저 DDP 소장품의 스토리텔링 발굴하기 위해 선행 조사를 진행한 후 '일상에서 만나는 디자인'을 대주제로 설정하고 시리즈 형태의 소장품 전시 계획을 수립했다. DDP 소장품전 첫 번째 전시(VOL.1) <TELE+VISION 내일의 기억>은 '텔레비전'을 주제로, DDP가 보유한 근현대 TV의 디자인적 요소와 '보는 행위를 둘러싼 담론'을 조명하는 전시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소장품을 고화질로 촬영하고 편집해 롤링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디자인 전문가 인터뷰 영상 등 연계 콘텐츠도 제작했다. 전시는 시대별로 뉴 미디어의 탄생, TV: 부의 상징, TV의 소형화·대중화·일상화, TV의 현대 디자인, 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1929년 세계 최초 기계식 TV를 이용한 BBC(영국) 방송이 시작된 후 상용화된 진공관식 흑백 TV부터 벽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TV까지 57개의 실물 TV와 디지털 콘텐츠로 전시장을 채웠다. DDP 내 다양한 전시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해 모듈형, 가변형 전시 포맷으로 기획되어 DDP 디자인랩 1층에서는 DDP 소장품 실물을, 디자인둘레길에서는 TV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문가 4인의 인터뷰를 만나볼 수 있었다. 실물을 전시한 디자인랩 전시장의 선반형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전시한 미디어 디스플레이는 추후 이어질 DDP 소장품전 시리즈 상설전시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시명	장소	기간	내용	전시 구성
DDP 소장품전 VOL.1 <TELE+VISION 내일의 기억>	디자인랩 1층, 디자인둘레길	2022. 11. 30.~ 2023. 5. 31.	DDP가 보유한 근현대 TV의 디자인적 요소와 함께 '보는 행위를 둘러싼 담론'을 조명	뉴 미디어의 탄생, TV: 부의 상징, TV의 소형화·대중화·일상화, TV의 현대 디자인





2022_소장품 상설전시

디자인 & 디자이너 전시

디자인 & 디자이너 전시는 동시대 주목받는 디자인과 디자이너 전시를 통해 디자인 전문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업과 디자이너 간 협업 사례, 디자이너 브랜드 성공 사례 등 주목할 만한 디자인 사례를 분야별로 선정해 전시하고 이를 DDP 포럼과 연계해 국내외 디자이너와 기업의 디자인을 소개했다. 전시 도록과 참여 디자이너 인터뷰 영상 제작, 기증 등을 통해 전시 콘텐츠와 전시품의 일부를 아카이빙하고 소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디자인 전시 시리즈'는 동시대 주목할 만한 디자인과 디자이너 콘텐츠를 개발하고 디자인 트렌드를 선보이기 위해 진행하는 전시이다. 각 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이 전문 큐레이터로 참여해 전문성 높은 전시 콘텐츠와 살아 있는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었다. 2021년 12월에는 파일럿 전시로 그래픽 디자인, 2022년에는 총 3회에 걸쳐 가구(의자), 패션, 타이포그래피 분야를 주제로 전시를 개최했다.

그래픽 디자이너 슬기와 민, 신신, 홍은주·김형재 세 팀이 참여한 <집합 이론>전은 디자인 전시 시리즈의 파일럿 전시로, DDP 살림터(현 디자인랩) 1층 D-8(현 디자인갤러리)에서 2021년 12월 23일 시작해 예정된 2월 말에서 연장되어 2022년 4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 <집합 이론>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방법론을 구축해 온 그래픽 디자이너 세 팀의 방법론과 관심사가 각자의 주제 안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였다. 전시 출품작은 자율적으로 진행한 작업을 최대한 배제하고 제약과 한계 안에서 자신들의 태도를 어떤 식으로 기능하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2022년 첫 번째 '디자인 전시 시리즈'로 '가구'를 주제로 한 <스펙트럼 오브 시팅(Spectrum of Seating)> 전시는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DDP 디자인랩 1층 디자인갤러리에서 열렸다. 국내 디자이너 3명이 큐레이터로 참여해 무궁무진한 의자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전시장에는 디자이너 27명이 만든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의자 27점이 전시되었으며 각각의 작품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의자, 진정한 휴식을 위한 의자, 오브제로서 의자, 산업 재료를 활용한 의자로 구분되었다. 전시와 연계한 'DDP 포럼'은 9월 15일 '집의 시간, 진화하는 인테리어 키워드 3'이라는 주제로 디자인랩 2층 오픈라운지에서 진행되었다.





2022_스펙트럼 오브 시팅

'패션'을 주제로 한 <DDP, Fashion and You> 전시는 10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디자인랩 1층 디자인갤러리에서 열렸다. 패션 전문지 「보그(VOGUE) 코리아」가 2014년과 2022년에 DDP를 배경으로 각각 촬영한 패션 사진을 한데 모았다. 「보그 코리아」는 2014년 DDP 개관 당시 자하 하디드의 미래적인 건축을 배경으로 한국적인 의상을 대비시켜 사진으로 기록한 바 있다. 8년 후인 2022년의 화보는 한국 패션의 거점으로 자리 잡은 DDP를 배경으로 '패션 놀이터'로서의 DDP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전시에서는 「보그 코리아」가 2014년에 촬영한 화보 7점과 2022년에 촬영된 화보 33점 등 총 40점의 패션 사진 전시와 함께 1편의 패션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패션 문화의 새로운 장으로서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DDP와 한국 패션이 어우러진 풍경을 제시했다. 'DDP 포럼'은 10월 1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나는 가치를 입는다'를 주제로 디자인랩 2층 오픈라운지에서 열렸다.

마지막으로 '타이포그래피'를 주제로 한 <진달래 & 박우혁: 코스모스>전은 타이포그래피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며,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는 진달래 & 박우혁의 그래픽 작업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였다. '글자와 이미지'보다는 '움직임'에 방점을 찍은 타이포그래피를 선보여온 진달래 & 박우혁이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작업한 그래픽 디자인 결과물을 40여 점의 영상과 인쇄물 120여 점으로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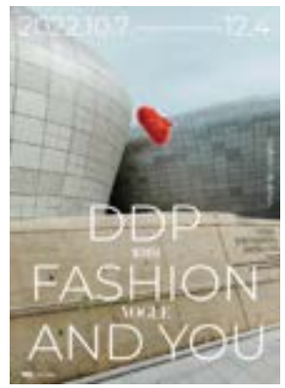
[2022년 디자인 & 디자이너 전시]

전시명	일정	참여 디자이너-기관	장소	연계 행사: DDP 포럼
집합 이론	2021. 12. 23.~ 2022. 4. 24.	그래픽 디자이너 3팀 (슬기와 민, 신신, 홍은주·김형재)	살림터 1층 D-8 (현 디자인갤러리)	
스펙트럼 오브 시팅 (Spectrum of Seating)	2022. 9. 2.~ 10. 2.	송봉규(BKID 대표), 양정모 (양정모 스튜디오 대표), 소동호(산림조형 대표)	디자인랩 1층 디자인갤러리	#30. '집의 시간, 진화하는 인테리어 키워드 3' 2022. 9. 15.
DDP, Fashion and You	2022. 10. 7.~ 12. 4.	보그(VOGUE) 코리아	디자인랩 1층 디자인갤러리	#31. '나는 가치를 입는다' 2022. 10. 13.
진달래 & 박우혁: 코스모스	2022. 12. 9.~ 2023. 3. 26.	진달래 & 박우혁	디자인랩 1층 디자인갤러리	#33. '타이포그래피, 오늘' 2022. 12 .21.





진달래 & 박우혁: 코스모스





DDP, Fashion and You

5-1-3. DDP 협력전시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뮤지엄팀 | 전시1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디자인 상설전시 운영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전시 네트워크 | 기관, 기업
키워드	#DDP협력전시 #갤러리문 #디자인둘레길 #둘레길갤러리/디자인갤러리

서울디자인재단은 DDP가 디자인 전문가들의 소통과 관계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협력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2021년부터 대내외 협력전시를 확대하여 공립 미술관의 전문성과 DDP의 해외 인지도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했다. 2021년 3월에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시민에게 DDP의 비전과 가치를 반영한 디자인, 건축, 패션, 아트 등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DDP 대외 협력전시 기관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대상은 디자인 관련 전문 기관(미술관, 박물관, 재단) 및 기업, 대사관, 문화원 등 공공성 기반의 전시 기획과 실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한정했다. 심의위원 5인의 심사를 거쳐 접수된 4건 중 3건을 재단과 함께 할 협력전시로 선정했다. 2021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협력전시 중 첫 번째로 열린 전시는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서울디자인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사)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 한국황실문화갤러리가 주관한 <2021 이탈리아와 함께하는 공예유람전>이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 디자이너의 작품을 한국의 지승, 나전과 옻칠, 민화, 자수, 매듭, 소목, 도자, 채화칠기, 화각 등 분야별로 9인의 공예작가가 오마주하여 만든 9개의 의자가 주요 전시품이었으며, 의자와 함께 전시 참여 작가 9인의 다른 대표 작품 1점과 분야별로 작가 9인을 추가로 선정해 총 100점으로 '공예명품백선'을 완성했다. 이탈리아 국영 TV에 전시가 소개되는 등 이탈리아에 한국의 공예 작품과 디자이너를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했다.

<박수근 미술상, 임동식>전은 제5회 박수근미술상 수상 작가인 임동식의 개인전으로 8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갤러리문에서 개최되었다. 작가가 지난해 9월 시상식 이후 준비한 신작들과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삶과 작품세계를 총망라한 아카이브 전시로 재단과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이 공동 주최해,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에서도 전시가 진행되었다.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과 협력한 <The Republic of Color: 다양한 색채의 도미니카공화국>전은 11월 2일부터 28일까지 갤러리문에서 열렸으며, 도미니카공화국의 화려한 색감을 느껴볼 수 있는 25점의 회화와 소품이 전시되었다.

시민들에게 동시대 융합 예술의 다양한 면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전시 <언폴드엑스-디지털 스토리텔러스Digital Storytellers>는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공동 주최했다. 언폴드엑스(UNFOLD X)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융합 예술 창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융합 예술 플랫폼을 말한다. 융합 예술의 현주소를 제시하는 실험적 전시에는 영국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유니버설 에브리띵(Universal Everything)'을 비롯해 해외 작가 3팀과 국내 미디어작가 6팀이 참여했다.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배움터 디자인뮤지엄(현 뮤지엄 전시2관)에서 열렸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파라다이스문화재단·LG유플러스도 협업 기관으로 참여했다.



박수근 미술상, 임동식전



언폴드엑스

이 외에도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DDP 오픈캠퍼스 프로그램으로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디지털디자인학회 전시 <ADD+OVERTURE>(2021. 11. 6.~13.), 계원예술대학교 화훼디자인과 전시 <FLOWER CREATORS LOUNGE> (2021. 11. 19.~22.), 계원예술대학교 리빙디자인과 전시 <PLAY FOR LIFESTYLE>(2021. 11. 25.~28.)를 살림터(현 디자인랩) 1층 동대문스피릿(현 디자인갤러리)에서 진행했다.

2022년에도 디자인 유관 기관 및 단체, 대학 등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전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자 4월 18일에서 5월 1일까지 '국내외 협력 교류 전시 공모'를 진행했다. 디자인둘레길, DDP기록관(현 둘레길갤러리) 등 DDP 내 유휴 공간을 디자인 전공 대학생 졸업 작품 전시 공간으로 제공해 예비 디자이너들의 디자인계 입문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었다. 공모는 해외 교류, 전문가 교류, 청년 교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정기 공모와 수시 공모를 통해 디자인 관련 학·협회 8개, 대학 2개, 대사관 1개, 디자인 단체 2개가 최종 선정되어 총 13회의 협력전시를 개최했다.

[2022년 국내외 협력 교류 전시 공모 분야]

DDP × 해외 교류	DDP × 전문가 교류	DDP × 청년 교류
DDP 인프라, 홍보+해외 콘텐츠 결합 전시	DDP 인프라, 홍보+국내 다양한 전시와 학술 프로그램 운영	DDP 인프라, 홍보+청년 디자이너의 전시, 학술 프로그램 등
주한 대사관, 해외 문화원의 유수 해외 콘텐츠 교류 전시	국내 디자인 협회 및 단체의 콘텐츠	서울 소재 대학 및 산학협력단 등의 콘텐츠

대외 협력전시 진행에 앞서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와 협력해 입주 기업의 디자인 제품을 소개하는 <패밀리 팝업전>을 5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살림터(현 디자인랩) 1층 D-8(현 디자인갤러리)에서 개최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 8개, 서울새활용플라자 9개의 입주 기업이 참여해 총 17개 입주 기업의 디자인 제품을 선보였다.

2022년 첫 번째 대외 협력전시는 <우리를 매혹시킨 20세기 디자인>전으로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갤러리문과 디자인갤러리에서 열렸다. 북유럽 디자인 등의 가구를 통해 디자인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인 오리지널 디자인 컬렉션을 보유한 7개 사(앤더슨씨, 르모듈러, 미뎀바우하우스, 알코브, 헨리베글린, 에임 빌라, 미미화 컬렉션)가 참여해, 디자인사에 있어 가장 역동적인 시기인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모던 디자인의 정수가 녹아 있는 빈티지 가구 컬렉션을 선보였다.

두 번째 협력전시는 재단의 글로벌 디자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대사관과의 교류 전시 <미래의 빛, 마르코 로돌라>였다. 이탈리아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네오 퓨처리즘 창시자로 꼽히는 마르코 로돌라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로 9월 5일에서 10월 9일까지 야외 공간인 미래로와 갤러리문에서 진행되었다. '돌체 비타(달콤한 인생)'로 대표되는 이탈리안 라이프스타일과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재해석한 마르코 로돌라의 작품 약 40여 점이 전시되었으며, '춤과 음악', '르네상스 미술의 팝아트적 재해석', '핀업 걸과 카드 섹션', '베스파와 이탈리안 라이프스타일', 총 4개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전시는 D-숲으로 이동해 2023년 1월 말까지 이어진다.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전은 디자인 단체와 진행한 세 번째 협력전시로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뮤지엄 3층 둘레길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의 박소윤 작가와 네덜란드의 베라 반 드 사이프(Vera van de Seyp)는 한국의 대표 시인 이상(李箱,1910~1937)과 네덜란드의 대표 시인 폴 반 오스타이옌(Paul van Ostaijen,1896~1937) 작품을 AI을 이용해 문학(텍스트), 음악(사운드), 미술(이미지)의 형태를 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DDP 뮤지엄 둘레길(2F~4F 구간)에서 열린 <가설공사(假設工事)>는 대학과의 협력전시로 한국 최초로 설립된 상명대학교 스페이스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공간 설계와 가구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였다. 가설(假說)의 가설(假設)물이라는 주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한 전시이다.



미래의 빛, 마르코 로돌라



우리를 매혹시킨 20세기 디자인

[2021-2022년 대내외 협력전시]

연도	전시명	내용	협력	전시 기간	장소	관람객
2021	2021 이탈리아와 함께하는 공예 유람전 <한국공예명품 백선-아홉 개의 의자>	한국의 전통 공예와 이탈리아 디자이너를 오마주한 의자를 선보이는 전시	주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서울디자인재단 주관: (사)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 한국황실문화갤러리 후원: 이탈리아 예술가그룹 '미라빌리'	2021. 5. 21.~ 6. 13.	갤러리문	766명
	박수근미술상, 임동식	임동식의 신작들과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총망라한 아카이브 전시	주최: 양구군, 박수근미술관, 서울디자인재단, 동아일보, 강원일보 주관: 박수근미술상 운영위원회, 박수근미술관	2021. 8. 7.~ 9. 5.	갤러리문	462명
	리퍼블릭 오브 컬러 (The Republic of Color): 다양한 색채의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 리퍼블릭을 대표하는 회화 및 디자인 작품	주최·주관: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서울디자인재단	2021. 11. 2.~ 28.	갤러리문	1,121명
	언폴드 X-디지털 스토리텔러스(Unfold X-Digitalstorytellers)	융합 예술의 형태, 범위, 기술적 진화에 따른 미학적 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전시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2021. 11. 15.~ 28.	디자인 뮤지엄 (현 전시2관)	5,074명
2022	패밀리 팝업전	서울디자인창업센터 8개, 서울새활용 플라자 9개, 총 17개 입주 기업의 디자인 제품 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디자인창업센터	2022. 5. 7.~ 7. 3.	D-8 (현 디자인 갤러리)	6,240명
	우리를 매혹시킨 20세기 디자인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모던 디자인의 정수가 녹아 있는 빈티지 가구 컬렉션	주최: 서울디자인재단, 알코브 주관: 알코브	2022. 7. 8.~ 8. 21.	갤러리문, 디자인 갤러리	21,429명
	미래의 빛, 마르코 로돌라	이탈리아 대표 라이팅 아티스트 마르코 로돌라 전시	주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서울디자인재단 후원: 미라빌리 (이탈리아 예술가그룹)	2022. 9. 5.~ 2023. 1. 29.	미래로, 갤러리문 (연장: D-숲)	224,506명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Sorry, Please say that again)	한국과 네덜란드 대표 시인의 작품을 AI로 해석	기획: 스튜디오 퍼블(박제언) 작가: 한국 박소윤, 네덜란드 베라 반 드 사이프 (Vera van de Seyp)	2022. 9. 15.~ 10. 2.	둘레길 갤러리	4,149명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2022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 관련 학회 및 협회와의 협력전시는 11월부터 디자인둘레길에서 차례로 진행되었다.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한국공간디자인학회의 협력전시는 환경, 문화, 예술, 사람,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연구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방향성을 모색한 결과를 보여줬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의 협력전시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공공문화공간'을 주제로 진행된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선보였다. 2022 한국디자인학회 가을 국제 초대전은 '융합과 창의(Convergence & Creativity)'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제품, 시각 영상, 공간, UX 웨어러블 등 분야를 망라해 디자인과 타 학문과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실험한 작품을 선보였다. 한국공간디자인학회와의 협력전시는 문화공간의 '융합과 하이브리드'를 주제로 진행된 제17회 차세대문화공간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스마트 기술 시대의 문화 플랫폼'을 주제로 한 건축 작품을 소개하는 2022 KICA 국제 초대전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와의 협력전시 <VIDAK 2022겨울 국제 초대전 &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42개국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했으며, 한국 시각디자인의 개척자이자 교육자인 VIDAK 초대 회장 조영제 교수와 2대 회장 권명광 교수의 회고전도 함께 열렸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권영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과 영국왕립예술학교 네빌 브로디 교수가 강연했다.

<한국색채대상 & 국제 색채 작품 초대전 & 대학생 색채디자인 공모전>에는 제20회 한국색채대상 수상작 전시와 함께 14개국의 작가들이 색을 주제로 한 작품, 2022년 공모전 접수작이 전시되었다. 12월 10일부터 디자인둘레길에서 열린 DDP 디자인 아카이브 전시 <KSVD: 1972~1993>은 1972년 설립된 한국시각디자인협회(KSVD,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설립 이후 50년간 한국 디자인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디자인둘레길 전시장은 디지털로 복원된 주요 포스터 디자인 100여 점으로 채워졌다. 국내 디자이너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운동 메시지가 녹아 있는 1970~1980년대 포스터 디자인을 통해 이들의 활동이 한국 현대 시각디자인의 발전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2022년 디자인 관련 학회·협회·대학 협력전시]

구분	기관	장소	기간	주제
학·협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디자인둘레길 (2F~4F 구간)	2022. 11. 4.~10.	한국 실내디자인 주제 공모전·국제 초대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공공문화공간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디자인둘레길 (2F~4F 구간)	2022. 11. 3.~10.	<제26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국제공간디자인 초대작품전>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의 미래'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둘레길 (B2~1F 구간)	2022. 11. 12.~18.	가을 국제 초대전 <융합과 창의(Convergence & Creativity)>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디자인둘레길 (1F~2F 구간)	2022. 11. 18.~23.	제17회 차세대문화공간공모전 및 국제 초대전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디자인둘레길 (2F~4F 구간)	2022. 12. 3.~11.	VIDAK 2022 겨울 국제 초대전 & 컨퍼런스: D-Space
	한국색채학회	디자인둘레길 (1F~2F 구간)	2022. 12. 6.~9.	한국색채대상, 국제 색채 작품 초대전, 대학생 색채디자인 공모전
	한국시각디자인협회	디자인둘레길 (B2~1F 구간)	2022. 12. 10.~ 2023. 2. 9.	DDP 디자인 아카이브 <KSVD: 1972~1993>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디자인둘레길 (1F~2F 구간)	2023. 1. 13.~20.	2022 KICD 동계 국제 초대전
	새로운문화를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	갤러리문	2023. 1. 16.~3. 31.	Visualizing the invisible: 일상화된 건축의 관찰과 기록
대학	상명대학교	디자인둘레길 (2F~4F 구간)	2022. 10. 22.~30.	상명대 스페이스 디자인 전공 디자인 우수팀 <가설공사(假設工事)>
	카이스트(KAIST)	디자인둘레길 (1F~2F 구간)	2022. 12. 17.~26.	발명적 사고: 영감과 미래(Inventive Minds and Ideas: Living In The Future)

<발명적 사고: 영감과 미래(Inventive Minds and Ideas: Living in The Future)> 전시는 KAIST 공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9개 연구실과 7명 학부생이 참여해 디자인과 공학의 경계에서 실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통해 미래 산업과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전시였다.

재단은 2021년 협력전시를 개최한 4개 기관과 공동 전시 협약을 체결해 향후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다수의 대사관, 미술관, 학회, 협회, 대학, 디자인 기업 등과의 교류를 통해 동시대 디자인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는 협력전시를 선보이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DDP 콘텐츠를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패밀리팝업전

5-1-4. DDP 오픈 큐레이팅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뮤지엄팀 | 전시1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청년창작자양성사업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전시, 시민 참여 행사 네트워크 | 기관, 기업
키워드	#DDP오픈큐레이팅 #디자인전시 #갤러리문 #둘레길갤러리

서울디자인재단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DDP 오픈 큐레이팅'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신진 전시 기획자와 디자이너를 발굴해 소개해 왔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시 기획자(팀)에게는 DDP 내 전시 공간과 전시 운영 경비 일부를 제공하고 DDP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DDP 오픈 큐레이팅'은 역량 있는 청년 창작자를 발굴해 장르, 형식에 관계없이 실험적인 디자인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디자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공모의 주제는 재단 내부 기획 회의를 통해 모든 장르, 분야, 소주제를 어울러 디자인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계를 지우는 디자인'으로 선정되었다. 지원 대상은 전시기획과 실행의 역량이 있는 신진 전시 기획자와 디자이너로 전시 기획 경력이 1회 이상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팀당 1,000만 원의 전시 경비를 지원했다. 전시 장소는 DDP갤러리문(341㎡) 혹은 배움터(현 뮤지엄) 3층 DDP기록관(현 둘레길갤러리 370㎡)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2021년 공모는 4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심의위원 5인의 서면 심사를 통해 총 7개의 신청 팀 중 최종 3개 팀을 선정했다.

2022년에는 전시 주제를 정하지 않고 DDP의 가치를 반영한 디자인, 건축, 패션, 아트 등 분야 제한 없이 제안을 받았다. 전시 기획안에 전시 기간 내 DDP 공간을 활용한 전시 홍보와 관람객 대상 교육, 체험 활동 방안도 포함하게 했다.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 모집 공고에는 29개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을 선정했다. 2022년 오픈 큐레이팅 공모 경쟁률은 5.8:1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다.

[DDP 오픈 큐레이팅 공모 결과]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주제	집과 디자인	경계를 허무는 디자인	자율 주제
선정	4개	3개	5개
응모	10개	7개	29개
경쟁률	2.5:1	2.3:1	5.8:1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월되었던 2020년 '집과 디자인(Desing for Home)'이라는 주제 아래 선정된 전시 3개(vol.16~18)를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했다. 2020년 이월 전시의 총 관람객 수는 5,008명이었다. 이어 2021년 선정된 3개 팀의 전시(vol.19~21)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열렸고, 7월부터 2022년 선정팀 전시가 개최되었다.

2021년 3월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Recycling Oriented Society> 전시는 2020년 공모 당시 1위로 선정된 ROS(물고기, 정김도원, 최솔이)팀이 기획했다.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주거공간에서 버려지는 것들에 주목하고 건축, 도자, 자연 폐기물을 활용한 신소재로 만든 미래의 집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공유한 전시였다. 이어서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열린 17번째 전시 <그리고, 마당!>을 기획한 푸릇스튜디오(Puruuut Studio)와 덕화맨숀스튜디오(Duckhwa.M Studio)는 도심의 인구 밀집과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 현실적인 문제로 '마당'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에 주목하고 '공유 마당'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람객들이 골목길을 지나 마당 입구에서 출입 열쇠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 전시장에 재현된 가상의 '공유 마당'을 체험하는 시민 참여형 전시로 진행되었다. <진정한 집으로의 여정>전은 도심의 아파트로 대변되는 집에 대한 표준화된 소유욕을 넘어, 나의 삶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기억을 담는 장소로서의 집을 성찰하고자 했다.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며 '집'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12인의 여정을 담았으며, '집의 본질, 나와 공동체', '지속 가능한 삶과 집', '나에게 선물 같은 집으로의 초대' 그리고 '진정한 집을 만드는 사람들' 총 4개로 구성되었다.

2021년 '경계를 지우는 디자인'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전시 <디지털 웰니스 스파>에는 국내외 아티스트 9인이 참여해 관람객들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기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All-inclusive) 가상의 스파 리조트를 전시장으로 가져왔다. 전시를 기획한 '오디너리피플'은 심사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팀으로 디지털 미디어 작품으로 구성한 전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시민들이 맞이할 새로운 일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는 전시 의도를 밝혔다.



2021_vol.21_Material Collective

20번째 오픈 큐레이팅 전시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곳>전은 해를 넘겨 2022년 1월 23일까지 갤러리문에서 열렸다. 디자인뮤 컴퍼니와 흙을 주재료로 작업하는 아티스트 김지아나 작가가 호흡을 맞춰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경계를 지우는 디자인'이란 주제의 세 번째 전시 <메테리얼 콜렉티브(Material Collective)>는 2022년 2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원재료부터 시작해 소재로 쓰이기까지 작가, 디자이너가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였다. 주얼리 공예, 제품, 건축 디자인, 미디어아트 등을 통해 각기 다른 결과물로 표현되는 소재를 주제로 이야기했다.

2022년 오픈 큐레이팅 공모에 선정된 '수무'팀의 <가장 조용한 집> 전시의 주제는 '자연 속에 녹아든 네 개의 선 귀틀집'이었다. 전북 무주의 귀틀집에서 착안해 전시장을 귀틀집 내부로 연출하고, 전시장 곳곳을 영상과 소리로 가득 채워 관람객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10월에 열린 <도시락 RE:BOOT-나를 챙기는 삶>전은 '도시락'이라는 일상의 용품을 환경적 가치로 재조명하고 탐구해 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다시'라는 의미의 접두어 'RE'를 사용해 리:싱크(RE:THINK, 다시 생각하다), 리:로드(RE:LOAD, 다시 채우다), 리:퍼시브(RE:PERCEIVE, 다시 인식하다), 리:바이브(RE:VIVE, 다시 회복하다), 총 4개 공간으로 전시장을 구성했다.

오픈 큐레이팅 24번째이자 2022년 공모로 선정된 세 번째 전시는 <0TOX: 중첩의 구역 "을지로">로 0TOX Movement(제로투엑스 무브먼트)가 기획했으며, 10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갤러리문과 디자인랩 1층 C1에서 열렸다. 0TOX Movement는 12명의 작가와 함께 오래된 도심이지만 어느 곳보다 치열하고 활력이 넘치는 을지로를 주제로 작가들이 재해석한 65개의 흥미로운 결과물을 선보였다.



2022_vol.22_가장 조용한 집





2022_vol.24_중첩의 구역 "을지로"

25번째 오픈 큐레이팅 전시는 2022년 공모 1순위로 선정된 오존팀의 <매혹의 언어>전으로 뮤지엄 3층 둘레길갤러리에서 진행되었다. '오존'은 그래픽디자이너 계정권과 미술가 박재환이 결성한 팀으로 전시를 통해 우상(아이돌), 무속, 명품 브랜드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심벌과 표식, 도구 활용, 공간 디자인 사례 등을 연구·분석하기 위한 현장 리서치 과정과 여기서 도출된 디자인 프로세스와 결과물을 소개했다. 2022년의 마지막 오픈 큐레이팅 전시 <Beyond The City: Cultural Monuments>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디자이너가 '미래 너머'의 도시와 문화를 상상하고 해석하여 깃발 형태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였다.

연도	주제	전시명		내용	기획팀	전시 기간	장소	관람객
2021	집과 디자인	vol.16	Recycling Oriented Society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폐기물 신소재 연구 전시	ROS	2021. 3. 19.~ 4. 16.	갤러리문	2,344명
		vol.17	그리고, 마당!	도심 속 우리 집 마당 공유 프로젝트	푸릇스튜디오, 덕화맨숀 스튜디오	2021. 6. 25.~ 7. 25.	갤러리문	755명
		vol.18	진정한 집으로의 여정	각자의 가치가 투영된 12개 주거 페르소나 발굴	리얼홈 프로젝트	2021. 9. 17.~ 10. 17.	갤러리문	1,909명
	경계를 지우는 디자인	vol.19	디지털 웰니스 스파	Covid-19 시대, 건강한 삶을 위한 '디지털 에스테틱'	오디너리 피플서울	2021. 11. 9.~ 12. 9.	DDP 기록관	2,399명
		vol.20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곳	디자인과 작품의 경계를 허무는 흙과 식기, 조명	디자인뮤 컴퍼니	2021. 12. 16.~ 2022. 1. 23.	갤러리문	780명
		vol.21	메테리얼 콜렉티브 (Material Collective)	소재를 매개로 만나는 서로 다른 분야의 디자인	Studio newtab-22	2022. 2. 11.~ 5. 8.	갤러리문	5752명
2022	자율 주제	vol.22	가장 조용한 집	자연 속에 녹아든 귀틀집 체험 전시	수무	2022. 7. 11.~ 8. 15.	둘레길 갤러리	19,493명
		vol.23	도시락 RE:BOOT-나를 챙기는 삶	'도시락'이라는 일상용품을 환경적 가치로 재조명	레토릭	2022. 10. 6.~ 11. 8.	둘레길 갤러리	8,074명
		vol.24	0TOX: 중첩의 구역 "을지로"	을지로를 주제로 작가들이 재해석한 65개의 흥미로운 결과물 소개	0TOX Movement (제로투엑스 무브먼트)	2022. 10. 24.~ 12. 5.	갤러리문, 디자인랩 1층 C1	7,314명
		vol.25	매혹의 언어	우상, 무속, 명품 브랜드를 분석하는 디자인 프로세스와 결과물 소개	오존(박재환, 계정권)	2022. 11. 18. ~12. 31.	둘레길 갤러리	11,257명
		vol.26	Beyond The City	미래 너머의 도시와 문화를 상상하고 해석한 전시	대기앤준 (DAEKI and JUN studio)	2022. 12. 14.~ 2023. 1. 15.	갤러리문	3,040명

재단은 DDP 오픈 큐레이팅이라는 공모형 협력전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디자인 중심의 전시 기획자 육성과 신진 크리에이터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동시에 DDP만의 특화된 디자인 전시 콘텐츠를 확산할 수 있었다.

5-1-5. D-숲 전시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뮤지엄팀 | 공간마케팅팀
사업 연도	2021
예산명	DDP 직영공간 운영 사업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전시, DDP 포럼, 시민 참여 행사 네트워크 | 기관, 기업
키워드	#D-숲 #DDP 포럼

서울디자인재단은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체험 공간으로 조성한 D-숲 공간에 부합하는 시민 참여형 전시, DDP 포럼과 연계한 각 분야 국내 최정상 디자이너와의 협업 전시, 시의성을 고려한 전시를 운영하여 DDP의 창의 콘텐츠를 발신하고자 했다.

2021년 봄에 열린 D-숲의 첫 번째 전시는 '꽃과 식물'을 주제로 새로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스프링가든 in D-숲>전이었다. 12명의 작가들이 봄을 콘셉트로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플라워 디자인의 대중화와 꽃과 식물을 통한 치유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 전시로 식물 200여 점을 나눠주는 시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이어서 4월에는 <케이팝×한복>전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주관으로 열렸다. K-팝 아이돌의 한복 무대 의상 25점을 전시해 총 5,509명의 시민이 관람했으며, 전시와 연계해 '신한류 이끄는 두 주역, 케이팝과 한복이 만나다'를 주제로 케이팝 스타의 무대 의상을 제작한 단하주단과 리을 디자이너의 대담이 진행되기도 했다.

<마리쿠테 알파벳 탐험전>은 한국과 호주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주한 호주대사관과 협력해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열렸다. 전시에서는 호주의 대표적인 일러스트 작가인 마리 쿠테의 폰티그램(Fontigram: 알파벳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활용한 원화 일러스트 작품 24점과 대형 일러스트 조형물을 선보였다. 알파벳 'D', 'D', 'P'로 비정형 건축물의 특성을 결합해 표현한 대형 조형물은 작가가 DDP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해 처음 공개한 것이다. 전시장에서는 마리쿠테 일러스트 원서를 함께 전시했으며, DDP 포럼과 연계해 마리쿠테 작가와의 비대면 토크 행사도 개최했다.



집의 대화: 조병수×최욱

가을에 열린 <집의 대화: 조병수×최욱>전은 코로나 시대에 집에 대한 가치와 공간의 의미를 환기하기 위해 기획한 전시로, 한국을 대표하는 두 건축가 조병수(BCHO파트너스 대표)와 최욱(원오원아키텍스 대표)이 작가로 참여했다. D-숲의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해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집 속의 집', '집', '일하는 집', '제안하는 집'이라는 4개의 주제 영상과 조병수, 최욱 두 건축가가 생각하는 '집'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상영했다.

<생각을 만드는 디자인>전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열렸으며 제품디자인의 가치를 환기하고 그 지평을 넓혀온 디자이너 성정기의 제품디자인에 담긴 태도와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제품디자인 전시의 특성을 살려 작품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부 작품은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게 운영했다.



생각을 만드는 디자인

[2021년 D-숲 전시]

전시명	기간	주제	비고
스프링가든 in D-숲	2021. 3. 16.~24. (8일간)	- '꽃과 식물'을 주제로 공간디자인의 새로운 장르 제시 - 총 3,092명 관람(일평균 387명, 주말 평균 535명)	방식꽃예술원 협력
케이팝×한복	2021. 4. 13.~25. (12일간)	- K-팝 아이돌의 한복 무대 의상 25점 전시 - 총 5,509명 관람(일평균 359명, 주말 평균 693명) - 포럼 <신한류 이끄는 두 주역, 케이팝과 한복이 만나다> 35명 참여	KCDF 협력
마리쿠테 알파벳 탐험전	2021. 6. 4.~7. 4. (27일간)	- 호주 작가 마리쿠테의 원화와 일러스트 조형 전시 - 총 14,932명 관람(일평균 436명, 주말 평균 984명)	주한 호주대사관 협력 DDP 포럼 #24 연계
집의 대화: 조병수×최욱	2021. 9. 2.~10. 3. (27일간)	- 건축가 조병수와 최욱의 집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담은 전시 - 총 12,393명 관람(일평균 459명, 주말 평균 734명)	DDP 포럼 #26 연계
생각을 만드는 디자인	2021. 11. 11.~24. (12일간)	- 한국 대표 제품 디자이너 성정기의 디자인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담은 전시 - 총 5,682명 관람(일평균 474명, 주말 평균 690명)	DDP 포럼 #28 연계
크리스마스가든 in D-숲	2021. 12. 19.~ 2022. 1. 9. (18일간)	- 크리스마스 테마의 플라워 디자인 전시 - 총 9,436명 관람(일평균 524명, 주말 평균 746명)	

플라워 디자인 전시 <크리스마스 가든 in D-숲>은 봄에 이어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최되었다.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붉은 열매, 여섯 그루의 나무와 손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 아래 놓인 크리스마스 만찬 테이블, 설원을 연상시키는 공간 등 다양한 꽃과 열매, 가지로 디자인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선사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새해 소망을 적어보는 '디지털 메시지 월(Wall)'과 발광다이오드(LED) 장미정원도 만날 수 있었다. 팬데믹 상황임에도 2021년 한 해 동안 D-숲에는 전년 대비 470% 증가한 12만 명이 방문했다.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D-숲의 방문율을 높일 수 있었다.

2022년에도 D-숲에서는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수상작 전시, <미래의 빛, 마르코 로돌라> 연장 전시, 가을 축제 기간 캠핑을 콘셉트로 한 실내 전시 <CITY FLOWER CAMPING> 등이 진행되었다. 전시 공간은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 형태의 데크라운지까지 확장되었다. 재단은 앞으로도 D-숲 곳곳을 시민 친화적인 전시와 행사 장소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D-숲 전시]

전시명	기간	연계 기관 및 행사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전시	2022. 2. 15.~9. 27.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CITY FLOWER CAMPING	2022. 9. 30.~10. 9.	DDP 가을 축제: 비바뷰티
미래의 빛, 마르코 로돌라	2022. 10. 10.~2023. 1. 29.	DDP 협력전시(D-숲에서 연장 진행)
서울디자인어워드 전시	2022. 10. 24.~11. 28.	서울디자인어워드
HELLO, CREATORS!	2022. 11. 23.~12. 22.	서울디자인 2022,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서울디자인 대학생 워크숍 전시	2022. 12. 2.~12. 10.	서울디자인 대학생 워크숍 포럼, 시상식



CITY FLOWER CAMPING



5-1-5. D-숲 전시



5-2. 행사

5-2-1. 서울 라이트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라이트사무국 | 전시2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서울라이트 | 서울라이트운영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전시, 시민 참여 행사 네트워크 | 기관, 기업
키워드	#서울라이트 #미디어파사드 #레픽아나돌 #미디어아트 #빛축제

‘서울라이트’는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인 DDP의 외벽에서 펼쳐지는 대형 미디어파사드 축제로 2019년 12월 첫선을 보였다. 수만 개의 알루미늄 패널로 이뤄진 굴곡진 DDP 외벽에 고화질의 영상을 균일하게 투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서울디자인재단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빔 프로젝터와 초대형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가 2022년을 ‘디지털 감성 문화 도시’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서울라이트는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축제와 함께 빛과 미디어아트로 색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 빛 축제로 운영되고 있다.

재단은 DDP를 활용한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고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DDP 인근 건물의 협조하에 콘텐츠를 기획해 동대문 지역 상권 부활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라이트’를 추진했다. 재단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중구 전통시장과,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협의회, 동대문미래재단, 건물주(관리단)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라이트 민관협의체’를 결성하여, 서울라이트 기간에 DDP 인근 대형 점포의 간판 등 주변의 빛과 조명 제어에 협조를 구할 수 있었다. 한편 건축, (공간)디자인, 미디어(그래픽, 영상 등), 하드웨어(장치·장비), 브랜드, 문화축제, 옥외광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라이트운영위원회’도 운영했다. 운영위원회는 국내외 우수 작가와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서울라이트 기획 방향을 자문하고 총감독을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DDP를 활성화하고 동대문 상권의 유동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라이트를 크리스마스와 새해 카운트다운과 연계한 연중 최대 행사로 개최하고자 했다. 국내외 작가들과 협업해 시민 참여형의 차별화된 축제를 기획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치해 축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미디어파사드와 빛 축제를 활용한 새로운 야간 콘텐츠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서울라이트 봄 축제는 코로나19로 2020년 사업이 이월되면서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DDP 서측 전면 220m의 외벽을 활용해 진행되었다. 봄 축제에

서는 2019년 1회 개막작인 ‘서울해몽’에 이어 꽃과 새 생명이 움트는 자연의 느낌을 표현한 작품 ‘서울해몽II(SEOUL HAEMONGII)’가 공개되었다. ‘서울 해몽’의 메인 작가인 튀르키예 출신의 ‘레픽 아나돌(Refik Anadol)’이 총감독 겸 작가로 참여해 AI를 기반으로 수백만 장의 서울과 자연, 생태 사진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였다.





DDP 살림터(현 디자인랩) 1층에 조성된 미디어아트 상설전시관 ‘라이트 스페이스(LIGHT SPACE, 현 미디어아트 갤러리)’는 서울라이트 봄 행사 개막일인 3월 26일에 공개되었다. 라이트 스페이스는 2019년부터 축적된 서울라이트 미디어아트 작품과 관련 콘텐츠를 모아서 보여주고, 서울라이트 미디어아트 작품을 사전 테스트하고,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품을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관람객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240°로 휘어진 38m × 3m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웅장한 음향 효과를 더했다. 라이트 스페이스에서는 온라인으로 송출된 ‘2020 서울라이트: DDP LIGHT ON’ 4개 작품 등을 상시 감상할 수 있다.

2021년 서울라이트 겨울 행사는 ‘다시 뛰는 서울, 함께 하는 DDP’를 주제로 12월 17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7일간 열렸다. 메인 작품은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서울대 교수인 박제성 작가의 <자각몽 - 다섯 가지 색>이었다. DDP 외벽에 구현한 메타버스 공간에 블랙, 그린, 화이트, 레드, 블루 다섯 가지 색을 테마로 한 다양한 기법의 미디어아트를 10여 분에 걸쳐 하루 4회씩 선보였다. 서울라이트 겨울 행사는 인원 제한 통제선을 설치하고 사전예약제로 진행했음에도 온오프라인으로 89,595명(현장 관람 4,515명, 온라인 영상 조회 수 85,080회)이 관람하고 시민 만족도 96.6%를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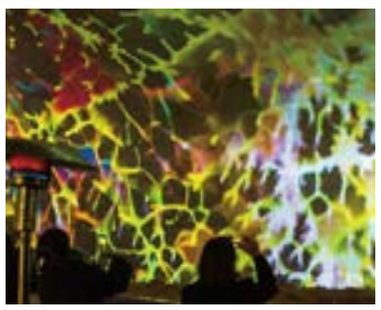
대형 미디어파사드 작품과 함께 어울림광장 미래로 하부와 8거리 슬로프 사이에는 2m 높이의 라이팅 트리 100개로 꾸며진 ‘빛의 정원’이 설치되어 12월 17일 공개되었다. 우광진 디자이너의 작품인 ‘빛의 정원’은 재단 최초로 민간 기업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의 후원금을 유치해 조성했다. 나무 주변에서 박수를 치거나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나무가 좌우로 움직이며 다양

한 컬러로 주변을 밝혔다. 서울라이트 기간 동안 '빛의 정원'에는 33,000명이 방문했으며 SNS상에 수많은 해시태그가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코로나19로 현장 관람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2월 17일 개막식과 12월 31일 미디어아트로 구현한 새해 카운트다운을 DDP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서울라이트와 연계한 DDP 포럼도 '메타버스와 몸 그리고 뇌'를 주제로 열렸다. 2021 서울라이트 후속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최고의 스트리트 댄서이자 안무가인 리아킴의 춤을 모션데이터로 변환한 미디어아트 '빅 무브 with Lia KIM'을 제작해 2022년 1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매주 주말 저녁 6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DDP 외벽에 투사했다.

2021 서울라이트는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들었던 시민들이 미래 지향적인 미디어아트 작품을 야외에서 관람할 수 있었던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몰입형 미디어아트 상설 감상 공간인 '라이트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빛의 정원'을 설치해 서울라이트 콘텐츠의 상설화도 시도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유명 퍼포먼스 아티스트와의 협업 영상은 누적 관람 조회 수가 47.2만 회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21-2022 서울라이트]

	2021		2022	
기간	봄 2021. 3. 26.~ 4. 1.(7일간) ※코로나19로 연기 (2020 겨울→2021 봄)	겨울 2021. 12. 17.~ 2022. 1. 2.(17일간)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병행	가을 2022. 9. 30.~ 10. 9.(10일간)	겨울 2022. 12. 17.~ 2023. 1. 1.(15일간)
총감독	레픽 아나돌			
프로그램	서울해몽 II - 레픽 아나돌 (일 6회, 총 42회, 10분간 상영)	자각몽 다섯 가지 색 – 박제성 2021. 12. 17.~2022. 1. 2. DDP 서측전면 220m (일 4회, 12분간 상영) 크리스마스 시즌 – 찰스장 12. 24.~25. 새해 카운트 – 위지윅스튜디오 12. 31.	'코스모 워커 (Cosmo Walker)' 어울림광장 뮤지움 외벽 'K컬처 패션쇼' 연계 특별 영상	메인 파사드 쇼 <DDP 우주와의 만남, 랑데-부(Rendez-Vous)> 서울라이트×기아(KIA) <오퍼짓 유나이티드 'Opposites United'> 크리스마스 특별 영상 <함께이기에 외롭지 않은 크리스마스> 2022. 12. 22.~25.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 <HELLO 2023, Heart-Beat New Year> 2022. 12. 31.
		빛의 정원 2021. 12. 17.~ 어울림광장 미래로 하부~ 8거리 슬로프	<오퍼짓 유나이티드 (Opposites United)>전 2022. 10. 1.~23. DDP 뮤지엄 2층 전시2관	<우주 백패킹(Backpacking to the Universe)>전 2022. 11. 1.~2023. 1. 29. 디자인랩 미디어아트갤러리, D-숲 투명미디어월 빛 조형물 전시 : <2023 HIGH! FIVE!> 2022. 12. 6.~2023. 1. 1. DDP 아트홀 1층 A3 출입구
	※코로나19로 미개최	DDP 포럼_서울라이트 2021. 12. 18.~19. DDP 살림터 3층 UDP		포럼 <유어 드림 스페이스 (Your Dream Space)> 2022. 12. 8. DDP 디자인랩 2층 오픈라운지
방문객	오프라인 3,146명 관람 ※방역 지침 준수 현장 관람 인원 제한	- 온오프 12.2만 명 관람 · 서울라이트 8.9만 명 · 빛의 정원 3.3만 명 - 주말 공연 35만 명 관람 · 퍼포먼스 아티스트와 협업	37.2만 명	50.5만 명
만족도	97.9%	96.6%	92.3%	97.2%
성과	몰입형 미디어아트 상설 전시관 '라이트 스페이스' 구축	전문 평가위원단 구성 - 국내 미디어아트 작가 선정 최초 민간 기업 후원 유치 - '빛의 정원' 상설 운영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발굴(5명) 및 전시

2022 서울라이트

예술과 최신 기술이 결합된 DDP의 정례 행사로 자리 잡은 서울라이트는 2022년부터 가을과 겨울 연 2회로 확대 개최되었다. 2022년에도 서울라이트를 고품격 야간 경관 축제로 육성해 관광 명소로서 DDP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역 상권과 함께 지속 가능한 축제를 운영해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2022 서울라이트 DDP 키비주얼





와 함께 우수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공모전을 통해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상설전시 공간을 활용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미디어 작품을 지속해서 선보이는 작업도 병행했다.

2022년 5월에는 LG전자의 협찬으로 투명 올레드(OLED) 55인치(1920*1080 FHD) 8대를 하나로 연결한 대형 미디어 월을 DDP 디자인랩 D-숲 입구에 설치해, 2021년 조성한 미디어아트갤러리(구 라이트 스페이스)와 함께 신진 및 중진 미디어아트 작가 발굴과 공모 운영을 위한 상설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초의 가로 4.9m, 세로 1.6m 규모의 투명 미디어 월을 활용해 DDP 기획전시 <시작된 미래 Meta-Horizons The Future Now>의 주요 작품인 레픽 아나돌 스튜디오의 <ARCHITECTING THE METAVERSE>를 최초로 선보였다.

LG전자에 이어 기아디자인센터와는 7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라이트를 중심으로 미디어 전시, 포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가치'를 함께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라이트 가을> 행사 기간에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의 5가지 디자인 원칙을 녹여낸 미디어 작품을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DDP 뮤지엄 2층 전시2관에서 선보였다.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발굴 및 육성 시범 사업

재단은 서울라이트 본 행사 외에도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발굴 및 육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전시를 개최했다. 아트스퀘어 갤러리와 협력한 <백남준을 기억하는 방법>전에서는 백남준 작가 탄생 90주년을 기념해 그의 작품을 오마주한 차세대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에 함께한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5인 [슉(Shuk), 버터컵(buttercup), 양빈, 장서원, 예니코(Yeniko)]의 미디어아트 영상 5편은 7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D-숲 앞에 설치된 투명 미디어 월에서 상영되었다.

<서울라이트 겨울> 행사를 한 달여 앞둔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29일까지는 서울라이트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직접 발굴한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을 선보이는 <우주 백패킹(Backpacking to the Universe)>전을 개최했다. '우주적 삶'을 주제로 작가만의 창의적인 해석을 더해 미디어 프로젝션과 3D 디지털 예술로 풀어낸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5명의 작품을 '미디어아트 갤러리'(고휘, 현지원)와 '투명 미디어 월'(오수환, ZEEN, BYEONKI)을 통해 관람할 수 있었다. 2023년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공모 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프로젝션 맵핑+음향'과 '3D 미디어아트·디자인' 2개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을 선정했다.

2022년 서울라이트의 주제는 '우주적 삶(Designing Life at the Universe)'으로 '도심에 착륙한 우주선'으로 비유되는 DDP 외관을 모티프로 '우주적 삶'을 상상하며 떠나는 여정을 담은 미디어아트로 꾸며졌다. <서울라이트 가을>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DDP 어울림광장 옆 뮤지엄 벽면을 활용해 진행되었다. 우주에서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패션디자인의 관점에서 조명한 '버추얼 패션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가상 인물 '코스모 워커(Cosmo Walker)'의 워킹을 실제 모델의 워킹 데이터를 적용해 파티클의 파장 형태로 표현했다. 10월 7일에는 K팝 아티스트들이 실제 착용했던 무대 의상을 연도별로 선보이는 K팝 패션쇼와 국내 대표 디자이너인 지춘희의 미스지컬렉션 2023 S/S가 열린 'K컬처 패션쇼'와 연계한 특별 영상도 선보였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약 37만 명의 관람객이 DDP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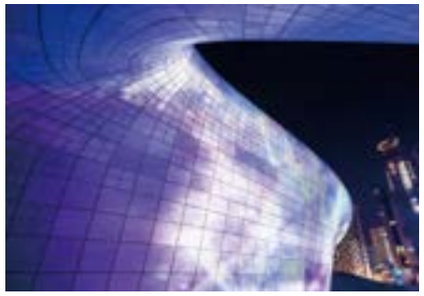


<서울라이트의 겨울>은 12월 17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DDP 서측 222m 외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220m에서 북문쪽 DDP 외벽의 곡면 2m를 연장해 작품에 대한 몰입감을 더욱 높였다. 사전 행사로는 '내 안의 우주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서울라이트 포럼 <유어 드림 스페이스(Your Dream Space)>가 디자인랩 2층 오픈라운지에서 개최되었다. 미디어아트, 건축, 과학 각 분야에서 우주를 그리는 전문가들의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2022 서울라이트 주제에 맞춰 2022년 임인년의 호랑이와 2023년 계묘년의 토끼를 거대한 우주인으로 선보인 빛 조형물 <2023 HIGH! FIVE!>가 12월 6일부터 DDP 아트홀 1층 A3 출입구 인근에 전시되면서 연말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다.

2022 서울라이트 DDP의 주요 행사인 대형 파사드 쇼 <DDP 우주와의 만남, 랑데-부(Rendez-Vous)>는 뉴미디어 아티스트 '엔자임(Nsyme)', 그래피티 아티스트 '범민',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의 작품이 어우러진 초대형 VFX(Visual FX, 시각적 특수효과) 작품이었다. 가상의 우주인이 DDP 우주선을 타고 경험한 다양한 우주의 모습을 '초월-순환-동심'의 순로 보여주었다. 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아(KIA)는 우주적 삶이라는 주제를 '머릿속 작은 우주공간'으로 해석하고 기아 디자인 철학을 집약해 추상화된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 <오퍼짓 유나이티드 'Opposites United'>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기간과 12월 31일에는 특별 행사도 개최되었다.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임태규 작가와 '스티키 몬스터 랩'의 유쾌하고 따스한 크리스마스 기념 특별 영상 <함께이기에 외롭지 않은 크리스마스>가 상영되었다. 다가오는 2023년에게 '헬로' 하고, '두근거림'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자는 뜻을 담은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 <HELLO 2023, Heart-Beat New Year>는 12월 31일 23시 50분에 시작되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재단은 2023년에는 신규 미디어 캔버스를 발굴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라이트의 대중성과 인지도를 제고해, 서울라이트를 서울의 대표적인 디자인 콘텐츠이자 미디어 축제로 확실히 자리 잡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과 대외 협력을 통해 발굴한 미디어 아티스트의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발굴 작가들에게는 서울라이트 2D 맵핑과 메인 행사 전시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5-2-1. 서울라이트



5-2-2. DDP 시즌 콘텐츠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공간마케팅팀 | 전시2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DDP 직영공간 운영, 야외 공간 활성화 | DDP 시민 참여 문화 행사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전시, 시민 참여 행사 네트워크 | 기관, 기업
키워드	#DDP온라인클래스 #5월은DDP키즈세상! #DDP디자인시네마 #DDP야외전시 #DDP×뮤직에피소드 #DDP디자인놀이동산 #DDP가을축제:비바뷰티

재단은 DDP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디자인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즌별로 다양한 시민참여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했다.

2021년에는 시즌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DDP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디자인과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전시는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관람 인원을 제한해 운영했으며, 오프라인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전면 중단했다가 단계별로 완화될 경우 회차별 참여 인원을 제한해 운영했다. 코로나19 감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고 동대문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야외 전시와 행사도 대외 기관과 협력해서 운영했다.

DDP 온라인클래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었던 2021년 상반기에는 시민 누구나 쉽게 접속해서 들을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선보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디자인으로 우리 생활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의식주(衣食住)로 풀어낸 'DDP 온라인클래스' 동영상 6편은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차례로 DDP 홈페이지와 유튜브 'DDP SEOUL' 채널에 무료로 공개되었으며, 전체 164,876회(2021년 11월 기준)의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2021 상반기 DDP 온라인클래스 세부 내용]

	구분	강사/참여	제목	공개 일자
1	의(衣) 업사이클링 패션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김승현 교수 조은혜, 김민주, 문성호, 민경준	1강. 열전사 필름을 활용한 의류 업사이클링 도형	2021. 4. 28.
2			2강. 열전사 필름을 활용한 의류 업사이클링 심화	2021. 4. 30.
3	식(食) 홈파티 테이블 세팅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 최은정, 한성혜	1강. 솥밥으로 홈파티	2021. 5. 5.
4			2강. 도시락으로 홈파티	2021. 5. 7.
5	주(住) 힐링 홈가든	오경아 가든 디자이너 그린썸	1강. 거실에서 즐기는 생활정원	2021. 5. 12.
6			2강. 부엌에서 즐기는 생활정원	2021. 5. 14.

5월은 DDP 키즈 세상!

'5월은 DDP 키즈 세상!'은 5월 4일과 5일 양일간 DDP 살림터(현 디자인랩) 1층 D-숲과 야외 어울림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디자인과 문화 향유 콘텐츠를 발신하고, 이를 통해 동대문 상권에 활력을 주고자 했다. 어린이 눈높이에서 '디자인'을 중심으로 문화, 건축, 디자인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DDP 야외 공간과 실내 공간을 어린이들이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운영했다. 새활용 재료를 활용한 디자이너 체험 공방, DDP 건축 투어, 어린이·가족 영화 상영 등의 행사에 2,371명이 참여했고, 행사 기간 중 DDP 방문객도 59,871명으로 증가했다.

구분	세부 사항	운영 내용 및 결과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	디자이너 체험 공방	2021. 5. 4.~5.(일 3회) 내용: 새활용 재료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디자인 제품 만들기 체험 장소: DDP 살림터 1층 D-숲 결과: 8개 프로그램, 124명 참가
	DDP 건축투어	2021. 5. 4.~5.(30분 간격 운영) 내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DDP가 자리한 동대문 일대의 역사와 DDP의 소장 가구를 둘러보는 도슨트 투어 결과: 총 33명 참가
	어린이·가족 영화 상영	2021. 5. 4.~5.(일 3회) 장소: DDP 살림터 1층 D-숲, 무료 관람 <패딩턴2>, <브래드 이발소> 상영

DDP 친환경 디자인 어린이 체험교실

'DDP 친환경 디자인 어린이 체험교실'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 기업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DDP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었다.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D-숲에서 주말 총 8일간 32회 진행되었으며,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인원수를 제한하여 총 163명이 참여했다.

[2021년 DDP 친환경 디자인 어린이 체험교실]

	일시	참여 브랜드	프로그램
1	2021. 6. 12.(토)	밀키프로젝트	휴대용 다목적 펜슬 케이스 '밀키바통' 만들기
2	2021. 6. 13.(일)	큐클리프	카드케이스+목걸이 세트
3	2021. 6. 19.(토)	렉토베르쏘	노트 만들기(지우개 도장)
4	2021. 6. 20.(일)	하이싸이클	멸종위기 동물 에코백 컬러링
5	2021. 6. 26.(토)	플레이31	스토리빌더 어드벤터 챕터 3: 기후위기
6	2021. 6. 27.(일)	새봄커뮤니티	플라스틱 다이어트
7	2021. 7. 3.(토)	이유리 작가	나만의 스탬프 패턴 새활용 파우치 만들기
8	2021. 7. 4.(일)	메리우드	나만의 나무 반려 인형 만들기

7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이후 잠시 중단되었던 시민 참여 행사는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DDP 디자인시네마'로 재개되었다. 2021년 처음 시작한 DDP 디자인시네마는 시민들이 건축, 디자인산업, 패션 등의 디자인 예술 영화를 DDP 공간에서 감상하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DDP 살림터(현 디자인랩) 3층 UDP에서 디자인 관련 영화 5편을 무료로 상영했으며,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전석이 매진되었다. 12일 오후 6시 30분 <이타미 준의 바다>, 13일 <디터 람스>, <마르지엘라>, <닥치고 피아노!>, <이브 생 로랑>이 차례로 상영되었고, 12일에는 영화 상영에 이어 <이타미 준의 바다>를 연출한 정다운 감독과 김종신 PD의 관객과의 대화(GV) 프로그램 '영화 속의 건축 디자인 이야기'도 진행되었다.

[2021년 DDP 시즌 콘텐츠]

행사명	일시	내용	결과
DDP 온라인 클래스	2021. 4. 28.~5. 14. 온라인 채널	-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제안 - 의·식·주 주제 영상 총 9편(본편 6개, 예고편 3개) 제작 및 업로드	평균 2.6만 회 조회
5월은 DDP 키즈세상!	살림터(현 디자인랩) 1층 D-숲, DDP야외	- 어린이 대상 디자인문화 콘텐츠 발신을 위한 11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가족 영화 상영: <패딩턴2>, <브래드 이발소> D-숲 내 무료 상영 - DDP 건축 투어: DDP미션탐험대 활동지 무료 배포	행사 2,371명 참여 기간 중 DDP 59,871명(일평균 14,935명) 방문
DDP 친환경 디자인 어린이 체험교실	2021. 6. 12.~7. 4. (기간 중 주말) 살림터(현 디자인랩) 1층 D-숲	-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환경 문제인식, 창의 교육 가치 발신 - 전 연령 대상 친환경 디자인 체험 교실 운영 ※서울새활용플라자 협력	8개 프로그램 운영, 총 163명 참여 ※거리두기 인원 제한
DDP 디자인시네마	2021. 11. 12.~13. 살림터(현 디자인랩) 3층 UDP	- 패션, 건축, 예술 등과 관련된 영화 상영 - 상영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 <디터 람스>, <마르지엘라>, <닥치고 피아노!>, <이브 생 로랑> - GV: 정다운 감독(<이타미 준의 바다> 연출), 김종신 PD, 곽명동 (마이데일리 영화기자)	전석 매진 총 224명 참여 ※거리두기 인원 제한





DDP 야외 전시

재단은 2021년 DDP 야외광장의 24시간 활성화를 위해 야간에도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전시를 진행했다. <밤에도 빛나는 DDP_싹> 전시는 3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어울림광장 미래로 하부에서 열렸다. DDP디자인페어 수상작인 소상공인과 청년 디자이너 16인의 협업 제품 7점과 2019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 전시 후속으로 신진 디자이너를 지원해 상품화한 비욘드 바우하우스 제품 4점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모듈 스트럭처 10개는 이후 진행되는 야외 전시에도 반복 활용하면서 '움직이는 미술관'이라는 콘셉트로 친환경 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최초의 국가대표_Berlin, Boston> 전시는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어울림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최초의 마라톤 국가대표의 유니폼과 사진 등을 전시하고 미디어아트와 마술, 현대무용,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었다. 우리나라 최초 국가대표 선수의 유니폼 디자인 변천사를 전시하면서 DDP 공간의 역사성과 스포츠 정신을 재조명하는 전시였다.

<밤에도 빛나는 DDP_시즌2>는 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 지역 문화 콘텐츠 활성화와 청년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기획되어 12월 15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운영했다.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협업해 개발한 'DDP디자인페어' 수상작 5점과 'DDP 브랜드 상품 개발' 사업의 결과물인 청년 디자이너 작품 5점으로 구성되었다. 친환경 전시 구조물인 모듈 스트럭처를 활용해 전시 기간 내 DDP 야외의 다양한 공간으로 이동 전시되어 시민들이 야외에서 쉽게 감상하며 생활 속 디자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2021 어울림광장 야외 전시]

프로그램명	일시	내용	운영 결과
밤에도 빛나는 DDP_싹	2021. 3. 8.~4. 10.	- 소상공인과 청년 디자이너의 콜라보 제품 7점, 비욘드 바우하우스 제품 4점 전시 - 모듈 스트럭처 10개 제작 및 추후 재활용	방문 364,249명 일평균 9,845명
최초의 국가대표_Berlin, Boston	전시 2021. 4. 14.~28. 공연 2021. 4. 18.~19.	- 최초의 국가대표(마라톤) 유니폼 디자인 전시 및 행사 ※베리준오 공동 주최	행사 4건 방문 138,622명 일평균 9,242명
밤에도 빛나는 DDP_시즌2	2021. 12. 15.~ 2022. 1. 26.	- 'DDP디자인페어' 수상 작품 5점 - 'DDP 브랜드 상품 개발' 청년 디자이너 작품 5점	시민 만족도 90%

대내외 협력 문화 프로그램

야외 전시와 함께 서울시 등과의 대외 협력을 통해 DDP를 시민들이 좀 더 오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추진했다. 30여 명의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150개 팀이 출연해 음악, 기악, 퍼포먼스, 전통 분야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서울365거리공연 등이 진행되어 DDP 방문객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한국문학번역원,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의 공동 주최로 DDP에서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는 문학을 통해 국내외 작가와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2021년 대내외 협력 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내용	운영 결과
마음방역차	2021. 5. 4. 15:30~16:20 2021. 5. 5. 14:00~15:00	사전 공연, 메인 공연 (대중가수 산들, 마술 퍼포먼스, 서커스) 장소: 어울림광장 ※서울시 협력	총 20회 공연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2021. 6. 12.	30여 명의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장소: 어울림광장 ※(재)하트하트오케스트라 협력	총 20회 공연
서울365 거리공연	2021. 6. 12.~7. 3.	음악, 기악, 퍼포먼스 등 거리 공연 (매주 토·일, 1일 3회 공연) 장소: 토: 1층 공원, 일: 어울림광장 ※서울시 협력	공연 18회
훈련도감 무예 재현행사	2021. 10. 2.~3.	전통무예 체험 행사 운영(온라인) 장소: 어울림광장 ※서울시 공동 주최	조회 수 7,356회
2021 서울 국제작가 축제 (온라인)	온라인 생방송 2021. 10. 8.~10.(3일간) 녹화 게시 10. 11.~24.(14일간)	개막식 및 강연(10. 8.) 영화 상영 & 작가, 감독과의 만남(10. 9.~10.) ※한국문학번역원, 서울문화재단 공동주최	실시간 4,035명 조회 수 246,143회

2021년에는 온오프라인, 실내와 실외에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DDP를 활성화 했으며, 시민 누구나 디자인과 브랜드를 체험하고 디자인 라이프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DDP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2022 시민 참여 문화 행사

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봄·가을에 정례화된 DDP만의 대표 문화 행사를 개최해 디지털 감성 문화도시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DDP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디자인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디자인의 가치를 보다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어린이날 행사와 DDP 디자인시네마를 확장해 운영하고, 기업, 아티스트와 협력해 잔디언덕, 동굴계단 등 DDP만의 특색 있는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해 공공 전시를 진행하고, 마켓, 영화 상영 등 복합 장르의 문화 행사를 기획했다.

DDP×뮤직에피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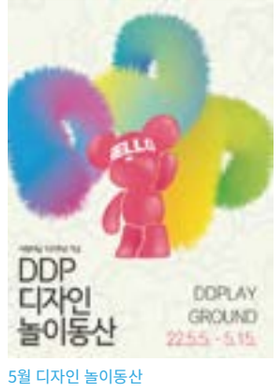
상반기에는 서울을 디지털 감성 문화도시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결합을 시도하는 DDP 뮤직에피소드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DDP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숨은 매력을 알리고자 이루마, 모니카 & 립제이, 릴체리 등 장르별 아티스트 4명(3개 팀)과 협업해 DDP의 시간, 비밀, 선이라는 주제로 총 6편의 영상(티저 영상 3편 포함)을 제작했다. 'DDP의 시간: 이루마', 'DDP의 비밀: 릴체리', 'DDP의 선: 모니카 & 립제이' 영상은 DDP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DDP개관일인 3월 21일 17시에 공개되었으며 참여 아티스트 SNS 계정에도 순차적으로 공개되었다. DDP 유튜브 채널 최초로 조회 수 13만 2천 회, 댓글 107개, 좋아요 1,211회(2022년 12월 기준)를 기록하며, DDP 공간의 매력을 시민들에게 새롭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DDP 디자인 놀이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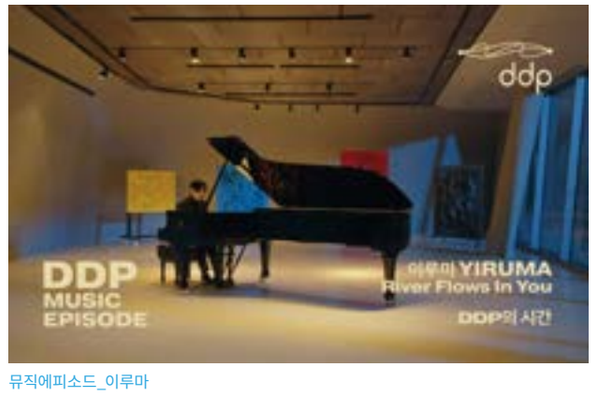
5월 가정의 달에는 <DDP 디자인 놀이동산> 행사가 5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열렸다. 위드 코로나 이후 열리는 본격적인 대면 행사로, 규모를 확장해 어울림광장, 잔디언덕, 미래로 등에서 어린이·가족 등 DDP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 DDP마켓, 시네마 & 콘서트, 어린이 체험교실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DDP 야외에서 열린 공공 전시 <SPACE in LOVE>에서는 팝 아티스트 임지빈 작가의 대형 베어벌룬 2종을 만나볼 수 있었다. 동굴계단에 설치된 LOVE베어, 어울림광장에 전시된 허깅베어는 DDP를 찾은 방문객들의 포토존 역할을 했다. DDP와 임지빈 작가가 협업해서 개발한 굿즈도 선보였으며, 야외 전시용 모듈 스트럭처를 활용해 임지빈 작가의 작품도 함께 전시했다.

잔디언덕에서는 영화 상영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 동네 음악회는 5월 14일 7시 잔디언덕에서 열렸다. 디즈니의 주요 OST 등 귀에 친숙한 곡을 연주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선사했다. 한편 어린이와 가족 대상의 애니메이션 4편과 실사 영화 2편을 무료로 상영했다. 사전 예약자 중 선착순 100명에 한해 곰표F&B의 협찬으로 '곰표 스페셜 푸드박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첫째 주에는 <씽2게더>, <보스베이비 2>, <마이펫의 이중생활 2> 등 어린이 애니메이션, 둘째 주에는 <쥬만지: 넥스트 레벨>, <신비한 동물사전 1> 등 오락 영화를 상영했고, 낮에는 핑크퐁 애니메이션 시리즈 최신작과 유명 LP바 디제잉 공연이 진행되었다.



5월 디자인 놀이동산



뮤직에피소드_이루마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종이비행기 날리기'와 '김영만 아저씨와 만드는 친환경 색종이 놀잇감' 등의 체험 프로그램은 DDP 잔디사랑방과 잔디언덕에서 열렸다. DDP 스페셜 건축 투어와 연계한 '흥인지문 만들기', 서울새활용프라자 입주 기업과 연계한 '폐자전거 활용 조명 만들기', '우유팩으로 업사이클링 카드지갑 만들기' 등 다양한 디자인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DDP 디자인 놀이동산>의 주요 행사가 열린 7일 동안 26만 명이 방문했으며, 참여자 만족도는 92.4%(422명 기준)에 달했다.

[2022년 DDP 디자인 놀이동산 운영 내용 및 결과]

기간	2022. 5. 5.(목)~5. 15.(일), 휴관일 없음
시간	오전 10시~오후 9시
장소	DDP 잔디언덕, 잔디사랑방, 어울림광장 외 DDP 야외 공간
주최·주관/ 협력	서울디자인재단 DDP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한제분㈜, 동대문관광특구협의체, 센트바이, 베베양조, GNC미디어
주요 프로그램 및 운영 결과	**야외 공공 전시 <SPACE in LOVE>** · 일시: 5. 5.(목)~5. 15.(일) · 장소: DDP 동굴계단 및 어울림광장 **잔디언덕 시네마** · 일시: 5. 5.(목)~5. 8.(일) / 5. 13.(금), 5. 15(일) 18:00부터~ · 장소: DDP 잔디언덕 · 상영 영화: <씽2게더>, <보스베이비2>, <마이펫의 이중생활2>, <쥬만지:넥스트 레벨>, <신비한 동물사전1>, <핑크퐁 애니메이션> 시리즈 · 결과: 총 6회 상영, 895명 관람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음악회'** · 일시: 5. 14.(토) · 장소: DDP 잔디언덕 · 결과: 총 317명 관람 **DDP 디자인마켓** · 일시: 5. 5.(목)~5. 8.(일) / 5. 13.(금)~5. 15.(일) 12:00~19:00 · 장소: DDP 어울림광장 미래로 하부 · 내용: 디자인 제품, 패션, F&B 등 판매 · 결과: 60개 부스, 누적 매출 130,505,250원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 일시: 5. 5.(목)~5. 15.(일) · 장소: DDP 잔디사랑방 · 결과: 총 18회, 498명 참여

DDP 가을축제: 비바뷰티

<DDP 가을축제: 비바뷰티>는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되는 '서울뷰티먼스'와 연계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어울림광장 유구전시장, 잔디언덕, 미래로, D-숲 등에서 진행되었다. 어울림광장에서는 K컬처 패션쇼, DDP플리마켓이 열렸다. K컬처 패션쇼에서는 최초로 DDP 유구전시장 주변을 런웨이 삼아 K팝 대표 아티스트가 실제 착용했던 무대 의상을 연도별로 선보였다. 서울라이트의 가을 행사인 미디어파사드 쇼와 함께 국내 대표 디자이너 지춘희의 2023 S/S 미스지 컬렉션도 공개되었다. 잔디언덕에서는 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웰니스데이'는 필라테스 클래스인 '이너뷰티 밸런스'와 댄스 클래스인 '이너뷰티 힐링' 2종류의 클래스로 진행되었으며, 기업의 협찬으로 곰표 굿즈와 젝시믹스 이벤트 상품을 증정했다. 세계적인 그래픽 아티스트 장 줄리앙(Jean Jullien)은 국내 최초로 DDP와 협업하며 작가 특유의 따뜻하고 위트 있는 조형물 2점 OTTO(오또)와 FUSION(퓨전)을 잔디언덕에 선보였다. 30일에는 장 줄리앙이 직접 DDP를 방문해 페인팅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잔디언덕 시네마 상영작으로는 영화 <라라랜드>와 <중경삼림> 2편이 선정되었으나 <중경삼림> 상영은 우천으로 취소되었다. DDP 디자인랩 1층 D-숲에서는 헬리녹스×꾸까 콜라보 전시 <CITY FLOWER CAMPING>이 열렸다. 헬리녹스 대표 캠핑 제품과 꾸까의 플라워 조경 연출이 조화를 이룬 체험형 전시로 꾸며졌으며, 플라워 클래스도 함께 진행되어 286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2022년 DDP 가을축제: 비바뷰티 운영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및 결과	일정	장소
DDP 가을축제: 비바뷰티	주최·주관: 서울디자인재단 DDP 협력: 대한제분㈜, 동대문패션관광특구협의체, GNC미디어, CJ제일제당(익사이클), SM엔터테인먼트, 미스지, 이수그룹, 헬리녹스, 꾸까, 젝시믹스, 아이즈매거진	2022. 9. 30.~10. 9.	DDP 잔디언덕, 어울림 광장, D-숲 외 DDP 야외 공간
전시	실외 장 줄리앙 야외 전시: OTTO(오또), FUSION(퓨전)	2022. 9. 30.~상시 운영	잔디언덕
	실외 DDP×운동 인플루언서 <웰니스데이>	2022. 9. 30.	
	실내 <헬리녹스×꾸까 CITY FLOWER CAMPING> 콜라보 협력전, 플라워 클래스 286명 참여	2022. 9. 30.~10. 9.	디자인랩 D-숲
서울뷰티위크	트렌드 토크콘서트, 영뷰티 콘테스트 등	2022. 9. 30.~10. 2.	디자인랩 D-숲
DDP플리마켓	플리마켓 셀러 40개, 기업 팝업 부스 3개 참여 동대문 상생마켓, 디자인제품, 패션, F&B 등 판매	2022. 10. 6.~9.	어울림광장 미래로 하부
패션쇼	K컬쳐 패션쇼 <K-POP 아티스트 및 K디자이너> 총 569석 만석	2022. 10. 7.	어울림광장 유구전시장
잔디언덕 시네마	<라라랜드> 상영, 189명 참여 *<중경삼림> 우천으로 상영 취소(10. 9.)	2022. 10. 8.	DDP 잔디언덕

재단은 DDP에서 계절별로 다채롭고 색다른 문화 행사를 선보이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과 디자인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야외인 잔디언덕에서 도심 속 피크닉 콘셉트로 문화 행사를 진행해 시민들은 코로나19 감염 걱정을 조금 덜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잔디언덕 외에도 어울림광장, 동굴계단 등 DDP의 야외 공간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디자인문화를 확산시키고, 동대문 상권과의 협업을 통해 DDP와 동대문 상권의 동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시민 참여 문화 행사가 열린 총 21일간 73만 명의 시민이 방문했으며,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92.8%가 재참여 희망 의사를 밝힐 정도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국내 최정상 브랜드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굿즈를 제작하는 등 기업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앞으로도 시즌별 키워드를 바탕으로 자체 기획한 시민 문화 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DDP 실내외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 행사로 발전시키고, 자체 행사의 브랜딩을 강화해 DDP 공간 활성화와 방문객 증가를 이끌 계획이다.



DDP 가을축제: 비바뷰티

5-2-3. DDP 디자인 마켓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공간마케팅팀 | 전시2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DDP 직영공간 운영, 야외 공간 활성화 | DDP 시민 참여 문화 행사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시민 참여 행사 네트워크 | 기관, 기업
키워드	#얼굴있는농부시장 #친환경 #ESG #플리마켓 #DDP굿즈 #동대문패션아이템

DDP 디자인마켓은 디자인을 중심으로 환경, 공정무역, 젠더, 비건, 친환경 먹거리, 반려 등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는 마켓으로 확장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지속 가능한 바른 먹거리 문화를 확산하는 <얼굴있는 농부시장>이 4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격주 토요일에 어울림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장이 서는 날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소농, 가정농, 청년농부 약 35개 팀이 참여했다.

2021년 하반기 'DDP 디자인마켓'은 '더 좋은 삶, 더 좋은 디자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어울림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마켓은 개인 디자이너와 소규모 디자인 회사의 제품 판로를 마련하고 친환경 제품과 건강한 먹거리 판매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디자인의 관점에서 바꿔 나가기 위해 기획됐다. 디자인, 환경, 사회, 식문화를 주제로 의미가 담긴 제품을 직접 디자인, 창작, 생산, 제작하는 판매자를 공개모집해 총 60여 팀이 참여했다. 분야별로는 디자이너 제품 30팀, 친환경 먹거리 20팀, 환경 및 소셜 제품 10팀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이 직접 생산하고 창작한 생활용품, 조명, 가구, 출판물, 업사이클 및 제로 웨이스트 제품과 공정무역, 비건 식품 등도 함께 선보였다. 2021년에는 주제별로 마켓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삶을 디자인으로 제안하는 커뮤니티 마켓의 역할을 수행하고 ESG의 가치를 선도하는 전문적인 마켓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편 서울시 정책과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2021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은 7월 9일부터 9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DDP 8거리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전면 취소되었다.

2022년 DDP 디자인마켓은 디자이너, 소상공인, 동대문 상인, K-뷰티 대표 기업 등이 참여하는 마켓으로 봄과 가을에 열린 DDP 문화 행사 기간에 함께 운영되었다. 차수별로 주제를 설정해 트렌드와 이슈를 결합한 마켓을 진행했으며, 기업, 디자이너와 협력해 최초로 DDP 전용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사회적 가치를 담은 캠페인과 시민 행사를 운영했다.

2022년 봄 DDP 디자인마켓은 <DDP 디자인 놀이동산> 주요 행사 기간에 DDP를 방문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특화 마켓으로 진행되었다. 마켓에서는 키즈, 패밀리 등을 키워드로 한 문구, 패브릭, 주얼리 등 엄선된 디자인 상품과 밀리오레, 서울패션허브 등 동대문패션관광특구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선정한 동대문 베스트셀링 브랜드 13개 팀의 패션 아이템을 판매했다. DDP에서 최초로 론칭한 콜라보 굿즈 3개 품목[DDP맥주, 임지빈 작가 콜라보 굿즈(자수뱃지, 타월), DDP 디퓨저]도 특별 부스를 통해 선보였다. 직접 디자인해서 생산하는 개인 디자이너와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지향 F&B 브랜드 등을 대상으로 셀러를 모집해 장터 기간 동안 총 60개 팀의 셀러가 참여했으며 7일간 총 130,505,250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뷰티, 라이프스타일, 웰니스를 키워드로 한 DDP플리마켓으로 <DDP 가을축제: 비바뷰티> 기간에 4일간 운영되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0개 팀의 디자인 셀러와 곰표, 이수그룹 등의 기업이 참여했다. 스페셜 셀러 부스인 동대문 셀렉트 숍에서는 동대문 패션 아이템을, 곰표 부스에서는 DDP×곰표 콜라보 쿠키 세트를 한정 판매해 마켓을 붐업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수그룹은 건설 폐기물인 '건물 수직보호망'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토트백을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얼킨'과 개발해 현장에서 판매했다. 총 40개 부스가 참여한 이번 마켓은 4일간 누적 매출 69,572,300원을 기록했다.

재단은 디자인산업, 트렌드 등을 반영한 디자인 특화 마켓 운영을 통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발굴하고 디자인 라이프스타일을 확산하는 동시에 동대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2021년 DDP 마켓 운영]

구분	운영 기간 및 장소	내용	운영 결과
얼굴 있는 농부시장	2021. 4. 24.~6. 26. (기간 중 5일) DDP 어울림광장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바른 먹거리 문화를 확산하는 마켓 (격주 토요일 운영)	총 5회 운영 회당 평균 35개 농가 참여 매출 약 4,500만 원
DDP 디자인마켓	2021. 11. 17.~28. (기간 중 10일) DDP 어울림광장	디자인, 환경·반려, 친환경 먹거리로 구성 ※일 5시간 개장, 22~23일 휴장	총 10회 운영 60여 팀

[2022년 DDP 디자인마켓 운영]

구분	기간	운영 내용	장소	운영 결과
DDP 디자인마켓	2022. 5. 5.~8./ 5. 13.~15.(7일간)	· 디자인 제품, 패션, F&B 등 판매 · 동대문 베스트셀링 브랜드 13개 팀 참가 · 특별 부스: DDP 콜라보 굿즈 3개 품목 10종 판매	어울림광장 미래로 하부	60개 부스 64개 브랜드 참여 누적 매출 130,505,250원
DDP 플리마켓	2022. 10. 6.~9. (4일간)	디자인, 환경·반려, 친환경 먹거리로 구성 ※일 5시간 개장, 22~23일 휴장		40개 부스 55개 브랜드 참여 누적 매출 69,572,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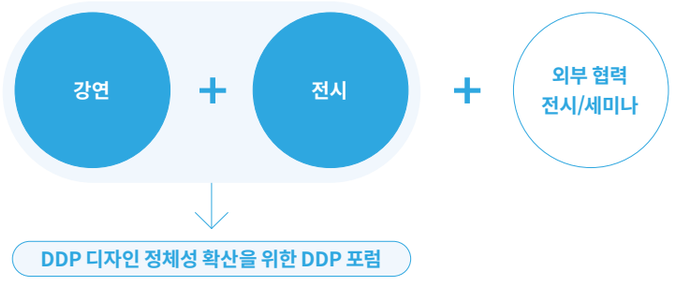


5-2-4. DDP 포럼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 공간마케팅팀, 전시1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디자이너 협력 프로그램 운영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DDP 포럼, 전시 디자인문화 확산 | 정보 | 인물, 포럼/세미나
키워드	#DDP포럼 #디자인&디자이너전시 #디자인랩

서울디자인재단은 국내외 최정상 디자이너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연과 대담 형식의 DDP 포럼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 디자인 영감과 지식을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 DDP의 정체성을 확산하고 디자인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5년 12월 처음 시작한 DDP 포럼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전문가와 '디자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긍정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재단 내에서 유사한 형태로 각각 운영되던 포럼을 진행 중인 전시, 행사와 연계해 개최하는 방식으로 'DDP 포럼'으로 통합 운영해, 시민들이 포럼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접하면서 디자인 트렌드를 습득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DDP 포럼 운영 전략]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한동안 운영이 중단되었던 DDP 포럼은 4월 22일 <케이팝×한복>전과 연계한 '신한류 이끄는 두 주역, 케이팝과 한복이 만나다'로 물꼬를 텄다가 2021년 6월부터 정식 재개되었다. 24번째 DDP 포럼의 주제는 '그림책과 글자와 디자인'으로 '폰티그램'의 대가 마리 쿠테와 이기섭 디자이너, 백희나 작가가 강연자로 나섰다. 마리 쿠테는 '알파벳으로 그리는 그림'을 주제로 '마리쿠테 알파벳 탐험전'에 관한 이야기와 작품관을 들려주었으며, 이기섭 디자이너와 백희나 작가는 '달 샤베트' '어제 저녁' '삐약이 엄마' 등을 함께 작업하며 한 편의 이야기로 그림책을 만들어간 과정을 디자이너와 작가의 관점에서 소개했다. DDP 포럼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8월부터 12월까지 100%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운영되었다. 8월 19일 '코로나 시대 리테일 공간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심영규 PD가 진행자로, 김수민 로컬스티치 대표, 유정수 글로우서울 대표, 최원석 필라멘트앤코 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김수민 대표는 '크리에이티브 브랜드의 시대'를 주제로 서울 홍대와 강남 일대에서 도시 크레이터의 생활공간을 만든 사례, 글로우서울 유정수 대표는 '살아남는 리테일의 비밀'을 주제로 종로구 익선동과 대전시 소제동의 빌리지형 리테일 공간 조성 사례, 최원석 대표는 코로나 시대에 대안으로 주목받는 팝업 스토어 플랫폼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26번째 DDP 포럼은 <집의 대화: 조병수×최욱> 전시와 연계해서 진행되었다. '자연과 만나는 땅으로의 집'을 주제로 한 조병수 건축가의 강연, '땅, 터, 삶'을 주제로 한 최욱 건축가의 강연 이후 두 건축가의 대담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전시를 통해 다 보여주지 못한 집에 대한 두 건축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팬덤을 만드는 브랜딩'을 주제로 한 27번째 DDP 포럼은 디자인프레스 김만나 편집장이 모더레이터를 맡았으며, '곰표 컬래버레이션'을 주도한 김익규 대한제분 마케팅본부 본부장, 성수동 '피치스 도원'을 만든 여인택 피치스그룹코리아 대표, '배달의민족'의 브랜드와 크리에이티브를 총괄하는 한명수 우아한형제들 CCO 등 고객 팬덤층을 형성하는 데 성공한 브랜드의 주역을 한자리에 모아 진행했다.

<생각을 만드는 디자인> 전시와 연계한 DDP 포럼 '생각을 만드는 디자인'은 D-숲에서 11월 11일에 열렸으며 DD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첫 번째 세션에는 한국인 최초의 IDEO 콘셉트 디자이너였던 데이라이트 성정기 디렉터가 '생각을 현실로'라는 제목으로 좋은 제품 디자인을 하기 위해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사고방식과 태도에 대해 강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물의 본질에 집중해 '쓸모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온 로우로우의 이의현 대표가 강연을 펼쳤다. 가방, 신발, 안경 등 그간 수많은 베스트셀러 제품을 만들며 직접 체득한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라이트와 연계한 29번째 DDP 포럼은 '메타버스와 몸, 그리고 뇌'를 주제로 12월 18일 토요일 1시에 열렸다. 2021 서울라이트 메인 작가 박제성,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안무가 차진엽이 참여해 메타버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으며 온라인 DDP 포럼 사상 최다인 16,547명이 시청했다. 2021년에는 DDP 포럼을 총 6회 개최해 온오프라인으로 3만 5천 명이 관람했으며 관람객 만족도는 92.9점을 나타냈다.


코로나 시대 리테일 공간의 미래


팬덤을 만드는 브랜딩

[2021-2022 DDP 포럼]

행사명	일시	내용	연계 전시/행사
신한류 이끄는 두 주역, 케이팝과 한복이 만나다	2021. 4. 22.	- 케이팝 스타의 무대 의상을 제작한 '단하주단'과 '리을'의 한복과 디자인에 관한 생각과 이야기 나눔 - 김단하 디자이너(단하주단), 김리을 디자이너(리을) 발제 - 총 35명 참여 ※ 코로나로 인원 제한	<케이팝×한복>
#24 그림책과 글자와 디자인	2021. 6. 24.	- 그림이 된 알파벳 이야기와 하나의 이야기가 그림책이 되는 과정 소개 - 마리 쿠테, 백희나 작가, 이기섭 대표 - 총 108명 참여/ 만족도 90.9점 ※ 코로나로 인원 제한	<마리쿠테 알파벳 탐험전>
#25 코로나시대 리테일 공간의 미래	2021. 8. 19.	- 생활권을 중심으로 변동되는 리테일 상권에 관한 이야기 - 김수민(로컬스티치), 유정수(글로우서울), 최원석(프로젝트렌트) - 총 1,915명 시청/ 만족도 93.3점	-
#26 집의 대화: 조병수×최욱	2021. 9. 17.	- 한국을 대표하는 두 건축가의 집에 대한 담론 - 조병수 건축가, 최욱 건축가 - 총 3,314명 시청/ 만족도 95.2점 ※ 온라인 녹화 진행	<집의 대화: 조병수×최욱>
#27 팬덤을 만드는 브랜딩	2021. 10. 28.	- 자기만의 페르소나를 완성하며 팬덤을 만드는 브랜드의 노하우 공개 - 김익규(대한제분), 여인택(피치스그룹 코리아), 한명수(우아한형제들) - 총 6,727명 시청/ 만족도 90.3점	
#28 생각을 만드는 디자인	2021. 9. 17.	-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며 생각을 제품화시키는 과정 노하우 소개 - 성정기(데이라이트), 이의현(로우로우) - 총 7,908명 시청/ 만족도 90.8점	<생각을 만드는 디자인>
#29 예술이 바라본 메타버스와 AI, 새로운 몸과 뇌	2021. 10. 28.	- 메타버스와 몸, 뇌를 주제로 연결고리를 찾아 메타버스에 대한 융합적 통찰 제시 - 박제성 2021 서울라이트 작가 정재승 교수(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차진엽 감독(콜렉티브a) - 총 16,547명 시청/ 만족도 92.2점	서울라이트
#30 집의 시간, 진화하는 인테리어 키워드 3	2021. 9. 17.	-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최근 리빙 인테리어의 진화 방식 - 모더레이터: 정성갑(갤러리 클립 대표) - 구병준(챕터원 대표), 구만재(르씨지엠 대표), 구창민(샐러드보울 스튜디오 디렉터) -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AqH58N_5cM	<스펙트럼 오브 시팅 (Spectrum of Seating)>
#31 나는 가치를 입는다	2021. 10. 28.	- 패션을 키워드로 국내 기업과 브랜드의 '지속 가능 패션' 실현 이야기 - 모더레이터: 정성갑(갤러리 클립 대표) - 연사: 한경애(코오롱인터스트리 FnC부문 CSO) 이제우(효성TNC㈜ 섬유PG 섬유마케팅 팀장) 최이현㈜모어댄 대표) -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vi-L8TKos&t=3013s	<DDP, Fashion and You>
#32 OPPOSITES UNITED	2021. 9. 17.	- 연사: 카림 하비브(기아디자인센터장) - 모더레이터: 유현준(건축가) ※ 기아 디자인 철학 전시 연계 - 사전 신청 300명 -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I12hy0u0-A	<Opposites United>
#33 <타이포그래피, 오늘>	2022. 12. 21.	- 타이포그래피가 확장하고 확산하는 최근의 양태 - 진행: 김기창(로호타입 대표) - 연사: 김성구(디자이너), 박우혁(진달래 & 박우혁), 최치영(윤디자인그룹 엉뚱상상) -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4PEjjBLERTI	<진달래 & 박우혁: 코스모스>

2022년 DDP 포럼은 '디자인 & 디자이너 참여 전시'와 연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뷰티 등 시의성을 고려해 주제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최정상 디자이너와 전문가를 연사로 섭외해 디자인에 대한 식견을 나누는 포럼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2022에는 '디자인 & 디자이너 참여 전시' 연계 포럼 3회, 기아디자인 철학 관련 포럼 1회, 총 4회의 DDP 포럼이 DDP 디자인랩 2층 오픈라운지에서 열렸다.

첫 번째 DDP 포럼은 <스펙트럼 오브 시팅(Spectrum of Seating)> 전시와 연계해 9월 1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집의 시간, 진화하는 인테리어 키워드 3'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갤러리 클립의 정성갑 대표가 진행을 맡았으며, 연사로는 전시에 큐레이터로 참여한 챕터원 구병준 대표, 르씨지엠 구만재 대표, 샐러드보울 구창민 대표가 함께해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를 소개했다.

<DDP, Fashion and You>전과 연계한 DDP 포럼은 10월 13일 '나는 가치를 입는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회자는 갤러리 클립의 정성갑 대표가, 연사로는 한경애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CSO, 최이현 ㈜모어댄 대표, 이제우 효성TNC㈜ 섬유PG 섬유마케팅팀 팀장이 함께해 '지속 가능한 패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착순 100명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토론회는 당일 DDP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세 번째 DDP 포럼은 기아 디자인 철학 전시와 연계해 'OPPOSITES UNITED'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아디자인센터장인 카림 하비브(Karim Habib)가 연사로 참여했다. 모더레이터는 건축가 유현준이 담당했으며, DDP 디자인랩 3층 디자인홀에서 11월 17일 진행되었다.

2022년 마지막 DDP 포럼은 <진달래 & 박우혁: 코스모스>전과 연계해 <타이포그래피, 오늘>을 주제로 열렸다. 김기창 로호타입 대표가 진행을 맡고 박우혁 디자이너 외에도 김성구 디자이너, 최치영 디렉터가 연사로 참여해 레터링과 그래픽 작업을 통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사례, 타이포그래피를 통한 기업 브랜딩 사례 등을 들려주었다.

재단은 DDP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디자인 지식 교류의 플랫폼으로서 DDP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디자인 관련 지식을 확산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집의 시간, 진화하는 인테리어 키워드 3


OPPOSITES UNITED

5-2-5. DDP 투어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뮤지엄팀 | 전시2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디자인뮤지엄 기획전시 | 투어 프로그램 개발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시민 참여 행사 네트워크 | 기업 디자인 공공성 강화 | 교육 | 어린이/청소년, 시민, 전문가/기관
키워드	#DDP건축투어 #DDP투어 #건축모형만들기 #투어데스크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DDP 시설을 이용한 콘텐츠를 개발해 DDP 건축물의 우수성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세계적 랜드마크 건축물인 DDP와 동대문 지역의 역사를 연계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다.

2021년 DDP 건축 투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정기적으로 운영되었다. 자유투어는 잠정 중단되었고 해설가가 안내하는 가이드 투어만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로 진행되었다. 소요 시간은 약 60분으로 이내로 참가비는 개인 기준 8,000원이었다. 가이드 투어도 2021년 1~4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전면 중단되었다가, 5월에는 시민 요청으로 2회, 6월에는 19회 진행되었다.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면서 재단은 건축 투어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 한 해 동안 총 249명이 DDP 투어에 참여했다.

[2021년 DDP 건축투어 구성]

구분	대상	금액
개인	일반	8,000원
	청소년(초, 중, 고)	6,000원
단체 (20명 이상)	일반	7,000원
	청소년(초, 중, 고)	5,000원

2022년에는 팬데믹 시간에 비정기적으로 운영되었던 투어 프로그램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현 투어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와 콘텐츠를 보완해 완성도를 높이고 연령별, 그룹별로 차별화된 투어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상반기에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어데스크를 재정비하는 등 투어 정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건축, 역사, 가구 등 건축 투어에 포함되는 콘텐츠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기존의 해설을 보완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DDP 시민 참여 문화 행사와 연계해 '어린이 투어'를 시범 운영했으며 총 78명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는 대상별 신규 투어 개발에 집중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 개발을 통해 투어에 대한 흥미도를 높임과 동시에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했다. 개인 고객 외에도 재단과 MOU를 체결한 기아디자인센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페셜 건축 강연 및 투어, DDP 전시 관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기획해 투어 운영 이래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7월에는 기존에 유료로 운영되던 투어를 전격 무료화하면서 투어 참여자 수가 폭증하기도 했다. DDP 투어의 목표를 수익 창출이 아닌 시민 대상으로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수정해 많은 사람이 DDP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DDP 건축물을 모티브로 한 'DDP 건축 모형 만들기 키트'를 개발해 5월 시범 운영했던 어린이 투어를 정규 투어로 전환하고 '투어+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키트를 포함한 워크숍 투어 참가비는 15,000원이다.

2022년 DDP 투어 참여자 수는 투어 무료화, 기업 투어 유치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3배가량 증가한 4,286명이었다.

[2022년 DDP 투어 구성]

운영 일정	수~일 상시 운영 ※매주 월-화, 설·추석 당일 휴무	
운영 시간	10:30, 13:30, 15:30 일 3회 ※회차별 60분 투어	
운영 장소	DDP 뮤지엄 1층 투어데스크	
관람비	무료	DDP 건축 투어 60분
	유료	투어 교육지 1장당 1,000원(현장 구매) - 청소년 대상 활동지, 어린이 대상 미션지(2종 중 택1) ※ 사전 다운로드 후 출력물 지참 시 무료 참여 가능 어린이 투어 15,000원 건축투어 30분 + DDP 건축 모형 만들기 30분
해설 언어	한국어, 영어	
참여 방법	사전 예약	[예약 바로가기]※ 외국어(영어)의 경우 유선 문의
	현장 참여	DDP 뮤지엄 1층 내 투어데스크 문의 ※ 회차별 잔여 인원이 있을 경우 가능

DDP 건축 투어
활동지 다운로드

DDP 건축 투어
미션지 다운로드

2023년에는 2022년의 투어 프로그램 개편과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방문객들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게 투어 종류를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DDP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시스템 구축하고, 개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주제별 맞춤형 투어 코스도 개발한다.





5-2-6. 서울 디자인 어워드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R&D센터 대외협력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디자인지식확산 | DDP디자인어워드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전시, 어워드, 시민 참여 행사 네트워크 | 도시, 기관 디자인 공공성 강화 | 정보 | 출판, 포럼/세미나
키워드	#서울디자인어워드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HCDA #대학생디자인워크숍

'서울디자인어워드'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복합적인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과 사람, 사회, 환경, 자연과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는데 선한 영향력을 불어넣은 디자이너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국제 디자인상이다. 2019년 '제1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를 시작으로 제3회까지 같은 이름으로 개최되었고, 지난 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2022년 10월 '서울디자인어워드'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1년에는 제2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심사와 시상식,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공모를, 2022년에는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심사와 시상식, 서울디자인어워드로의 개편 준비와 공표식, 컨퍼런스, 전시 등 많은 일정이 진행되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도시 삶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세계의 우수 디자인 프로젝트를 한데 모아 선별하고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 어워드를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어워드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세계 각국에 어워드를 홍보하기 위해 대륙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디자인어워드로의 도약과 함께 이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대륙별로 고르게 28명의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다.

[서울디자인어워드 자문위원회]

구분	이름	지역	분야
아시아(3)	마크 위 Mark Wee	싱가포르	디자인
	에리코 에사카 Eriko Esaka	일본	디자인
	세르탁 에르사잉 Sertaç Ersayın	튀르키예	디자인
유럽(3)	안드레아 칸첼라토 Andrea Cancellato	이탈리아	문화
	조시앙 프랑 Josyane Franc	프랑스	디자인
	유카 사보라이넨 Jukka Savolainen	핀란드	전시
아메리카(2)	아냐 시로타 Anya Sirota	미국	건축
	페르난도 마스카로 Fernando Mascaro	브라질	디자인
오세아니아(1)	투바 코자투르크 Tuba Kocaturk	호주	디자인
아프리카(1)	리차드 페레즈 Richard Perez	남아프리카공화국	건축
국내(3)	나건	한국	디자인
	김상균	한국	디지털
	김현선	한국	디자인

[서울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회]

구분	이름	지역	분야
아시아(3)	루 샤오보 Lu Xiaobo	중국	정보디자인
	가즈오 다나카 Kazuo Tanaka	일본	산업디자인
	아마드 부카쉬 Ahmad Bukhash	아랍에미레이트	건축디자인
유럽(4)	도미니크 시얀마 Dominique Sciamma	프랑스	인터렉션 디자인
	세브라 데비스 Sevra Davis	영국	디자인
	에치오 만지니 Ezio Manzini	이탈리아	지속 가능 디자인
	비르짓 로만 Birgit Lohmann	이탈리아	산업디자인
아메리카(3)	패트리샤 무어 Patricia Moore	미국	유니버셜디자인
	마리아나 아마출로 Mariana Amatullo	미국	디자인
	파올로 베르고미 Paolo I. G. Bergomi	아르헨티나	공공디자인
오세아니아(1)	수잔 카터 Suzanne Cotter	호주	큐레이터
아프리카(1)	히상 라루 Hicham Lahlou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공디자인
국내(3)	이건표	한국	인간중심 디자인
	이돈태	한국	제품 디자인
	한경애	한국	지속 가능 패션디자인

제2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제2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는 세계 31개국에서 99개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었으며,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0개의 파이널리스트(Finalist) 프로젝트와 대상을 선정했다. 2회 대상으로는 이탈리아 팜 컬처럴 파크(Farm Cultural Park)의 '카운트리스 시티즈(Countless Cities)'가 최종 선정되어 상금 1억 원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021년 3월 8일 DDP 살림터(현 디자인랩) 1층 D-숲에서 진행되었다. 현장에는 시상자, 수상자 등 34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는 어워드 접수자, 운영위원, 심사위원 등 남아공, 미국, 브라질, 싱가포르, 이탈리아, 일본, 중국, 태국, 프랑스 등 24개 국가 197명이 함께했다. 대상을 포함한 10개의 파이널리스트 프로젝트 전시는 2021년 3월 8일부터 4월 21일 D-숲에서 열렸으며, 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상설로 전시하여 시민들이 수상작을 접할 수 있게 했다. 어워드와 제2회 수상작을 알리기 위한 사후 홍보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3월 21일에는 JTBC 다큐멘터리 <다큐플러스>에 '디자인 행복 도시를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1회와 2회 대상 사례와 국내 사례가 50분간 방송되었다. 6월 15일에는 'EBS 지식채널e'에 '마을을 키우는 예술 농장(부제: 마을을 변화시키는 디자인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팜 컬처럴 파크'가 소개되었다.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에서는 도시, 공간, 환경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던 공모 분야를 디자인 전 분야로 확장하고, 특별상으로 서울 시정과 연계한 안전·안심상과 대상 후보 10개 팀 중 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시민상을 신규로 제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상금으로, 2019년과 2020년에는 대상 1팀에게만 상금 1억 원이 수여되었지만 수상 기회 확대를 위해 대상 상금을 5천만 원으로 조정하고, 대상 후보에 해당하는 어너러블멘션 9개 팀과 특별상(시민상, 안전·안심상) 각 1팀에 5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2021년 9월 1일 접수를 시작해 10월 31일 마감한 결과 전 세계 22개국(대표 디자이너 국적 기준)에서 100개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었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9개국(32개 프로젝트)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아시아가 8개국(54개 프로젝트), 아메리카에서는 4개국(13개 프로젝트), 오세아니아에서는 1개국(1개 프로젝트)이 참여했다. 대표 디자이너의 국적은 대한민국 29명, 터키 13명, 인도네시아 8명, 브라질 7명, 중국 7명, 이탈리아 6명 순이었다.

2021년 11월부터 3회에 걸친 엄격한 서류 심사와 인터뷰, 시민상 투표 과정을 거쳐 대상은 인시튜 프로젝트(Insitu Project)가 중국 덩펑시 저우산 마을에서 실행한 '꿈의 집(House of Dreams)', 시민상은 이유에스플러스건축(EUS+Architects)의 '우주로1216(OOZOORO1216)', 안전·안심상은 코액터스(CO:ACTUS)와 SK텔레콤(SK TELECOM)의 '고요한 택시(Goyohan Taxi)'에게 돌아갔다.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시상식은 DDP 개관 8주년인 2022년 3월 21일 오후 6시, DDP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해 영어와 한국어로 생중계되었다. 현장에는 재단 이경돈 대표, 이순종 운영위원장, 이충기 부위원장, 이길형 운영위원이 자리했으며 세계 각국의 어너러블멘션과 안전·안심상 수상자, 5명의 심사위원, 운영위원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주한 브라질, 중국, 프랑스, 일본, 멕시코, 스페인, 터키 대사관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속해 각국의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전시는 시민상 투표를 위한 사전 전시로 진행되어 2월 15일 시작해 9월 28일까지 열렸다. 전시 기간 중인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된 시민상 투표에는 전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총 1,241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1회와 2회에 이어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단행본도 제작해 국내외 수상자, 운영·심사위원, 협력 기관, 자문위원, 대사관 등 총 135곳에 배포했다.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대상 수상작 (꿈의 집)

제3회 휴먼시티
디자인어워드
단행본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시상식

서울디자인어워드

재단은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종료 이후 리서치, 워크숍,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디자인어워드 브랜드 개발 과정을 거쳐 2022년 10월부로 '서울디자인어워드'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속 가능한 일상을 위한 전 세계의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디자인어워드의 규모와 시상 분야를 한층 확대하고, 선정된 우수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 더욱 널리 공유해 지구상에 디자인의 가치를 알리는 선한 영향력의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계획이다. 그 첫 행사로 2022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서울디자인어워드 컨퍼런스가 '변화하는 일상, 디자인으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서울디자인어워드 2023'이 공표되었다. 일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디자인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 세계 성공 사례를 공유한 컨퍼런스와 함께 '디자인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계'를 주제로 한 전시도 D-숲에서 진행되었다. 서울디자인어워드 공모작 접수는 2023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서울디자인어워드 홍보를 강화해 디자인어워드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제고하고 서울디자인어워드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DDP의 위상을 해외에 알리는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개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디자인어워드
웹사이트



서울디자인어워드 컨퍼런스



서울디자인어워드 전시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서울디자인어워드
공모전	**개요** 주제: 사람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디자인 핵심 가치: 지속 가능성, 공공/공유, 참여/협력, 창의/혁신, 영향력 공모 분야: 제품, 시각, 디지털·멀티미디어, 공간·시스템, 서비스·경험·소셜 공모 대상: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람과 환경, 사람과 자연이 더욱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에 기여한 5년 이내로 실현된 디자인 프로젝트 제출 자격: 디자인 관련 전공·경력을 보유한 개인 혹은 단체 **시상** 대상 1팀 (5천만 원), 어너러블멘션(Honorable Mention) 10팀 (각 5백만 원), 특별상(안전·안심상, 시민상 각 1팀, 5백만 원) **일정** 공고: 2021. 7. 29.~10. 31. 접수: 2021. 9. 1.~10. 31. 심사: 2021. 11.~2022. 2. 전시: 2022. 2. 15.~4. 29. 시민상 투표: 2022. 2. 15.~3. 6. 시상식: 2022. 3. 21.	**개요** 주제: 사람과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일상을 위한 디자인 핵심 가치: 공유/공공, 창의/혁신, 참여, 협력, 영감, 영향력, 지속 가능성 공모 분야: 모든 디자인(제품, 시각, 디지털/멀티미디어, 공간/시스템, 서비스/경험/소셜 등) 제출 자격: 디자이너(기획자)(단, 기획자는 디자이너와 공동 접수 가능, 단독 접수 불가) **시상** 1등 Grand Prize 1팀 5천만 원 2등 Best of the Best 3팀 각 1천 5백만 원 [창의/혁신상] 'Creativeness/Innovation Prize' [참여/협력상] 'Participation/Cooperation Prize' [영감/영향력상] 'Inspiration/Impact Prize' 3등 Honorable Mention(우수상) 7팀 각 5백만 원 4등 파이널리스트 10팀 이상 특별상: 총 4팀, 각 5백만 원 [시민상(국내 1팀, 해외 1팀), 리서치상 1팀, 올해의 이슈상(디지털) 1팀] **일정(예정)** 접수 기간: 2023. 3. 14.~6. 28. 심사: 2023. 7.~9. 시상: 2023. 10.~11. 예정
행사	**시상식** 일시: 2022. 3. 21.(월) 18:00~18:40 장소: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국·영문 채널 별도 운영) 및 줌, DDP 서울-온 화상 스튜디오 줌: 수상자, 심사/운영위원, 수상국 대사관 외 8개국 총 54인 참석 현장: 재단 대표이사 및 국내 운영위원 총4인 참석 유튜브: 영문 655회, 국문 862회(2022. 5. 30.기준) **전시** 기간: 2022. 2. 15.~9. 27. 장소: DDP 디자인랩 D-숲 및 갤러리문 (6. 10~7. 4.) **단행본** 300부 제작, 총 135곳 배포(국내 91곳, 해외 44곳)	**컨퍼런스 & 공표식** 일시: 1일차 - 2022. 10. 24.(월) 14:00~17:00 2일차 - 2022. 10. 25.(화) 14:00~16:00 장소: DDP 서울-온 화상 스튜디오, 서울디자인어워드 홈페이지 주제: 변화하는 일상, 디자인으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대상: 전 세계 디자이너, 시민, 협력 기관 등 언어: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 제공 **전시** 일시: 2022. 10. 24.~11. 28. 10:00~20:00 장소: DDP 디자인랩 1층 D-숲 주제: 디자인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계 대상: 무료 관람





주요 성과

전시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자체 기획전시를 확대해 서울시 공립 1종 디자인뮤지엄으로서의 전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시대 디자인 트렌드의 발신지로서의 DDP 역할을 확립해 나갈 수 있었다.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도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다양한 전시 추진 과정을 통해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하며 지속적인 콘텐츠 협력과 개발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전시 기획과 아카이빙 계획을 수립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시를 기획·운영하고, DDP의 미래 10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서울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을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기획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

DDP는 2014년 개관 이래 코로나19 발발 전까지 6년간 총 5,384만 명, 연간 평균 897만 명이 방문하고 연평균 115건 이상의 콘텐츠가 운영되는 디자인문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고유 콘텐츠 개발·육성 등 DDP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DDP 방문객은 7,392,372명으로 전년 대비 10.0%가 증가했다. 위드 코로나를 맞이한 2022년 연간 방문객은 2021년과 비슷한 7,390,789명을 유지하며 팬데믹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복합 문화공간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구축하며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 온 재단은 디자인, 패션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진 DDP를 K-컬처(뷰티, 패션 등) 클러스터의 핵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계획이다.

	2021	2022
방문객	739만 명 방문 일평균 20,253명 2021년 DDP 방문객 7,392,372명 ※전년 대비 방문객 10.0% 증가	739만 명 방문 일평균 27,021명 2022년 DDP 방문객 7,390,789명
콘텐츠 운영	44건 자체 기획 10건, 대관 유치 34건 ※ 코로나-19로 대관 예정 전시·행사 28건 취소	80건 자체 기획 31건, 대관 유치 49건 자체 기획 31건, 대관 유치 49건
시민 소통	홍보 마케팅 10,673건 기사 게재 등 DDP 투어 총 249명 참여 ※ 코로나19로 투어 운영 중단 (1~6월)	홍보 마케팅 15,906건 기사 게재 등 DDP 투어 총 4,286명 참여 (7월 전면 무료화)
주변 상권 활성화	- 서울라이트 봄('21. 3. 26.~4. 1.): DDP 내방객 전년 대비 100% 증가, 주변 상권 협업(대형 건물 4개 소등)	- DDP디자인마켓(봄): 동대문 13개 브랜드 참여, 방문객 26만 명 - 동대문관광특구 상권 협의체: 총 17개 협회

6
소통

사업 구분

| 서울시
| 서울디자인재단

주요 배경

6-1. 연구

| 6-1-1. 디자인 연구
| 6-1-2. 매거진 라이브러리
| 6-1-3. 디자이너 아카이빙
|| 6-1-4. 서울디자인자산

6-2. 교육

| 6-2-1. 미래세대 디자인교육
| 6-2-2. 새활용 교육

6-3. 네트워크

| 6-3-1. 글로벌 네트워크
| 6-3-2. DDP멤버십

주요 성과

주요 배경

연구

2021년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환기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디자인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2017년 수립한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해인 동시에, 2021년 4월 7일 제38대 서울시장이 취임함에 따라 서울 디자인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비전을 구상할 필요가 있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서울비전 2030' 연구에 착수했으며, 6개의 분과 중 디자인은 '글로벌 도시경쟁력' 분과에 포함되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생활 환경과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 환경도 급변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코로나19가 디자인 업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64.5%가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응답했다(2020). DDP 개관 8년 차를 맞으면서 재단과 DDP의 운영 방향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되었다. 재단 조직 내부적으로는 체계적인 연구 실행과 관련 DB 구축, 아카이빙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 2021년 1월 조직 개편으로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R&D센터 내 디자인연구팀이 신설되고,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2022년에는 디자인전략팀으로 신설 및 개편되면서 디자인사업 연구개발, 미래세대 디자인교육, 디자이너 아카이빙, 출판 등 연구 기반의 디자인R&D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력 격차와 돌봄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비대면 시대를 맞아 IT 기술 활용과 같은 교육 운영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생겼다. 교육부(K-에듀통합 플랫폼), 서울시(서울런) 등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전 세대 대상의 '클래스101', 영유아·어린이 대상의 '자란다' 등 민간 영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교육 콘텐츠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바뀐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질 높은 디자인교육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재단 내부에서는 2019년부터 '서울디자인교육'이라는 화두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생애주기디자인교육TF' 운영을 통해 2020년 발표한 '생애주기 디자인교육 종합 구상 연구' 결과에 따라 '나를 빛내고 삶을 가꾸는 디자인교육'이 재단 디자인교육의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2021년 1월 디자인R&D센터 내 디자인교육팀이 생기면서 디자인교육 사업의 방향은 정기적인 디자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채널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디자인교육 생태계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고, 어린이, 청소년, 가족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디자인교육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재단은 서울시가 2010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디자인분과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정례 회의와 디자인분과 회의에 참여하며 세계의 디자인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2019년부터 재단이 국제 어워드인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를 개최하기 시작하면서 그간 탄탄하게 유지해 온 도시 간 네트워크가 빛을 발했으며, 이후에는 어워드 홍보 활동과 연계해 폭넓은 국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DDP멤버십은 혜택을 강화하고 재정비한 뒤 재개해 디자인 분야 학생, 전문가 등이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DDP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6-1. 연구

6-1-1. 디자인 연구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R&D센터 디자인연구팀, 디자인전략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디자인사업연구개발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DDP포럼 디자인 공공성 강화 | 연구 | 기반, 정책, 정보 | 출판
키워드	#4개년계획 #서울디자인서베이 #서울디자인백서 #분류 체계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 디자인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 시민 대상으로 디자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연구 과제를 추진했다. 2021년에는 서울의 디자인정책 현황과 디자인 자원을 체계화하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디자인정책과(현 디자인정책담당관)와 재단 디자인R&D센터 디자인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했다.

먼저 미래 환경과 조직의 역할 변화에 따른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 연구진을 구성해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 연구를 진행했다.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2017-2021)」이 만료되는 시점에 향후 4년의 서울시 디자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을 도출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제안하는 내용의 연구였다. 연구 범위는 서울시 디자인정책 현황 조사, 선행 연구 조사, 시민 디자인 수요 조사, 정책 및 사업 발굴, 제도 정비 및 평가 방안 도출 등이었다. 연구 과정에서 재단, 서울시, 자치구, 현업 디자이너 등 정책 수행 주체와 직·간접 이해관계자와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며 수많은 의견을 수렴했다. 2021년 11월 24일에는 DDP포럼과 연계해 '미래기술×디자인=새로운 일상' 주제의 디자인 토크를 UDP에서 개최하며 연구 내용을 확산하고자 했다. 책임 연구원인 최민영 교수가 진행을 맡고 기술과 디자인의 접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시와 사회의 이슈 속에서 미래 디자인의 역할'을 제시했다.







'2021 서울디자인서베이'는 서울시와 재단이 추진하는 디자인사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사 기반의 연구이다. 연구를 통해 2018~2021년 서울 디자인정책 현황 분석과 평가, 국내외 사회 이슈와 공공 분야 디자인 트렌드 조사, 서울시·서울디자인재단·25개 자치구 소관 디자인정책 운영 체계와 디자인사업 현황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진행했다. 「서울시 디자인 정책 과제 및 DDP 핵심 사업 발굴」 연구는 서울시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와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디자인산업·문화 핵심 인프라로서의 DDP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서울시와 재단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과제 발굴 워크숍을 2회 진행하고 서울시와 재단의 역할을 기준으로 구분해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연구 보고서는 3개의 연구를 하나로 합쳐 통합본과 요약본으로 발간되었다.

[2021년 서울디자인재단 연구]

연구명	연구 기간	기관/기업	연구 내용
2021 서울디자인 서베이 연구	2021. 4. 19. ~7. 3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최민영 교수)	· 2018-2021 디자인정책 현황 분석 및 평가 · 디자인정책 현황 분석, 사례 조사 ·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정책 수립 연구	2021. 4. 14. ~8. 31.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최정민 교수)	· 디자인 자원 조사 및 현황 분석 · 서울시 디자인정책 제안 · 제도 정비 및 평가 방안 도출
서울시 디자인정책 과제 및 DDP 핵심 사업 발굴 연구	2021. 5. 28. ~9. 30.	㈜사이픽스 (책임연구원: 이경미 대표)	· 정책 수립 연구 결과 리뷰 · 주요 정책별 세부 과제 및 실행 사업, 신규 사업, 기존 사업 수정·통합, 개선안 제시 ·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제시

2022년에도 재단은 서울 디자인정책의 방향성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와 전략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2022년 4월에서 7월까지는 「디자인 사업 분류 체계 수립」 연구를 진행해 재단 디자인 사업 분류 체계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새로운 분류 체계 모형을 개발했다. 연구는 재단 디자인 사업의 체계적인 분류 체계를 수립해 아카이브의 기준을 마련하고 재단 신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근거이자 향후 미래 사업 기획과 중장기 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목

표로 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 디자인사업 정보 아카이빙을 통해 사업의 분석과 진단, 수집을 추진했다. 재단 홍보팀에서는 재단 홈페이지 '아카이브'의 검색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총무팀에서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서울디자인백서 발간이 재개되었다. 「2021-2022 서울디자인백서」는 재단 사업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기록하여 디자인 분야 자료 축적에 기여했으며, 향후 디자인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 지속 가능한 사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DDP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DDP 아카이브 사진집 개정 증보판」 출판 사업도 진행했다. DDP 신규 조성 공간 등에 대한 추가 촬영을 진행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편집 디자인을 적용해 DDP 방문객에게 DDP의 건축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사업 분류 체계]

비전	디자인산업 진흥						디자인문화 확산							디자인 공공성 강화													
대분류	서울디자인		산업 지원				문화 행사				네트워크			연구			교육				정보						
중분류	서울디자인위크	DDP디자인페어	컨설팅	개발	창업	마케팅	전시	어워드	DDP 포럼	시민참여행사	도시	기관	기업	기반	정책(가이드라인)	사업	어린이/청소년	청년(대학~만39세)	전문가/기관	시민	출판	인물	컬렉션	포럼/세미나	디자인운동		
소분류							DDP스토어	기획	협력																		



디자인사업 아카이빙_자문회의



디자인사업 분류 체계 수립 연구_자문회의

또한 재단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와 함께 「서울디자인자산 연구」를 진행했다. 2009년 1차, 2012년 2차로 '서울디자인자산 51선'이 선정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자산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서울디자인자산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디자인, 문화, 역사 등 분야별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자치구 추천 후보 등을 포함 총 100여 선의 자산 후보를 취합해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연구를 통해 최종 선정 자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서울디자인자산 재정립의 기본 방향과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도서관, 서울기록원, 국가기록원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2022년 서울디자인재단 연구]

구분	제목	내용
기반 연구	「디자인사업 분류 체계 수립 연구」	· 기간: 2022. 4. 21.~7. 20. · 내용: 디자인사업 아카이브를 위한 재단 최초 분류 체계 (안) 제시 · 범위: 2016-2022 재단 디자인사업
	재단 디자인 사업 아카이빙	· 기간: 2022. 8. 18.~11. 15. · 내용: 수집가이드 개발, 온라인 저장장치 구축, 디자인 정보 수집, 활용 사례 제시 등 · 우수 사례 조사: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 등
연구 확산	「2021-2022 서울디자인백서」	· 기간: 2022. 7. 1.~12. 31.(집필, 편집 디자인) · 내용: 2021~2022년 재단 사업별 주요 성과 체계적 기록
	「DDP 아카이브 사진집 개정판」	· 기간: 2022. 4.~7. · 내용: 개정 증보판 기획·디자인





6-1-2. 매거진 라이브러리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R&D센터 디자인전략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디자인라이브러리 구축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전시 디자인 공공성 강화 | 정보 | 출판, 컬렉션
키워드	#디자인매거진 #라이브러리 #정기구독 #재단발간물

서울디자인재단은 시민과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디자인 트렌드 정보와 지식,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DDP 디자인랩 3층에 '매거진 라이브러리'를 조성해 오픈했다. 2021년 개관해 디자인 도서 저자 세미나와 북 소모임 등을 15회 운영해 온 UD라이브러리를 최신 디자인 트렌드에 관한 정보가 집결된 매거진 라이브러리로 재정비해서 문을 연 것이다. 매거진 라이브러리 공간 리뉴얼 공사는 2022년 6월 12일 완료되었으며 개관 행사는 7월 14일 열렸다. 공간은 크게 최근 1~3개월의 신간 매거진 열람 공간, 과월호 매거진 열람 공간, 재단 출판물과 연구 보고서가 비치된 북세미나실로 구분된다. 공간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매거진 열람 외에 전시, 북토크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매거진을 활용한 전시 공간도 조성했다. 기존 UD라이브러리에 있던 단행본 3,700권은 디자인랩 2층 DDP멤버십 라운지 등으로 이동해 비치했다.



재단은 매거진 라이브러리 조성을 준비하며 다수의 매거진을 정기 구독해 시민들에게 최신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국내외 정기 간행물을 조사하고 분석해 전문가와 함께 구독 대상 매거진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엄선한 그래픽, 산업디자인, 공간디자인, 건축 및 인테리어, 뷰티·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디자인 관련 분야 국내외 매거진 104종(국내 33종, 해외 71종)으로 매거진 라이브러리 서가를 채웠다.

매거진 라이브러리에서는 해외의 종합 디자인 전문지 「Form」, 영국의 전통과 파격을 만날 수 있는 「eyemagazine」을 비롯해, 국내 잡지로는 1977년 1월 창간해 안상수 디자이너가 아트디렉터로 참여해 국내 디자인 담론을 주도한 격월간지 「꾸밈」부터 국내 인테리어 분야의 권위 있는 공모전 중 하나인 '한국인테리어 디자인 대전'을 개최해 온 「월간 인테리어」와 국내 대표 디자인 트렌드 전문지 「월간 디자인」 등 한국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잡지를 열람할 수 있다. 매거진 라이브러리 내에는 미디어 존을 별도로 마련해 8대의 태블릿으로 designboom, CA Books, Magazine B 등에 접속해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매거진 라이브러리 개관과 함께 개관 전시 <기록에 머물다, Stay with the Record>도 공개되었다. 한국 디자인 잡지 분야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꾸밈」, 「월간 인테리어」, 「월간 디자인」의 기록을 담은 전시로 1970~80년대 산업화에 따른 서구적 모더니즘을 수용한 디자인 발전과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시기의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확인하고 당시 디자인 이슈와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잡지의 호수를 대표하는 사진을 연대순으로 배치했고 창간호, 10주년 기념호, 발간 100호 등 대표 발간 호수의 잡지를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전시를 통해 재단 최초로 「꾸밈」(총 83권)과 「월간 인테리어」(총 5권)의 기부 절차를 추진하면서, 재단의 기부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는 성과도 있었다. 매거진 라이브러리는 개관 이후 월평균 2,000여 명이 방문하며 DDP 디자인랩 방문객 증가와 활성화에 기여했다.



매거진 라이브러리는 국내외 디자인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작은 박물관이자 디자인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경험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밀도 높은 데이터베이스 공간이다. 앞으로 잡지 열람 외에도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의 장소로서, 전시, 북토크 등 다양한 행사를 겸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매거진에 특화된 디자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협회·연구소 등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매거진 라이브러리 개요]

구분	내용
소장 도서	잡지 104종(그래픽, 산업디자인, 건축, 뷰티·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운영 시간	오전 10시~오후 8시(설날, 추석 명절 당일 휴관)
장소	DDP 디자인랩 3층
이용 방법	무료 이용
부대행사	<'전시 기록에 머물다'> 일시: 2022. 7. 14.~상시 장소: DDP 디자인랩 3층 매거진 라이브러리 내 내용: ① 전시존 · 「월간 인테리어」 창간 10주년 특별호 전시 · 「꾸밈」과 타운스케이프 전시 · 「월간 디자인」과 아티클 전시 ② 복도 전시존 · 「월간 인테리어」, 「꾸밈」 창간호 전시 · 「월간 디자인」 10주년 특집 100호 전시 ③ 미디어존 · 태플릿 8대를 통해 잡지별 최신호 검색 가능 <'헤어숍' 콘셉트의 포토존> 일시: 2022. 7. 14.~8. 31. 장소: DDP 디자인랩 3층 매거진 라이브러리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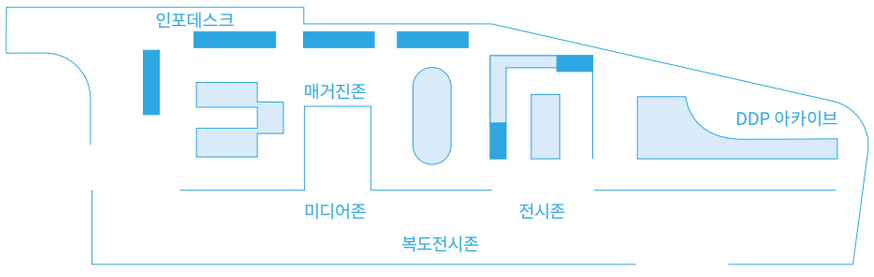




[매거진 라이브러리 정기 구독 매거진]



[매거진 라이브러리 평면도]



6-1-3. 디자이너 아카이빙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R&D센터 디자인전략팀
사업 연도	2022
예산명	디자이너아카이빙사업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네트워크 | 기관 디자인 공공성 강화 | 연구 | 기반, 정보 | 인물
키워드	#디자이너 #아카이빙 #인터뷰 #동영상

서울디자인재단은 2022년부터 디자이너 중심의 아카이브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디자인계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의 아카이빙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디자이너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DB 구축 작업을 시작했다.

디자이너 아카이빙 사업은 기록의 가치가 있는 디자인계의 대표성 있고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를 선정하여 디자인 분야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선정 디자이너의 과거 활동 기록과 디자인 가치관, 철학 등을 영상으로 보존하여 디자인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먼저 디자인 혁신과 트렌드를 선도한 대표 디자이너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후보군 도출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디자인 단체, 서울시 등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디자이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성, 기여도, 기록적 가치, 확산성 등을 기준으로 아카이빙 대상 디자이너를 선정하기로 했다. 최초에는 20여 명 선정을 계획했으나, 첫째,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둘째, 아카이빙 개념이 아닌 소수 디자이너의 홍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자문 의견을 수렴해, 디자인단체장과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의견을 받아 추천 DB를 구축하고 최대한 인원수를 늘려 선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 결과 30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자이너 총 3,175명의 DB를 확보하고 이 중 디자인 8개 분야 671명 디자이너를 아카이빙 대상으로 분류한 다음, 기여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최종 37명의 디자이너를 선정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영상 콘텐츠의 기획 방향은 시민들이 '디자인을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구성'으로 정하고, 선정된 디자이너에 대한 꼼꼼한 조사와 자료 수집 과정을 거쳐 인터뷰를 촬영해 디자이너별 약 8분 내외의 영상 콘텐츠 37편을 제작했다. 2023년 초부터 축적된 아카이브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단이 보유한 온라인 채널에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디자이너 콘텐츠 아카이브 결과물은 미래 디자인 연구와 아카이빙 전시 등 재단 신규 사업의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선정 디자이너 아카이빙 분야별 선정 디자이너 현황]

분야	제품	시각·정보	공간·환경	공예	서비스	디자인경영	합계
인원	11명	11명	11명	2명	1명	1명	37명

6-1-4. 서울 디자인 자산

구분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공공디자인진흥팀,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R&D센터 대외협력팀
사업 연도	2022
예산명	디자인사업연구개발
분류 체계	디자인 공공성 강화 | 연구 | 기반, 정보 | 컬렉션
키워드	#서울디자인자산 #아카이빙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2009년 최초로 선정한 '서울디자인자산'을 시대 변화에 맞춰 재정비하기 위해, '서울디자인자산 재정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22 서울디자인자산 선정 및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2009년 7월 1차로 서울디자인자산 51선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디자인자산'은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잉태할 모반(母盤: Matrix)'으로, '서울디자인자산'은 '서울성이 있는 것으로 디자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정의했다. 2022년에는 '서울성'과 '디자인 가치'를 포함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디자인 자산을 발굴하고 선정하여, 서울의 미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외 홍보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했다.

'2022 서울디자인자산' 선정은 최초의 선정 기준과 방향은 계승하면서, 시대상을 반영한 자산 후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1차 선정 당시 평가 기준이었던 '서울성', '디자인 가치', '글로벌 도시경쟁력' 3개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정위원회 또한 기존의 연속선상에서 1차 서울디자인자산 선정에 참여했던 위원을 우선으로 하고,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각, 제품, 공간,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했다. 9월 22일과 10월 18일 두 차례 선정 회의를 진행하고, 서울시와 재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총 40선을 서울디자인자산으로 새롭게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디자인자산은 1차 선정 자산 51선을 포함해 총 91선으로 확정되었다.

향후에는 서울디자인자산의 디자인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심화 연구를 진행하고, 단행본 발간과 전시 개최 등 서울디자인자산을 활용한 콘텐츠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만의 고유한 디자인 정체성을 구축하고 디자인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디자인자산 선정 회의

[2022 서울디자인자산 91선]

분류		서울디자인자산
공간·건축(61)	신규(34)	국립극장,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남대문시장, 남산골한옥마을, 대한의원, 덕수궁 돌담길, 돈의문박물관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동대문시장, 롯데월드타워, 명동예술극장, 서대문독립공원, 서울 구공간사옥, 서울숲, 서울약령시, 서울풍물시장, 서촌, 성균관 문묘, 세빛섬, 세종문화회관, 양천향교, 운현궁, 익선동, 전쟁기념관, 정동, 정동교회, 창경궁, 청와대, 충무공 이순신 동상, 코엑스, 한국은행 본관, 환구단, 63빌딩
	기존(27)	경복궁, 경희궁, 광화문, 대학로, 덕수궁, 독립문, 명동, 명동성당, 북촌한옥마을, 서울성곽, 서울역사, 선유도공원, 숭례문, 올림픽공원, 월드컵공원, 이태원, 인사동, 창덕궁, 청계천, 탑골공원, 한강, 홍대 앞, 후원, 흥인지문, 2002서울월드컵경기장, 88서울올림픽 메인스타디움, N서울타워
제품(7)	신규(1)	남산케이블카
	기존(6)	관복과 흉배, 궁중 매듭, 궁중보자기와 민중보자기, 궁중음식, 한양 목가구, 활옷
시각·정보(10)	신규(4)	규장각, 꽃담, 종묘의궤, 혜원풍속도
	기존(6)	겸재의 한양진경, 동궐도, 수선전도, 정조대왕 원행반차도, 한양민화, 훈민정음
콘텐츠(13)	신규(1)	송파산대놀이
	기존(12)	국립중앙박물관, 남산봉수대, 보신각, 사직단, 서울설화, 소나무, 수문장 교대식, 예술의전당, 은행나무, 종묘제례, 해치, 호랑이


창덕궁


63빌딩


관복과 흉배


훈민정음


송파산대놀이

6-2. 교육

6-2-1. 미래세대 디자인 교육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R&D센터 디자인교육팀, 디자인전략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미래세대 디자인교육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어워드 디자인 공공성 강화 | 교육 | 어린이/청소년, 청년(대학~만 39세), 시민
키워드	#DDP디자인스쿨 #DDP에듀ON #DDP온택트클래스

서울디자인재단은 2021년 디자인교육 사업의 목표를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디자인교육 플랫폼을 조성하여 시민 스스로 디자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고력, 창의성을 길러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디자인하도록 돕는 것으로 설정했다. 디자인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 생활 중심의 디자인교육을 실행하고,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미래세대 디자인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확산한다는 전략이었다.

재단은 디자인교육 총감독으로 박인석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를 초빙했다. 임기는 2021년 3월 9일부터 1년간이었다. 총감독의 임무는 서울디자인교육 정책과 중장기 로드맵 등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총감독 중심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재단 디자인교육 프로그램의 기획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디자인교육 플랫폼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2021 서울디자인교육 플랫폼 운영 체계 수립 연구」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재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축하고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건축, 메타버스 등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2회 진행했다. 한편 헬로우뮤지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어린이미술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등 서울 시내에 위치한 예술 교육 공간을 답사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서울디자인교육 콘텐츠 플랫폼 브랜드는 'DDP 디자인스쿨'로 확정되었다. 현직 디자이너 21명과 협력해 실무 디자인 중심의 차별화된 디자인교육 콘텐츠 21개와 교육 키트 6종도 개발했다.



재단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교육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2020년 12월 16일 유튜브에 'DDP 에듀 ON' 채널을 오픈했다. 이후 서울시 평생교육과와 디자인교육 콘텐츠 제공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에서 2021년 8월 27일 오픈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에 'DDP 에듀 ON' 콘텐츠를 업로드했다. 2021년 초 제작한 온라인 디자인교육 영상 콘텐츠 중 문화예술 분야 8개, 진로·직업 분야 5개 등 총 13개의 영상 콘텐츠가 '서울런'에도 공유되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디자인교육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하반기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디자인교육 플랫폼 'DDP 디자인스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운영을 위해 디자인 전공자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쳐 '교육하는 디자이너' 개념의 ED(Educating Designer) 4명을 선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10월부터는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가족 디자인 워크숍, 1일 체험 '워크인' 프로그램 등 사전에 준비한 프로그램을 DDP 살림터(현 디자인랩) 4층 잔디사랑방에서 진행했다.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은 기초적인 디자인 소양을 기르기 위해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디자인 사고 과정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독창적인 해결 방법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 형식의 교육 과정이다. '자아, 공존, 포용'의 가치를 인식하는 경험으로 구성되었으며, 온오프라인 연동형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핸즈온(Hands-on)'프로그램은 디자인 키트를 활용한 1회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여러 도구를 사용해 아이디어를 가시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하게 했다. '마인즈온(Minds-on)' 프로그램은 디자인 사고를 요하는 방식으로 4회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 수업이었다. 10월3일에는 부모 토크 콘서트 '아이, 디자인 그리고 미래'를 열고 'DDP 에듀 ON'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토크 콘서트에는 '밑미(MEET ME)' 창업자 손하빈 대표가 모더레이터로,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이장섭 교수, TLP교육디자인의 김지영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가족 디자인 워크숍은 10월 11일에서 11월 6일까지 열렸으며 어린이와 부모 44명이 가족 단위로 함께하면서 DDP 어린이 디자인 체험 공간의 디자인 요소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했다.


어린이 워크숍_마인즈온


어린이 워크숍_핸즈온


가족 워크숍_놀이디자인

‘2021 휴먼시티디자인 대학생 워크숍’은 재단과 한국디자인학회의 공동 주최와 주관으로 열렸다.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으로 2021년에는 국제 대학 간 교류의 장으로 확대해서 운영했다. 6월에는 국제 공모를 통해 국내외 31개 참가팀을 선정했다. 7월 22일 지도교수 31명, 대학생 160여 명이 참여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팀별 활동이 8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결과 발표회는 11월 13일 열렸으며, 문제 인식과 정의, 리서치 과정과 수행 항목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총 17개 팀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12월 3일 오후 2시에는 온라인 공개 포럼 ‘도시의 미래, 디자인으로 길을 찾다’를 열어 워크숍에서 개발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 DDP 디자인스쿨 운영 내용]

구분		구성	운영 결과	비고
DDP 온택트 클래스		유아 및 가족 대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영상 제작 유튜브 DDP 에듀 ON 업로드	· DDP 온택트 클래스 8편 키즈 인 디자인 랩(KIDS in Design LAB) 4편 · My Signature, 나를 디자인하다 (5편)	온라인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핸즈온 라이브	초등학생 대상 디자인 키트 기반 1회 체험형 워크숍 프로그램	· 2021년 10~11월 · 동영상 6개, 시각 12회, 패션 10회, 제품 10회, 292명	온라인
	마인즈온	초등 고학년 대상 도전 과제에 대한 ‘인식-해결-공유’ 과정을 통한 디자인 사고력 확장 워크숍 프로그램	· 2021년 11월 매주 토~일 · 시각, 패션, 제품 각각 총 4회, 154명	오프라인
가족 디자인 워크숍		가족(어린이, 부모)이 함께하는 사용자 중심의 놀이 디자인 프로그램	· 2021. 10. 11.~11. 6. · 4회, 98명	오프라인
부모 토크 콘서트		부모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아이, 디자인 그리고 미래’	· 일시: 2021. 10. 3. · 실시간 라이브 1회 50명, 누적 조회 404회	온라인
디자인 체험 ‘워크인’ 프로그램		교육, 체험, 전시 복합 공간 현장 참여 프로그램	· 10~11월 주말, 공휴일 오후 1시~5시. 현장 방문 참여 · 11회, 717명	오프라인
휴먼시티 대학생 디자인 워크숍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대학생 대상의 국제 워크숍	· 온라인 포럼: 2021. 12. 3. · 온라인 전시: 2021. 12. 4.~24. 국내 26개, 국외 5개 디자인 대학 (일본 치바대· 시바우라공업대, 중국 화북이공대·통지대, 체코 마사릭대), 31개 팀 195명	온라인

유튜브 채널
DDP 에듀 ON

2021년 재단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교육 플랫폼과 ‘DDP 디자인스쿨’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해 디자인교육 콘텐츠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디자인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역할을 했다. 2021년 진행된 어린이, 가족, 대학생 대상의 디자인 워크숍, 부모 토크 콘서트 등에는 온라인 62,832명, 오프라인 969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디자인 생태계가 참여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협력·상생 모델을 구축해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일반 시민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서울디자인교육 플랫폼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 추진된 ‘미래세대 디자인교육’은 디자인 연구를 기반으로 문제 발견과 해결력, 사고력,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유아·초등·대학생 대상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유아 대상 디자인교육 실행을 위해 상반기에는 정부와 서울시의 중점 사업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1]’과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한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는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회의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교육에 활용될 창의디자인 교구 개발에 관해 협력했다. 간담회와 현장 회의를 통해 ‘①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질문과 놀이 중심의 오감을 자극하는 교구’, ‘②위험을 경험하고 학습하게 도우며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구’, ‘③환경·공간적으로 활용 가능한 생태 친화적이며, 입체적인 교구’ 3가지로 방향성이 도출되었다. 이 중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①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질문과 놀이 중심의 오감을 자극하는 교구’를 개발의 방향으로 정해 유아 창의디자인 교재와 교구 2종(시각 1종, 촉각 1종)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3곳의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서 총 60명을 대상으로 3일간 창의디자인 시범 교육이 진행되었다.

한편 2021년 초등학생 대상으로 개발한 디자인교육 콘텐츠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문 회의를 진행했다. 총 9개 프로그램 중 과학, 수학 등 타 분야 통합 주제로 2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최종 개발한 학교 보급용 교육 키트 2종(제품 1종, 시각 1종)은 서울시 3개 초등학교 5~6학년 1,000명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스토어 판매용으로 개발된 키트 2종은 1,000개를 제작해 DDP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2022년 개발 어린이 프로그램]

대상	주제	구분	내용 및 구성		디자이너
초등	빛의 표현 (조명)	학교 보급용 교육 키트	공간의 마법사가 된 조명 이야기	우리 주변 공간의 사물 및 빛으로 공간을 채우는 조명 종류를 알아보고, 공간에 어울리는 조명을 제작	오복기공사/ 이화주디자이너
		스토어 판매용 키트	마이스튜디오	조명을 만들면서 RGB 조명을 이해하고, 빛의 합성 원리 및 그림자에 대한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	사이픽스/ 박철주, 임선민 디자이너
	시각적 표현 (인포그래픽)	학교 보급용 교육 키트	글자가 사라진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픽토그램을 이해하고, 공간 탐색(학교)을 통해 장소와 목적에 맞는 안내 사인을 제작	팡팡팡 그래픽실험실/ 박채연, 조화라, 한나은 디자이너
		스토어 판매용 키트	DDP 여긴어디	단순화된 형태와 실루엣을 보며 실물을 유추하고, 주어진 형태 및 요소와 실물 간의 관계를 파악	사이픽스/ 강수연, 정민경, 문경서 디자이너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디자인 대학생 워크숍’은 2021년 진행된 ‘휴먼시티디자인 대학생 워크숍’을 발전시킨 것이다. 2022년 상반기 5회의 기획 회의를 거쳐 ‘미래 지속 가능한 디자인감성도시 서울’이라는 워크숍의 주제를 도출했으며, 세부 주제는 ‘도시경험’, ‘미래환경’, ‘네트워크’ 3개로 정해졌다. 5월에서 6월까지 참가팀 모집 공고를 내고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45개 팀, 269명이 신청했다. 전년과 달라진 부분은 신청자 전원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30개 팀(국내 28개, 일본 2개), 181명을 선발했다는 점이다. 최종 30개 팀은 도시경험 분야 14개 팀, 미래환경 분야 8개 팀, 네트워크 분야 8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7

1) 인근 3~5개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좋은 프로그램과 자원을 함께 나누고 공동 운영하는 서울시 대표 보육 모델

월 오리엔테이션, 9월 중간 공유회를 거쳐 11월 19일에는 한국디자인학회 추계 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 결과 발표회와 우수팀 심사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다. 12월 2일에는 워크숍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종 포럼과 시상식이 DDP 디자인랩 1층 D-숲에서 진행되었다. 포럼에는 워크숍 참여자 약 80명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사회문제해결상 2팀, 디자인창의상 4팀, 디자인학술상 4팀, 총 10개의 우수팀을 시상했다. 30개 팀의 결과물 전시는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D-숲에서 열렸으며, 9일간 13,246명이 관람했다.

유튜브 채널: 2021 휴먼시티디자인 대학생 워크숍

2022년 유아, 초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미래세대 디자인교육 참가자는 총 1,241명에 이르렀으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중부교육지원청, 한국디자인학회, 워크숍 참가 대학교 등 33개 기관과 협력하는 성과를 남겼다.

[2022 서울디자인 대학생 워크숍 참가팀 세부 주제]

no.	프로젝트명	참가팀	우수팀
주제 ①: 도시경험		14개 팀	
1	떠들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2	서울바람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술상
3	뜬 공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4	릴렉스루	덕성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과	디자인창의상
5	시내도랑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	
6	지속 가능한 도시경험, Re:cord 프로젝트	목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7	품	부경대학교 공업디자인	
8	서브-컬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술상
9	고백	세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술상
10	SIT DESIGN	시바우라 공업대학 디자인공학과	
11	리플레이스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12	Empathize w / 홍대병	치바대학교 Design Course	
13	뮤직샤워	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학부	
14	글로우 드롭스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주제 ②: 미래환경		8개 팀	
1	도시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디자인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디자인창의상
2	사랑과 평화	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사회문제해결상
3	스트리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창의상
4	바로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5	제로웨이스트 인헌시장	서울대학교 디자인과	
6	누구나 쉽게 타는 서울시 대중교통, 수평선 프로젝트	성신여자대학교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사회문제해결상
7	엠에스지 프로젝트	성신여자대학교 서비스디자인공학과	
8	세상을 키우는 키오스크	한국영상대학교 광고영상디자인과	
주제 ③: 네트워크		8개 팀	
1	실시간 서울 살기	경기대학교 산업디자인	디자인학술상
2	경복궁 채식당	숙명여자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과	디자인창의상
3	유니서울	신구대학교 VR게임콘텐츠과	
4	메타 경복궁	영산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전공	
5	서울과 연계도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타버스	제주대학교 문화조형디자인전공	
6	노인을 위한 메타버스 탑골공원	한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7	I:ONIT	호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8	스마트버드세이프방음벽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6-2-2. 새활용 교육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새활용플라자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서울새활용플라자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시민 참여 행사 디자인 공공성 강화 | 교육 | 어린이/청소년, 전문가/기관, 시민
키워드	#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 #업사이클 #재활용 #키트 #제로웨이스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새활용을 실천하며, 자원의 순환을 이해하고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새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새활용에 대한 인식과 생활 양식 변화를 이끌기 위해 대상별, 연령대별로 찾아가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새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2)]

'대학생 새활용 디자인 워크숍'은 2021년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도시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상 속 새활용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새활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업사이클링 아카데미'는 전국 새활용센터, 리앤업사이클플라자, 환경단체와 지자체 환경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새활용 창업 역량 강화 특강'은 새활용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새활용 기업 대표들이 강사로 나와 창업 노하우, 비즈니스 모델 설정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현직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연수 프로그램 '지속 가능 새활용 교육 기획 과정'은 새활용 기초 지식, 키트 활용법, 교육 사례 공유 등 총 15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새활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교과 및 생활 지도에서 학생들에게 새활용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활용 키트도 제공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한 교육 키트 개발과 보급 활동도 지속하여 3월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에 300개,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에 790개를 보급했다.

2021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비대면으로 개최된 서울새활용축제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어린이들이 새활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비대면 새활용 교실에서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 기업인 '오운유'의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플랫 필통 만들기', '쉐어라이트'의 '양초로 LED 조명 만들기', '세컨드비'의 '자투리 가죽 카드지갑 만들기' 등 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사전 신청한 참여자에게 자가 제작 세트(DIY 키트)를 배송하고 화상 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그리기 수업, 버려지는 병을 활용한 다육이 화분, 망가진 드론으로 만드는 종이 드론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어린이 대상으로 준비되었으며, 의식주 분야별 새활용 실

2) 출처: 「2021 서울새활용플라자 연간 백서」 p.15.

천을 위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는 요리 방법’, ‘폐청바지로 만드는 반려동물 옷’, ‘폐목재로 만드는 발받침과 이동식 나무 테이블’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2021년 새활용 교육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명	기간(월)	주요 내용 및 결과
아동	새활용 상상놀이	2021년 9~11월	· 동화책, 음악, 미술, 상황극 등으로 새활용의 의미, 자원순환, 환경문제를 배우는 프로그램 · 대상: 초등학생 · 온라인
	새활용 키트 체험 (어린이/성인)	2021년 8~11월	· 대상: 어린이, 성인 · 새활용 키트로 생활용품 만들기 ·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수업 · 소재: 폐지, 자투리 가죽, 루프, 양말목, 휴지심 등
	여름방학 특별 새활용 탐방 체험 프로그램	2021년 7~8월	· 기간 중 매주 금토일 운영 · 탐방 50분, 입주 기업 개발 교육 키트 만들기 1시간
	어린이 소재구조대	2021년 7~12월	· 소재 해부를 통한 자원순환 교육
	새활용 미디어 클래스 ‘그린 크리에이터’	2021. 10. 29.~ 11. 10.	· 대상: 초등학교 5~6학년 · 내용: 환경 주제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발표
청소년	서울안전한마당 <쓸모의 발견>	2021. 9. 17.	· 대상: 청소년, 일반 시민 · 내용: 안전한 지구, 안전한 환경을 주제로 쓰레기 문제, 분리배출, 새활용에 대한 교육 및 퀴즈 이벤트 진행
	2021년 서울진로직업박람회	2021년 9~11월	· 대상: 서울시내 초중고등학생 · 내용: 국내 최초 진로직업분야 버추얼 박람회 참가, 미래 유망 산업군인 새활용, 환경 분야 홍보 및 ‘업사이클러’ 사례 소개
성인	새활용 쏘잉쏘잉	2021년 8~12월	· 대상: 성인 · 내용: 버려지는 원단에 봉제 기술을 접목해 새활용 소품 제작
	새활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업사이클링 아카데미’	2021. 10. 15./22./29.	· 대상: 전국 새활용센터, 리앤업사이클플라자, 환경단체 및 지자체 환경 업무 담당자 · 내용: 전체 3강(새활용기업 대표 성공 사례, 온라인 공간 탐방)
	새활용 창업 역량 강화 특강	2021. 9. 4.~5.	· 대상: 새활용 창업 관심 시민 · 유튜브 생중계 · 내용: 새활용기업 창업 노하우, 비즈니스 모델 설정 등 · 강사: 홍성재, 김경준, 김수민, 강혁진, 이정연, 전성준
교사	교사 직무 연수 ‘지속 가능 새활용 교육 기획 과정’	1차: 2021. 10 .16.~ 30. 매주(토) 2차: 2021. 11. 13.~ 27. 매주(토)	· 대상: 초중등 교사 · 총 15시간, 새활용 기초 지식, 키트 활용법, 교육 사례 공유 등 · 학생 수업용 새활용 키트 제공
전 연령	On-SUP 새활용 소재 탐방	2021. 11. 1.~ 12. 10.	· 매주 화수금 11:00~11:50 · 유튜브 라이브 · 대상: 누구나 · 소재은행 탐방, 새활용 소재 활용 카드지갑 만들기

2022년에는 ‘대상별로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 새활용 교육’을 사업 목표로 설정하고 새활용 교육을 지속해 나갔다. 새활용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일 참여 프로그램은 ‘새활용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새활용 아카데미는 새활용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새활용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는 ‘오픈 소스로 의자 만들기’, ‘캣타워 만들기’, ‘캠핑 테이블 만들기’ 등 시민 참여형 목공 프로그램을 1층 꿈꾸는공장에서 진행했다. 회차별로 선착순 10팀을 모집했고, 가족 등 2인이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새활용 디자인 워크숍’의 일환으로 ‘서울옷장: 옷 구출 대작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했다. 옷장 속 잠들어 있는 옷을 가져와 업사이클링 가방을 제작하고, 입지 않는 옷을 서로 교환하는 ‘옷옷 교환’ 행사도 진행했다. 또한 환경 영화 <보통의 용기>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새활용 전문가 양성 교육은 업사이클 관련 전문 기술이 있는 기업·기관이나 전문가를 초청해 새활용 소재 활용, 디자인과 제품 개발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새활용산업 종사자, 예비 창업자, 취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서울새활용플라자 5층 교육실에서 9월 3일에서 4일까지 2일간 진행했다.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많아 20명을 추가로 받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과 요청으로 ‘새활용 세미나’라는 이름의 온라인 과정도 개설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승인을 받은 교사 직무 연수 과정 ‘지속 가능 새활용 교육 기획 과정’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 내 새활용 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2022년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나누어 2회 진행된 교육 과정에는 초·중등 교사 21명(18명 이수)이 참여했다.



새활용 디자인 워크숍



서울옷장



새활용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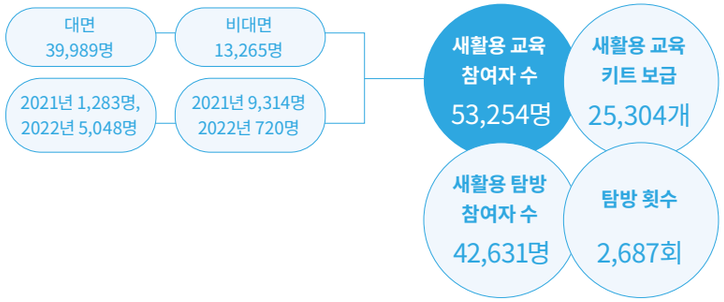


직무 연수

[2022년 새활용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기간(월)	주요 내용 및 결과
새활용 디자인 워크숍		2022. 9. 3.~ 4. 2022. 9. 17. 2022. 10. 15.	내용: 의자, 캣타워, 캠핑 테이블 만들기, '서울옷장: 옷 구출 대작전!'(헌옷으로 업사이클링 가방 만들기, 환경 영화 <보통의 용기> 감상, 옷옷 교환 등) · 일 6시간, 무료 · 결과: 총 16회, 130명 참여
새활용 체험 '새활용 아카데미'		2022년 9~11월	· 대상: 전 연령대 · 내용: 헌옷으로 업사이클 가방 만들기, 폐목재로 원목쟁반/발받침대/북스탠드 만들기, 자투리천 오너먼트/식물 모빌 만들기, 폐플라스틱과 목재로 오토마타 만들기 등 · 장소: 서울새활용플라자 2층 배움터 · 결과: 총 81회, 1,681명 참여
새활용 전문가 양성 교육	(오프라인)	2022. 9. 3.~4.	· 대상: 새활용산업 종사자, 예비 창업자, 관심 있는 시민 · 장소: 서울새활용플라자 교육실 · 2일 10시간 과정
	(온라인) 새활용 세미나	2022년 9월~11월 30일	· 대상: 누구나 · 교육 시간: 5강(온라인, 수강일로부터 30일) · 내용: 섬유건축자재, 청바지 가죽, 펄프 용기, 유통 판매 등 · 참여: 276명 https://seoulup.kmaclxp.co.kr/lecturephp?code=010e
교사 직무 연수 '지속 가능 새활용 교육 기획 과정'		1차: 2022. 8. 3.~5. 2차: 2022. 8. 10.~12.	· 대상: 초중등 교사 · 교육 시간: 3일 15시간 · 새활용 기초 지식, 키트 활용법, 교육 사례 공유 등 · 학생 수업용 새활용 키트 제공 · 참여: 21명

[2017-2022 새활용 교육 참여]



[새활용 교육 참여자 수]

구분	탐방		교육					
	참여자 수	횟수	소계	대면 교육 참여자 수	대면 교육 횟수	온라인 교육 참여자 수	온라인 교육 횟수	교육 키트 보급 수
2017년	5,851	286	1,264	1,133	78	131	2	-
2018년	10,407	537	9,409	9,258	544	151	2	-
2019년	12,272	573	19,905	19,905	853	0	0	-
2020년	1,415	170	6,311	3,362	184	2,949	207	8,503
2021년	2,765	370	10,597	1,283	102	9,314	368	16,801
2022년	9,921	751	5,768	5,048	125	720	11	-
합계	42,631	2,687	53,254	39,989	1,886	13,265	590	25,304

2020년 코로나19 확산[휴관 262일, 운영 104일 (*2020년 윤년으로 2월이 29일까지 있어 총 366일임.)]
2020~2021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세미나 등 온라인/비대면 운영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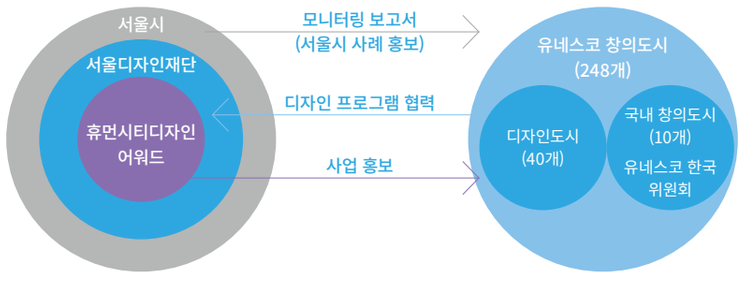
6-3. 네트워크

6-3-1. 글로벌 네트워크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R&D센터 대외협력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통합 홍보 마케팅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문화 행사 | 어워드, 시민 참여 행사 디자인문화 확산 | 네트워크 | 도시, 기관
키워드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창의도시디자인분과 #WDO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서울디자인재단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전 세계 180개 이상의 디자인 기관을 회원으로 둔 WDO(World Design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교류 활동을 지속했다. 2021년에도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관련 행사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운영되었다. 다년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의 결과, 2021년 3월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식 홈페이지와 유네스코 창의도시 디자인분과 도시 홈페이지에 제2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시상식 개최 기사가 게시되었다. 4월 15일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 정회원 도시 간담회, 29일에는 유네스코 디자인분과 의장도시 코르트리크(벨기에)가 주관하는 디자인분과 창의도시 소그룹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6월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디자인분과에 국내 코로나 대응 우수 사례 자료를 제출하며 협조하기도 했다. 8월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 정회원 도시 2차 간담회가 온라인으로 열렸으며 10개 도시가 참여했다. 10월에는 호주의 질롱이 주관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디자인분과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개최를 홍보했다. 이 외에도 2021년에는 5개 도시(고베, 몬트리올, 부에노스 아이레스, 선전, 베를린)의 모니터링 보고서 평가에 참여했으며, 2021년 11월 30일에는 재단 사업과 서울시 디자인 행정력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 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4개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제출했다.

[서울디자인재단-유네스코 창의도시 협력 관계도]



[2021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의 참석 현황]

구분	국가	도시명	내용	일시
국내	온라인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 정회원 도시 1차 간담회 (8개 도시 참여)	4. 15.
국내	온라인(벨기에)	코르트리크	유네스코 디자인분과 창의도시 소그룹 회의 (33개 도시 참여, 비정례)	4. 29.
국제	온라인(브라질)	산토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례 회의 대체 온라인 미팅 (176개 도시 참여)	7. 6.~7.
국제	온라인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례 회의 대체 온라인 미팅 디자인분과 후속회의(30개 도시 참여)	7. 8.
국내	온라인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 정회원도시 2차 간담회 (10개 도시 참여)	8. 11.
국제	온라인(호주)	질롱	유네스코 창의도시 디자인분과 정례 회의(32개 도시 참여)	10. 12.~14.

2022년에는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현 서울디자인어워드) 홍보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2월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디자인분과 온라인 워크 미팅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내 정회원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2월 24일에는 제32회 WDO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5월에는 해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문화원, 이탈리아 문화원, 독일 문화원, 스위스 대사관, 영국 문화원, 호주 대사관 등 6곳의 주한 대사관과 문화원을 연달아 방문해 회의를 진행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의와 연계 포럼에서는 어워드 진행 내용을 발표(2~8월, 9회)했다. 7월에는 브라질 산토스에서 열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례 회의와 연계 컨퍼런스에 참가해 106개 도시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우수 디자인정책 사례들과 향후 진행될 '서울디자인어워드'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7월 16일에는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어너러블 멘션(Honorable Mention) 수상 프로젝트인 시네 파세이우(Cine Passeio)를 탐방하고, 시네 파세이우를 디자인한 IPPUC(쿠리치바 도시계획연구원: Institute for Research and Urban Planning of Curitiba)와 인터뷰도 진행했다. 8월에 온라인으로 열린 유네스코 창의도시 디자인분과 정례 회의 후속 회의에도 참여했으며, 9월 30일에는 WDO 본부에서 개최한 버추얼 네트워크 행사에 온라인 부스를 열어 재단을 해외에 홍보하고, 협력이 가능한 해외 유관 기관들과 온라인 미팅을 진행했다. 10월 11일에서 15일까지 리투아니아 카우나스에서 열린 유네스코 창의도시 디자인분과 정례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디자인 도시 관계자들과 교류했다.

[2022년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결과]

연번	구분	일시	기관	내용
1	국제(회의)	2. 22.	유네스코	유네스코 창의도시 디자인분과 온라인 워크 미팅 (UNESCO Creative Cities of Design Online Work Meeting)
2	국내 (회의, 발표)	2. 2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내 정회원 도시 실무자 간담회
3	국제(회의)	2. 24.	WDO	제32회 WDO 정기총회(32nd World Design Assembly)
4	국내(회의)	6. 10.	유네스코	창의도시 성과 지표 연구를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5	국제(전시)	6. 18.~ 6. 26.	아사히카와 디자인 위크	아사히카와 디자인 위크 '유네스코 디자인창의도시 소개 세션 – 서울시 소개'
6	국제(회의)	6. 24.	생테티엔 비엔날레	프랑스 생테티엔 국제 디자인 비엔날레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및 서울시 사업 소개
7	국제(회의)	7. 16.	시네 파세이우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수상 기관 인터뷰 및 현장 답사
8	국제(회의)	7. 18.	쿠리치바 도시계획 연구소(IPPUC)	쿠리치바 도시계획연구소 소개 및 접수 가능 프로젝트 추천
9	국제(회의)	7. 18.	브라질 디자인센터 (CBD)	브라질 디자인센터 및 브라질 전반 디자인산업 소개
10	국제(회의)	7. 19.~ 7. 22.	유네스코 (산토스, 브라질)	제14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정례 회의 참석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 XIV Annual Conference) *주제 세션 발표 1회, 분과 회의 발표 2회
11	국내(회의)	8. 25.~ 8. 26.	대구, 음악	202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대구 국제포럼(해외 9개 도시) 서울디자인어워드 연사 섭외
12	해외(회의)	8. 25.	디자인도시	디자인분과 온라인 회의 참석/발표
13	해외(회의)	9. 15.	상하이, 디자인	2022 World Design Cities Conference – 유네스코 창의도시 써밋 발표
14	해외(회의)	9. 15.	두바이, 디자인	창조경제 국제 웨비나 참석
15	국내(회의)	9. 1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실무진 회의 참석
16	해외(회의)	9. 30.	WDO 본부	WDO 버추얼 네트워크 행사-버추얼 부스 운영
17	국내(회의)	10. 6.	원주, 문학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원주 '문학의 달' 국제포럼 참석(해외 2개 도시)
18	국내(회의)	10. 6.	광주, 미디어아트	2022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포럼 참석 (해외 6개 도시)
19	해외(회의)	10. 11.~ 10. 15.	카우나스, 디자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디자인분과 정례 회의 온라인 참석
20	해외(회의)	10. 25.	우한, 디자인	우한 디자인 데이 협력 기대 영상 제출
21	해외(회의)	11. 1.	하노이, 디자인	디자인 워크숍 참석 및 DDP 사례 발표
22	국내(회의)	11. 3.~ 11. 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주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워크숍 참석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디자인분과 온라인 회의)



제14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 회의 주제 세션 발표

[2022년 해외 기관 DDP 방문 목록]

연번	일자	방문 기관	방문 목적	구분
1	2. 23.	주한 프랑스 대사관 – 문화 참사관 (프랑스문화원 책임자 겸임)	신임 대표이사 방문 미팅	대사관
2	4. 29.	팀버튼 스튜디오	전시 홍보	전시
3	6. 30.	해외 언론인(일간지) 초청 - 3개국: 헝가리, 에콰도르, 라오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언론인 초청 행사 (서울의 주요 명소 취재)	매체
4	7. 25.	해외 언론인(방송사) 초청 튀르키예 국영 방송 TRT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언론인 초청 행사 (한국의 주요 촬영지 명소 취재)	매체
5	8. 22.	해외 언론인(주요 일간지) 초청 영국 가디언지 일요판 옵저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언론인 초청 행사 (서울의 주요 관광문화 명소 취재)	매체
6	9. 1.	IF 회장단 2인, 한국 지사장	서울시 디자인 동향 및 협력 방안 논의	디자인 기관
7	9. 7.	해외 언론인(주요 일간지) 초청 체코 최대 일간지 엠에프 드네스(MF DNES)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언론인 초청 행사 (한국의 주요관광문화 명소 취재)	매체
8	9. 14.	영국 공영 방송 BBC 다큐 촬영	다큐 시리즈 촬영: DDP 부감 촬영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중교통 역할 (서울교통의 우수성과 매력도시 서울 홍보)	매체
9	9. 16.	프랑스 J1채널 다큐 촬영	한국 디자인 건축물 촬영 - 대표이사 인터뷰 포함	매체
10	9. 22.	말레이시아 남쿠칭 시장단 8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벤치마킹	정부 기관
11	9. 30.	장 줄리앙	전시 홍보	전시
12	10. 13.	호주 브리즈번 부시장단 20인	DDP 벤치마킹 및 홍보	정부 기관
13	10. 18.	미국 투손(유네스코 창의도시. 미식) 창의지식재단 대표 1인	‘Bread of Creative Cities’ 프로젝트 논의	협력 기관







말레이시아 남쿠칭(유네스코 미식도시)
DDP 방문 회의

6-3-2. DDP멤버십

구분	서울디자인재단
담당	서울디자인재단 공간마케팅팀, 마케팅팀
사업 연도	2021 | 2022
예산명	디자이너 협력 프로그램 운영
분류 체계	디자인문화 확산 | 네트워크 | 기업 디자인 공공성 강화 | 교육 | 전문가/기관 디자인 공공성 강화 | 정보 | 포럼/세미나
키워드	#DDP멤버십 #멤버십라이브러리 #연회원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이용 고객의 확대와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새로운 멤버십 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했다. DDP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되어 DDP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고 알리며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고자 했다.

DDP멤버십의 운영 목적은 멤버십 가입자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각 분야 전문가들이 DDP를 네트워킹의 장으로 인식하고 자연스러운 협력과 시너지를 내는 플랫폼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멤버십 중장기 운영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9월에 신규 멤버십 서비스를 론칭했다. DDP멤버십은 유료, 무료, 일일 회원권으로 구성됐다. 유료 회원 가입비는 3만 5천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DDP멤버십 전용 공간 이용, DDP 전시 관람료 할인, DDP마켓과 DDP스토어 10% 할인, DDP 행사 소식 제공 등의 혜택이 포함됐다. 신규 회원 가입 시에는 특별 제작한 멤버십 웰컴 굿즈도 제공했으며,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멤버십과 제휴해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멤버십 서비스와 공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청년들은 무료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디자인을 통해 자기 계발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유료 회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멤버십의 날 등 멤버만을 위한 초청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11월에는 <DDP 디자인 시네마> 예약을 멤버십 대상으로 선 오픈했으며, 살림터(현 디자인랩) 1층 D-숲에서 열린 <생각을 만드는 디자인> 전시에 초청하고 회원 대상으로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기존의 크레아 멤버십을 토대로 혜택이 확대된 DDP멤버십을 시작해 DDP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청년 예비 디자이너를

[2021년 DDP멤버십 구성]

구분	대상	회원비	혜택
유료	누구나	35,000원	웰컴 굿즈 제공 전시, 교육 행사 일정 소식 제공 멤버십 전용 공간(크레아 팹워크 & 오픈라운지) 이용, 멤버패스 제공, 디자인장터 10% 할인, DDP디자인스토어 10% 할인(on-off) 전시 티켓 할인, DDP 입점 숍 5~10% 할인, 디키디키 입장료 10% 할인 및 카페 음료 20% 할인,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멤버십 제휴
무료	만 18~25세	-	
일일	누구나	10,000원	

DDP 잠재 고객으로 새롭게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에는 2021년 하반기 멤버십 운영 내용을 기반으로 DDP멤버십을 확대 운영하고 안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멤버십 전용 공간을 회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멤버십 서비스를 개편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먼저 디자인랩(구 살림터) 2층 라운지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개방하고 기존 멤버십라운지에 디자인 전문 서적 3,600여 권을 비치해 '멤버십 라이브러리'로 리뉴얼했다.

2022년에는 청년 대상 무료 멤버십을 폐지한 대신, 멤버십 혜택의 수준을 높였다. 개인 회원 연회비는 2021년과 동일하게 3만 5천 원이었다. 멤버십 전용 공간 이용 외에도 전시·행사·쇼핑 등 DDP의 다양한 정보와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DDP에서 열리는 유료 전시를 동반인 1인 포함 5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개편과 함께 DDP멤버십 홈페이지(www.ddpmembership.kr)를 개설해 개인 멤버십 회원 가입과 연회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멤버십 내규와 약관을 제정해 개인 정보 관리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했다. 오프라인으로는 DDP 디자인랩 2층에서 가입 신청을 받았다. 8월 31일에는 멤버십 대상으로 <시작된 미래> 전시와 연계해 건축, 디자인, 인터페이스, 미디어아트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 프로그램 <현실 같은 가상, 가상 같은 현실-리버랜드 메타버스 중심으로>를 운영했다. 11~12월에는 라이프 디자인(「요즘 것들의 사생활」 작가 이혜민), 퍼스널 디자인(「당신은 이미 브랜드입니다」 작가 김영욱), 브랜딩 디자인(「위어드 피플」 기획자 남윤주), 콘텐츠 디자인(매거진 「아레나」 편집장 이주영)을 주제로 멤버십 대상 북토크를 총 4회 개최했다.

DDP멤버십은 9월 홈페이지 오픈 이후 본격적으로 회원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12월 말 기준 438명이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다.



DDP멤버십 홈페이지 화면

[2022년 DDP멤버십 혜택]

지정 전시·행사 입장 할인	지정 유료 전시 및 행사 티켓 구매 시 최대 50% 할인 혜택 * 전시·행사별 할인율 적용, 현장 구매 시 사용 가능, 기타 할인 서비스와 중복 적용 불가
DDP 입점 제휴 매장 10% 할인	식당, 카페, DDP디자인스토어 등 제휴 매장 10% 할인 혜택 * 제휴 매장별 혜택 내용 상이. 제휴 매장 내 기타 할인 서비스와 중복 적용 불가
멤버십 대상 프로그램	디자이너의 영감과 인사이트를 전하는 멤버십 대상 프로그램 무료 참여 * DDP멤버십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신청' 탭에서 선착순 예약
멤버십 라이브러리 이용	3,600여 권의 디자인 전문 서적이 있는 라이브러리 자유롭게 이용
웰컴 굿즈 제공	DDP멤버십만의 특별한 가입 선물 * 멤버십 가입 선착순, 현장 방문 시 수령 가능
DDP 소식·이벤트 안내	문자(SMS) 서비스 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DDP멤버십 소식 전달

DDP멤버십 홈페이지

*출처: www.ddpmembership.kr



멤버십 카드



멤버십 라이브러리 행사



멤버십 웰컴 굿즈

주요 성과

연구

서울디자인재단은 다양한 주제의 연구 과제를 추진하며 국내외 디자인정책 환경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디자인 영역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서울비전 2030' 정책 목표와 연계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자인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조직 내의 수요와 시대 변화와 시정 방향 변화를 반영해 실효성 높고 실행력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보고서 발간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DDP포럼과의 연계 등 연구 결과를 확산하는 활동을 진행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었다. 재단은 2022년에 구축한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재단 사업화를 고려한 선행 연구를 추진해 연구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디자인사업 연구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비전 및 정책 목표, 전략(안)

디자인 정책 비전

INTELLIGENT DESIGN SEOUL ++

디자인이 만들고 시민이 누리는 똑똑한 디자인 서울,
미래 공감 시민 체감의 디자인 서울

디자인 정책 목표

함께 참여하고 해결하는 디자인 상생도시	디자인을 통한 글로벌 선도의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	시민 모두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도시공간 디자인	미래 지속 가능한 디자인 감성도시

디자인정책 추진 전략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공공서비스 개선과 시민 체감의 디자인 서비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디자인	시민 행복을 위한 도시 경험 기반 구축
미래 융합 디자인 생태계 및 네트워크 구축	서울 특화 디자인 산업 육성의 비즈니스 서비스	미래 혁신 도시 비전 및 디자인 역량 강화	미래 혁신 경험을 위한 창의공간 DDP

교육

재단은 현업 디자이너들이 교육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교육 콘텐츠를 질적으로 향상시켰으며, 디자인 생태계를 확장하고 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서울 디자인교육 콘텐츠 플랫폼 운영의 선순환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특히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가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 아닌 '디자인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과 태도'를 배운다는 점에서 디자인교육을 전환했다는 의미가 있다. 재단은 디자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하면서 차별화된 디자인교육 콘텐츠를 확산해 나가고, 디자인교육에 미래 디자인 기술을 적극 반영해 미래세대에게 필수적인 교육 과정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네트워크

재단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국제적인 디자인 어워드를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재단의 글로벌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디자인 도시 서울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 또한 멤버십 제도를 운영해 DDP를 자주 이용하는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디자이너 간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이라는 DDP의 토대를 다졌다. 향후에도 멤버십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DDP 사업과 멤버십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분류 체계 | | | 서울디자인백서 | | |

[부록] 2021-2022 DDP 전시 타임라인

구분		2021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1월
뮤지엄	전시2관 (디자인 박물관)		(온라인) 우먼 인 디자인 2021. 3. 31.~ 5. 20.					2021 서울도시 건축비엔날레 2021. 9. 16~10. 31.		언폴드X 2021. 11. 15.~28.			구찌 가든 아키타이프 2022. 3. 22. ~4. 10.		시작된 미래 2022. 5. 26.~9. 18.					Opposites United 2022. 9. 26.~ 10. 24.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디자인 <팬데믹 × 디자인 + 미래> 2022. 11. 15.~ 2023. 2. 12.		
	전시1관 (디자인 전시관)	teamLab: LIFE 2020. 9. 25.~2021. 8. 22.								살바도르 달리 2021. 11. 27~2022. 4. 3.					팀 버튼 특별전 2022. 4. 19.~ 9. 5.					장 줄리앙 회고전 <그러면, 거기> 2022. 10. 1.~2023. 1. 8.			
	디자인 둘레길							2021 서울도시 건축비엔날레 2021. 9. 16.~10. 31.		만화×영화 – 홍콩 만화 애니메이션전 2021. 11. 10.~28.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특별 전시회 2021. 12. 3.~13.		구찌 가든 아키타이프 2022. 3. 22. ~4. 10.							상명대 스페이스 디자인 2022. 10. 22.~30.	한국디자인학회 2022. 11. 12.~18.	TELE+VISION 내일의 기억 2022. 11. 30.~2023. 5. 31. KSVD: 1972~1993 2022. 12. 10.~2023. 2. 9.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2. 11. 3.~10.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22. 11. 4.~10.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22. 11. 18.~23.	한국색채학회 2022. 12. 6.~9. VIDAK 2022. 12. 3.~11. 카이스트 2022. 12. 17.~26.	한국상품디자인학회 2023. 1. 13.~20.
	둘레길 갤러리 (DDP 기록관)									오픈 큐레이팅 vol.19 디지털 웰니스 스파 2021. 11. 9.~ 12. 9.							오픈 큐레이팅 vol.22 가장 조용한 집 2022. 7. 11.~ 8. 15.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2022. 9. 15.~10. 2.	오픈 큐레이팅 vol.23 도시락 리부트 2022. 10. 6.~ 11. 8.			오픈 큐레이팅 vol.25 매혹의 언어 2022. 11. 18.~ 12. 31.	
	디자인 갤러리 (D-8)												집합 이론 2021. 12. 23.~ 2022. 4. 24.	패밀리 팝업전 2022. 5. 7.~ 7. 3.		우리를 매혹시킨 20세기 디자인 2022. 7. 8~ 8. 21.	Spectrum of Seating 2022. 9. 2.~ 10. 2.		DDP, Fashion and You 2022. 10. 7.~12. 4.		진달래 & 박우혁: 코스모스 2022. 12. 9.~2023. 3. 26.	
디자인 랩	D-숲	스프링가든 in D-숲 2021. 3. 16.~24.	케이팝× 한복 2021. 4. 13.~25.		마리쿠테 알파벳 탐험전 2021. 6. 4.~7. 4.			집의 대화: 조병수× 최욱 2021. 9. 2.~10. 3.		생각을 만드는 디자인 2021. 11. 11.~24.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특별 전시회 2021. 12. 3.~13.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전시 2022. 2. 15.~9. 27.					CITY FLOWER CAMPING 2022. 9. 30.~ 10. 9.	미래의 빛, 마르코 로돌라 2022. 10. 10.~2023. 1. 29.		
											크리스마스 가든 in D-숲 2021. 12. 19.~ 2022. 1. 9.									서울디자인어워드 2022. 10. 24.~11. 28.		서울디자인 대학생 워크숍 전시 2022. 12. 2.~10.
																					(데크라운지) HELLO, CREATORS! 2022. 11. 23.~12. 22.		
공원	갤러리 문	오픈 큐레이팅 vol.16 Recycling Oriented Society 2021. 3. 19.~4. 16.		이탈리아 공예유람전 2021. 5. 21.~ 6. 13.	오픈 큐레이팅 vol.17 그리고, 마당! 2021. 6. 25.~ 7. 25.		박수근 미술상 임동식전 2021. 8. 7.~ 9. 5.	오픈 큐레이팅 vol.18 진정한 집으로의 여정 2021. 9. 17.~10. 17.		리퍼블릭 오브 컬러 2021. 11. 2.~28.	오픈 큐레이팅 vol.20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곳 2021. 12. 16.~ 2022. 1. 23.		오픈 큐레이팅 vol.21 Material Collective 2022. 2. 11. ~5. 8.	제3회 휴먼시티 디자인어워드 전시 2022. 6. 10.~7. 4.		우리를 매혹시킨 20세기 디자인 2022. 7. 8.~ 8. 21.	미래의 빛, 마르코 로돌라 2022. 9. 5.~ 10. 9.	오픈 큐레이팅 vol.24 0TOX 2022. 10. 24.~12. 5.		오픈 큐레이팅vol.26 비욘드더시티 2022. 12. 14.~2023. 1. 15.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2020. 12. 8.~2021. 2. 14. 2단계 적용 2021. 2. 15.~7. 14.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격상 2021. 7. 21.~10. 31.		단계적 일상 회복 2021. 11. 1.~ 12. 5.	방역패스 의무 적용 2021. 12. 18.~ 2022. 2. 28.		방역패스 적용 중단 2022. 3. 1.	거리두기 의무화 해제 2022. 4. 18.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2. 9. 26.					

일러두기

「서울디자인백서 2021-2022」는 '서울디자인' 전반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관련 성과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2년간의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구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과 서울디자인재단의 서울디자인 정책과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 안내

백서 작성 범위에 해당하는 2021년과 2022년은 전례 없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시작해, 7월 12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과 12월 방역패스 의무 적용, 2022년 3월 방역패스 적용 중단에 이어 4월 18일 새로운 일상을 위한 거리두기 의무화 해지 및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가 이뤄지기까지, DDP와 서울새활용플라자 등의 운영 시설은 단계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휴관과 인원 제한, 사전 예약제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4월 이전까지는 방역 수칙의 단계별 준수에 따라 취소된 행사도 많았으며 각종 전시와 행사, 프로그램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며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본 백서에 기록된 방문객 수 등의 성과에 관한 정량적 수치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임을 감안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서 이용 안내

· 본 백서는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로 구성되었으며, 대목차는 주요 배경과 사업별 주요 내용, 주요 성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목차 구분 기준은 「2014 서울디자인백서」를 따랐으며, 시대 및 서울디자인 사업 영역 변화에 따라 일부를 수정해 적용했습니다.

·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의 각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색(서울시는 빨간색, 서울디자인재단은 파란색)으로 전체 목차에 표시했습니다.

· 각 소목차 상단에는 각 사업별 기본 정보를 수록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서울시 조직명은 2022년 8월 조직 개편 결과를 반영해 이를 기준으로 표기했으며, 2021년 진행 사업에는 구 조직명을 표기했습니다.

· 이 중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에만 적용된 분류 체계 정보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2022년 진행한 <2022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사업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 분류 체계 적용 결과는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표로 만들어 부록에 실었습니다.

· 2022년 7월 DDP 세부 시설과 공간 명칭 변경 결과를 반영해 이를 기준으로 표기하고 구 명칭은 병기했습니다.

· 사업별로 결과보고서, 발간물, 웹사이트, 동영상 등을 제작한 경우 QR코드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본 백서의 온라인판은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www.seouldesign.or.kr) 아카이브 등에 게시됩니다.

주관
(재)서울디자인재단

총괄 기획
신윤재 디자인R&D센터 센터장
이소연 디자인전략팀 팀장
남상훈 디자인전략팀 책임
이경화 디자인전략팀 선임

기획 및 집필
협동조합 내일만사
임소형 연구원
전민정 연구원

자문위원
강현주 인하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교수
김상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센터장
장영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과 교수
주정희 (사)한국색채학회 이사

자료 협조
서울특별시, (재)서울디자인재단 각 사업 담당자

교정/검수
코너스톤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인쇄
코너스톤 크리에이티브

서울디자인백서 2021-2022

2022년 12월 30일 초판 인쇄
2022년 12월 30일 초판 발행

주관
서울디자인재단

발행인
이경돈

발행처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7~9층
www.seouldesig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디자인재단에 있으며
무단 전재나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활용 시 재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
ISSN 2982-7108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51-B552461-000011-01

